

동학농민혁명 연구

제 4 호 2025년 5월

pISSN 3022-2435

eISSN 3022-3873

특집논문 | 세계기록유산과 남원

김양식 | 세계기록유산으로 본 남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전개과정

- 『순교약력』과 『남원종리원사』를 중심으로 -

성주현 | 김동규 기증 유물로 본 남원지역 천도교

일반논문

신진희 | 경상도 의흥지역 동학농민군 활동

김현선 | 자운(紫雲) 이중구(李中久)의 시선으로 본 ‘동학농민혁명’

- 『이중구가 오대 고문서(李中久家 五代 古文書)』 자료의 소개를 중심으로 -

이병규 |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 고증과 문화유산 지정방안

홍성덕 |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정비 · 활용방안

서 평

유바다 | 농민전쟁을 넘어 어셈블리로

- 『1894년 남북집 동학군의 공주 점거투쟁』(지수걸, 2024, 역사비평사)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 학 농 민 혁 명 연 구 소

pISSN 3022-2435
eISSN 3022-3873

동학농민혁명 연구

제 4 호

2025년 5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동학농민혁명 연구

제4호

2025년 5월

목 차

▣ 특집논문 ▣ 세계기록유산과 남원

김양식	세계기록유산으로 본 남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전개과정 - 『순교약력』과 『남원종리원사』를 중심으로	3
성주현	김동규 기증 유물로 본 남원지역 천도교	37

▣ 일반논문 ▣

신진희	경상도 의흥지역 동학농민군 활동	69
김현선	자운(紫雲) 이중구(李中久)의 시선으로 본 ‘동학농민혁명’ - 『이중구가 오대 고문서(李中久家 五代 古文書)』 자료의 소개를 중심으로 -	99
이병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 고증과 문화유산 지정방안	145
홍성덕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정비·활용방안	189

Journal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Vol.4

2025. May

■ 서 평 ■

- 유바다 농민전쟁을 넘어 어셈블리로
- 『1894년 남북집 동학군의 공주 점거투쟁』(지수걸, 2024,
역사비평사) - 229

■ 부 록 ■

- 연구소 소식 247
위원회 명단 255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발간 규칙 257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윤리 규칙 280
연구소 발간 자료 287

▣▣▣ 특집논문 ▣▣▣

세계기록유산과 남원

세계기록유산으로 본 남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전개과정
- 『순교약력』과 『남원종리원사』를 중심으로 -
김양식

김동규 기증 유물로 본 남원지역 천도교
성주현

세계기록유산으로 본 남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과 전개과정*

- 『순교약력』과 『남원종리원사』를 중심으로 -

김양식**

〈목 차〉

머리말

I. 남원 세계기록유산 『순교약력』과 『남원종리원사』의 기록물 검토

II. 세계기록유산으로 본 남원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2023년에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185건 가운데 남원지역과 관련된 『순교약력』과 『남원종리원사』이 생산된 배경과 그 내용을 살펴본 뒤, 두 기록물 내용을 중심으로 남원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전개과정을

* 이 논문은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가 주최하고 남원문화원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주관한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남원학술대회(2024. 10. 23)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소장

살펴보았다.

『순교약력』은 남원 동학인 총 91명에 대한 성명 및 약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기록물이다. 특히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1894년에 사망한 이들에 관한 기록이다. 동학농민혁명기에 사망한 42명 가운데 둔덕면과 산동면 출신이 각각 7명과 11명으로, 이 두 지역이 남원지역의 동학 확산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의 중심지였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연령층은 30~40대가 가장 많으며, 사망 시기는 거의 모두 정부군과 일본군이 남원을 떠난 12월 5일 이후에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이는 2차 동학농민혁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문제의식이 요구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남원종리원사』 부록으로 있는 「남원군 동학사」는 1924년 10월 22일 동학농민혁명기 동학 지도자였던 원로 유태홍의 구술을 남원군 주임 종리사 최병현이 기술한 것으로, 1861년에 수운 최제우가 남원에 온 사실부터 1904년 일진회사건까지 44년의 남원지역 동학 역사를 정리하고 있지만, 전체 분량의 60% 정도가 갑오년 남원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그 이유는 동학농민혁명을 중심으로 남원 천도교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정립하고자 한 것이다.

그를 위해 「남원군 동학사」는 1861년에 수운 최제우가 남원에 두 차례 방문한 점, 1892년 삼례 동학집회, 1893년 1월 광화문 복합상소, 1893년 3월 금구 원평 및 보은집회에 적극 참여한 사실 등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전주화약 이후 집강소가 설치되면서 남원에 김개남이 5영을 설치한 사실, 11월 14일 방아치전투, 11월 28일 남원성 퇴각 등에 관한 새로운 사실 등을 담고 있다.

다만, 「남원군 동학사」는 남원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사실은 소략하게 기술되어 있고 착종되거나 내용상의 오류가 일부 있어 사료 내적 비판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군 동학사」는 동학농민군 입장에서 기록되어 있어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남원 출신 동학농민군들이 어떻게 죽어갔고, 설령 생존하였어도 얼마나 힘든 삶을 이어갔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 남원 동학농민혁명, 순교약력, 남원종리원사, 방아치전투, 유태홍

머리말

2023년에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185건에는 남원군 종리원에서 생산한 『순교약력(殉敎略歷)』과 『남원종리원사(南原宗理院史)』가 있다. 이들 자료는 남원 대접주 김홍기(金洪基, 1856-1895)의 4대손인 김동규(金東圭)가 소장하고 있던 기록물을 1995년에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김홍기는 1856년 10월 9일 남원부 둔덕방 탐동리(현 임실군 오수면 신기리)에서 태어났다.

이 두 자료는 남원지역에 동학이 확산되는 일련의 과정과 남원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수세력에 의해 체포·처형당한 동학농민군의 이력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특히 이들 자료는 남원 동학농민혁명에 직접 참여한 유태홍(柳泰洪)의 진술을 남원군 종리사 최병현(崔炳鉉)이 각각 1923년과 1924년에 정리한 것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기억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때문에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할 때 중요 기록물로 선정한 것이다.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두 기록물의 서지사항은 <표 1>과 같다.

『순교약력』과 『남원종리원사』는 1995년에 공개된 이후 『영상일기(嶺上日記)』·『갑오약력(甲午略歷)』·『박봉양경력서(朴鳳陽經歷書)』 등과 함께 남원지역 동학, 동학농민혁명, 천도교 연구에 활용되어 남원지역의 동학농민혁명사 연구를 풍부하게 하였다. 그렇지만 기록유산 차원에서 이들 기록물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기록물이 어떠한 시대적 배경하에서 생산되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기록물의 성격과 가치를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를 통해 남원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전개과정을 새롭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세계기록유산 『순교약력』과 『남원종리원사』 서지사항

기록명		저자	연도	분량	재질	크기	형태	내용
순교 약력	殉敎 略歷	최병현	1923	1책 61면	한지	16×24	도서	동학농민혁명에 직접 참여한 유태홍의 진술을 남원군 종리사 최병현이 1923년 정리한 자료로, 남원 동학농민군의 활동 현황을 알 수 있음
남원 종리 원사	南原 宗理 院史	최병현	1924	1책 47면	한지	17× 24.5	도서	동학농민혁명에 직접 참여한 유태홍의 진술을 1924년 남원군 주임 종리사 최병현이 기술하여 정리한 자료로, 남원 동학농민혁명사를 알 수 있음

I. 남원 세계기록유산 『순교약력』과 『남원종리원사』의 기록물 검토

1. 『순교약력』의 생산과 내용

『순교약력』은 표제목이 ‘포덕 64년 3월 일 순교약력’으로 되어 있고 표지 포함 총 56면으로 되어 있는 필사본이다. 1923년 3월에 간행되었다. 목차는 1923년 3월 9일 남원군 종리원 주임 종리사(宗理師) 최병현이 작성한 위령문(慰靈文)을 실은 뒤, 1923년 3월 1일 작성된 ‘남원군교구 순교인 성명’ 명단 42명과 ‘근성교무 중 환원인 성명’ 명단 49명을 게재한 뒤 총 91명에 대한 성명 및 약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

다.¹⁾ 눈에 띄는 점은 문서 생산시기가 다른 점이다. 명단 작성은 1923년 3월 1일, 위령문 작성은 1923년 3월 9일로, 생산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록물이 생산된 직접적인 계기는 1923년 3월 10일 있었던 천도교 남원교구의 ‘갑오 이래 순교인의 위령식’이었다. 남원교구는 당일 ‘제1세 교조 환원 기도식’을 가진 뒤 위령식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남원교구 종무사 이강전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감상담을 이야기하고, 『순교약력』을 작성한 남원교구 서무원 최병현은 순교인의 약력을 낭독하였다.²⁾ 따라서 『순교약력』에 수록된 문건들은 3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순교인 위령식을 위해 3월 1일 42명의 순교인과 47명의 환원인 명단을 작성하고 8일 뒤인 3월 9일에 위령문을 각각 차례로 작성한 것이다.

순교인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사망한 인물들이고, ‘근성교무 중 환원인’은 동학농민혁명 이후 남원지역 동학 및 천도교 활동을 열심히 하다 1923년 1월 이전에 사망한 인물들에 대한 약력이다. 이는 단순히 1923년 이전 남원지역 동학 및 천도교 인물에 대한 기록정보를 넘어서, 동학농민혁명 이래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노력을 통해 발전해 온 천도교 남원교구의 뿌리와 정통성을 확인한 것이다.

특히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갑오년에 사망한 이들에 관한 기록이다. 여기에는 김홍기, 박중래(朴仲來), 황내문(黃乃文) 등 남원지역 유명접주들의 출생, 거주지, 동학 입교시기, 연원, 지위, 활동내용, 체포과정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표 2>와 같다.

1) 『순교약력』에서 정리된 명단은 순교인 42명과 환원인 45명 총 87명이나, 실제 약력이 작성된 명단은 순교인 42명과 환원인 49명 총 91명이 정리되어 있다.

2) 『동아일보』, 1923년 3월 19일, 남원 천도교구의 기도식.

〈표 2〉 동학농민혁명기 남원지역 순교자 현황

성명	출생		연원	동학 입도	직위	체포	사망
	지역	연도					
김홍기	둔덕면 탑동리	1856	최찬국 (장인)	1888	대접주	겨울 민포에게 체포	1895.2.14. 남원장터 포형
최진악	지사면 안하리	1846	김재홍		접주	12.12. 민포에게 체포	오수장터 포형
김낙기	둔덕면 탑동리	1853	김홍기	1890	접주		1895.2. 동생 죽음에 화병, 병사
강윤희	임실군 신평면	1842	김홍기	1890		진산에서 민포에게 체포	포살
김영기	둔덕면 탑동리	1845	김홍기	1891	접주	12월 이덕흠에게 체포	1895.2.28.옥중 장독사
임익삼				1891		12.12. 민포에게 체포	오수장터 포살
이창우	둔덕면 우번리	1859	김홍기	1891		겨울 체포	독형을 당한 뒤 계속 지목을 받아 1895.5.16. 자결
김종문	둔덕면 탑동리	1880	김홍기	1893			아버지 포형에 화병, 병사
이기면	둔덕면 신기리	1853	김홍기	1890	접주	겨울 체포	엄형 뒤 장독으로 1896.3.23. 병사
김해중	덕고면 후리	1851	김홍기	1890		겨울 민포에게 체포	12.12. 오수장터 포형
김연호	덕고면 후리	1857	김홍기	1890	접주	겨울 장수 이광언에게 체포	장수읍 장터에서 포형
심노환	장흥면 조산리	1855	이규순	1892	접주	12.15. 민포에게 체포	남원장터 포형
전태옥	지사면 기산리	1860	강윤희	1889	접주	12월 민포 박진무에게 체포	12.14. 남원장터 포형
변흥두	덕고면 배산리	1858	김낙기	1893	접주	겨울 민포에게 체포	오수장터 포형
이규순	서봉면 화산리	1868		1892	수접주	겨울 민포에게 체포	1895.2. 남원장터 포형
정동훈	견소곡면 옥전리	1861	김홍기	1890	접주 집강	12월 민포 서순지에게 체포	남원장터 포형

성명	출생		연원	동학 입도	직위	체포	사망
	지역	연도					
김현숙	변암면 북치리	1856			접주	겨울 민포에게 체포	변암장터 처형
하치구	두동면 장포리	1861		1890			중형 뒤 계속 핍박, 근심을 이기지 못하고 약을 먹고 자결
유시도	백파면 과리	1872	유태홍	1891			1895.3. 민포에게 매맞은여독으로 고생하다 1900.6.7. 사망
박중래	산동면 부절리	1860		1892	집강 접사	1895.1. 운봉 민포에게 체포	운봉 장터에서 포형
박경협	산동면 부절리	1862		1893		민포 박문달에게 체포	12.16. 운봉 관암리에서 포형
김춘영	산동면 부절리	1859				민포 박문달 부하에 체포	변암면 원촌장터 포형
최도준	산동면 부절리	1861		1893		민포에게 체포	12.9. 원촌장터 포형
최경현	산동면 부절리	1848		1893		민포에게 체포	12.10. 원촌장터 포형
이병우	산동면 부절리	1833		1891	교장		동학 두려움으로 병이 생겨 1903.6.28. 사망
김부철	산동면 부절리	1865				운봉 민포에게 체포	남원읍에서 참형
소화숙	상원천면 회동리	1856		1893	접주 교장	운봉 민포에게 체포	12월 운봉장터 참형
안재언	산동면 대치리	1868				민포에게 체포	남원장터 포형
이동기	산동면 대리	1874		1893			12.17. 관암치에서 민포에게 포형
양주칠	산동면 대기리	1856		1894	도성찰		12.20. 남원장터 민포에게 포형

성명	출생		연원	동학 입도	직위	체포	사망
	지역	연도					
최성좌	지사면 주암리	1865		1894		민포 이성흥에게 체포	12.10. 포형
황내문	서면 매암리			1891	대접주	12.9. 민포에게 체포	12.10. 포형
오한복	말천면 목지리			1893		민포에게 체포	12.10. 포형
권이갑	둔덕면 관월리		이기동		포사		11.14. 고남산에서 민포에게 포형
이사명	진안군 백운면			1892	접주	겨울 민포에게 체포	12.9. 오수장터 포형
정규봉	오지면 화촌리					민포에게 체포	12월 평당리에서 포형
정극중	전소곡면 옥전리		김흥기		접주	민포에게 체포	12월 남원장터에서 포형
장남두	산동면 이동리		김흥기	1894	도성찰	겨울 민포에게 체포	12월 남원장터에서 포형
양주신	구례군 광의면		하동 임정연	1893		접주 혐의로 경군대장에게 구례에서 체포	12.12. 참형
이치년	구례군 광의면		하동 임정연	1890		무고로 경군에게 체포	12.13. 구례 남문 밖 포형
표명무			유태홍	1894		12월 민포에게 체포	남원장터에서 포형
이응삼	갈치면 식정리				수접주	민포에게 체포	12월 남원장터에서 포형

*자료: 『순교약력』.

〈표 2〉에서 사망자(이하 순교자) 42명의 지역별 분포는 구례와 임실에서 출생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38명의 출생지는 모두 남원지역으로, 그 가운데 둔덕면과 산동면 출신이 각각 7명과 11명이다. 이것으로

보아 남원지역의 동학 확산과 동학농민혁명 참여는 둔덕면과 산동면 주민이 주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둔덕면은 김홍기가 친인척을 적극 동학에 가입시켜 활동한 결과 김홍기가 살던 탑동리 출신이 둔덕면 7명 가운데 4명이나 된다. 장인 최찬국으로부터 1888년에 동학을 전수받은 김홍기는 그 이후 동생, 아들, 사촌, 조카 등에게 동학을 전수한 대접주였다. 갑오년 이전에 김홍기로부터 도를 받아 동학 활동을 한 인물은 『순교약력』에 기록된 91명 가운데 17명이나 될 정도로, 김홍기를 연원으로 한 동학의 인적 네트워크가 남원지역 동학의 중심 조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순교약력』에 기록된 91명 가운데 김홍기가 살던 둔덕면 출신이 20명이나 되고 그 가운데 7명이 탑동리 출신이다.

반면에 산동면은 11명 가운데 부절리 출신이 7명이나 될 정도로 부절리가 중심지였으나, 동학농민혁명 이후 지극 정성으로 활동한 동학도인은 1명 밖에 없었다. 이것으로 보아 둔덕면은 강한 친족기반을 배경으로 갑오년 이후에도 동학의 명맥을 이어간 반면, 산동면은 동학농민혁명기에 참화를 입은 다음 동학의 명맥이 사실상 단절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순교자들의 나이는 1830년대생이 1명, 1840년대생이 4명, 1850년대생이 12명, 1860년대생이 10명, 1870년대생이 2명, 1880년대생이 1명이었다. 이것으로 보아 순교자들은 대부분 30-40대의 젊은 나이였다. 이들은 1890-1893년에 집중적으로 동학에 입도하였다. 김홍기가 1888년에 동학을 장인으로부터 전수받은 이후 1890년부터 적극적으로 동학을 확산시켰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김홍기를 연원으로 한 순교자가 42명 가운데 11명이나 되었다(미상자 제외).

이들 순교자가 동학농민혁명기에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주로 체포와 사망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어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거의 모두 1894년 12월경 민포, 즉, 민보군에게 체포되었다.

남원지역은 1894년 8월 25일 남원 동학농민군대회 이후 동학농민군이 완전 장악한 해방구였으나, 상황이 역전되는 것은 11월 14일 이후부터이다. 남원 토착 대접주이자 최대 동학조직을 거느린 김흥기, 담양의 남응삼, 남원의 관노 김원석, 임실 접주 최승우 등이 이끄는 남원 동학농민군 수천명은 운봉을 점령하기 위해 11월 13일 산동면 부동마을 방향으로 이동하여 주둔하였다(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이에 맞서 박봉양이 이끄는 운봉 민보군은 11월 14일 새벽 2시경 2천명의 병력을 방아치 일대에 배치하였다. 드디어 11월 14일 4시경부터 다음날 8시경까지 벌어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결과, 동학농민군은 큰 타격을 입고 남원성으로 되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11월 14일 전투지가 방아치인지 관음치인지는 기록물마다 상이하다. 남원 유생 김재홍이 기록한 『영상일기』와 전투의 당사자인 박봉양이 작성한 『박봉양경력서』에는 관음치로 되어 있고, 구례에 살던 매천 황현이 기록한 『오하기문』에는 방아치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기록물마다 전투지가 다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방아치와 관음치가 고남산과 방학산성 사이에 있는 고갯길로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혼동한 것이거나, 아니면 전투가 관음치와 방아치에 걸쳐 광범위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표현상의 차이로 보인다. 그 단적인 증거로 『순교약력』에 의하면, 11월 14일 당일 권이갑이 고남산에서 박봉양군에게 총맞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실제 전투는 넓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전개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차후 현장 조사와 함께 정밀한 문헌 고증이 요구된다.

이렇게 1박2일에 걸친 방아치전투에서 패한 동학농민군이 후퇴해 남원성으로 되돌아오자, 박봉양은 민보군을 이끌고 11월 28일 주천면 솔치를 넘어 남원성을 포위한 뒤 남문과 서문에 불을 지른 뒤 동문으로 진입하였다. 성을 지키던 화산당 접주 이문경과 오수 접주 김흥기, 임실 접주 최승우 등은 성문이 불타고 민보군이 밀려들자 북문(남원시 동충동 197-66, 구 남원역 광장)으로 퇴각하여 흩어지었다. 이 과정에서 동

학농민군 30여 명이 죽고 100여 명이 사로잡혔다.³⁾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11월 28일 박봉양이 지휘하는 민보군의 남원성 점령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비류(匪類)가 일제히 성에 들어올 때에 운봉(雲峯)의 의병장인 주서 박문달(朴文達)이 의병 500~600명을 인솔하여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우선 동문·서문·남문에 불을 질러 적으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게 하고, 북문만을 열어 적이 도망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문 밖에 수 백보 되는 산의 양쪽 요충지에 총을 가진 군사를 매복시켰습니다. 성을 에워싸고 함성을 지르며 성안을 향해 포(砲)를 쏘니, 적이 흩어져서 ‘북문으로’ 도망쳤습니다. 북문 밖에 매복한 병사들이 ‘북문으로 빠져나오는’ 적을 향해 총을 난사하여, 쏘아 죽인 자가 50~60명이었고 사로잡아 죽인 자가 10여명이었습니다.(『양호우선봉일기』, 갑오 12월 3일자).

이렇게 11월 28일 전세가 역전되자, 박봉양이 이끄는 남원 민보군은 동학농민군을 찾아내 함부로 죽이고 약탈을 일삼았다. 남원 유생 김택주·오주영 등은 남원성이 함락되자 민보군 수백명을 이끌고 남원성에 들어와 동학농민군 수색에 앞장을 섰다.

이런 상황에서 12월 3일 이두황이 이끄는 장위영군이 미나미쇼시로가 이끄는 일본군과 함께 남원성에 도착하였다. 이두황부대는 남원에 2일 머문 뒤 12월 5일 미나미의 지시에 따라 남원을 떠나갔다. 이 과정에서 박봉양의 만행이 이두황과 미나미에게 보고되어, 박봉양은 12월 5일 일본군 총대장 미나미의 편지를 받고 12월 7일 나주로 향하여 12월 11일 나주 감옥에 투옥되었다.

이렇게 박봉양이 이끄는 민보군을 비롯해 일본군과 정부군이 남원을 떠나가자, 남원의 통제권은 사실상 남원 민보군에게 넘어갔다. 11월 28일

3) 「朴鳳陽經歷書」, 『동학란기록』 하.

이후 전세가 역전되자, 숨 죽이고 있던 남원지역 보수유생층은 민보군을 조직해 동학농민군 토벌에 앞장을 섰다. 이들은 12월 3일 일본군과 정부군이 남원성에 진주한 이후 더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들이 조직한 남원 민보군은 이색의가 수성토통찰, 황영이 중통령, 김태주가 통령, 양한규가 수성중군 등을 맡아 흩어진 동학농민군을 수색 체포하여 처형하는데 앞장을 섰다.⁴⁾

남원 민보군은 동학도들을 찾아내 감옥에 가두고 온갖 악형을 자행하고 끝내 총을 쏘아 죽였다. 그래서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42명 대다수는 정부군과 일본군이 남원을 떠난 12월 5일 이후에 체포되어 남원장터, 오수장터, 운봉장터 등지에서 처형되었다. 더욱이 1895년 2월에도 처형된 인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남원 민보군의 활동은 겨울 내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갑오년 겨울 남원장터 등지에서 처형되지 않았을지라도, 일부는 감옥에서 장독으로 죽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체포된 동학농민군은 감옥에서 모진 고문에 시달렸음을 알 수 있다. 다행히 일부는 출옥하였지만, 이후에도 동학 지목이 심해 병사하거나 자결한 예도 있었다.

이창우는 독형을 당한 뒤 지속적으로 핍박을 받아 1895년 5월에 자결하였고, 이기면은 출옥 뒤 장독으로 고생하다 1896년 3월에 병사하였다. 유태홍의 친동생 유시도는 1895년 3월 뒤늦게 민보군에게 매를 맞아 여독으로 1900년 6월에 사망하였다. 산동면 부절리에 살던 이병우는 동학 두려움으로 병이 생겨 1903년 6월에 사망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남원지역 토착 동학도들은 동학농민혁명 이후 다행히 살아 남았어도 계속 된 핍박과 혐의를 받아 고통의 나날을 보내다 세상을 등지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살아 남은 동학도들도 서로 피해 다닐 정도로 역적의 무리로 몰려 숨어지내야만 하였다.⁵⁾

4) 『남원지』, 1960, 323쪽. 박찬승, 1995, 「1894년 농민전쟁기 호남지방 농민군의 동향」,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새길, 77쪽.

다만, 특이한 사례는 구례 광의면 출신인 양주신과 이치년의 사례이다. 이들은 하동의 임정연으로부터 동학을 전수받았는데, 경군(京軍)에게 체포되어 죽음을 맞이하였다. 경군은 바로 이두황이 이끄는 장위영군이다. 이두황부대는 12월 3일, 12월 5일 미나미의 지시에 따라 12월 5일 남원성을 출발해 순창·곡성을 거쳐 12월 9일 구례에 도착하였다.

이날 밤 구례에서 민보군을 조직한 이기는 잡아서 가둔 접주 임정연과 접사 양주신을 이두황에게 데리고 갔다. 자기 전공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이두황은 동학농민군 4명을 함부로 죽인 죄목으로 이기를 가두었으나, 여러 사람들이 석방을 요청하여 풀어주었다.

이두황군은 12월 11일 구례를 출발하면서 임정연과 양주신을 남문 밖에서 처형하였는데,⁶⁾ 『순교약력』에는 임정연으로부터 동학을 전수받은 양주신이 경군 대장에게 접주 혐의로 체포되어 12월 12일 참형을 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순교약력』은 동학농민군의 관점에서 남원지역에서 있었던 동학농민군의 실상을 어느 기록물보다 생생히 알려주고 있다. 이 기록물은 단지 유태홍의 기억에만 의존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른 참고자료가 분명히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만큼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순교약력』 91명은 사망자로 국한하였고 유태홍처럼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고도 1923년 3월 당시 생존자는 제외한 데다, 남원지역과 연원이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실제 동학농민혁명기 사망한 남원 출신 동학농민군은 『순교약력』에서 정리한 인원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

5) 『남원군동학사』.

6) 『양호우선봉일기』, 1894년 12월 11일자.

2. 『남원종리원사』의 생산과 내용

『남원종리원사(南原宗理院史)』의 표제목은 ‘포덕 65년 9월 일 남원군 종리원’으로 되어 있고 표지 포함 총 46명의 필사본이다. 편집목차는 본원(남원군 종리원)의 연혁, 부록으로 운봉군 교구사, 구례군 교구사, 남원군 동학사가 차례로 실려 있다.

「남원군 동학사」는 표제가 ‘포덕 65년 10월 남원군 동학사’로 되어 있다. 본문 내용은 10월 22일 동학농민혁명기 동학 지도자였던 원로 유태홍의 구술을 남원군 주임 종리사 최병현이 기술한 것이다. 이것으로 보아 『남원군 종리원사』와 「남원군 동학사」는 생산시기와 생산주체가 다른 만큼 별책으로 보아야 한다.

「남원군 동학사」는 1861년 수운 최제우가 남원에 온 사실부터 1904년 일진회사건까지 44년의 남원지역 동학 역사를 정리하고 있지만, 전체 분량의 60% 정도가 갑오년 남원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최병현은 과거의 기록 가운데 갑오년의 의미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남원군의 동학사를 한편으로 갑오사(甲午史)로 지칭할 정도였다. 그만큼 남원군 동학사 편찬에 가담한 유태홍과 최병현 등은 갑오년의 남원 동학농민혁명사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1923-1924년에 남원군 종리원에서 왜 동학농민혁명을 남원군 천도교의 중요 사건으로 보았고, 동학농민혁명에서 천도교의 정통성을 찾으려고 하였는지가 해명되어야 기록물의 성격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순교약력』은 물론 『남원종리원사』를 편찬한 핵심인물은 유태홍과 최병현이다. 현 남원시 이백면에서 태어난 유태홍은 1909년 이후부터 남원교구 직원 명단에 이름이 오른 내린 뒤 1918년부터 1921년까지 교구장을 지냈다.⁷⁾ 이 때문에 유태홍은 남원 3.1운동을 주

7) 『남원종리원사』.

도적으로 이끌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이후 1928년에 신간회 남원 지회장, 1945년에 남원 건국준비위원장 등을 맡는 등 남원지역 현대사의 산증인이었다. 1950년에 사망하였다.

1888년에 남원시 주천면 주천리에서 출생한 최병현은 1916년부터 1919년까지 남원교구 이문원을 맡았다. 이 때문에 최병현은 교구장 유태홍과 함께 3.1운동을 이끌었다. 그뒤 최병현은 1921년 12월부터 다시 남원교구 보직을 맡았다. 1923년 5월 남원교구가 남원 종리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에는 종리원 서무과 종리사를 거쳐 1924년 8월 20일 부로 포덕과 주임 종리사가 되었다. 그는 주임 종리사에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9월에 남원군 종리원 연혁을 정리하고, 10월에는 남원군 동학사를 편찬하였다.

최병현이 1923년 『순교약력』 편찬에 연이어 『남원군 종리원사』를 편찬한 것은 남원군 종리원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바로세우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최병현은 1910년대 천도교 중앙 교계의 움직임과 맞물려 성장한 대표적인 남원 천도교 인사이다. 그는 1909년 2월에 성용락·홍규섭과 함께 천도교 중앙총부 사범학교에 입학하였고, 3.1운동 때는 유태홍과 함께 만세시위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1920년 1월에는 천도교청년회에서 주최하는 서울 연례강습회에 다른 5명의 청년과 함께 참석하였다. 1921년 7월에는 남원, 곡성, 광양, 순천, 순창, 담양, 장성 7교구의 의정회 의정원으로 선발될 정도로 점차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그 무렵 중앙 천도교계는 혁신파와 보수파로 나뉘어 천도교청년회를 중심으로 혁신운동이 전개되었다. 1920년 4월 25일 천도교 청년교리강습부를 확대·개편한 천도교 청년회는 월간 잡지 「개벽」을 발간하고 소년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교리강습소를 열어 전국의 청년들에게 천도교 역사와 교리를 교육하고 인내천주의를 선전하는 등 천도교를 일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혁신운동을 주도한 인물은 최제우의 양손이자 최시형의 큰아들인 최동희, 이상우, 오지영 등으로, 그 과정에서 혁신파와 보수파로 나뉘어 대립하였다. 두 파의 대립은 1922년 5월 19일 손병희

의 사망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천도교 혁신파는 천도교의 뿌리를 동학에 두고 동학을 적통으로 한 천도교리를 연구하고 보급하였다. 혁신파는 남북접의 일원으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학의 적통이라는 자부심이 강한 원로와 중진, 그리고 다양한 지역 출신의 소장파로 구성되어 있었다.⁸⁾ 이들은 1918년부터 천도교리를 연구하였다. 또 오지영 등 혁신파 지도자들은 1921년에 사상강구회를 조직하여 동학에 뿌리를 둔 동도주의에 입각한 혁신사상을 연구하였다.⁹⁾

그 과정에서 천도교사가 집필되기 시작하였다. 천도교청년회는 1920년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에서 220명의 청년 교인들을 소집하여 ‘천도교 청년 임시교리강습회’를 열었는데, 이때 교재로 사용할 경전과 교사를 모아 『천도교서』를 펴냈다. 「남원군 동학사」를 편찬한 최병현도 1921년 1월에 열린 강습회에 참석한 만큼 이 교재로 강습을 받았을 것이다.¹⁰⁾ 그뒤 1921년에 교주 박인호 명의로 또다른 『천도교서』가 편찬되었고, 1924년경에는 오지영의 『동학사』 초고본이 쓰여졌다.

이러한 교사 집필 움직임은 각 지방 교구(종리원)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중앙의 움직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최병현은 주임 종리사로 취임하자마자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에 뿌리를 둔 남원군 종리원 연혁과 남원군 동학사를 지역 원로인 유태홍의 구술에 기초하여 정리한 것이다.

남원군 종리원의 연혁은 1861년 수운 최제우의 남원 방문을 시작으로 1923년 종리원으로서의 명의 변경까지 정리되어 있다. 특별한 점은 1892-1893년 동학 교조신원운동 참여와 1894년 갑오년 사건을 혁명운동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서술비중이 큰 점이다. 이는 그만큼 남원

8) 김정인, 2009, 『천도교 근대 민족운동 연구』, 한울아카데미, 193~195쪽.

9) 위 책, 181~185쪽.

10) 최충식, 2023, 『독립운동가 최병현』, 디에스피, 36~38쪽.

군 종리원 역사에서 동학농민혁명의 비중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한 교사(敎史) 인식과 내용은 「남원군 동학사」에 잘 나타나 있다. 「남원군 동학사」는 1861년부터 연월한 남원지역 동학의 역사를 정리한 뒤, 전체의 80%나 될 정도로 1892-1893년 동학운동과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남원군 동학사」 내용 가운데 1861년 남원에서 수운 최제우의 행적, 1892년 동학 삼례집회 때 남원 출신 유태흥이 전봉준과 함께 소장 장두가 된 점, 1893년 금원 원평집회 당시 동학도들의 움직임, 동학농민혁명기 장성전투에서 사용한 장태 형태, 11월 남원 방아치전투 전말, 11월 28일 남원성전투 이후 유태흥의 동정, 1894-1895년 남원 동학도인들의 참화, 동학농민혁명 이후 남원 동학도인들의 수난 등은 다른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료적 가치가 있다.

이러한 동학사 내용은 『천도교서』와는 차이가 있다. 1920년에 편찬한 『천도교서』는 제1편 수운 대신사, 제2편 해월 신사, 제3편 의암 성사편으로 나누어 3대 교주와 교단 중심으로 집필된 반면, 「남원군 동학사」는 남원을 중심에 놓되 호남과 전봉준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러한 동학 중심의 인식체계는 오지영이 집필한 『동학사』 초고본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천도교서』에 나타난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은 고부봉기 → 전주성 점령 → 전주화약 → 집강소 → 9월 재봉기로 이어진다. 이는 오지영의 『동학사』 초고본이나 「남원군 동학사」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9월 재봉기에 관한 부분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천도교서』는 전봉준을 비판적으로 서술하면서 최시형, 즉, 동학 교단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반면에 오지영의 『동학사』 초고본과 「남원군 동학사」는 전봉준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실제 남원지역 9월 재봉기 관련 내용은 『천도교서』의 경우 최시형의 지시로 남원지역에서 김흥기를 비롯한 13명의 대접주들이 봉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 오지

영의 『동학사』 초고본은 호남 집강소(전봉준) 주도로 재봉기하여 남원에 김개남이 지휘하는 1만군이 있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남원군 동학사」 역시 전봉준과 김개남이 주도적으로 재봉기하여 공주로 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으로 보아 「남원군 동학사」를 편찬한 남원군 종리원 주임 종리사 최병현은 천도교의 혁신파, 그 중에서도 같은 호남 출신인 오지영의 동학 인식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최병현은 남원군 종리원의 연혁과 동학사를 정리하는데 있어서 동학에 뿌리를 두고 동학농민혁명을 강조하여, 남원 천도교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II. 세계기록유산으로 본 남원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

1. 남원지역 동학 전파

수운 최제우가 1861년 12월에 남원 은적암에 기거하면서 다음해 7월에 경주로 돌아갈 때까지 여러 저작을 통해 동학을 체계적으로 완성하였음은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다. 이는 「남원군 동학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포덕 2년[1861] 신유 6월에 대신사가 호남으로 향하시어 산수풍토와 인심풍속을 살펴보고 본군 남문 밖 광한루 아래 오작교 옆 서형칠 집에 와서 머물며 수일을 유숙하다가 그 집은 약방인 까닭에 번잡함으로 인하여 부근에 있는 서형칠의 조카 공창운 집에 유숙하시며 서형칠, 공창운, 양국삼, 서공서, 이경구, 양득삼 등에게 전도하실 때 ---

동년 가을에 대신사께서 은적암(은적암은 본군 서쪽 10리쯤 교통산성 덕밀암 내 대신사께서 거주하신 방호)에 돌아와서 연성으로 가을 겨울을 지내시고---.”

위와 같은 「남원군 동학사」 내용에서 주목되는 기록은 ‘은적암에 돌아와서’ 부분이다. ‘돌아왔다(歸하사)’는 표현은 다시 왔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하여 1920년에 천도교청년회에서 간행한 『천도교서(天道敎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1861년 6월 10일에 대신사가 홀연히 남쪽으로 가겠다는 뜻을 이미 결정하신지라. (중략) 마침내 호남(湖南)으로 향하셨다. 성주(星州)를 지나 시다가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 사당에 절하시고 남원(南原)에 이르러 10여일을 머무셨다. 당 지역의 산수풍토와 인심풍속을 관찰하시고 인하여 제자 최중희(崔仲羲)를 대동하시고 방방곡곡을 두루 편력하시고 은적암(隱寂庵)에 이르셨다.”

『천도교서』에서는 수운 최제우가 남원에 10여일 머물다 방방곡곡을 두루 편력한 뒤 은적암에 온 것으로 되어 있다. 『최선생문집 도원기서』도 수운이 11월에 경주를 떠나 남원에서 10여일 머문 뒤 최중희와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다 12월 그믐께 덕밀암에 온 것으로 되어 있다.

실제 수운이 1861년 가을에 남원을 떠나 다른 지역을 순회한 사실은 『천도교 전주 종리원 연혁』에서도 확인된다. 이 기록에 의하면, 수운이 1861년에 포덕차로 최중희와 함께 남원에서 전주에 와 포교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기록들은 「남원군 동학사」에 은적암에 돌아왔다는 기록과도 상통한다. 「남원군 동학사」에 따르면, 6월에 경주를 떠난 수운은 남원에 도착하여 약방을 하는 서형칠 집에 몇 일을 유숙한 뒤 다시 서형칠의 조카 공창윤 집에 머물며 서형칠, 공창윤, 양국삼, 서공서, 이경구, 양득삼 등에게 전도한 다음, 다른 지역을 순회한 뒤 가을에 덕밀암에 온 것으로 되어 있다.

반면에 표영삼은 『대선생주문집』과 『최선생문집 도원기서』 기록을 근거로 11월에 경주를 떠난 수운이 남원에 도착한 것은 12월 15일경이

고 덕밀암에 간 것은 12월 그림으로 보았다.¹¹⁾ 이와 같은 표영삼 주장은 「남원군 동학사」와는 차이가 있는 바, 앞으로 추가 자료 발굴을 통해 해명할 필요가 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남원에 도착하여 10여일 머물던 수운은 남원을 떠나 여러 지역을 순회한 뒤 다시 남원으로 돌아와 은적암에서 새해를 맞이하였다는 사실이다.

은적암에 머물며 도수사, 권학가, 논학문, 수덕문, 몽중노소문답기 등 여러 글을 집필한 수운은 1862년 7월 남원을 떠나 경주로 돌아갔다. 그 뒤에도 남원의 서형칠 등은 남원과 경주를 오가며 도맥을 통하다, 1864년 봄에 수운이 서거한 뒤에 자취를 감추었다. 그에 따라 점차 남원지역은 동학의 맥이 이어지지 않다가, 남원 둔덕면 탑동리(현 임실군 오수면 신기리)에 살던 김홍기가 1889년부터 앞장을 서서 유태홍·김영기 등과 함께 동학을 확산시켰다. 그 결과 동학은 순식간에 남원지역에 확산되어 1892년 삼례 동학집회, 1893년 1월 광화문 복합상소, 1893년 3월 금구 원평 및 보은집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었다.

특히 1892년 11월 삼례집회 때 남원 출신 유태홍이 전봉준과 함께 장두가 되어 소장을 전라감사에게 제출한 점, 1893년 1월 10일 전봉준이 작성한 창의문을 김영기가 남원에 게시하고 유태홍이 구례에 침부한 사실, 금구 원평집회의 전말 등은 다른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들로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크다.

2. 남원지역 동학농민혁명 전개

「남원군 동학사」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 관련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에 의하면, 전봉준 등의 주도로 발발한 고부봉기가 동학농민혁명으로 발전하고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는 일련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다만, 전주성 점령 때까지 남원지역과 남원 동학도들의

11) 표영삼, 2004, 『동학 1-수운의 삶과 생각』, 통나무, 148~163쪽.

움직임은 기록된 내용이 없으며, 남원 관련 사실은 아래 글이 처음이다.

“서로 강화(相和)한 후 각처에 말을 거두고 포(砲)를 모으며[收馬收砲] 각 군에 창의사무소를 설립할 때 매소(每所)에 집강(執綱)의 직임을 두고 김개남이 본군에 와서 5영(전영, 후영, 좌영, 우영, 중영)을 설립하고 49일 진을 칠 때 매영에 일원장, 이원장, 군수군, 영군의 직임을 두고 또 성찰, 통찰 수십 인씩을 두었다. 그럼으로 각도 각군 교인 수십만명이 본군 내에 모여 4~5개월을 경과하고---.” 「남원군 동학사」

위 기록은 전주화약 이후 창의사무소, 즉, 집강소를 설치한 사실과 김개남이 남원에 5영을 설치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 이 부분은 남원 동학농민혁명사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 기록에 의하면, 김개남이 남원에 내려와 5영을 설치한 시점을 5월 8일 전주화약 이후로 볼 수 있다. 특히 각도 각군 교인 수십만명이 남원에 머문지 4,5개월을 경과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김개남의 남원 5영 설치의 갑오년 5,6월경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동학사』에서 밝힌 오지영의 집강소 인식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미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김개남은 5월 23일경 태인을 떠나 28일경 장성 백양사에서 묵은 뒤 순창 → 옥과 → 담양 → 창평 → 동복 → 낙안 → 순천 → 곡성을 거쳐 6월 25일 남원에 도착하였다.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부대도 7월 2일 남원에 들어왔다. 그러자 전라감사 김학진은 7월초 군사마 송인회를 남원으로 보내 전주에서 회담을 갖자는 제의를 하였다. 이 제의를 받아들인 것은 전봉준이었다. 김개남은 전봉준과 같이 남원을 출발하였으나, 중간에 생각을 바꾸어 다시 남원으로 되돌아왔다.

7월 6일 전주에 도착한 전봉준은 전라감영에 들어가 읍양정에 머물며 선화당에서 김학진과 회담을 가진 뒤 7월 8일 전주성을 나왔다. 이 전주회담에서 두 사람은 집강소를 전면적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하

였다. 전봉준은 7월 15일경 다시 남원으로 내려와 전주회담 결과를 알리는 동시에 각 군에 동학농민군 도소(집강소)를 설치하고 접주 가운데 집강을 뽑도록 하였다. 김개남은 이와 같은 전봉준의 집강소안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다. 그는 정예기병 100여 명만을 이끌고 남원을 떠나 임실 상여암으로 들어가 여름을 보냈다.¹²⁾

그렇지만 김개남 휘하의 농민군과 여타의 상당수 농민군은 남원과 그 일대에 잔류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진안접주 김사명(金士明),¹³⁾ 흥양접주 유복만(劉福萬), 담양접주 남응삼 등은 남원 출신의 농민군과 함께 남원지역에 ‘도소’를 설치하고 운봉을 거쳐 영남방면으로 진출하고자 하였다. 이 때문에 7월 26일 이후 박봉양(朴鳳陽)이 조직한 운봉 민보군과 대치하게 되었다.¹⁴⁾ 이때 남원부사는 성을 비우고 도주하였다.¹⁵⁾ 사실상 남원지역은 농민군이 지방권력을 장악한 상태였다.

그뒤 이들 농민군은 8월 19일 남원성과 교룡산성의 무기고를 파괴해 무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8월 25일경에는 김개남의 주도하에 5-7만명이 운집한 농민군대회를 개최하였다.¹⁶⁾ 이를 기반으로 김개남은 동헌에 대도소를 설치한 뒤 인근지역에 통치권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남원 대도소에는 김개남 직계의 24접(道康金氏 接主) 외에 전라 좌상도(左上道)에서 가장 강력한 남원의 화당산접(花山黨接, 접주李文卿)과 전라 좌하도(左下道)에서 최강인 보성접(접주 安奎馥),¹⁷⁾ 그밖에 세력이 컸던 남원과 흥양접이 소속돼 있었다. 그래서 남원 대도소는 이같은 군

12) 전주화약 이후 전봉준과 김개남의 순행경로와 전주회담 과정은 김양식, 1996, 『근대 사회변동과 농민전쟁』, 신서원, 120~144쪽 참조.

13) 『天道敎書』, 310쪽.

14) 『朴鳳陽經歷書』 『동학란기록』 하, 511쪽.

15) 김재홍, 『영상일기』, 갑오 7월조, 15쪽.

16) 위의 책, 갑오 8월조, 17쪽;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 71쪽; 황현, 『오하기문』 2, 갑오 8월조, 91~92쪽.

17) 황현, 『오하기문』 2, 42~43쪽.

사력을 바탕으로 지배력을 인근지역에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다.

따라서 김개남이 남원에 대도소를 설치하고 오염을 둔 것은 8월 25일 이후이다. 이는 김개남 동학농민군부대가 남원을 떠난 것이 10월 14일이므로, 49일 유진설과도 일치한다. 5영 설치 역시 8월 25일 이후로, 대도소체제가 갖추어지는 9월 12일경이었다.¹⁸⁾ 5영은 전영 대장에 남응삼, 후영 대장에 남원 출신의 김흥기, 우영 대장에 김대원, 좌영 대장에 김용관이 맡았고 김개남은 중영의 총대장을 맡았는데, 각 군영이 거느린 동학농민군 규모가 5,6천여 명이었다고 한다.¹⁹⁾

다음으로 「남원군 동학사」에 의하면, 전봉준은 윤봉 박봉양을 찾아가 그를 설득해 민보군을 해산시킨 사실과 김개남과 8일간에 걸쳐 논쟁을 벌인 사실이 기술되어 있다. 이 부분은 남원지역 동학농민혁명사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만큼 구체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전봉준이 박봉양을 설득한 사실은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문맥상으로 보면 전봉준이 8월 13일 나주에 가서 민종렬목사와 담판을 짓던 무렵으로 볼 수 있다. 「남원군 동학사」 기록에 나타난 전봉준 행적은 ‘남원 도착 → 각 군현 순시 → 나주목사와 담판하여 동학도인 석방 → 윤봉 박봉양을 제압하여 동학도인 6,7명 석방 → 남원 체류 순으로 기술되어 있다. 전봉준이 나주목사를 찾아간 것은 8월 13일이 분명한 만큼, 전봉준이 윤봉에 간 것은 8월 13일 이후 무렵일 것이다.

그런데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남원은 8월 19일부터 다시 동학농민군이 재집결, 김개남 주도로 8월 25일 동학농민군대회가 열렸다. 이때 전봉준과 손화중도 남원으로 와 세 사람이 투쟁방향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그렇다면 전봉준이 윤봉에 간 시기는 8월 15일 전후일 것이다.

전봉준이 윤봉에 간 시기는 7월 말경일 수도 있다. 전봉준은 전주성에서 철수한 이후 각 지역을 순행한 뒤 7월 2일 남원에 들어온 뒤, 7월

18) 표영삼, 1999, 「남원의 동학혁명운동 연구」, 『동학연구』 5, 동학학회, 45~46쪽.

19) 『영상일기』, 갑오년 8월 26일.

6일 전주성으로 가 전라감사 김학진과의 회담을 통해 집강소체제를 도출하였다. 전봉준은 7월 15일 다시 남원으로 내려와 전주회담의 결과를 알리고 집강소 설치·운영을 독려한 뒤, 순천과 운봉을 거쳐 전주로 돌아왔다. 전봉준이 운봉에 간 것은 박봉양이 민보군을 조직해 동학농민군에 저항할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²⁰⁾ 따라서 전봉준이 운봉에 간 시기는 7월 20일 전후로도 볼 수 있으나, 7월 26일 이후 박봉양이 조직한 민보군이 남원지역 동학농민군과 대치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설득력이 부족하다.²¹⁾ 따라서 전봉준이 운봉에 가서 박봉양을 설득해 민보군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킨 것은 8월 13일 전후로 추정된다.

한편 전봉준이 운봉에 간 시기가 8월 25일 이후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운봉 박봉양의 움직임이다. 박봉양은 7월 26일 민보군을 조직해 활동하다 소강 상태를 유지하다 8월 22일 이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신임 운봉군수의 부임이다.

8월 22일 부임한 운봉군수 이의경은 박봉양과 협력하여 수성군을 강화하였다. 남원에 동학농민군이 집결하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다. 운봉군수는 남원 동학농민군의 세력이 강성해지자 인근 지역에 위급함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여, 실제 함양군에서 포군 150명을 파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남원에 온 전봉준이 운봉으로 가서 박봉양을 설득하였을 개연성은 없다.

따라서 전봉준이 운봉에 간 시점은 전봉준이 나주에 간 8월 13일 이후, 운봉군수가 부임하는 8월 22일 이전인 8월 15일 전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19일부터 남원지역 동학농민군이 재집결하자, 전봉준은 매우 당혹하였을 것이다. 그 때문에 「남원군 동학사」에는 전봉준이 동학농민군대회를 주도한 김개남과 투쟁노선을 둘러싼 논쟁을 8일에 걸쳐 벌인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20) 김양식, 앞의 책, 148~149쪽.

21) 위의 책, 186쪽.

그러나 전봉준이 남원에 머물며 김개남과 논쟁을 벌인 것은 사실이
지만, 8일씩이나 논쟁을 벌였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전봉준은 9
월초 신병 치료차 태인 산외면 동곡리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확인되
는 만큼,²²⁾ 8월 중하순에 나주·운봉·남원 등지에 머물며 관민상화를
원칙으로 한 집강소체제를 유지하는데 힘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남원군 동학사」는 남원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중요한 정
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사실은 착종되거나 내용상의 오류가 일부
있어 사료 내적 비판이 요구된다. 김개남부대가 남원을 떠나 행군한 곳
도 청주가 아닌, 공주로 되어 있다.

김개남부대가 남원을 떠난 이후 동학농민군과 박봉양이 이끄는 운봉
민보군과의 전투과정도 「남원군 동학사」를 구술한 유태홍이 직접 참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소략하게 기술되어 있다. 오히려 『박봉양
경력서』가 9월 17일 방아치전투, 11월 14일 방아치전투, 11월 28일
남원성전투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다만, 「남원군 동학사」
는 『박봉양경력서』와는 달리, 11월 방아치전투에 참전한 동학농민군부
대가 홍양 유복만, 담양 남응삼, 태인 정창규·김연구, 진안 이사명, 금
구 김봉덕, 임실 최준필접주 외에 남원 토착 동학농민군 출신인 김흥기,
황내문, 이규순, 이기동, 박세춘, 유태홍, 변홍두, 최진악, 김연호, 심노
환, 조동섭, 김우측 등 12명의 접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사료
적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²³⁾

남원 방아치전투에 참여한 남원 토착 접주 12명 가운데 김흥기, 황내
문, 이규순, 변홍두, 최진악, 김연호, 심노환은 『순교약력』에 나오며 약
력은 <표 2>와 같다. 이들은 실제 전투과정에서 전사하지 않았으나, 7명
모두 12월 9일 이후 민보군에게 체포되어 남원장터나 오수장터 등지에

22) 『전봉준공초』.

23) 『남원군종리원사』 연혁에는 방아치전투에 참전한 남원 토착 동학농민군 접주로 김
연호가, 「남원군 동학사」에는 김우측이 누락되어 있다.

서 처형되었다.

반면에 이기동은 1889년에 김영기·유태홍 등과 함께 남원 동학 포덕의 기틀을 다진 인물로서, 동학농민혁명기에 살아 남아 1902년 춘암 박인호가 남원에 왔을 때 환영식에 참석하기도 하였다.²⁴⁾

박세춘 역시 1889년에 동학 포덕에 앞장을 선 인물이다. 『순교약력』에 이름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동학농민혁명기에 살아 남았으나, 동학·천도교 활동을 지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태홍은 위 이기동·박세춘 등과 함께 남원의 동학 기틀을 다진 인물이다. 1892년 삼례집회 때 전봉준과 함께 전라감사에게 소장을 올리고 1893년 1월에는 전봉준이 작성한 창의문을 구례에 배포하는 등 1892-1893년 동학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1894년 11월 방아치전투에 참전한 뒤에는 남원성을 지키다 패하자 남은 병사 5백여 명을 이끌고 순천으로 이동한 뒤 해산하였다. 다행히 살아 남은 유태홍은 1895년 가을에 장남선 등과 함께 동학 포덕을 이어가다, 1906년 6월 19일에 천도교 남원교구 창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조동섭은 위 동학 접주들과 함께 1889년 무렵에 남원 동학의 기틀을 잡는데 일조를 하였다. 그는 『순교약력』에 이름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동학농민혁명기에 살아 남았지만, 그 이후 동학·천도교 활동을 이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우측도 동일하였다.

이와 같이 남원 토착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방아치전투에 참전한 남원 동학접주 12명 가운데 동학농민혁명기에 사망한 인물이 7명이고 살아 남아 동학·천도교 활동을 이어간 인물이 이기동·유태홍 2명 뿐이다. 나머지 3명은 동학농민혁명 이후 행적을 알 수 없다.

한편 「남원군 동학사」에는 박봉양이 전봉준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박봉양은 12월 11일에 나주 감옥에 구

24) 『남원군종리원사』, 연혁. 이하 동일.

금된 뒤 선달 그믐날 서울로 압송되어 1895년 3월 ‘군병의 약탈을 금하지 못한 죄목’으로 재판을 받고 장형 60대 처벌을 받았다.²⁵⁾ 이와 같이 「남원군 동학사」는 역사적 사실이 일부 착종되어 있거나 부분적으로 기억의 오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군 동학사」는 동학농민군 입장에서 기록되어 있어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높다.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던 남원 인물과 그들의 행적 기록은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이다. 「남원군 동학사」는 남원 동학농민군들의 최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사방으로 흩어져 머물러 살 곳이 없게 되었다. 도인 김흥기, 이규순, 황내문, 이사명, 변흥두, 최진악, 심노환, 김연호 외 수백인이 갑오 12월부터 올미 봄 여름까지 남원장터와 오수장터 및 각 방면 도회지에서 총칼의 원혼이 되고 그 외 생존 도인도 가산탕진하고 망명도주로 유리결식하여 거처없이 떠도는 자가 수백인이었다.”

이와 같은 기록은 동학농민혁명 이후 처참하였던 남원지역 동학농민군들의 삶과 최후를 말해주고 있다. 이런 실상은 『순교 약력』 기록과도 일치한다.

맺음말

이상과 같이 2023년에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185건 가운데 남원지역과 관련된 『순교약력』과 『남원종리원사』가 생산된 배경과 그 내용을 살펴본 뒤, 두 기록물 내용을 중심으로 남원지

25) 『동학관련판결선고서』, 제29호 판결선고서 원본 박봉양.

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순교약력』은 1923년 3월 1일 작성된 ‘남원군교구 순교인 성명’ 명단 42명과 ‘근성교무 중 환원인 성명’ 명단 49명을 게재한 뒤 총 91명에 대한 성명 및 약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아, 남원지역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던 인물들을 알 수 있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기록물이다.

특히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갑오년에 사망한 이들에 관한 기록이다. 동학농민혁명기에 사망한 42명 가운데 둔덕면과 산동면 출신이 각각 7명과 11명으로, 이 두 지역이 남원지역의 동학 확산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의 중심지였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연령층은 30-40대가 가장 많으며, 사망 시기는 거의 모두 정부군과 일본군이 남원을 떠난 12월 5일 이후에 체포되어 남원장터, 오수장터, 운봉장터 등지에서 처형되었다. 더욱이 1895년 2월에도 처형된 인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남원 민보군의 활동은 겨울 내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남원지역 동학농민군들 역시 실제 전투과정에서 죽은 경우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해산한 이후 민보군이나 관군에게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이는 2차 동학농민혁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문제의식이 요구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순교약력』은 동학농민군의 관점에서 남원지역에서 있었던 동학농민군의 실상을 어느 기록물보다 생생히 알려주고 있다. 이 기록물은 단지 유태홍의 기억에만 의존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른 참고자료가 분명히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만큼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순교약력』 91명은 사망자로 국한하였고 유태홍처럼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고도 1923년 3월 당시 생존자는 제외한 데다, 남원지역과 연원이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실제 동학농민혁명기 사망한 남원 출신 동학농민군은 『순교약력』에서 정리한 인원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

『남원종리원사』 부록으로 있는 「남원군 동학사」는 동학농민혁명이 동학 지도자였던 원로 유태홍의 구술을 남원군 주임 종리사 최병현이 1924년 10월 22일에 기술한 것이다. 내용은 1861년에 수운 최제우가 남원에 온 사실부터 1904년 일진회사건까지 44년의 남원지역 동학 역사를 정리하고 있지만, 전체 분량의 60% 정도가 갑오년 남원지역 동학 농민혁명의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남원 동학사를 동학농민혁명 중심으로 서술한 것은 「남원군 동학사」를 편찬한 남원군 종리원 주임 종리사 최병현이 천도교의 혁신파, 그 중에서도 같은 호남 출신인 오지영의 동학 인식과 궤를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병현은 동학농민혁명을 중심으로 남원 천도교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정립하고자 한 것이다.

그를 위해 「남원군 동학사」는 1861년에 수운 최제우가 남원에 두 차례 방문한 점, 1889년부터 동학이 순식간에 남원지역에 확산되어 1892년 삼례 동학집회, 1893년 1월 광화문 복합상소, 1893년 3월 금구 원평 및 보은집회에 적극 참여한 사실 등을 언급하였다. 특히 1892년 11월 삼례집회 때 남원 출신 유태홍이 전봉준과 함께 장두가 되어 소장을 전라감사에게 제출한 점, 1893년 1월 10일 전봉준이 작성한 창의문을 김영기가 남원에 게시하고 유태홍이 구례에 첨부한 사실, 금구 원평집회의 전말 등은 다른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들로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크다.

「남원군 동학사」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남원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전개된 것은 전주화약 이후부터로, 집강소와 김개남의 5영 설치를 강조해서 언급하였다. 다만, 김개남 5영 설치는 남원 동학농민군대회가 열린 8월 25일 이후임에도 그에 관해서는 자세히 기술하지 않았다.

또 「남원군 동학사」에는 전봉준이 운봉 박봉양을 찾아가 그를 설득해 민보군을 해산시킨 사실과 김개남과 8일간에 걸쳐 논쟁을 벌인 사실이 기술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일시는 모호하다. 실제 전봉준이 박봉양을 찾아간 것은 전봉준의 전체적인 동선을 놓고 보았을 때 8월 13일

전후이며, 김개남과 8일간 논쟁을 한 시기도 남원 동학농민군대회가 열린 8월 25일경이다. 다만, 「남원군 동학사」처럼 8일에 걸쳐 논쟁하였지는 의심스럽다.

이와 같이 「남원군 동학사」는 남원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사실은 착종되거나 내용상의 오류가 일부 있어 사료 내적 비판이 요구된다. 김개남부대가 남원을 떠나 행군한 곳도 청주가 아닌, 공주로 되어 있다.

김개남부대가 남원을 떠나 청주로 향한 이후 동학농민군과 박봉양이 이끄는 윤봉 민보군과의 전투과정도 「남원군 동학사」를 구술한 유태홍이 직접 참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소략하게 기술되어 있다. 다만, 「남원군 동학사」는 11월 방아치전투에 참전한 남원 토착 동학농민군들이 누구였는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사료적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남원군 동학사」는 역사적 사실이 일부 착종되어 있거나 부분적으로 기억의 오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군 동학사」는 동학농민군 입장에서 기록되어 있어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남원 출신 동학농민군들이 어떻게 죽어갔고, 설령 생존하였어도 얼마나 힘든 삶을 이어갔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투고일 : 2025. 4. 3. 심사완료일 : 2025. 4. 27. 게재확정일 : 2025. 5. 7.
--

참고문헌

〈자료〉

『南原綜理院史』.

『巡教略歷』.

〈단행본〉

김양식, 1996, 『근대 사회변동과 농민전쟁』, 신서원.

김정인, 2009, 『천도교 근대 민족운동 연구』, 한울아카데미.

최충식, 2023, 『독립운동가 최병현』, 디에스피.

표영삼, 2004, 『동학 1 - 수운의 삶과 생각』, 통나무.

〈연구논문〉

박찬승, 1995, 「1894년 농민전쟁기 호남지방 농민군의 동향」,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새길.

이병규, 2014, 「남원지역 토착 동학농민군의 활동-김홍기와 유태홍을 중심으로」, 『동학학보』 33, 동학학회, 39~56쪽.

표영삼, 1999, 「남원의 동학혁명운동 연구」, 『동학연구』 5, 한국동학학회, 21~83쪽.

〈Abstract〉

World Documentary Heritage and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Namwon

- Focusing on the Martyrdom Records and Namwon
Jongriwonsa Temple -

Kim, Yang-Sik*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and content of the records "Sunkyoyakryeok(순교약력)" and "Namwon Jongriwonsa(남원 종리원사)", which are related to the Namwon region among the 185 record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designated as UNESCO Memory of the World in 2023. Based on these records, this study explores the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the Namwon region.

"Sunkyoyakryeok" is a document that systematically organizes the names and brief biographies of 91 Donghak members from Namwon. Particularly noteworthy in relation to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re the records of those who died in 1894. Among the 42 individuals who perished during the revolution, 7 were from Dunduk-myeon and 11 from Sandong-myeon, indicating that these two areas were the central hubs for the spread of Donghak and participation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Namwon. The majority of participants were in their 30s and 40s, and most of them were captured and executed after December 5, when the government and Japanese forces had

* Director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search Institute

already left Namwon. This suggests the need for a new perspective in understanding the second phase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Namwon Jongriwonsa", along with its appendix "Namwon-gun Donghaksa", is a document recorded by Namwon-gun's chief Jongrisa Choi Byung-hyun on October 22, 1924, based on the oral testimony of veteran Donghak leader Yoo Tae-hong. It covers 44 years of Donghak history in Namwon, from the visit of Choe Je-u, the founder of Donghak, in 1861 to the Iljinhoe Incident in 1904. However, approximately 60% of the document focuses on historical event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Namwon during the Gabo year (1894). This emphasis reflects an effort to establish the identity and legitimacy of Cheondoism in Namwon through the len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o achieve this, "Namwon-gun Donghaksa" mentions key historical events, such as Choe Je-u's two visits to Namwon in 1861, the Samnye Donghak assembly in 1892, the Gwanghwamun joint petition in January 1893, and the Geumgu Wonpyeong and Boeun assemblies in March 1893. Additionally, it provides new insights into the establishment of five military divisions by Kim Gaenam in Namwon following the Jeonju Truce, the Battle of Bangachi on November 14, and the retreat from Namwon Fortress on November 28.

However, while "Namwon-gun Donghaksa" provides valuable information about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Namwon, some descriptions are brief, mixed with inaccuracies, or contain errors, necessitating a critical historical review. Nevertheless, as a record writte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onghak Peasant Army, it holds significant historical value. In particular, it vividly illustrates how the Donghak Peasant Army members from Namwon perished and, for those who survived, the hardships they endured in their later lives.

Key word : Namwon Donghak Peasant Revolution, Sunkyoakryeok, Namwon Jongriwonsa, Battle of Bangachi, Yoo Tae-hong

김동규 기증 유물로 본 남원지역 천도교

성주현*

〈목 차〉

머리말

I. 김동규 기증유물 자료의 분류

II. 기증유물로 본 남원지역 천도교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김흥기-김종환-김동규 3대에 이어져 오는 동학 천도교 집안에서 보존하고 있던 자료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기증한 유물을 토대로 시기별 천도교 활동을 살펴보고 있다.

첫째는 김흥기-김종환-김동규로 이어지는 동학·천도교를 신앙해 온 3대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김동규에 의해 2017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기증되었다. 기증 유물은 천도교 관련 자료 등 646건 762점으로 2,467매로 상당한 양이라고 할 수 있다. 기증 유물의 유형별로는 공문류가 가장 많으며 문헌류, 증서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자료에 대해 “대다수가 천도교 중앙총부에

* 천도교중앙총부 상주선도사

도 없는 천도교 관련 자료들로 대대적인 조명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는 기증 유물을 통해 본 남원지역 천도교의 활동은 대한제국 시기부터 해방 후 1960년대까지 확인된다. 대한제국 시기는 천도교단에서 발행한 인장과 교리서를 통해 남원지역 천도교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일제강점기는 남원교구의 활동 외에도 신간회 등 사회활동을, 해방 후에는 천도교단의 분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주제어 : 천도교, 남원, 기증유물, 동학, 신간회, 동학농민혁명

머리말

규암圭菴, 남원군 이백면 계산리. 남원교구장(1980.4), 남원교구추진위원장(1990), 임실교구 홍신포 도훈(2001), 남원교구추위장(2004), 성신포 도훈(2007)¹⁾

위의 인용문은 2017년 9월 28일과 10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자료를 기증한 김동규(金東圭)에 대한 이력이다. 김동규는 천도교인으로 3대째 신앙생활을 한 종교인이다. 그는 1대 김흥기(金洪基), 2대 김종환(金宗煥, 金鍾煥)에 이어 동학-천도교로 이어져 온 남원지역 동학 및 천도교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며, 남원 동학과 천도교의 역사와 함께 하였다.

1대 김흥기는 1856년 6월 16일 남원군 오수면 신기리 탑동에서 태어났으며, 33세 때인 1889년 장인 최찬국(崔贊國, 崔鳳成)의 전교로 동학에 입교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일어나자 죽하 김중학과 함께 백산대회에 참가하였고, 김개남이 남원에 주둔하였을 때는 오른팔 역할을 한 것

1) 동학천도교인명사전연구회, 개벽라키비움, 2019, 『동학·천도교인명사전』(제Ⅱ판), 모시는사람들, 228쪽.

으로 알려졌다. 운봉 여원치 전투와 남원성 전투에 참가하였으며 포도대장 이응백에게 피체되어 1895년 2월 14일 남원시장에서 포살당하였다.²⁾ 2대 김종환은 김홍기의 차남으로 1892년에 태어났으며 3·1운동 당시 전주에서 독립선언서를 받아 순천과 여수까지 전달하는 책임을 맡아 수행했다고 한다.³⁾ 해방 후 1945년 12월 23일 호남지역 천도교인을 중심으로 천도교중앙교회를 조직하고 이듬해 1946년 4월 5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진을 구성할 때 종법사에 선임되었다.⁴⁾ 3대 김동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0년 이후 천도교 남원교구장, 남원교구추진위원장, 성신포 도훈 등으로 활동하였다.

김동규 기증유물은 646건, 762점 2,467매로 2017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기증되었다. 이들 기증유물 중 가장 이른 시기가 1906년이라는 점에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자료는 전혀 없으며, 동학을 계승한 천도교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

본고에서는 김홍기-김종환-김동규 3대에 이어져 오는 동학, 천도교 집안에서 보존하고 있던 자료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기증한 유물을 토대로 시기별 남원지역 천도교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⁵⁾ 다만 기증 유물이 너무 방대하다는 점에서 수량이 적은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는 유물을 중심으로, 그리고 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해방 후 현대 시기는 중요한 자료를 중심으로 천도교 남원교구의 동향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2) 『동학·천도교인명사전』(제Ⅱ판), 681쪽. 김홍기 집안에서 김홍기를 비롯하여 김낙기, 김영기, 김종문, 김종학, 김종태, 김종순, 김태옥, 김성주, 김종오, 임종호, 임성윤, 김인기 등 16명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

3) 『남원지역 동학 활동 자료 발굴』, 『전북신문』 1966년 3월 21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 사료 아카이브.

4) 『천도교임실교구사』, 천도교임실교구, 포덕 114(1973), 30쪽.

5) 본고는 김동규 기증유물 중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자 하였지만,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는 1건도 확인할 수 없었다. 부득히 기증된 유물이 천도교 관련 자료라는 점에서 남원지역 천도교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음을 양해바란다.

I. 김동규의 기증 유물의 분석

김동규는 1966년 3월 자신의 집에 있던 『종리원사 부 동학사』와 『순교약력』를 처음으로 공개한 바 있다. 이들 자료에 대해 전라문화연구소 이진영은 “구술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어서 일부 오류가 발견되기도 하나 남원지역의 동학사와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에 대한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⁶⁾ 이후 김동규는 2017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천도교 관련 자료 등 646건 762점으로 2,467매를 기증하였다. 김동규가 기증한 자료를 연도별, 시기별, 판본별, 천도교단 관련별, 종류별 등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증한 자료를 연도별로 살펴보자. 김동규가 기증한 자료는 1906년부터 1986년까지 생산된 것이다. 이 기간 중에는 1910년, 1915년 등과 같이 자료가 없는 연도도 적지 않다.⁷⁾ 김동규 기증 유물의 연도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기증 유물의 연도별 분류

연도	수량(건)	연도	수량(건)	연도	수량(건)
1906	1	1933	11	1967	22
1907	3	1935	2	1968	25
1908	3	1939	1	1969	69
1909	2	1940	1	1970	17
1911	2	1945	3	1971	38

6) 1966년 3월 21일, 「남원지역 동학 활동 자료 발굴」, 『전북신문』.

7) 기증자료가 없는 연도는 1910년, 1915년, 1917년, 1919년~1920년, 1922년, 1929년, 1934년, 1936년~1938년, 1941년~1944년, 1951~1952년, 1955년~1956년, 1958년, 1962년, 1977년~1979년 등이다. 다만 연도 분명하지만 여러 해를 기록한 것으로 1960년대와 1970년대가 있다

연도	수량(건)	연도	수량(건)	연도	수량(건)
1912	1	1946	1	1972	77
1913	1	1947	9	1973	10
1914	1	1948	1	1974	22
1916	1	1949	2	1975	2
1918	1	1950	3	1976	2
1921	4	1953	2	1980	16
1923	3	1954	1	1981	4
1924	3	1957	1	1982	9
1925	1	1959	1	1983	8
1926	3	1960	3	1984	1
1927	6	1961	1	1985	4
1928	1	1963	39	1986	1
1930	1	1964	34	1960년대	12
1931	6	1965	43	1970년대	1
1932	10	1966	33	미상	60
계	54	계	192	계	400
합계					646

〈표 1〉에 의하면 1972년이 77건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1969년이 69건, 1965년이 43건으로 뒤를 잇고 있다. 30건 이상 되는 해는 1969년(39), 1971년(38건), 1964년(34건), 1966년(33건)이며, 20건 이상 되는 해는 1968년(25건), 1967년과 1974년(22건), 1974년 22건이다. 이들 11개 햇수의 기증 유물은 402건으로 전체의 약 3분의 2에 해당한다. 그리고 연도 미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60건으로 적지 않았다.

〈표 1〉의 연도별 분류를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현대의 시기로 구분하면 〈표 2〉과 같다.

〈표 2〉 기증 유물의 시기별 분류

구분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현대	미상	계
수량(건수)	9	65	548	24	646

〈표 2〉에 의하면, 대한제국기 9건, 일제강점기 65건, 현대 548건, 시기 미상 24건으로 해방 후 현대 시기 기증 유물이 전체의 5분의 4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대한제국 시기와 일제강점기에도 천도교단 내지 남원교구에서 생산된 자료가 적지 않았음에도 잘 보존되지 않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해방 후 호남 지역 구파를 중심으로 입실에 조직된 천도교중앙교회에서 생산된 자료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편 기증 유물은 판본별로 분류하면 인쇄본과 필사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기증 유물의 판본별 분류

구분	인쇄본	필사본	기타	계
수량(건수)	455	189	2(사진, 旗)	646

〈표 3〉에 따르면, 인쇄본은 455건, 필사본은 189건이다. 이외에 사진과 궁을기가 각각 1건이 있다. 인쇄본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쇄본은 문헌, 공문 등이다. 필사본의 경우 천도교단에서 발행한 교서나 중앙 교단에 보고한 공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는 인쇄된 서류를 필요한 부분만 필기도구로 작성한 것이 적지 않았지만, 필사본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기증 유물을 천도교와 관련된 기관에서 생산한 것을 교단으로, 외부에서 생산된 것으로 분류하면 〈표 4〉와 같다.

〈표 4〉 기증 유물의 천도교단 내외 분류

구분	교단	교외	기타	계
수량(건수)	632	14	0	646

〈표 4〉에 의하면, 천도교와 관련된 기관, 인물이 생산된 기증 유물은

646건 중 633건으로 전체의 98%에 해당된다. 이는 몇몇 자료를 제외하고 천도교와 관련된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천도교단과 관련이 직접 관련이 없는 기증 유물은 1924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보통학교 『수신서(권6, 아동용)』, 「신간회 강령 급 규약」, 1953년 전라북도가 제작한 전라북도 농업지도요원 제15기생 관련 유인물, 1954년에 작성된 농업교도원 양성생 명부, 1959년 남원중학교장 이대균이 김동규에게 발급한 남원중학교 졸업장, 1974년 남평초등학교 육성회장이 김학연에게 발급한 김윤숙 육성회비 영수증, 1974년 육군 제8173 부대장이 김동규에게 발급한 교육훈련 통지서, 1974년 남원군수 채의석이 김학연에게 발급한 재산세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 1974년 제일은행 지점장이 김동규에게 발급한 김예순 육성회 월회비 영수증, 1974년 제일은행 지점장이 김동규에게 발급한 김예순 중1 교과서대 영수증, 승경도 판 등이다.

끝으로 기증된 유물을 문헌, 증서, 공문 등의 유형별로 분류하면 <표 5>와 같다.

〈표 5〉 기증 유물의 유형별 분류

구분	문헌류	증서류	공문류	기타	계
수량(건수)	194	50	381	21	646
비고	도서, 기념사, 성명서 등	증장, 교첩 등	공문, 통신문, 통지서 등	간찰, 사진 등	

〈표 5〉에 의하면, 공문이 381건으로 가장 많다. 공문류는 서울의 천도교중앙총부, 임실의 천도교중앙교회, 천도교중앙총부수습위원회, 남원교구 등에서 생산된 공문, 통신문, 통지서, 각종 문서 등이다. 문헌류는 194건으로 천도교단에 발행한 도서 등 책자를 비롯하여 기념사, 성명서 등을 포함하였다. 증서류는 50건으로 증장, 포장증, 교첩 등 이른바 임명장이다. 기타는 21건으로 간찰과 사진, 궁을기 등을 포함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동규가 기증한 자료는 천도교중앙총부가 설립된 1906년부터 1986년까지 80여 년간 생산된 각종 문헌류와 증서류, 공문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천도교단 외에는 김동규 등 개인과 관련된 것으로 영수증, 농업교육 관련 자료 등이 일부 포함되었다. 이들 자료에 대해 “대다수가 천도교 중앙총부에도 없는 천도교 관련 자료들로 대대적인 조명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II. 기증 유물로 본 천도교 활동

1. 대한제국 시기

구한말과 대한제국 시기는 1876년 10월부터 일제에 강점되기까지인 1910년 8월 29일까지 존재했던 시기이다. 이 시기 동학 교단은 1892년과 1893년 교조신원운동, 1894년 동학농민혁명, 1904년 갑진개화운동, 1905년 동학을 천도교로 선포, 1906년 천도교중앙총부 등 격동의 시기를 겪었다. 특히 전근대적 교단을 이른바 근대적 교단으로 전환한 시기로 무엇보다도 인적 조직에서 기관조직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이다.

천도교는 1906년 2월 천도교중앙총부가 설립된 직후 〈천도교대헌〉을 제정 공포하였고, 종령(宗令)을 기반으로 교단을 운영하였다. 당시 천도교는 중앙인 서울에 중앙총부를, 지방에는 군 단위로 교구를 설치하였는데, 현재의 남원지역에는 남원군교구와 운봉군교구가 설립되었다. 남원군교구는 장남선, 김종황, 박진경, 유태홍, 박세춘, 김준식 등이 1906년 6월 19일에 고도정리(古道井里)에 교구를 설치하였다가, 1907년 1월 둔덕면 관동리(館洞里) 이기동의 집으로 이전하였다가 이해 12월 12일에 오수 서촌리(西村里) 김진용의 집으로 이전하였다. 이듬해 1908년 5월 7일 오수상가(獒樹商賈)의 상무소로 이전하였다가 8월 11일에는 오수 박영환의 집으로 다시 이전하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교구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잇따르자 장남선, 이기동, 김종황의 발기로 하영석, 박진경, 유태홍, 김성재 등의 찬조와 주동으로 의연금을 모아 1909년 오수 차후 리 김현대의 집을 매입하고 교구실을 마련하였다. 이어 11월 6일에는 교리강습소를 설립하였다.⁸⁾ 운봉군교구는 남원군교구보다 늦은 1907년 2월 김성재의 집에 설립되었고, 1909년 2월 김진택을 선발하여 중앙총부 교리강습소에 유학시켰다.⁹⁾ 그리고 이 시기 남원군교구과 운봉군교구의 임원진을 정리하면 <표 6> 및 <표 7>과 같다.¹⁰⁾

<표 6> 1906년~1909년 남원군교구와 운봉군교구 임원

시기	교구장	이문원	전제원	금응원	서응원	강도원	순회교사
남원군교구							
1906. 06.19	장남선	박진경	윤상수	김종황	김준식		
1907. 12.12	이기동	이기원	박진경	김중수	박희영	김종황	황남현
1908	이기동	이기원	박진경	김중수	박희영	김종황	김성재
1909. 01.10	이기동	이기원	박진경	박진경 박희영	공선원	유태홍	김성재
운봉군교구							
1907~ 1909	김성재	김진택	김희중	이종칠	임석택		

<표 7> 1906년~1909년 남원군교구와 운봉군교구의 면 전교사

남원군교구								
둔덕면	대산면	주생면	덕과면	보절면	사동리	이백면	산동면	지사면
김중용 (1906. 06)	박기영 (1906. 06)	강동일 (1909. 01)	황종택 (1906. 06)	장경기 (1906. 06)	조규열 (1907)	박희영 (1906. 06)	박세춘 (1906. 06)	최한수 (1908)

8) 『남원군종리원사』.

9) 『남원군종리원사 부 운봉군교구사』.

10) <표 6>과 <표 7>은 『천도교회월보』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남원군교구								
둔덕면	대산면	주생면	덕과면	보절면	사동리	이백면	산동면	지사면
양재영 (1909)	김영선 (1908. 04)		하종섭 (1907. 09)	황현주 (1907. 12)	이종기 (1909. 01)	유태홍 (1909)		
				강영귀 (1908. 12)		김용두 (1909)		
				강성중 (1909. 06.)		김봉신 (1909)		
운봉군교구								
산내면	김봉섭, 김병구, 김상정				동면	김동휘, 황두현		

이 시기 기증 유물에 의하면 김희철(金禧澈)은 봉훈(1906.11·1909.09), 3등 포장(1908.06), 운봉군교구장(1908.11), 예비교훈(1909.11) 등의 인준장과 포장을 받았다. 이 봉훈과 교훈은 연원 조직의 임원에 해당된다. 그런데 김희철은 1908년 11월 25일에 운봉군교구장으로 선임하는 인준장을 받았지만 『남원군 종리원사 부 운봉군교구사』에는 누락되었다. 남원군 지역에는 남원군교구(1906)와 운봉군교구(1907) 두 개의 교구이 설립되었으나 운봉군교구는 1913년 3월 남원군교구로 합병되었다.

또한 이 시기 천도교중앙총부는 일반 교인에 대한 천도교의 이해와 일반사회에서 천도교를 포교하기 위해 각종 교리서를 발행하였다. 당시 발행된 교리서는 『대종정의』, 『무체법경』, 『관감록』, 『성훈요의』, 『천도교문』, 『천도교전』, 『천약종정』, 『동경연의』, 『삼수요지』 등이었다. 이 중 기증 유물에는 『천약종정』, 『천도교전』, 『성훈요의』, 『동경연의』 등이 포함되었다. 『동경연의』는 천도교 핵심 경전인 『동경대전』을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한 최초의 해의서이다. 이 기증 유물은 필사본으로 당시 교인들이 인쇄본이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필사한 것이다. 『천약종정』은 초기 천도교 즉 동학의 교서로써 수운 최제우에서 해월 최시형,

의암 손병희로 이어지는 교회사를 간략하게 기록한 역사서이다. 이 책은 추후 오상준이 1910년대 『천도교회월보』에 연재한 「본교역사」에 영향을 주었다. 이 시기 천도교단에서 발행한 교리서는 남원군 지역에까지 보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천약종정』은 인쇄본과 필사본 두 종류가 있는데, 필사본 후미에는 당시 천도교중앙총부가 지방교구에 발송한 종령(宗令) 일부가 필사되어 있다. 이러한 필사는 당시 교인들이 부족한 인쇄본을 개인의 필요에 따라 학습을 하기 위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김희철 운봉군교구장 인준장(1908년 10월)

2.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기증 유물은 대체로 1910년대부터 1930년대에 해당한다. 이 시기 남원군에는 남원군교구(종리원)이 유지되었는데 대부분 포장과 인준장이며, 그 외 교리서와 방명록이 있다. 이 시기 남원군교구(종리원)의 임원 현황과 1910년대 운봉군교구의 임원은 <표 8>과 같다.

〈표 8〉 1910년~1930년대 남원군교구(총리원) 및
1910년대 운봉군교구 임원 현황¹¹⁾

남원군교구(총리원)										
교구장	이문원	전제원	금용원	서응원	공선원	강도원	순회 교사	전교사	서기	의정원
박진경 김종황 김진황 하영석 유태홍		유태홍 김성재 신창우 강동일	김현옥 정기준 김현대 배광조 유태홍 박용래 김봉연		유태홍 강동일 김현대 김종황 정기준 김경연	이기동	김희준 박진경 김성재	박용래 김용두 황현주 김영근 홍위일 하영서 장경두 박래호 김종기 장영수 문경신 신용우 박성래 문경록 신권화 박권영 김봉연 김창길 서정덕 장경일 성해룡 정봉기 하영서 형봉룡 강재득 윤상열	김경원 최병헌	최규섭

11) 〈표 8〉은 『남원군총리원사』와 『천도교회월보』의 「취보」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총리사	포덕원	서무원	경리원	주임 총리사	면 총리사	위원	감사원	포덕 과대표 위원	서무 과대표 위원	경리 과대표 위원
이강전 신용우 조기일 박정순 김기원 정기준 김병구 홍위일 박준기 박병득 신기엽 박노원 김경봉	강동술	최병현	정기준	최병현	하영서 양재봉 임만수 채학순	최병현 정기준 신용우	유태홍 박진경 김성재	정기준	유종석	강재득
감사원	총리 원장	성도집	경도집	신도집	법도집	지도집	교장	현기원	공선원	금융원
박용래 장경일	박용래	강동일	신창우 신용우	유종석	박영기	정봉기 홍위일	유종석	이영옥	박영기	박용래
전제원	심계원	전교사								
신용우	김창길	문봉주 신기엽 김종환 박병득 이기홍 박정순 김재현								
운봉군교구(1910년대)										
김희철 김성재			임석택		김동철					

〈표 8〉의 남원군교구(총리원)의 임원 중 기증 유물에서는 김성재 운봉교구장(1911, 1913), 남원군교구 전제원(1914), 남원군 순회교사(1918), 남원군총리원 감사원(1926), 남원군 순회위원(1926) 등이 확인되고 있다.

김성재는 이외에도 연원회에서 발행하는 봉훈(1916), 도훈(1923)과 춘암 박인호가 발행한 포장인 천훈은장(1926)과 도호(1927), 중앙종리원이 발행한 포덕사(1926) 등이 있다. 이와 같이 활동한 김성재에 대해 『동학천도교인명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874년 10월 16일 임실군 임실면 성가리 출신. 갑진개화운동에 황두현 김병구 등과 참가하여 활동, 자가에 운봉성화실을 설치(1907.12), 남원교구 강도원(1910), 남원군 운봉교구장(1911-1914.6), 남원교구 전제원(1914.8-1918.4), 강도원(1918-1919.30, 1919년 3월 2일 남원군 남원면에서 남원교구장 유태홍으로부터 독립선언서 9매를 전해 받고 유(종)석 최병현 등과 함께 광주지방법원 남원지청 계시판을 비롯하여 곳곳에 붙이는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4월 8일 징역 6개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대신사백년기념회원(1924), 남원군 감사원(1926.4) 등을 역임하였다. 1928년 12월 9일 환원하였으며 정부로부터 1993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받았다.¹²⁾

김성재는 임실 출신이었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원지역에서 천도교 활동을 하였다. 김성재는 천도교 활동뿐만 아니라 3·1운동에도 참여하였다. 3·1운동 당시에는 전주대교구에서 3월 2일 남원군교구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남원군 내 주요 지점에 부착하기로 하였는데, 교구장 유태홍으로부터 독립선언서 9매를 받은 김성재는 유종석, 최병현과 함께 광주지방법원 남원지청 등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8개 장소에 부착하였다. 이로 인해 김성재는 광주지방법원 남원지청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¹³⁾ 김성재뿐만 아니라 유태홍, 유종석, 최병현, 김덕인, 황석현, 문경록, 이기원, 이기동, 윤상윤, 황동주 등 남원군 천도교인은 만세시위를 위해 남원군 관내에 독립선언서를 부착하였다. 이로

12) 『동학천도교인명사전』(제Ⅱ판), 361쪽.

13) 「김성재 판결문」; 국가기록원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자료관.

인해 일경에 곧바로 피체됨에 따라 만세시위를 주도하지는 못하였지만 4월 남원지역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는데 기여하였다.

기증 유물에는 김성재 외에 김병구의 천훈1등장(1921)과 특신기념장(1923), 남원군종리원 지방위원(1925), 김종환의 남원군교회 전교사(1933) 및 안민섭의 천훈동장 포장(1926), 김기주의 남원종리원 위원(1927)과 해월신사백년기념회 위원(1927), 우창정의 천훈은동 포장(1927), 유환화의 내수도 특성 포장(1930) 등이 있다. 김병구는 남원군 운봉면 출신으로 1904년 김성재, 황두현 등과 함께 갑진개회운동에 참가하였으며 1924년 남원군종리원 종리사로 활동하였다.¹⁴⁾ 김종환은 대접주 김흥기의 아들로 1864년 9월 1일 임실군 오수면 신기리에서 태어났다. 갑진개화운동과 3·1운동에 참가하였으며 대신사백주년기념회원(1924), 교훈, 신훈 등으로 활동하였다.¹⁵⁾

1924년은 천도교를 창명한 수운 최제우의 탄신 100주년으로, 천도교단에서는 출세기념관을 건립하는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위해 성금을 모금하였다. 천도교중앙종리원은 전국적으로 대신사출세100년기념회를 조직하였는데, 남원군종리원에서도 기념회를 조직하고 성금을 모금하는데 적극 참여하였다. 성금자와 금액은 정리한 방명록을 남겼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9>와 같다.¹⁶⁾

<표 9> 남원군종리원 대신사 출세 백년 기념 성금자 명단

이름	금액	이름	금액	이름	금액	이름	금액	이름	금액
유태홍	1원	양태화	1원	유종석	1원	유진	1원	유호	1원
김응두	1원	최용화	1원	박래호	1원	김도익	1원	박영기	1원
박병길	1원	양재봉	1원	오석준	1원	박재덕	1원	박문근	1원

14) 『동학천도교인명사전』(제Ⅱ판), 272쪽.

15) 『동학천도교인명사전』(제Ⅱ판), 564쪽.

16) 1924, 『대신사출세100년기념회방명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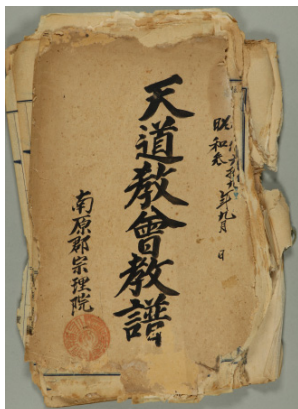
이름	금액	이름	금액	이름	금액	이름	금액	이름	금액
박수대	1원	허정	1원	이강전	5원	김강화	1원	김경연	1원
김종환	1원	이기동	1원	이강무	1원	박진경	1원	박정순	1원
박창문	1원	박세충	1원	이세화	1원	박봉안	1원	김봉화	1원
박태판	1원	박판석	1원	김유원	1원	김명식	1원	김영근	1원
김성재	1원	김경수	1원	장경일	1원	강일화	1원	장경두	1원
박두화	1원	장형수	1원	강성중	1원	강영만	1원	황현주	1원
김창길	12원	유창화	1원	김태규	1원	김태화	1원	김재현	1원
황재화	1원	황석현	1원	황동주	1원	성해룡	1원	정기준	1원
김기화	1원	진준화	1원	정택주	1원	정봉기	1원	임만수	1원
이영옥	1원	이종기	1원	이종순	1원	문경신	1원	박용래	1원
신창우	1원	신양식	1원	신용우	2원	양용화	1원	정우화	1원
신기봉	1원	신경옥	1원	신태우	1원	신병우	1원	김만옥	1원
김용문	1원	윤재선	1원	강동일	1원	김일화	1원	강기홍	1원
강재득	1원	강재인	1원	심성록	1원	최병현	1원	최순정	1원
최순옥	1원	홍위영	1원	홍위일	1원	홍규섭	1원	조기일	1원
김공현	1원	이두인	1원	서정덕	1원	김석진	1원	정진화	1원
허탁	1원	이봉의	1원	박홍래	1원	강병기	1원	윤종모	1원
김동섭	1원	강영연	1원	서기종	1원	강재순	1원	104명	120원

〈표 9〉에 의하면 대신사 출세 100년 기념 성금에 104명이 참여하였으며 금액은 120원을 모금하였다. 남원교구를 포함하여 전국 교구 천도교인의 성금으로 대신사출세백년기념관을 건립하였다. 그리고 위의 방명록에는 해월 최시형 탄신 100주년을 1927년에도 기념회를 조직하고 성금을 모금하였다. 해월 최시형 탄신 100주년 기념 성금 모금에는 15명이 참여하였고, 모금액은 25원이었다. 참여자는 〈표 10〉과 같다.

기증 유물 중 일제강점기 남원지역 천도교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는 남원군종리원의 교보, 연원록인 문성포의 포덕록과 건설록이다. 교보는 남원군종리원의 교인 현황, 문성포 포덕록과 건설록은 남원군종리원의 연원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1928년에 작성된 교보에 의하면 유태홍 등 71호, 남 196명, 여 152명으로 교인 수는 총 348

〈표 10〉 1927년 해월신사 출세 백년 기념 성금자 명단

이름	금액	이름	금액	이름	금액	이름	금액	이름	금액
박재덕	1원	박문근	1원	유태홍	1원	유종석	1원	최병현	1원
신창우	1원	신양식	1원	신춘우	1원	신용우	1원	양용화	1원
신기봉	1원	강동일	1원	강재득	1원	윤재봉	1원	김희중	1원
김희준	1원	김창길	1원	김재현	1원	권태진	1원	김계원	1원
박수대	1원	박영기	1원	김만옥	1원	김종필	1원	홍위영	1원



〈그림 2〉 1928년 작성된 남원종리원의 「천도교회교보」

명이다.¹⁷⁾ 이는 당시 종리원의 교호 기준은 50호였다는 점에서 남원군 종리원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종리원이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교보

17) 1928, 『천도교회교보』, 남원군종리원, 남원군종리원 『천도교회교보』의 교호주는 유태홍, 김도의, 안시량, 최도현, 김용두, 허정, 유상룡, 김기춘, 박래호, 최병현, 홍위영, 최순일, 심성록, 홍위일, 우종원, 형한철, 양운만, 신창우, 신춘우, 신용우, 신병우, 김만옥, 장태문, 강동일, 강기홍, 강재득, 윤재봉, 이명근, 강재인, 윤재석, 장동식, 황영주, 김계원, 김용준, 김종환, 김창길, 김재현, 권태진, 성해룡, 강성중, 박영기, 박순기, 박세춘, 오석준, 김공수, 황정진, 최봉운, 김정곤, 유창석, 강상운, 안병권, 양재봉, 박동진, 박재덕, 박수대, 김희중, 김기주, 김희준, 김공현, 조기일, 서정덕, 이두인, 서유중, 박성래, 박흥래, 강경연, 강창귀, 이봉의, 김석진, 윤종모, 김귀만 등이다.

에는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생년월일, 입교연월일, 전교인, 주소 등을 기록하였는데, 이를 통해 전교인과 수교인의 포교 관계와 지역별 교인 분포 등을 파악할 수 있다.¹⁸⁾

한편 기증 유물 중에는 「신간회 강령 급 규약」이 있는데, 이는 남원군종리원의 유태홍, 최병현, 유종석 등이 신간회 남원지회에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기존의 알려진 「신간회 강령 급 규약」은 전단지 형식으로 양면에 인쇄된 것이 비해 이 기증 유물은 소책자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본문 15쪽, 표지를 포함하면 총 18쪽이다. 남원신간지회는 1927년 8월 12일 설립되었으며, 천도교인으로는 유태홍, 최병현, 유종석, 강재득 등이 지회장을 비롯하여 간사 등으로 적극 참여하면서 남원지역 신간회 활동의 한 축을 담당하였다.¹⁹⁾

이외의 기증 유물에는 『천도교서』와 『일반상식』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천도교청년회가 1921년 12월 교리강습회를 개설할 때 교재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이 교리강습회에 남원군종리원에서는 최병현, 이강전, 유종석, 김영운, 정봉기, 강재득 등 6명을 파견하였다.²⁰⁾

3. 해방 후 현대 시기: 1945년~1986년

1945년 8월 15일 일제 강점으로부터 해방을 맞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천도교단은 분규에 휩싸였다. 이는 일제강점기 최린을 대표하는 신파(천도교중앙총부)와 이종린을 대표하는 구파(천도교중앙총부)로 분화되었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1920년대 중반 신파와 구파로 분화된

18)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제공해준 기증 유물 목록에는 ‘포덕록’과 ‘진설록’이 포함되었는데, 실제 자료에는 누락되었다. 이들 자료 역시 교인 현황과 포교 관계, 교인간의 혼인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 성주현, 2014, 「향암 유태홍의 생애와 민족운동」, 『일제하 민족운동 시선의 확대』, 아라, 387~394쪽.

20) 『남원군종리원사』.

천도교단은 1931년 합동되었지만(천도교중앙총리원) 2년만인 1933년 다시 신파(천도교중앙총리원)와 구파(천도교중앙총리원→천도교중앙교회)로 분화되었다. 분화된 상태로 10여 년 동안 각각 활동하던 신파와 구파는 1941년 다시 합동(천도교총부)을 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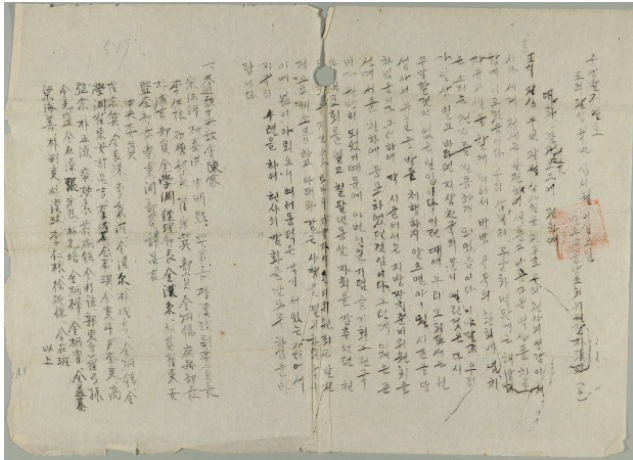
해방 후 천도교단이 다시 분류가 시작된 것은 신파는 친일, 구파는 민족운동이라는 이분법적인 인식 때문이었다. 하지만 신파나 구파나 일제 협력을 한 것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 일제 전시체제기에는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렇지만 구파는 신파를 친일 세력으로 인식하고 배척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직후에는 해방 전 합동되었던 교단이 유지되었다. 하지만 구파에서는 신파의 대표적 인물 최린에 대해 은퇴권고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최린은 은퇴를 거부함에 따라 1945년 10월 25일 개최된 전국임시대회에서 최린을 출교 처분하였다. 이를 계기로 천도교단은 다시 신파(천도교총본부)와 구파(천도교본부)로 분화되었다.²¹⁾

이러한 와중에 춘암 박인호를 4세 선생으로 추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파의 중심을 이루는 호남지역의 천도교인들은 ‘구파 정신(水月執義春)’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1945년 11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에는 남원지역 천도교인을 대표하여 유태홍과 김학연이 서명하였다.²²⁾ 이어 호남지역 천도교 조직은 임실에 천도교중앙교회를 별도로 설립²³⁾함으로써 천도교단은 신파의 천도교총본부, 구파의 천도교본부

21) 천도교중앙총부 교서편찬위원회, 2006, 『천도교약사』, 천도교중앙총부출판부, 391~396쪽. 해방 후 천도교의 신파와 구파의 분화는 1947년 4월 2일 정기대회를 계기로 합동하였다.

22) 1945년 11월, 「성명서」. 성명서에는 남원 유태홍과 김학연을 포함하여 완도 신명희, 임실 최종기 김한경 박성언 김형석 김태순, 전주 조병하, 장수 김봉기, 군산 김광성, 영광 고현중, 장성 박정원, 광주 배환표, 서천 최궁진 등 15명이 서명하였다.

23) 천도교중앙교회는 1945년 12월 25일자 명의로 「사되는 말씀」이라는 통지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앞서 1945년 12월 24일 임실에서 천도교중앙교회를 설립하는 전국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림 3〉 1945년 12월 24일 개최된 천도교중앙교회의 전국대회 경과보고와 임원진 통지문. 임원진에는 남원교구의 유태홍, 김학연, 최병현 등이 선임되었다.

와 천도교중앙교회로 삼분되었다. 이해 12월 25일자 천도교중앙교회 첫 공문에 의하면 대회를 개최하고 임원진을 구성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종법사 유태홍 신명희
 위원장 박한규
 부위원장 이인근
 포덕부장 최종기, 부원 김형석
 서무부장 박성언, 부원 김학연
 경리부장 김한사, 부원 최동안
 감사부장 조병하, 부원 허우길
 중앙위원 최종기 김양수 조병하 박한사 박성언 김형석 김학연 최동안
 허우길 이성기 김봉기 김병두 윤규섭 고흥종 박정원 배환표 최병현 김
 채현 광동형 최궁진 김광성 김재원 장종렬 박운배 김병화 김병주 김익
 태 양해선 박판섭 박한규 이인근 서정덕 김재반²⁴⁾

24) 1945년 12월 25일, 「대회 경과보고에 관하여」(천증발 제1호), 천도교중앙교회.

임실에 본부를 둔 천도교중앙교회는 호남 일대 천도교 조직 즉 교구를 관장하였고, 1950년까지 유지되었다.²⁵⁾ 남원교구는 천도교중앙교회에 적극 합류하였으며, 종법사 유태홍을 비롯하여 서무부원 김학연, 중앙위원회에는 이들 외에 최병현이 선임되었다. 이 시기 김학연이 남원군과 전라남북도 순회교사, 김학연의 내수도인 김학화의 수근재라는 도호를 각각 수여받았다. 천도교중앙교회는 교리서를 비롯하여 각종 서적을 출판하기 위한 기성회를 조직하였는데, 유태홍은 완도의 신명희와 함께 고문으로 추대되었으며 유종석은 부위원장, 김학연 이석호 양평석 선상규 박태윤은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천도교중앙교회와 서적출판기성회의 임원진은 임실과 남원 출신이 많다는 점에서 남원은 분부가 있는 임실과 함께 천도교중앙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것으로 보인다.

1960년 4·19 이후 천도교단은 공진향 교령으로 내분이 시작되었다. 당시 교령 공진향의 과거 자유당 간부 및 당원으로 활동한 경력과 대통령선거지도위원 등의 활동은 4·19혁명 이후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다고 보고 구파 측에서는 그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를 수용하고 사퇴하기로 한 공진향 교령이 전국대회를 소집함에 따라 구파 측은 불참하였고, 전국대회는 예정대로 개최되었고, 신파 측 인물로 천도교중앙총부 임원진이 구성되었다.²⁶⁾ 이에 불만은 품은 구파 측은 이종해를 위원장으로 하는 천도교중앙총부수습위원회를 별도로 조직하였다. 사실상 천도교단은 다시 신파 측 천도교중앙총부와 구파 측 천도교중앙총부수습위원회로 양분되었다. 그렇다고 수습위원회가 별도의 교단으로 분립하지는 않았다.

25) 천도교중앙교회가 발행한 문서나 관련 자료에 의하면 1950년 6월 30일자 『천도교회규약』이 마지막으로 확인된다. 한국전쟁으로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이후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천도교중앙총부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26) 신임 집행부는 교령 신용구, 부교령 이병현과 장창걸, 교화관장 주동립, 교무관장 이영복, 경리관장 이광순으로 구성되었다. 이중 구파인 이병현이 사퇴함으로 인해 완전히 신파 측이 중앙총부를 장악하게 되었다.

천도교중앙총부수습위원회는 구파의 기반인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의 천도교 지방조직인 교구를 별도로 관장하였다. 수습위원회는 수습대책으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결의하였다.

1. 종금 이후로 중앙에서 여하한 전국대회가 개최된다 하여도 무조건 소집통지가 오기 전에는 그들의 말하는 바 성미를 납입하여 교인 자격을 얻은 후 대회에 참석하라 함을 거부할 것
2. 연월성미는 1개소에 상납기로 할 것
3. 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하였으나 내년 4월 천일기념 시까지 계속해 줄 것²⁷⁾

위의 세 가지 대책은 첫째 신파 측 전국대회에 불참할 것, 둘째 연월성미는 수습위원회에 납부할 것, 셋째는 이종해 위원장이 내년 4월 5일까지 맡아줄 것 등이다. 이 결의에 따라 구파 측 교구는 연월성미를 수습위원회에 납부하였다. 수습위원회는 남원교구에 월성미를 수습위원회에 납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보냈다.

수습위원회회를 지지하는 구파 측 교구는 성미를 중앙총부가 아닌 수습위원회에 납부하였다. 또한 수습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식과 특별기도 등 기타 행사에 참여하였다. 남원교구도 구파 계열이었기 때문에 수습위원회에 성미를 납부하고 각종 행사에 참가하였다.²⁸⁾ 수습위원회는 김학연을 남원교구장에 선임하였다.²⁹⁾ 남원교구는 1965년 수해로 인한 피행상황을 수습위원회에 보고하기도 하였다.³⁰⁾ 남원교구가

27) 1990, 『동학·천도교약사부총서』, 보성사, 165쪽.

28) 김동규 기증 유물 중 천도교중앙총부수습위원회에서 생산한 공문, 성미납부통지서, 위원장의 간찰 등이 상당수에 달한다. 이는 남원교구가 신파로 구성된 천도교중앙총부가 아닌 구파의 천도교중앙총부수습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29) 「인장」: 천도교중앙총부수습위원회장→김학연.

30) 김학연, 「수해민 보고의 건」, 1965년 8월 10일→천도교중앙총부수습위원장.

〈표 11〉 1966년 남원교구 연원록 현황

원주직	교호주	관내 교호주
도훈		
(직접)교훈	김학연	
신훈	양재봉	이석호 양철환 양상영 양승규 양근석 안영○
	이석호	이석현 (이정수) 이석인 이석오 오일두 최영학 박옥규
	이정수	이석창 송인철 이석륜 이석춘 이석내 이완수
	이석현	이상수 이우현 이석준 이우항 이증갑 이우영
	임만길	유창연 유성연 문봉동 허역 허점룡 허홍수 김순정 유동연

맺음말

이상으로 김동규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기증한 유물을 통해 남원지역 천도교의 활동(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김동규의 자료 기증이다. 김흥기-김종환-김동규로 이어지는 동학·천도교를 신앙해 온 3대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김동규에 의해 2017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기증되었다. 기증 유물은 천도교 관련 자료 등 646건 762점으로 2,467매로 상당한 양이라고 할 수 있다. 기증 유물은 1906년부터 1986년까지 생산되었는데, 1972년이 77건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1969년이 69건, 1965년이 43건으로 뒤를 잇고 있다. 30건 이상 되는 해는 1969년(39), 1971년(38건), 1964년(34건), 1966년(33건)이며, 20건 이상 되는 해는 1968년(25건), 1967년과 1974년(22건), 1974년 22건이다. 이들 11개 해수의 기증 유물은 402건으로 전체의 약 3분의 2에 해당한다. 그리고 연도 미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60건으로 적지 않았다. 시기별로는 대한제국기 9건, 일제강점기 65건, 현대 548건, 시기 미상 24건으로 해방 후 현대 시기 기증 유물이 전체의 5분의 4 이상을 차지한다. 생산 주체는

천도교중앙총부(대도주), 천도교중앙교회, 천도교중앙총부수습위원회, 천도교중앙총부, 천도교용담연원, 남원교구(종리원) 등이며 대다수가 천도교 관련 기관에서 생산되었다. 이외에 소량의 기증 유물은 전라북도, 남원중학교 등에서 생산되었다. 기증 유물의 유형별로는 공문류가 가장 많으며 문헌류, 증서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자료에 대해 “대다수가 천도교 중앙총부에도 없는 천도교 관련 자료들로 대대적인 조명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둘째는 기증 유물을 통해 본 남원지역 천도교의 활동이다.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한제국 시기이다. 1906년 2월 천도교중앙총부가 설립된 직후에는 <천도교대헌>을 제정 공포하였고 종령(宗令)을 기반으로 교단이 운영되었다. 또한 새로운 변화와 발전 즉 교세 확장을 위해 각종 교리서를 발행하였다. 당시 중앙총부는 지방에도 군 단위로 교구를 설치하였는데, 남원지역에는 남원군교구와 운봉군교구가 설립되었다. 이 시기 기증 유물에서 김희철의 봉훈, 3등 포장, 운봉군교구장, 예비교훈 등의 인준장과 포장 등과 천도교단에서 발행한 『동경연의』, 『성훈요의』, 『천약종정』 등 교리서를 통해 남원지역 천도교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기증 유물 중 일제강점기의 남원교구(종리원)은 김성재와 김병구, 김종환 등의 남원교구 임원에 대한 인장을 통한 남원교구(종리원)의 상황, 수운 최제우 탄신 100주년을 맞아 1924년 대신 사출세백년기념회 남원지회를 조직 및 성금 모금 활동, 1927년 2월 조직된 신간회의 「신간회 강령 급 규약」을 통한 남원지회 참여, 천도교청년회에서 개설한 교리강습회에 강습생 파견 등의 활동이 확인된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천도교단이 신파와 구파로 분화될 때 구파의 한 축으로 담당하였다. 남원지역 천도교인(남원교구)은 호남 구파 세력의 중심인 임실과 함께 천도교중앙교회를 조직하는데 충추적 역할을 하였고, 주요 임원진으로 참여하였다. 그 연장선에서 1960년대는 천도교중앙총부수습위원회에 합류하였고, 기념식과 기도회 등에 적극 참여하였다. 물론 공문 수발과 성미 납부 등도 수습위원회와 소통하였다. 1968년

후반 천도교중앙총부와 수습위원회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내분이 해소되자 남원지역 천도교(남원교구)는 자연스럽게 천도교중앙총부의 지방조직으로 합류하였다.

다만 본 발표문을 준비하면서 방대한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기증자료를 통해 가장 먼저 밝혀야 할 것은 천도교의 분화이다. 천도교 분화는 표면적으로는 1920년대부터 적어도 1960년대까지 지속되었음을 본 기증 유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예가 호남지역의 천도교인으로 조직된 천도교중앙교회이다. 또한 그 연장선에서 호남을 포함한 충청, 경기, 강원 지역을 포함한 구파 세력인 천도교중앙총부수습위원회이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살펴볼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방대한 기증 유물을 생산기관 별로 다시 한번 분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투고일 : 2025. 4. 9. 심사완료일 : 2025. 4. 27. 게재확정일 : 2025. 5. 12.

참고문헌

<자료>

「김성재 판결문」
1924, 『대신사출세100년기념회방명록』.
남원군종리원, 1928, 『천도교회교보』.
『남원군종리원사』
『전북신문』
『천도교회월보』

<단행본>

1973, 『천도교임실교구사』, 천도교임실교구.
1990, 『동학·천도교약사부총서』, 보성사.
2019, 『동학·천도교인명사전』(제Ⅱ판), 모시는사람들.
천도교중앙총부 교서편찬위원회, 2006, 『천도교약사』, 천도교중앙총부출판부.

<논문>

성주현, 2014, 「향암 유태홍의 생애와 민족운동」, 『일제하 민족운동 시선의 확대』,
아라.

<홈페이지>

국가기록원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자료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 사료 아카이브.

〈Abstract〉

Cheondogyo in Namwon Area Based on Kim Dong-gyu's Donated Relics

Sung, Joohyun*

This paper examines Cheondogyo activities by period based on relics that were donated to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Foundation from the three generations of Kim Hong-ki, Kim Jong-hwan, and Kim Dong-gyu.

The first was donated to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Foundation twice in September and October 2017 by Kim Dong-gyu, which is owned by three generations who have believed in Donghak and Cheondogyo, leading to Kim Hong-ki, Kim Jong-hwan, and Kim Dong-gyu. The donated relics are 646 cases and 762 pieces, including materials related to Cheondogyo, which is a significant amount of 2,467 pieces. By type of donated relics, official documents are the most common, and documents and certificates are included. Regarding these data, "Most of them are materials related to Cheondogyo that are not even in the Central General Administration of Cheondogyo, and a large-scale illumination is needed."

Second, the activities of Cheondogyo in Namwon region, as seen through donated relics, are confirmed from the period of the Korean Empire until the 1960s after liberation. The appearance of Cheondogyo in Namwon region can be confirmed through seals and doctrines issued

* Cheondogyo Central Headquarters Resident Leader

by the Cheondogyo Church during the Korean Empire period. In addition to the activities of the Namwon Diocese, the Japanese colonial era specifically confirms social activities such as Singanhoe, and after liberation, the Cheondogyo Church's disputes are confirmed.

Key word : Cheondogyo(天道教), Namwon(南原), Donated relics, Donghak (東學), Singanhoe(新幹會), Donghak Peasant Revolution(東學農民革命)

▣ 일반논문 ▣

경상도 의흥지역 동학농민군 활동
신진희

자운(紫雲) 이중구(李中久)의 시선으로 본 ‘동학농민혁명’
- 『이중구가 오대 고문서(李中久家 五代 古文書)』 자료의 소개를 중심으로 -
김현선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 고증과 문화유산 지정방안
이병규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정비·활용방안
홍성덕

경상도 의흥지역 동학농민군 활동

신진희*

〈목 차〉

머리말

I. 동학농민군의 경상도 의흥지역 진출

II. 의흥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III. 신석찬 義旅의 동학농민군 진압과 會約所 활동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경상도 의흥 지역에 동학농민군이 유입된 경로를 살펴보고, 의흥 사람들이 동학농민군에 합류하게 된 원인을 밝힌다. 또한, 동학농민군이 의흥 지역에서 펼친 활동을 파악하고,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고자 했던 신석찬 의려의 활동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다. 이를 통해 의흥 지역은 물론, 그 주변 지역인 칠곡과 군위의 동학농민군 모습을 조명한다.

1894년 8월 17일 의흥지역 동학농민군이 이동한 경로는 예천-비안-의성-의흥이다. 예천을 통해 비안으로 갔던 동학농민군이 의성을 거쳐 의흥으로 이동한 것이다.

* 경국대학교 강사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의흥현감 채경묵의 부정부패였다.

의성 동학농민군은 의흥 북동으로 들어와, 신원을 점령하여 근거지로 삼았으며, 주변지역인 대울, 거수로 진출하였다. 또 의흥을 넘어서 칠곡의 동북면과 군위의 효령으로 나아가 세력을 확장하였다.

申錫燦(1851~1921)은 동학농민군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8월 20일에 의려를 결성하였다. 다음날은 21일 신원에서 동학농민군과 첫 번째 싸움을 했고, 곧이어 신녕싸움이 22일 새벽까지 이어졌으며, 22일 낮에 벌어진 효령싸움을 끝으로 신석찬 의려와 동학농민군과 싸움이 끝났다.

신석찬은 동학농민군과 싸움이 끝난 후, 향촌사회를 통제하기 위해 회약소를 결성했다. 회약소 구성원은 의려에 참여했던 이들이 중심이었고, 의흥 지역과 군위·칠곡 지역을 포함하였다.

주제어 : 의흥, 동학농민군, 신석찬, 채경묵, 경로

머리말

1895년 당시 경상도漆谷은 東北面, 西北面, 下北面, 八莒面, 退川面, 文朱面, 伊彦面, 上枝面, 道村面, 蘆谷面, 巴彌面, 山城面으로,¹⁾ 軍威는 孝靈面, 中城洞面, 南面, 西里面, 召召本面, 石乙本面, 花谷面으로,²⁾ 義興은 中里面, 下里面, 乃化里面, 友保里面, 巴立田面, 小首里面, 身南面, 缶東面, 縣內面, 缶南面, 缶西面, 牛谷驛里로 구성되어 있었다.³⁾ 1914년 군위군에 편입되면서 召保面, 軍위면, 효령면, 부계면,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 고로면 중 하나가 되었다.

경상도 칠곡·군위·의흥지역 동학농민군에 관한 연구는 김봉곤, 신

1) 漆谷郡, 『漆谷府邑誌』, 1899(광무3), 7~8면(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 軍威郡, 『軍威郡邑誌』, 1899(광무3), 8~9면(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3) 義興郡, 『義興郡邑誌』, 1899(광무3), 8~9면(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진희에 의해 진행된 적이 있다. 김봉곤의 연구는 『蒼溪實記』를 바탕으로 칠곡·군위·의흥지역을 살폈다.⁴⁾ 다만 『蒼溪實記』를 중심으로 살폈기에 동학농민군의 움직임보다는 신석찬의 동학농민군 진압 관련 내용과 신석찬의 업적을 추승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서술될 수밖에 없었다. 신진희의 연구는 박사학위 논문의 한 부분으로 『蒼溪實記』를 중심으로 신석찬의 동학농민군 진압을 중심으로 서술하여 의흥 동학농민군의 움직임까지는 파악하지 못하였다.⁵⁾

따라서 이 글에서는 경상도 북부인 의흥지역에 동학농민군이 들어오게 된 경로와 동학농민군이 들어오게 되면서 의흥 사람들이 동참하게 된 원인을 살핀다. 또 유입된 동학농민군이 했던 활동을 사례별로 나누어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동학농민군의 활동으로 인해 신석찬 등이 칠곡·군위·의흥지역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벌였던 활동 등을 서술한다.

이를 위해 의흥 중심으로 자료를 살필 필요가 있다. 의흥지역 동학농민군 진압자료인 『蒼溪實記』를 기본으로 하고, 의흥 유림 李致宇(1828~1905)의 문집인 『柳下集』에 의흥현감 채경묵에게 보낸 편지인 「與義興倅蔡侯」를 참고로 한다. 그 외에도 『司法稟報』, 『別啓』, 『啓草存案』, 『承政院日記』, 『官報』 등 관변측 자료와 『(김산)召募事實』, 『羅巖隨錄』, 『永嘉記事』, 『李章繪隆熙四年記錄』, 『예천 맛질박씨家일기(渚上日月)』 등 의흥 주변지역에서 의흥과 관련된 사실 등을 적은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 자료들은 동학농민혁명사료아카이브(<https://www.e-donghak.or.kr/archive/>)에서 대부분 확인할 수 있다. 『承政院日記』, 『官報』 등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와 한

4) 김봉곤, 2014.08.26., 「『창계실기(蒼溪實記)』와 경상도 의흥·군위·칠곡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새로운 자료를 통해 본 경상도 북부지역 동학농민혁명』, 경상북도·상주시·상주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5) 신진희, 2016, 「경상도 북부지역 '반동학농민군' 연구-동학농민군 진압 사례를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예천 맛질박 씨家일기(渚上日月)』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기록유산DB(<https://jsg.aks.ac.kr/vj/>) 등 다양하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서 활용하였다. 이외에도 「李章繪隆熙四年記錄」는 낱장으로 문서인데 2012년에 발견되어 석사학위 논문에 인용되었고, 『永嘉記事』는 2019년 번역본이 출간되었다.

I. 동학농민군의 경상도 의흥지역 진출

경상도 북부지역에서 가장 먼저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포착된 곳은 예천이다. 1894년 3월 최맹순이 예천 소야리에 접소를 설치한 것이 그것이다.⁶⁾ 4월이 되면 상주의 화북, 김산과 지례에서도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포착되었다. 상주 화북 산내 7개 마을 대표들이 경상감사에게 동학농민군의 ‘聚黨’을 보고하면서 알려졌고,⁷⁾ 이들은 충청도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지원하였다.⁸⁾ 4월 초순 최시형이 호남 동학농민군 타살문제를 좌시할 수 없으니 청산에서 모이자는 통문을 돌린 것과도 관련될 듯하다.⁹⁾ 김산·지례·거창에서 동학농민군 협의로 20여 명이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이들 가운데 3명이 동학 13자 주문인 “爲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를 가지고 있었다.¹⁰⁾

6) 『甲午斥邪錄』 1894년 봄(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3, 2008, 261쪽).

7) 「경상도 상주 화북 동학 고문서」(박맹수, 『사료로 보는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09, 187~190쪽 참조).

8) 「慶尙道內東學黨狀況探聞報告(1894년 06월 13일자)」, 『駐韓日本公使館記錄』.

9) 충청북도, 2006, 「충북지역 동학농민혁명 일지」, 『충청북도 동학농민혁명사 연구』, 323쪽.

10) 「慶尙道內東學黨狀況探聞報告(1894년 06월 13일자)」,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이 자료에서 “지난달 중순客月中旬ノ頃”은 양력 5월 중순이다. 따라서 음력으로 4월이다.



〈그림 1〉 4~6월 동학농민군 활동 포착지역

5월이 되면 선산, 상주, 유곡을 “동학농민군의 巢窟”이라고 표현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¹¹⁾ 6월에 들어서면 성주에서도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포착된다. 동학농민군이 성주관아를 점령했다는 소문이 날 정도였다.¹²⁾ 성주 외에도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던 곳이 예천이었다.

6월 21일 경복궁이 불법점령되고, 23일 일본군이 청군의 해군함대를 공격하면서 청일전쟁이 시작되었다. 일본은 이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반도에 병참부대를 배치하였다. 경상도 북부지역에 설치된 일본군 병참부대의 위치는 대구-다부역-선산 해평-상주 낙동-함창 태봉-문경 등이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위협으로 인해 7월이 되면,

11) 「慶尙道內東學黨狀況探聞報告(1894년 06월 13일자)」,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2) 신영우는 1984년 「1894년 영남 예천의 농민군과 보수집강소」(『동방학지』 44, 1984, 217쪽)에서 6월 성주관아가 점령되었다고 하였으나 1991년 연구(「1894년 영남 김산의 농민군과 양반지주층」, 『동방학지』 73, 1991, 183쪽 참조)에서 이를 정정하였다.

예천 동학농민군 최맹순은 소야접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7월 초, 예천 동학농민군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일부는 비안현(의성군 비안면)으로 들어왔다. 관노들이 동학농민군에게 관아의 문을 열어주면서 동학농민군의 관아점령이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세금부과의 기본문서였던 良籍도 소각하였다.¹³⁾ 늦어도 7월 하순에는 벌어진 일인 듯하다. 의성현령 이관영이 안동영장 김호준에게 몸을 의탁한 사실이나, 예천 금당실에 살고 있던 박주대가 7월 25일에 이 소식을 접하고 일기로 남긴 점으로 보아 그러하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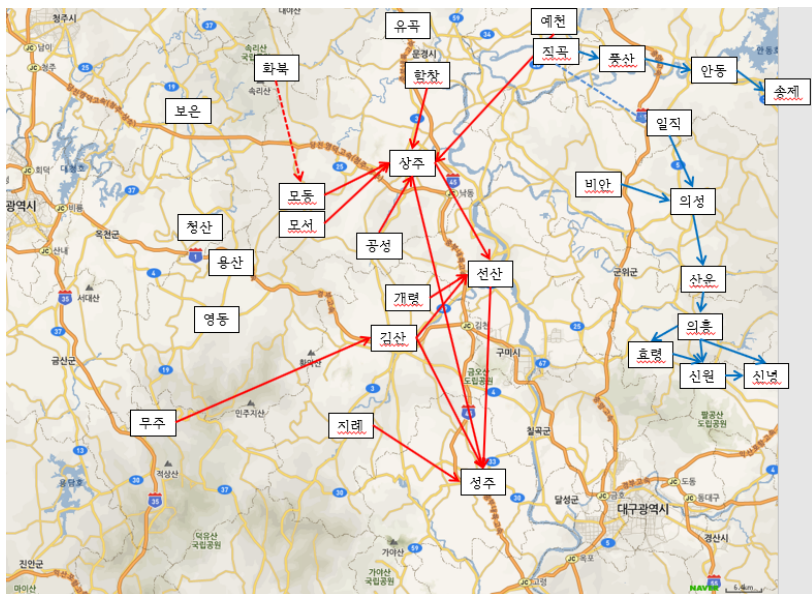
8월 하순이 되면 의성군 금성면 산운마을에 관노 출신 동학농민군들이 접소를 설치하였다. 정리하면, 7월 하순에 비안 동학농민군이 의성 관아를 점령하였고, 이후 관노 출신 의성 동학농민군이 금성면 산운마을에 접소를 설치하였다. 곧이어 이들이 진출한 지역이 바로 의흥이었다. 각 자료를 바탕으로 동학농민군의 확산을 화살표로 표시하면 <그림 2>의 지도와 같다.

8월 17일 금성면과 경계를 접하고 있던 의흥지역에 의성 동학농민군이 들어왔다. 의흥지역 사람들은 8월 14일부터 의성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살피고 있었다. 이 무렵 의성 동학농민군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적어 두기도 하였다.¹⁵⁾ 이처럼 『蒼溪實記』와 같은 기록만으로 보면, 의흥 동학농민군은 의성에서 들어온 것이 확실해 보인다. 다만 10월 이후 동학농민군의 움직임 등을 보았을 때, 성주·선산·상주 동학농민군과도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또 이들의 목표가 대구 점령이었을 가능성도 있었음을 감

13) 「李章繪隆熙四年記錄」(신진희, 「의성 동학농민군 진압자료」 「이장희李章繪 용희사년기록隆熙四年記錄」, 『한국인문융합연구』, 국립안동대학교 글로컬사업단, 2025, 183쪽).

14) 『永嘉記事』; 한국학중앙연구원, 『예천 맛길박씨家일기』 3, 2005, 218쪽(1894년 7월 25일자).

15) 「倡義錄日記」 1894년 8월 14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56쪽).



〈그림 2〉 7월 이후 동학농민군의 움직임

안해야 할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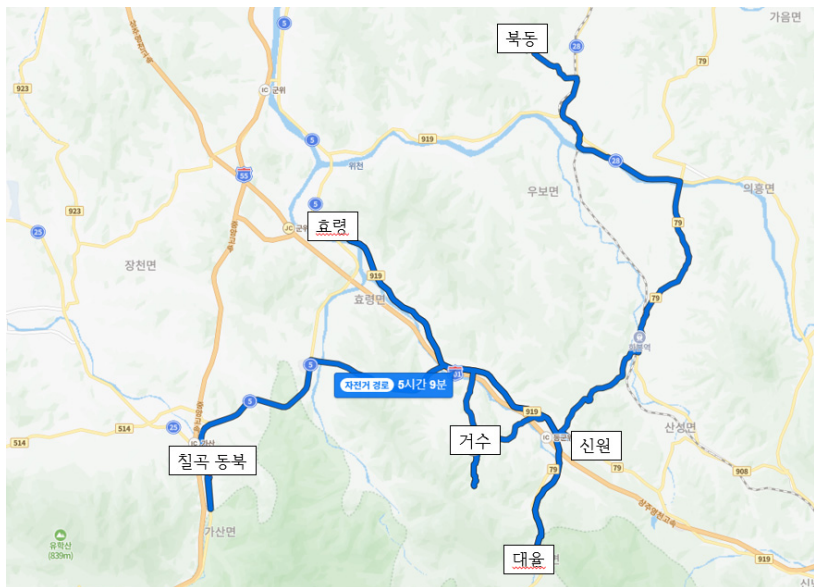
의성 동학농민군이 8월 17일에 들어온 곳은 의흥 北洞이었다. 북동은 의흥 관문에서 20리 떨어진 乃化里面(乃化面)에 속했다가 1914년 군위군 우보면 杜北洞이 되었다.¹⁶⁾ 19일 의흥관아를 점령하지 못한 동학농민군은 薪院을 점령하고 근거지를 삼아서 주변인 大栗, 巨首, 칠곡의 東北, 군위의 孝令으로 진출하였다.¹⁷⁾(〈그림 3〉 참조)

의흥관아를 점령하지 못한 동학농민군이 근거지로 삼은 薪院은 역원이 있던 곳으로 현내면에 속했으며, 현에서 남쪽으로 2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다.¹⁸⁾ 현재 지명으로는 군위군 부계면 창평동에 속한다. 大栗은

16) 義興郡, 『義興郡邑誌』, 1899(광무3), 7면; 조선총독부,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2, 599쪽; 越智唯七,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1917, 523쪽.

17) 『倡義錄日記』 8월 19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58쪽).

18) 義興郡, 『義興郡邑誌』, 1899(광무3), 19면; 조선총독부,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



〈그림 3〉 의흥과 그 주변지역의 동학농민군 영향력 확대

의흥군 缶南面으로, 관문으로부터 40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다.¹⁹⁾ 大北·東大·上大·西大洞이 합해져 1914년 군위군 缶溪面 大栗洞이 된 곳으로,²⁰⁾ 당시에도 이 일대를 대울이라고 칭했던 모양이다. 巨首는 의흥군 缶西面으로, 관문에서 50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다.²¹⁾ 1914년 군위군 부계면 명산동이 되었다.

칠곡 東北은 칠곡군 동북면인데, 칠곡부의 관문으로부터 50리 떨어져 있고 1914년 칠곡군 架山面이 되었다.²²⁾ 군위의 孝翁은 군위군 효

一覽』, 1912, 601쪽.

19) 義興郡, 『義興郡邑誌』, 1899(광무3), 9면.

20) 조선총독부,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2, 601쪽; 越智唯七,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1917, 523쪽.

21) 義興郡, 『義興郡邑誌』, 1899(광무3), 9면.

22) 漆谷郡, 『漆谷府邑誌』, 1899(광무3), 7면; 조선총독부,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2, 597쪽; 越智唯七,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1917, 527쪽.

령면을 지칭하며, 현 남쪽으로 30리 거리에 있다. 칠곡과 효령의 경우에는 어느 지점을 명확하게 표시하기는 힘들지만 편의상 지도에는 효령면사무소와 가산면사무소 소재지를 표시하였다. 이 지도를 통해 동학농민군들이 진출하여 활동한 의흥·군위·칠곡이 멀지 않은 곳임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참조).

II. 의흥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의흥에서 동학농민군이 활동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義興縣監 蔡慶默(1824~?)의 부정부패였다. 채경묵의 본관은 平康, 자는 成南, 호는 錦樵이다.²³⁾ 그는 1891년 梁山郡守, 1892년 河陽縣監을 거쳐 1893년 義興縣監이 된 인물이다.²⁴⁾ 1894년 7월 봉화현감(奉化縣監)에 제수되었으나 병으로 인해 나아가지 않았다.²⁵⁾ 그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료를 날짜 순서대로 나열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의흥현감 채경묵의 비리 관련 자료

번호	자료명	날짜	내용
1	『羅巖隨錄』	新式節目 (九月)	경상감사의 서목에, “ <u>전 의흥현감 蔡慶默은 관리에 임명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그 학정은 비할 데가 없을 정도(밑줄:필자)이고, 합천군수 閔致純은 3년 동안 관직에 있으면서 한결같이 탐욕을 부렸다고 합니다.</u> 해당

23) 한국고전종합DB(2024.10.19. 검색). 蔡慶默의 물년이 1894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1895년 6월 27일 詔勅에 의해 석방했다는 보도(『官報』 1895년 7월 5일자)가 있어, 채경묵의 물년은 그 이후로 짐작된다.

24) 『승정원일기』 고종28년 1월 29일조(양산군수). 고종29년 7월 6일조(하양현감). 고종30년 7월 28일조(의흥현감).

25) 『승정원일기』 고종31년 7월 5일조(봉화현감). 고종31년 7월 19일조(신병을 이유로 改差).

번호	자료명	날짜	내용
			아문으로 하여금 아뢰어 처리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여 해당 아문으로 하여금 임금께 아뢰어 처벌케 하였다.
2	『司法稟報』	1894.09.06	嶺營貪贓不法之義興前縣監蔡慶默起送事
3	『承政院日記』	1894.09.08	또 의금사의 말로 아뢰기를, “경상 감사 趙秉鎬의 장계 내에, ‘거리낌 없이 재물을 탐한 <u>전義興縣監 蔡慶默(밀줄:필자)</u> , 재물을 탐하여 불법을 저지른 陝川郡守 閔致純의 죄상을 유사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해 주소서.’라고 한 일에 대해 계하하셨습니다. 모두 해도의 도신으로 하여금 관원을 보내어 押上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한다고 전교하였다.
4	『啓草存案』	1894.09.11	아뢰기를, “경상 감사 조병호의 장계로 인하여, 陝川郡守 閔致純과 <u>義興前縣監 蔡慶默의 횡령한 돈을 추징하는 일(밀줄:필자)</u> 을 의정부에서 아뢰어 처리하라고 계하하셨습니다. 탐관오리를 징계하는 일에 대하여 전후로 신칙한 하교가 얼마나 엄중하였습니까? 그런데 최근 영남 수령들이 횡령하였다는 논계(論啓)가 연이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라의 기강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차라리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의 2명의 수령이 처벌되기를 기다린 후 법무아문에서 집의 노복을 잡아가두고 모두 빠른 시일 내에 추징한 뒤 경상 감영으로 내려 보내 여러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택을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
5	『承政院日記』	1894.09.11	또 의정부의 말로 아뢰기를, “경상 감사 趙秉鎬의 장계로 인하여 陝川郡守 閔致純과 <u>전義興縣監 蔡慶默이 뇌물로 받은 돈을 추징하는 문제를 모당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계하하셨습니다(밀줄:필자)</u> . 탐오를 징계하는 문제에 대해 전후로 신칙한 하교가 얼마나 준엄하였습니까. 그런데 근일에 영남의 수재(守宰)가 범장(犯贓)하여 연이어 논계(論啓)에 올랐습니다. 나라의 기강이 이 지경에 이르니 차라리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위 두 고을의 수령에 대해서는 처벌하기를 기다려 법무

번호	자료명	날짜	내용
			아문으로 하여금 가동(家僮)을 잡아 가두고 모두 즉시 받아 낸 다음 해도(該道)의 감영으로 내려보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6	『官報』	1894.09.29	議政府啓曰守令遞歸後債負有無從實修啓事曾有定式而卽見嶺伯啓本安東前府使洪鍾榮大邱前判官申學休盈德前縣監張華植義興前縣監蔡慶默(밑줄:필자)公擲私負如是夥數揆以典憲極爲駭然令法務衙門拿囚一一懲捧下送該道以充公納何如 傳曰允
7	『羅巖隨錄』	甲午十月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수령이 체직되어 돌아간 후 채무의 유무는 사실대로 정리하여 아뢰는 일은 일찍이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방금 영남감사의 계본(啓本)을 보니, 전 안동부사 홍鍾榮, 전 대구판관 申學休, 전 영덕현감 張華植과 전 의흥현감 蔡慶默은 공금으로 사채를 갚음이 이와 같이 많으니(밑줄:필자), 법률로 비추어 볼 때 극히 놀라운 일입니다. 법무아문으로 하여금 붙잡아 심문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8	『啓草存案』	1894.10.29	아뢰기를, “수령의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부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대로 보고하도록 한 定式이 있는데, 지금 경상 감사 조병호의 계본을 보니, 安東 前 府使 洪鍾榮·大邱 前 判官 申學休·盈德 前 縣監 張華植·義興 前 縣監 蔡慶默은 공금을 유용하고 개인적인 부채를 진 것이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밑줄:필자). 국법[典憲]으로 헤아려볼 때 대단히 놀랍습니다. 법무아문에서 잡아다 구금하고 일일이 추징하여 경상도로 내려 보내어 公納에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희를 받았다.
9	『承政院日記』	1894.10.29	또 의정부의 말로 아뢰기를, “수령이 체차되어 돌아간 뒤에 부채(負債)의 유무를 사실대로 수계(修啓)하도록 한 定式이 있는데 방금 경상 감사 趙秉鎬의 계본을 보니, 전 安東府使 洪鍾榮, 전 大邱判官 申學休, 전 盈德縣監 張華植, 전 義興縣監 蔡慶默이 공금을 유용하거나 사적으로 빌려간 채무(밑줄:필자)가 이

번호	자료명	날짜	내용
			와 같이 많습시다. 전헌(典憲)으로 살펴볼 때 지극히 놀랍습시다. 법무아문으로 하여금 나수(拿囚)하게 하고 일일이 징수하여 해도에 내려보내 공금을 채워 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한다고 전교하였다.
10	『關草存案』	1894.11.01	慶尙監司趙秉鎬 啓本則安東前府使洪鍾榮大邱前判官申學休盈德前縣監張華植義興前縣監蔡慶默公擲私負如是夥數揆以典憲極爲駭然令法務衙門拿囚一一徵捧下送該道以充公納何如答曰允事
11	『別啓』	1895.02.12	義興 前 縣監 蔡慶默의 장전 1만 9,437냥 6전, 유용한 공전 2,534냥 2전 5푼에 또 396냥 2전 3푼. 前前 현감 趙重夏가 유용한 공전 910냥 6전

이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채경묵의 부정부패가 동학농민군이 일어날 수 있었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듯하다. 채경묵은 부임하고 1년도 되지 않아 학정을 일삼고 “거리낌 없이” 재물을 탐했다고 한다. 또 공금을 유용하고, 개인적인 빚을 졌다고 한다. 이후 채경묵의 횡령은 조사가 진행되어 장전 19,437냥, 공전 2,534냥 2전 5푼과 396냥 2전 3푼 등 총 22,367냥 4전 8푼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학농민군이 군현에 들어왔을 때 몇몇 수령들은 화를 면하기 위해 도망하였다. 의성현령 李觀永과 영덕현령 張華植이 그러하였다. 하지만 도망하지 못하여 화를 당한 경우도 있었는데, 의흥현령 채경묵이 그러하였다. 『永嘉記事』를 살펴보면, 여러 차례 악형을 당해 사경을 헤맨다고 한다라면서 간략하게 적고 있다.

채경묵은 1893년 의흥현령으로 부임한 후 학정과 횡령을 저질렀으며, 1894년 7월 봉화현령으로 제수되었으나 신병을 이유로 부임하지 않았다. 채경묵의 뒤를 이어 의흥현령이 된 이가 成泰永이었다. 성태영은 7월에 제수되었고, 8월 15일 의흥으로 부임했다.²⁶⁾ 이 두 사람이 봉화현령, 의흥현령으로 제수되는 것은 6월부터 논의되고 있었다.²⁷⁾ 관직

에 제수된다고 곧장 부임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한 뒤에 부임하는 경우가 많다. 성태영이 그러했고, 채경묵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의흥의 유생이었던 李致宇(1828~1905)가 『柳下集』에 남긴 의흥현감 채경묵에게 보낸 편지인 「與義興倅蔡侯」은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11월에 상주소모사로 임명되는 정의묵의 이야기가 적힌 것으로 보아, 이 편지는 빨라도 1894년 11월에나 쓰여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의흥현감 채경묵은 11월까지도 의흥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당시 군위현감은 李寅兢이었고,²⁸⁾ 칠곡부사는 南宮億(1863~1939)이었으며,²⁹⁾ 의흥현감은 성태영이었다. 성태영은 갓 임용된 인물이지만 이 인공과 남궁억은 이미 자신의 직위에 익숙해진 상태였다. 남궁억은 동학농민군이 일어났을 때 칠곡의 約正 曹華承, 李在厚, 李敬用과 함께 “禦侮之策”을 만들고 군기를 관장하기 위해 칠곡 가산에 머물렀다.³⁰⁾ 의흥·군위·칠곡은 수령이 도망가지 않고 지키고 있어 관의 통제력이 유지되고 있던 곳이다.

8월 17일 의성 동학농민군이 의흥 北洞으로 들어와서 19일 의흥관아에 들어왔지만 점령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首吏 朴周睦이 동학농민군에게 결박되는 일이 발생하였다.³¹⁾ 채경묵이 의흥관아에 있었는지 여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으나, 의흥에서 다른 지역으로 몸을 피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인 듯하다. 다만 『永嘉記事』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 차례 동

26) 「倡義錄日記」 8월 15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56쪽).

27) 『隨錄』, 「軍國機務處章程」, 1894년 6월 26일자(동학농민혁명 사료아카이브).

28) 『승정원일기』 1892년 4월 24일조. 李寅兢이 軍威縣監으로 제수되었다. 이인공의 「淸德愛民善政碑」가 군위군 효령면 중구리 211-6번지에 있는데, 1894년 7월 27일에 세워졌다. 이 일은 백성들의 원성을 사, 군위에 동학농민군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29) 『승정원일기』 1893년 1월 29일조. 남궁억이 칠곡부사로 임명되었다. 『승정원일기』 1894년 12월 7일조. 남궁억이 신병을 이유로 체직을 청하였다.

30) 「倡義錄日記」 11월 20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95쪽).

31) 「倡義錄日記」 8월 19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57쪽).

학농민군에게 악형을 당해 사경을 헤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수령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공문서나 『소모사실』 등에 기재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향리였던 박주목의 결박사실이 적혔다는 것은 수령이 같은 일을 당했을 때 기록될 가능성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1894년 8월 19일 동학농민군은 의흥관아에 들어간 후, 의흥 신원을 근거지로 삼고 거수·대울, 칠곡 동북, 군위 효령 등으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근거지가 되었던 신원은 8월 21일 신석찬 의령에 의해 습격받았고, 의흥 거수리의 경우 김좌수의 집을 공략한 동학농민군의 이야기가 남아 있어 이곳에 진출한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신녕의 화산과 군위의 효령에도 점소를 설치하였고,³²⁾ 칠곡 동북면과 영서면에서도 동학농민군이 진출한 것으로 확인된다.³³⁾

이처럼 의흥 신원·신녕 화산·군위 효령 등을 확보한 동학농민군은 의흥과 그 주변지역 사람들에게 동학농민군에 가담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였다. 동학농민군 가담 요구 활동은 8월 20일부터 시작되었다.

동학농민군이 가장 먼저 동학농민군 가담 권유를 한 곳은 申錫燦(1851~1921)의 집이었다.³⁴⁾ 신석찬은 본관이 평山이고 호가 蒼溪이며 의흥향교 約長과 校議를 지낸 인물이다.³⁵⁾ 1894년 8월 20일 이른 아침, 동학농민군 몇 명이 찾아와 동학농민군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다. 신석찬은 재물도 없고, 나이도 오십에 가까워 짐을 지지도 못하는데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동참을 거절하였다. 이어서 전날 와 있었던

32) 「倡義錄日記」 8월 21일~22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67쪽).

33) 「倡義錄日記」 8월 22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68쪽).

34) 「倡義錄日記」 8월 20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59쪽).

35) 김봉근, 「『창계실기(蒼溪實記)』와 경상도 의흥·군위·칠곡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새로운 자료를 통해 본 경상도 북부지역 동학농민혁명』, 경상북도·상주시·상주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2014, 42쪽 참조; 신진희, 「경상도 북부지역 '반동학농민군' 연구-동학농민군 진압 사례를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21쪽.

대구의 선비 李炳斗와 함께 남쪽 성향산으로 몸을 피했다.

이병두와 함께 몸을 피한 신석찬은 城項山에서 의흥지역 인물들을 만났다. 洪奎欽·斗欽 형제, 李鍾根, 李教燮, 족속 申在河였다.³⁶⁾ 이들도 동학농민군을 피해 성향산을 올랐던 것이다. 신석찬은 “황망하고 울화통이 터질 때, 더구나 동지들을 기약하지도 않고 만났으니”라고 적었다. 의흥지역 인물들이 모여 신석찬을 중심으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한 계책을 논의하기 시작한 때였다.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거수리 김좌수의 집에 들어가서도 진행되었다.³⁷⁾ 신석찬에게 김좌수의 집에 동학농민군이 들어가 약탈을 하고, 약탈한 물건을 가지고 가려고 동학농민군 한 명이 지키는 상황이라고 전달되었다. 이 사례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게 한다. 하나는 김좌수가 동학농민군에 가담하지는 못하였지만 필요한 물건을 제공했을 가능성, 다른 하나는 김좌수 등 집안 사람들이 몸을 피해 아무도 없는 집에서 약탈하기 위해 동학농민군 한 사람이 물건을 지켰을 가능성이다.

이 소식은 신석찬에게 전달되었고, 신석찬 의려가 처음으로 동학농민군과 싸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신석찬 의려는 거수리 김좌수의 집이 아니라, 신원에 있던 동학농민군을 습격하였다. 그 결과 동학농민군 지도자가 죽고, 27명의 동학농민군이 붙잡히게 되었다.³⁸⁾ 조사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동학농민군 참여자 이름은 하나도 적혀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조사를 받은 다음날 모두 처형되었다.

9월 의흥에서 활동하지 않던 동학농민군은 10월 들면서 다시 활동하기 시작한 듯하다. 10월 8일 “수상한 사람”이 경내로 몰래 들어오자 약

36) 『倡義錄日記』 8월 20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60쪽). 번역문에는 李在河로 되어 있으나 원문에는 在河로만 표현되어 있다. 또 신석찬의 族叔이고, 8월 22일자 일기에 신재하라는 인물이 나오는 점으로 미루어 신재하일 가능성이 높아 수정하였다.

37) 『倡義錄日記』 8월 21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63쪽).

38) 『倡義錄日記』 8월 21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64쪽).

장이 이를 잡아 관아로 보냈다는 내용이나,³⁹⁾ 10월 28일 김산과 상주 동학농민군이 강을 건너 의흥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⁴⁰⁾ 이후 의흥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더 이상 포착되지 않는다.

의흥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의 이름은 확인할 수가 없었으나, 주변지역인 칠곡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칠곡부사 南宮櫓의 첩정에 적힌 李景八, 宋海出, 裴召史, 李元發, 張士震 등이 그들이다. 李景八과 宋海出은 동학농민군이 되어 무리를 모아 여기저기 출몰하여 겁을 주고 약탈하였다고 하며, 裴召史는 양반가의 여종인데, 동학농민군이 되어 상전에게 욕지거리를 퍼붓고, 家産을 빼앗았으며, 李元發은 동학농민군으로서 활동이 많아서 “罪犯이 深重”하다고 하였으며, 張士震은 남의 재산을 겁을 주어 약탈했다고 한다. 이에 11월 21일 총살했다고 한다.⁴¹⁾

이 첩정을 살펴보면, 동학농민군이 기존 질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행동을 한 듯하다. 여성 동학농민군 배조이는 여종이었다가 동학농민군에 가담하여 상전에게 욕지거리를 하고 가산도 약탈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仁同에서도 있었다. 인동부사 趙應顯의 첩정에 동학농민군 禹連石과 金時從은 종놈으로서 동학농민군에 가담해 상전을 위협하고 노비 문서를 불사르고, 贖身하였다고 하였다.⁴²⁾ 의성 동학농민군의 경우, 良籍을 불태워 없앴으로써 중간 수탈을 일삼았던 양반과 이속에 대한 사무친 원한을 풀었고, 관노 출신 동학농민군들이 양반마을인 산운마을에 들어가 강제로 동학에 입도시키는 방법으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였다.⁴³⁾ 칠곡의 여성 동학농민군 배조이는 인동 동학농민군 우연석과 김

39) 『倡義錄日記』 10월 9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89쪽).

40) 『倡義錄日記』 10월 28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92쪽).

41) 『乙未正月初十日別報』, 『別啓』(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0, 2018, 168쪽).

42) 『甲午十二月二十八日別報』, 『別啓』(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0, 2018, 155쪽).

시종처럼 노비문서를 불태우지는 못하였지만 상전에게 욕지기를 하는 등의 행동으로 사무친 원한을 풀었던 것으로 보인다.

III. 신석찬 義旅의 동학농민군 진압과 會約所 활동

1. 신석찬의 義旅 결성과 동학농민군 진압

향촌지배층은 부정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동학농민군이 사또와 아전을懲治한 것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인식하였고, 동학농민군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 세력이 확대되는 것 또한 두고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향약을 통해 향촌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무리를 모아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의흥에서는 신석찬이 그 중심에 있었다. 1894년 8월 20일, 성항산에서 만났던 이들과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고, 저녁 李 璲가 찾아와 “근처 사람들을 격동시켜 도적의 소굴을 소탕하자”는 通章을 보고, 같은 뜻을 가진 인물들이 더 있다는 것을 알고 함께하기로 하였다.

이들 외에도 신원에 있는 李寅坤과 李永春에게 사람을 보내 뜻을 같이하자고 권했다.⁴⁴⁾ 또 李庭杓, 洪祺鎭, 李瑠, 洪祺杓, 禹圭碩, 白成根 등이 동참하였다. 이정표, 홍기진, 이류는 신원으로 가서 동학농민군을 탐지하고, 홍기표, 우규석, 백성근은 서남쪽으로 가서 義旅 결성 소식을 전하게 하였다.⁴⁵⁾ 이로써 신석찬 의려가 결성된 것이다.

43) 한국학중앙연구원, 『예천 맞질 박씨家일기(1894년 8월 24일자)』 3, 2005, 220쪽(신진희, 「경상도 북부지역 ‘반동학농민군’ 연구-동학농민군 진압 사례를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35쪽 재인용).

44) 『倡義錄日記』 8월 20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61쪽, 영인 147쪽).

8월 21일 새벽에 南嶽에 살고 있던 홍규흠이 통문을 받고 찾아왔고, 그의 계책을 듣고 이정표를 동쪽으로, 신석찬은 서쪽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이 일어나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다.⁴⁶⁾ 이날 김좌수 집에 남아 있는 동학농민군 소식을 들은 신석찬은 각지에 일어나기로 한 이들을 모아 신원에 모여 있던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러 갔다. 세 방면에서 모두 몽둥이를 잡고 새끼줄을 찬 상태에서 한꺼번에 습격하여 우두머리를 죽이고, 27명을 붙잡았다.⁴⁷⁾

27명의 동학농민군 조사가 끝난 후, 칠곡 동북면에 사는 蘇龍九가 찾아왔다. 당시 漆谷府使는 南宮億이었다. “촌락을 순찰하여 백성의 고충을 살피고 壯丁을 모집하여 비류를 소탕[巡村察隱 募丁剿匪]”했다는 기록이 있으나,⁴⁸⁾ 칠곡 동북면 소용구가 살고 있는 곳까지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한 듯하다. 이에 소용구는 근처에서 의려를 결성한다는 신석찬의 통문을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는 동학농민군에 대해 “조정의 명령을 거역했으니 국가에 죄지은 역적이고, 이미 匪類로 일컬어지니 반란자들이며, 하나같이 약탈을 일삼으니 민간의 큰 도적”이라고 했다.⁴⁹⁾ 동학농민군을 역적이자, 반란자, 도적으로 규정하면서 붙잡혔던 27명의 동학농민군을 모두 죽이고 관에 그 사실을 통고하였다. 이로써 신석찬 의려가 첫 번째로 신원에서 벌였던 싸움이 끝났다.

두 번째 싸움은 신녕에서 벌어졌다. 신녕현감은 閔泳惠이고, 그는 신녕에 동학농민군이 활동한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관아를 지키지 않고 도망간 일로 파출되었다.⁵⁰⁾ 그의 뒤를 이어 신녕현감으로 제수된 이가 權

45) 『倡義錄日記』 8월 21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62쪽).

46) 『倡義錄日記』 8월 21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62~163쪽).

47) 『倡義錄日記』 8월 21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62~164쪽).

48) 『甲午十二月初十日褒貶封 啓』, 『別啓』(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0, 2018, 85쪽).

49) 『倡義錄日記』 8월 21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66쪽).

50) 『승정원일기』 1894년 9월 4일조 ; 『승정원일기』 1894년 10월 27일조.

載紀였다.⁵¹⁾ 따라서 신녕은 관의 통제력이 없어진 상태였고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었던 곳이다. 그래서 그곳과 가장 가까운 의흥 현내면의 신석찬 의려가 신녕의 동학농민군을 진압했던 것이다. 동학농민군 진압이 완료된 후 임명된 新寧縣監 權載紀는 “백성의 고충을 두루 살피고 아전의 逋欠을 엄격히 收刷하였다[遍察民瘼 嚴刷吏逋]”고 한다.⁵²⁾

신녕에서 벌어졌던 싸움은 신원싸움이 끝난 8월 21일 밤부터 22일 새벽까지 벌어졌다. 동학농민군이 화산부에 “소굴”을 설치했다는 소식을 신녕에서 온 사람이 전하자, 崔任汝이 동학농민군 진압에 자원하였다. 신녕은 신원과 경계를 접하고 있던 곳으로, 화산이 그 사이에 위치하였다. 다음 날 새벽, 최임문은 화산으로 가서 동학농민군을 사로잡고 보검을 획득하여 돌아왔다.⁵³⁾ 세 명의 동학농민군을 포로로 잡았다. 이에 의흥현감 성태영이 형리 이양옥과 함께 와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고 있던 신석찬의려를 치하하였다.

세 번째 싸움은 효령에서 벌어졌다. 신녕싸움이 끝나고 신석찬의려는 화산에서 잡은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효령으로 갔다. 소용구가 칠곡 동북면과 영서면 사람들과 함께 효령의 동학농민군 집소를 습격하여 확보한 뒤였다. 화산의 동학농민군과 효령의 동학농민군 지도자를 백사장에서 심문하였는데, 신원 동학농민군들에게 행했던 처벌과 똑같이 모두 죽였다.

효령은 군위 소속이었기에 軍威縣監 李寅兢에게 보고하고 치하받았다.⁵⁴⁾ 군위현감 이인공은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뒤에 “頑惡한 아전을 징계했다[懲吏之頑 終以行令]”고 하는데,⁵⁵⁾ “완악한 아전”이라는 사람은

51) 『승정원일기』 1894년 9월 11일조.

52) 「甲午十二月初十日褒貶封 啓」, 『別啓』(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0, 2018, 89쪽).

53) 「倡義錄日記」 8월 22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67쪽).

54) 「倡義錄日記」 8월 22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68쪽).

아전 가운데 일부가 동학농민군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듯하다.

2. 三邑 會約所와 각 면 約所 결성

신석찬 의려는 세 차례 동학농민군과 싸움을 벌였지만, 회약소를 결성하여 재발 방지에 힘썼다. 1894년 8월 23일 각 면 단위로 향약을 기반으로 약소를 만들고 의흥·군위·칠곡 三邑約長을 선출하여, 민을 통제하기 위해 나섰다.

義興漆谷軍威三邑約長座目

義興	缶南面 約長 洪奎欽
	縣內面 約長 申錫燦
	缶西面 約長 朴斗運
	嶺東 約長 金在漢
	薪院 約長 李永春
	缶東面 約長 李汶在, 金震海
	身南面 約長 吳汶
漆谷	東北面 約長 蘇龍九
軍威	孝令面 約長 李堯性
	中里面 約長 李晩性, 裴壽綰 ⁵⁶⁾

회약소는 의흥 7개 면, 칠곡 1개 면, 군위 2개 면이 참여했다. 성향산에서 신석찬과 뜻을 같이 했던 홍규흠이 부남면 약장으로 이름이 올랐고,

55) 「甲午十二月初十日褒貶封 啓」, 『別啓』(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0, 2018, 89쪽).

56) 「倡義錄日記」 8월 23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영인본 162쪽). 번역본에 부서면 약장 박두운이 빠져있어 영인본을 인용하였다.

의흥에서 세 차례 동학농민군과 싸움을 벌였던 신석찬이 현내면 약장으로, 신석찬이 의력을 결성할 수 있도록 通章을 작성했던 이영춘이 신원 약장, 효령싸움을 벌였던 소용구도 칠곡 동북면 약장을 맡았다. 의흥·군위·칠곡 삼 군현의 연합조직이 결성된 것이다. 회약소는 「揭文」으로 결성이유를 알렸고,⁵⁷⁾ 효율적인 민의 통제 방법을 「節目」에 담았다.⁵⁸⁾

의흥 현내면 약장인 申錫燦은 1894년 8월 24일 約所를 따로이 결성하였다. 약소는 현내면 약장인 신석찬이 만든 것으로 회약소의 기본조직이었다.

本面約所爬任

約長	申錫燦
左統長	李琥
右統長	李理坤
公事員	申在河, 李教燮, 李瑠, 李學坤
文案	李寅坤, 李鍾根, 申錫霖, 李璵, 申錫珣, 李鍾震

약소의 조직은 면의 대표로 약장을 두고 그 아래에 좌통장과 우통장 각 1명, 공서원 4명, 문안 6명을 두었다.⁵⁹⁾ 신석찬 약소의 역할은 「계문」, 「절목」의 내용대로, 현내면의 각 마을에 동학농민군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백성들이 동학농민군에 가담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었다.

회약소와 약소는 講을 통해 유생들을 참여시키는 한편, 동학농민군이 활동하면 병력을 이끌고 출정하는 활동도 했다. 1894년 10월 동학농민군이 칠곡에서 효령으로 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회약소 병력을 이끌고 馬嶺고개에서 잠복한 일이 그 한 예이다.⁶⁰⁾ 10월 28일도 김산과

57) 「倡義錄日記」 8월 23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74~175쪽).

58) 「倡義錄日記」 8월 23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71~174쪽).

59) 「倡義錄日記」 8월 24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75쪽).

상주 동학농민군이 강을 건너 의흥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회약소와 약소 병력이 가산에서 집결한 일도 있었다.⁶¹⁾

11월부터 회약소는 활동지역이 넓어지고, 군정을 징발하였으며, 군량미를 운반하는 등 활동이 많아졌다. 그 변화의 계기는 仁同府使 趙應顯이 討捕使가 되어 인동·칠곡·선산·개령·김산·군위·비안·성주·고령의 9개 고을을 관할하게 된 것이다.⁶²⁾ 칠곡부사 남궁억이 베푼 대접을 받기도 했는데, 이는 칠곡의 士人들과 의흥 약소가 교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⁶³⁾ 또 金山郡守 朴駿彬은 助防將으로 임명되었고,⁶⁴⁾ 조방장 박준빈은 의흥현감 성태영에게 都執綱, 糧餉有司, 文案儒生을 뽑도록 하였다.⁶⁵⁾ 이에 의흥현감 성태영은 각 면 약장과 논의하여 도집강에 朴顯鶴, 양향유사 洪晚份, 문안유생에 金斗明을 추천하였다.⁶⁶⁾

12월 12일 인동토포사 조응현이 의흥현감 성태영에게 병력을 요청하고, 14일 인동토포사가 신석찬에게 官砲 2백 명을 징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신석찬은 인동 약정 張廈相, 張璉煥, 張翼鎭, 張源喜, 金俊

60) 「倡義錄日記」 8월 25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79~180쪽). 동학농민군은 이 소식을 접하고 몸을 피했기에, 동학농민군과 회약소 병력 간 싸움으로 번지지 않는 않았다.

61) 「倡義錄日記」 1894년 10월 28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92쪽). 이날 동학농민군의 형세를 탐지하기 위해 파견되었다가 본진이 있는 남삼리로 돌아왔다. 탐지내용은 의흥현감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은 알 수 없다.

62) 『고종실록』 1894년 11월 7일조 ; 『甲午實記』 1894년 11월 7일자(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9, 2011, 79쪽) ; 『召募日記』 1894년 11월 26일자(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3, 2008, 441쪽).

63) 「倡義錄日記」 1894년 11월 22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96쪽).

64) 『啓草存案』 1894년 11월 13일자.

65) 「倡義錄日記」 1894년 12월 12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98쪽).

66) 「倡義錄日記」 1894년 12월 13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198~199쪽).

飭과 송별하고 집으로 돌아왔다.⁶⁷⁾ 의흥 관포 2백 명을 차출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인원이 의흥에서 부담하기에 많아 50명으로 줄였으며,⁶⁸⁾ 군량금도 1인당 10냥씩으로 줄였다.⁶⁹⁾

12월 19일 의흥현감 성태영은 다시 신석찬에게 출병에 나설 것을 요청하였다. 상주 소모영 소모사 鄭宜默의 공문과 尙州牧使 李晚胤의 보고에 동학농민군이 김산으로 향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⁷⁰⁾ 이에 도집강 박현학이 군정을 조발하였는데, 각 면 약장이 각 면 사람들을 응하게 했기 때문에 인원을 모을 수 있었다. 이처럼 당일로 많은 인원을 징발한 것은 회약소가 제 기능을 발휘했음을 보여준다.

신석찬은 20일 출발하여 신원에 도착하였으나 군량이 마련되지 않아 지체할 수밖에 없었다. 이 일은 21일 사창미를 수송하여 군량을 조달하였고 각자 전대와 주머니에 넣어 휴대토록 함으로써 해결되었다.⁷¹⁾ 22일 신석찬과 2백 명의 군정이 출발하려 할 때 전라도의 동학농민군 2천 명을 격퇴했으므로 의흥 군정도 돌아가라는 감결이 도착하였다.⁷²⁾ 이로써 조발된 의흥의 군정은 귀가할 수 있었다.

1894년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끝나고 8~9년이 지난 후, 緝捕使 趙秉瑜의 요청으로 신석찬은 다시 길을 나섰다. 왜냐하면 동학농민군이 활

67) 「倡義錄日記」 1894년 12월 14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200~201쪽).

68) 「倡義錄日記」 1894년 12월 15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201쪽).

69) 「倡義錄日記」 1894년 12월 16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201쪽).

70) 「倡義錄日記」 1894년 12월 19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202쪽).

71) 「倡義錄日記」 1894년 12월 21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208쪽).

72) 「倡義錄日記」 1894년 12월 22일자,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210쪽).

동했던 경주·청송·의성·영천·신녕·비안 등에서 성읍 공략과 향리 약탈 등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⁷³⁾ 이때 「約中完議」와 「節目」을 가지고 다녔고 1905년 1월 16일에는 의흥·군위·칠곡의 약장·통장 등을 모아 효령에서 甲午式에 맞게 戡捕使가 점고하기도 했다.⁷⁴⁾

신석찬은 『갑오군공록』이나 『동학당정토인록』에 오르지 못하였다. 의흥 유생들이 처음에는 의흥현감에게, 그 다음에는 경상도관찰사·군무아문·궁내부 등 관련 부처에 신석찬의 포상을 위해 「狀草」, 「上書」 등을 올렸으나 실패했다.

맺음말

이 글은 경상도 의흥을 중심으로 군위·칠곡에서 벌어졌던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살폈다. 먼저 경상도 의흥지역에 동학농민군이 예천-비안-의성을 거쳐 들어오게 된 경로를 파악했다. 지도에 그 경로를 표시하면서 상주에서 김천-성주로 들어온 동학농민군과 함께 대구부를 점령하고자 했을 가능성도 살필 수 있었다. 또 동학농민군은 가장 먼저 의흥 북동으로 들어왔고, 신원을 거점으로 삼아 주변인 대울·거수리, 칠곡 동북·영서면, 군위 효령면으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다음으로 의흥 사람들이 동학농민군에 동참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전현감 채경묵의 부정부패였음을 확인하였다. 『나암수록』·『사법품보』·『계초존안』·『관초존안』·『별계』 등 다양한 자료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73) 「倡義錄日記」,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211~212쪽). 동학농민군이 활동했던 지역에서 움직임이 있어서 미리 단속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74) 「倡義錄日記」 1905년 정월 16일 세 고을의 會中,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214쪽).

수 있었다.

의흥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먼저 전 의흥현감 채경묵과 부정부패에 동참한 아전에 대한 정치행위, 다음으로 신원을 중심으로 동학농민군 세력 확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정치행위와 민의 동학농민군 가담은 향촌지배층의 위기감을 고조시켜, 신석찬 등이 의려를 결성하는 바탕이 되었다. 신석찬 의려는 칠곡·군위·의흥지역 동학농민군을 진압했고, 회약소를 결성해 민을 통제했던 부분까지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전라도나 경상도 상주·예천 등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비교하면, 의흥·군위·칠곡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크지 않았다. 8월 17일에 들어와 22일까지 5일간의 활동에 불과했다. 10월 들어서도 조금의 움직임이 보이는 하였으나 금새 사그라들었다. 동학농민군이 대구부를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투고일 : 2025. 3. 5. 심사완료일 : 2025. 4. 27. 게재확정일 : 2025. 5. 12.

참고문헌

〈사료〉

- 『고종실록』
『官報』
『승정원일기』
『駐韓日本公使館記錄』
『李章綸隆熙四年記錄』
『永嘉記事』
『甲午實記』(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9, 2011).
『甲午斥邪錄』(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3, 2008).
『別啓』(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0, 2018).
『召募日記』(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3, 2008).
『蒼溪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2015).
軍威郡, 『軍威郡邑誌』, 1899(광무3).
義興郡, 『義興郡邑誌』, 1899(광무3).
漆谷郡, 『漆谷府邑誌』, 1899(광무3).
越智唯七,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1917.
조선총독부,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2.

〈단행본〉

- 박맹수, 2009, 『사료로 보는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충청북도, 2006, 『충청북도 동학농민혁명사 연구』, 충청북도.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예천 맛질박씨家일기』 3,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논문〉

- 김봉곤, 2014.8.26., 「『창계실기(蒼溪實記)』와 경상도 의흥·군위·칠곡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새로운 자료를 통해 본 경상도 북부지역 동학농민혁명』(학술자료집), 경상북도·상주시·상주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신영우, 1991, 「1894년 영남 김산의 농민군과 양반지주층」, 『동방학지』 7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63~218쪽.
———, 1984, 「1894년 영남 예천의 농민군과 보수집강소」, 『동방학지』 4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247쪽.

신진희, 2016, 「경상도 북부지역 ‘반동학농민군’ 연구-동학농민군 진압 사례를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진희, 2025, 「의성 동학농민군 진압자료_『이장희李章繪 翁희사년기록隆熙四年記錄』」, 『한국인문융합연구』, 국립안동대학교 글로벌사업단.

〈아카이브〉

동학농민혁명 사료아카이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기록유산DB.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Abstract〉

Activities of Donghak Peasant Army in Uiheung, Gyeongsang Do

Shin, Jin-Hui*

This article examines the route through which the Donghak Peasant Army entered the Uihung region of Gyeongsang Province and reveals the reasons why the people of Uihung joined the Donghak Peasant army. Additionally, it analyzes the activities carried out by the Donghak Peasant Army in the Uihung region and organizes the actions of Shin Seok-chan, who sought to suppress the Donghak Peasant army, in chronological order. Through this, it illuminates the appearance of Donghak Peasant Army not only in the Uiheung area, but also in Chilgok and Gunwi, the surrounding areas.

On August 17, 1894, the Donghak Peasant Army in the Uiheung area moved to Yecheon-Bian-Uiseong-Uiheung. The Donghak Peasant Army, which went to Bian through Yecheon, moved to Uiheung through Uiseong. There are many causes, but the direct cause was the corruption of Chae Gyeong-mook, a governor of Uiheung County.

Uiseong Donghak Peasant Army entered the Bukdong of Uiheung, occupied Shinwon and used it as a base, and advanced to the surrounding areas, Daeyul and Geosu. In addition, it expanded its power beyond Uiheung to the Dongbuk of Chilgok and the Hyoryeong of Gunwi.

* Gyeongbuk National University, Instructor

On August 20th, Shin Seok-chan(申錫燦, 1851~1921) formed Uiryeo to prevent the Donghak Peasant Army from expanding its power. The next day, the Donghak Peasant Army and the Donghak Peasant Army fought for the first time in Shinwon on the 21st, and the Shinnyeong fight continued until the dawn of the 22nd, and the fight with Shin Seok-chan Uiryeo and Donghak Peasant Army ended after the Hyoryeong fight that took place during the day on the 22nd.

After the fight with the Donghak Peasant Army, Shin Seok-chan formed a Hoiyakso to control the Hyangchon society. The members of the Hoiyakso were those who participated in Uirye, and it was natural to include the Uiheung area, Gunwi, and Chilgok areas.

Key word : The Uihung, The Donghak Peasant Army, Shin Seok-chan, Chae Gyeong-mook, The route

자운(紫雲) 이중구(李中久)의 시선으로 본
‘동학농민혁명’*
- 『이중구가 오대 고문서(李中久家 五代 古文書)』 자료의
소개를 중심으로 -

김현선**

〈목 차〉

머리말

I. 편지를 통해 동학의 소식을 듣다

II. 시사(時事)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다

III. 8일 간의 여정을 일기로 남기다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이중구가 오대 고문서(李中久家 五代 古文書)』(단국대학교 퇴계기념중앙

* 이 논문은 2024년 6월 27~28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주관한 ‘2024년 동학농민혁명 신진연구자 워크숍’에서 발표한 자료를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발표의 토론과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주신 토론자와 심사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단국대학교 사학과 박사수로

도서관 소장) 중 ‘동학농민혁명’ 활동 시기의 자운(紫雲) 이증구(李中久)가 수집하고 남긴 자료의 일부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운 이증구는 여주(驪州) 이씨(李氏) 경주파(慶州派)로, 그의 12대 조는 동방 18현의 한 분인 회재(晦齋) 이언직(李彦迪, 1491~1553)이다. 이증구는 관직 생활을 하던 중 동학농민군의 움직임, 조선 내 청일의 군사 파병, 중앙의 급직적인 변혁이 일렁이던 시기를 지켜보았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증구가 오대 고문서(李中久家 五代 古文書)』에는 이 시기 이증구를 중심으로 한 간찰(편지)류, 중앙에서 생산된 문서의 사본(寫本), 일기(日記) 등의 고문서들이 확인된다. 즉, 이상의 자료를 검토한다면 이증구의 시선으로 당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간찰(편지)류에서는 이증구의 친족과 지인들이 이증구에게 안부와 동학과 조정의 형세를 묻고,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전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앙에서 생산된 문서들은 관직에 있던 이증구가 그 당시 어떤 점을 관심에 두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일기에서는 이증구가 고향으로 가는 8일의 여정을 살펴볼 수 있으며, 길 위에서 이증구의 생각과 감정을 고스란히 나타낸다.

아쉬운 점은 이증구가 받은 편지, 이증구가 쓴 일기, 이증구가 필사하거나 모은 자료들이 주를 이루게 되어 그의 현실 인식과 대응법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기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증구가 오대 고문서』 중 이증구와 해당 시기와 관련된 자료들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

주제어 : 자운 이증구, 『이증구가 오대 고문서』, 동학농민혁명, 청일전쟁

머리말

19세기 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의 여파는 조선의 대내외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내부적으로는 개혁과 변화의 흐름을 불러왔고, 외부적으로는 청과 일본의 갈등을 심화시켜 청일전쟁이 일어났다. 더욱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는 동아시아 정세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조선과 청의 전통적 조공책봉관계는 종결되고, 조선을 향한 일본의 내정 간섭은 더욱 심해졌다. 이렇듯 동학농민혁명은 19세기 말 조선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판도에 영향을 끼친 역사적 사건이다. 그리고 조선 말기 관리이자 유교 지식인이던 자운(紫雲) 이중구(李中久, 1851~1925)가 모으고, 남긴 기록들은 이처럼 혼란했던 시기의 일면을 보여준다.

자운 이중구는 여주(驪州) 이씨(李氏) 경주파(慶州派)로, 그의 12대 조는 동방 18현의 한 분인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1491~1553)이다. 그의 조부는 이재립(李在立), 부친은 이능덕(李能德, 1826~1861)이며 아들은 이석일(李錫日), 손자는 이인원(李寅源, 1923~?)이다. 이중구를 중심으로 5대에 걸쳐 산출된 여주 이씨 가문의 수많은 양의 고문서(이하 『이중구가 오대 고문서(李中久家 五代 古文書)』)가 전해지며, 현재 단국대학교 퇴계기념중앙도서관에서 소장 중이다. 『이중구가 오대 고문서』에는 간찰(簡札), 소장(疏狀), 명문(明文), 시문(詩文)류 등 다양한 형태의 문서 총 12,000여점이 소장되어 있어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민간생활사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¹⁾ 근래에는 『이중구가 오대 고문서』 중 8,000여점의 문서들을 탈초 및 해제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²⁾ 그리고 이 막대한 양의 고문서 속 동학농민혁명 시기와 관련된 기록의 자료들이 일부 확인된다.

자운 이중구는 조정에서 머물며 동학농민군의 움직임, 조선 내 청일의 군사 파병, 중앙의 급속적인 변혁이 일렁이던 시기를 지켜보던 중, 모든 것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중구는 1888년(고종 25) 식년시(式年試) 병과에 급제하였고, 승문원(承文院) 부정자(副正字)를 거쳐 1894년(고종 31) 홍문관(弘文館) 부교리겸서학교수(副校理兼西學教授)에 제수되었다. 그는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관직을 내려두고 고향인 경주 양동마을로 향한 것이다.³⁾ 그렇지만 이중구가 당시 국가 현안에 관

1) 이재령, 2021, 「慶州 李中久家 五代 古文書 資料의 정리와 성과」, 『東洋學』 83, 116쪽.

2) 단국대학교 한중관계연구소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서간문에 기초한 조선후기부터 구한말까지 민간 생활사 자료 DB 구축-경주지역 李中久家 五代 古文書 資料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5년간 총 12,000여점 중 8,000여점의 문서들을 탈초 및 해제하였다.

심을 두지 않고, 그저 혼란을 피하고자 고향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

이중구가 친족과 지인으로부터 받은 편지, 관직 생활 중 중앙에서 수집한 정보, 고향으로 돌아가며 작성한 8일 간의 일기에는 당시 이중구가 마주한 장면들과 관심을 둔 지점들이 모두 반영되어있다. 즉, 『이중구가 오대 고문서』 내 이중구를 중심으로 수집·생산된 자료를 통해 그의 시선을 따라가 보면, 조선 말기 관료로서 중앙에 머물던 이중구가 마주했던 당대의 일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⁴⁾

이에 『이중구가 오대 고문서』 속 동학농민혁명 시기 이중구를 중심으로 수집·생산된 자료 일부를 소개하며, 그의 시선을 따라 이중구가 마주하였을 현장을 바라보고자 한다. 자료는 유형에 따라 간찰(편지)류, 중앙에서 생산된 문서의 사본(寫本), 일기(日記)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⁵⁾ 간찰(편지류)는 이중구가 그의 친족과 지인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그의 주변인들의 생각과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중앙에서 생산된 문서들은 대개 이중구가 관직 중에 옮겨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이중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국가 현안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게 한다. 마지막으로 이중구가 직접 남긴 일기를 살펴봄으로써, 고향으로 가는 여정 중 이중구가 겪은 일과 그의 생각을 알아보려고 한다. 이상은 당시의 시대상을 바라보던 이중구의 시선을 보여주리라 생각된다.

이 글은 『이중구가 오대 고문서』 자료를 소개하는 해제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며, 이를 넘어선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자료의 분석과 역사적 배경과의 복합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이 글에서 해결하지 못한 한계에 대해서는 필자가 추후 보완해나갈 것을 약속하

3) 김우진, 2024, 「紫雲 李中久(1851~1925)의 反日행적과 현실 한계 인식-『李中久家五代 古文書』를 중심으로-」, 『東洋學』 95, 70쪽.

4) 이중구가 당시 동학농민군을 어떻게 보았는지에 관한 명확한 기록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관찰자적 입장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5) 이 글의 일자는 음력을 기준으로 한다.

며, 먼저 자료를 소개함으로써 관련 연구 분야로부터 새로운 시각과 해석을 지닌 연구들이 파생되길 기대한다.

I. 편지를 통해 동학의 소식을 듣다

『이중구가 오대 고문서』에는 서로 간의 일상과 안부를 묻고, 상대방이 머무는 곳의 형세를 물으며, 여러 사안의 의견을 나누는 수많은 간찰, 즉 편지들이 존재한다. 편지에는 발신자와 수신자 간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 공간적 상황에 따라 각자가 있는 곳의 정보를 전하고 혹은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도 다수 확인된다. 또한 편지에는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전염병, 흉년 등과 같은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내용도 존재한다. 이처럼 이중구가 그의 친족과 지인으로 부터 받은 편지 속에는 동학의 형세를 묻거나, 혹은 관련된 소식을 묻고 전하는 편지가 일부 확인된다. 이중구가 받은 편지들 속에는 차차 퍼져 나가던 동학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

1. 1893년 동학의 기운을 묻다

1893년(고종 30) 3월, 4월 그리고 5월, 관직 생활을 하며 한성에서 체류 중이던 이중구는 고향에 있는 그의 친족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편지를 보낸 발신자들은 모두 이중구에게 안부를 묻고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동학의 형세가 어떠한지를 물었다.

안선오(安善五)가 돌아와서 형께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먼저 베풀어주신 편지를 받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로 감사합니다. 봄이 끝나가니, 그리운 마음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삼가 요즈음 객지 생활하시는 형의 안부는 연이어 신의 가호로 편안하시고, 긴 대낮 맑은 창가에서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는지요. 오랜 객지 생활의 근심과 생각하고 있는 바의 일은 괴로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 더욱 간절히 이런저런 생각들이 마음에 오갑니다.

저는 아버지 병환이 늘 위중하시고 아이들도 번갈아 감기와 기침으로 고생하고 있어 매우 마음 졸이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곁에서 모시고 있는 것을 스스로 다행으로 여길 수는 없지만 숙부께서 병이 더하는 것은 면하셨고 다른 사람들의 안부도 한결같이 편안합니다.

홍년의 우환은 볼수록 눈에 가득하여 살아갈 방도가 없는데다가 거듭해서 마을에 전염병이 점점 유행하니 더욱이나 걱정이 적지 않으며, 동학(東學)의 들불처럼 번졌는데 중간에 과연 진정이 되어 가는지요. 이같은 부정한 학설은 홍수보다 심각한 것인데 우리의 도(道)가 혼란에 빠진 것이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통탄스럽고 또 통탄스럽습니다. 한성은 과연 전염병이 깨끗해져서 혹 경계심은 없는지요. 역시 간절히 듣기를 원합니다. 경상도 관찰사는 듣자니 벌써 새로 정해졌고 명성과 치적이 혁혁하여 자자한 소문을 미쳐 다 들을 수 없을 지경인데 신관(新官)은 과연 누가 되었는지를 아직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답답합니다.

사곡(沙谷)의 사돈어른도 크게 기대하던 끝에 끝내 희망이 좌절되니, 대단히 가슴이 답답합니다.

화중(和仲) 씨의 최근 객지 생활은 또한 어떠하며, 계남(溪南)에 사는 우리 위원(委員)인 내종(內從)과는 종종 함께 어울리는지요. 들을만한 소식은 듣는 대로 따라서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손님으로 시끄러워서 우선 이만 줄입니다.

정(情)으로 살펴주십시오.

계사년(癸巳年, 1893) 3월 23일에 아우 최현식(崔鉉軾)은 두 손 모아 절합니다.

신성단(神聖丹) 다섯 개와 조곽(早藿) 1단을 보냅니다.⁶⁾

이 편지는 1893년 3월 23일 최현식이 이증구에게 보낸 편지로 이증

6) 단국대학교 한중관계연구소, 2024, 『편지로 본 조선 선비의 일상』 2, 다운샘, 255~258쪽 번역문 인용; 『李中久家五代古文書』 E425.

구의 안부와 가족의 병환, 전염병과 동학 등의 우려를 담고 있다. 최현식은 오랜 기간 객지에 나가 있는 이증구의 근황과 건강을 걱정하여 이증구의 근심과 괴로움이 클 것을 걱정하고 가족들의 병환을 근심하였다. 또한 흉년을 겪고 있는데 전염병까지 유행하며 걱정이 적지 않음을 전하였다. 최현식은 ‘동학’이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게 진정이 되었는지를 물었다.

4월과 5월, 이증구에게 전달된 편지들에서도 이증구의 안부를 묻고 있었다. 먼저, 4월 이증구는 친족과 그의 지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4월 8일 이증구의 족제(族弟) 이은구(李殷久)는 이증구에게 편지를 써서 안부를 묻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였다.

지난번 편지는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달과 세월이 막아도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편(人便)이 있어 편지를 보내니 그리운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체(旅體, 이증구)의 만위(萬衛)와 함께 머무르는 두 족형(族兄)을 아직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한성의 홍역은 청정해졌는지요. …다만 남자가 되어서 40살이 되었어도 밖으로 세상에 이름을 내지 못하고, 안으로는 몸에 온갖 행실이 결핍되니, 도리어 무뢰배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꼴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을 뿐입니다. …동요(東撓)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는지요. …가을에 한 번 찾아뵈릴 마음은 있지만 어찌 미리 기필할 수 있겠습니까. …⁷⁾

이은구는 앞서 편지를 보낸 지 한 달이 채 되지도 않아서 이증구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데, 이증구를 그리워하고 또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인편(人便)이 있어 글을 보낸다고 하며 한성[都下]에서 홍역의 기운은 어

7) 『李中久家 五代 古文書』 G018, “向書未一月以前者, 月阻歲阻, 較之可無, 想而因便, 懷仰尙切. …伏未審旅體萬衛, 同留兩族兄氏俱客, 都下疹氣向淨否. …而但身爲男子, 倏忽及四十之年, 而外無一名於世, 內乏百行於身, 反不免無賴輩唇舌中出沒樣而已. …東撓更有聞查…秋來一晝, 心上含有, 豫何可必耶…”

떠한지를 몰았다. 이은구는 벼슬을 옮기는 일이 매우 어려움을 말하면서
도, 자신은 나이 40이 되어 세상에 이름을 내지 못하고 있어 매우 답답
하다 하였다. 또한 ‘동요(東撓)’에 대해 들은 바가 있는지를 묻고, 이증구
의 집에는 별다른 일이 없이 한결같이 편안한 상황임을 전달하였다.

4월 23일 한상원(韓商源)이 이증구에게 보낸 편지의 협지에는 “듣기
로 동학의 무리가 지금 이미 흩어졌다고 합니다. 조야(朝野)의 경사스러
운 일이고 실로 무강한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⁸⁾라며 동학이 흩어진 것
을 좋은 일로 생각하였다. 또한 5월 8일 이석정이 자신의 족속인 이증
구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동학이 물러나 흩어졌다고 이르니, 공사(公私)
의 큰 다행입니다”⁹⁾라 하며 마찬가지로 동학이 물러난 것을 다행이라
여겼다. 두 통의 편지 모두 동학이 물러난 상황을 안심하고 있었다.

다음 달 5월 5일 이증구의 족손(族孫) 이시원(李始源)이 족조(族祖)인
이증구에게 편지를 보냈다.

인사드립니다. 정초(正初) 사곡(沙谷)을 통해 소식을 보냈는데, 반드시
웹고 싶습니다. … 동학도들의 소요가 매우 위태롭고 두렵다고 들었는데
최근엔 물러나 흩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걱정이 없는지요. 이것을
알 수 없어 제 분수에 맞지도 않는 근심이나 진실로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¹⁰⁾

이시원은 먼저 객지에서 머무르고 있는 할아버지 이증구의 안부를
물었다. 또한 흥년과 한차례의 난리가 지나 보릿고개에 이르렀는데, 자
신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괜찮음을 전했다. 그리고 “동학도들의 소요가
매우 위태롭고 두렵다고 들었는데 최근엔 물러나 흩어졌다고 들었습니

8) 『李中久家五代古文書』 H573, “…聞東學之黨, 今已散撤云. 朝野慶抃, 實爲無強遐福也.…”

9) 『李中久家五代古文書』 H578, “…東黨退散云, 公私之一大幸也.…”

10) 『李中久家五代古文書』 H586-1, 586-2 “稽顙. 正初沙谷起伴時付疏, 想必入覽矣. …
東騷聞甚危怖, 而近聞退散, 其果無慮耶. 是未可知. 而漆室之憂, 竊不自勝耳.…”.

다. 과연 걱정이 없는지요. 이것을 알 수 없어 제 분수에 맞지도 않는 근심이나 진실로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라며 당시 동학교도의 상황에 대한 자신의 걱정을 전하였다.

이중구가 지인과 친족들로부터 받은 편지들은 동요(東擾) 그리고 동소(東騷)라는 표현으로 동학교도의 상황을 궁금해하고 또 한성 내 흥역의 상황도 물었다. 이를 통해 경상도에 거주하던 이들이 동학교도에 대해 관심을 가졌음과 당시 1893년 초 전염병이 유행하며 흉작이 들었던 사회의 모습도 비추어볼 수 있었다.

이중구가 편지를 받은 시점을 고려하여 이 편지들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1890년 최시형의 교조신원운동 이후 1893년 2월 광화문 복합상소 운동, 3월 보은집회 등 당시 동학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은 조선 각지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4월 1일 고종의 윤음이 내려진 후 동학교도들은 해산하였다. 편지가 쓰인 4월과 5월, 이러한 정보들은 이미 지방에까지 퍼졌으리라 생각해볼 수 있다.

이중구는 정성스레 답장을 작성하여 그들에게 발신하였고, 상대방의 안부를 물으며 그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전달했을 것이다. 아쉬운 점은 이중구가 보낸 편지의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당시 이중구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중구와 교류하고 있던 주변 인물들이 동학의 형세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에, 이중구가 그의 지인들과 비슷한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고 있으리라 조심스레 추측된다.

2. 1894년 혼란 속 이중구의 안부를 묻다

1894년(고종 31) 조선은 격동의 시기를 앞두고 있었다. 고부민란에서 무장봉기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그 영역을 확장해가며 조정을 긴장시켰다. 동학농민군의 기세가 점차 높아지자 조정에서는 청에 군사 파견을 요청하였고, 일본군도 군사를 파견하여 경복궁을 점령하는 등

조선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렇듯 동학농민혁명의 파장은 조선 내부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판도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러한 혼란 속 이증구가 받은 한 통의 편지는 당시 한성이 얼마나 급박한 모습이었는지를 상상케 한다.

1894년 이증구는 사종제(四從弟) 이매구(李邁久)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보(正甫, 이증구)에게. 변란의 가운데 서로 보지 못하고, 서로 알리지 못했습니다. 당일 재앙의 기운이 막 일어나서, 부득이 관의 여러 친구들과 이곳에 왔는데, 그대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은 심히 염려되고 답답하니, 어찌해야 합니까. 나라의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고금에 있지 못하였던 변란입니다. 신민(臣民)이 된 자는 누가 분개하지 않겠습니까. 기내가 이미 거의 비었으니, 앉아서 기다려사는 안되니 문 밖으로 나가 잠시 피해 있는 것을 기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청나라 군대가 모레쯤 들어온다고 하니 진위는 알 수 없지만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체(旅體)께서는 건강하신지 묻습니다. 주인이 혹시라도 도피해서 가버리지 않았다면 음식을 이전처럼 제공하는지요. 걱정됩니다....”¹¹⁾

이매구는 변란의 상황으로 정신이 없어서 이증구에게 연락하지 못하였고, 좋지 않은 기운을 느껴 한성에서 자리를 피해 있다며 남아 있을 이증구를 걱정하였다. 당시 나라의 일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기내(畿內)는 텅 비었고, 모레쯤 청나라 군사가 들어 온다고 들었다며 이증구의 안위를 거듭 걱정하였다. 편지를 보낸 날짜가 확인되지는 않으나 이매

11) 『李中久家五代古文書』 G509. “正甫乎. 變亂之中, 不相面, 不相告. 當日禍色迫頭, 不得已與齋伴數三益, 轉至此處, 而未知君之行止之如何. 此心慮鬱, 當何如哉. 國事至於此境, 古今所未有之變也. 爲臣民者, 孰不憤惋, 然而畿內幾空. 君亦不可坐待, 期於出門外暫避, 如何. 清兵再明問入來云, 未知其真僞, 而事到此境, 豈可無事乎. 卽詢旅體連旺, 主人倘不避去, 而供饋如前耶....”

구가 당시 관직에 있으며 한성에 있었을 시점이며¹²⁾ 청병(淸兵)이 모레 온다고 하는 내용을 통하여 5월 4일 청국이 아산만 상륙하기 직전에 쓰였을 것이라 추정해볼 수 있다. 이중구가 이매구로부터 받은 편지를 통해 당시 한성의 상황이 급박하였으며, 관리들이 한성을 피해 나가 있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이중구가 받은 편지 몇 통을 살펴보았다. 1893년 4월, 5월 지방에 거주하고 있던 이중구의 친족들은 이중구에게 편지를 보내 개인적인 이야기와 그의 안부를 물으면서, 동학의 움직임에 대해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확인차 묻고, 또 동학이 해산되었음에 안심을 표하였다. 그러나 이중구가 일 년 뒤 받은 편지는 그간 조선의 급변한 정세를 파악해볼 수 있게 한다. 1894년 5월에 받은 편지에서는 조선을 둘러싼 청과 일본의 긴장된 상태를 보여주며, 이중구가 혼란스러운 한성에 남아 있음을 알려준다. 이중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시 이중구의 시각과 관점을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그의 주변 인물들의 생각과 당시의 복잡해진 모습을 읽어볼 수 있었다.

II. 시사(時事)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다

『이중구가 오대 고문서』에는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으로 혼란을 겪고 있던 조정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도 확인된다. 이는 관직에 있던 이중구가 수집한 자료들로 추정되며 당시의 시사(時事), 시세(時世)를 보여주는 문서와 정보들이 확인된다. 예를 들자면, 중앙으로 올라오는 상소문의 사본(寫本), 왕의 윤음과 교서, 관원 임명 명단, 회의록 등이 이에 해당한다.

12) 이매구는 1893년 6월 20일 社稷 令을 맡았고, 1894년 7월 5일 長鬚(포항)의 縣監으로 임명되었다.

해당 자료들의 내용을 본다면, 이증구가 당시 국가의 정사(政事) 그리고 형세(形勢)에 갖고 있던 관심의 정도와 방향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증구가 자신의 생각을 직접 글로 남기지는 않았지만, 동학농민혁명을 전후한 시점, 갑오개혁, 일본의 조선 간섭 등 당시 복잡한 현실 상황에서 그가 모으고 남긴 자료를 통해 이증구의 시선을 따라가 볼 수 있다. 이에 이증구가 수집한 정보와 옮겨 남긴 기록의 일부를 소개하고 그가 관심을 두고 바라본 당대의 급박하게 돌아가던 조정의 모습을 살펴보려 한다.

1. 상소

이증구는 나라의 시사에 관심을 두고 관련된 글들을 모아두었다. 특히 각지에서 중앙으로 올라오는 상소를 통해서 그는 어떤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증구가 수집한 상소에는 동학을 비판하고 국가 형세에 대해 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상소의 대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893년 2월 동학교도가 전라도감영에 정소(呈訴)한 글과 경기 방외유생 박제삼 등의 상소(上疏)¹³⁾

『이증구가 오대 고문서』 중 현재 가장 이른 시기로 확인되는 동학 관련 기록은 1893년 2월 10일 어느 동학교도가 전라도 감영에 올린 글을 포정사(布政司)에서 게시한 고시문이다. 동학교도들은 전주 감영에 정소하는 글을 올릴 뿐만 아니라 통문(通文) 4통을 함께 돌렸다. 소식이 널리 퍼지며 이를 비판하는 상소가 여러 올라왔는데 그중 하나가 경기 방외유생 박제삼 등이 올린 상소이다.

전라도감영에 정소한 글에는 전라감사 이정직에게 동학을 공인해 줄

13) 『李中久家五代古文書』 B110, B123; 『承政院日記』 고종 30(1893) 2월 25일.

것과 동학교도들에 대한 지방관과 토호들이 부당한 주구(誅求)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당시 왜적(倭賊)을 물리치는데 나라와 힘을 합치겠다며, 그들이 반외세의 기치를 내세웠음을 알 수 있다.

박제삼 등의 유생들은 동학교도들이 이단의 학설을 빙자하며 속으로 는 반역을 음모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하였다. 그들을 발본색원하지 못하고 겉가지만 잘라내는 조치를 취하여 다른 재난을 가져오게 해서는 되지 않기에 그들을 처단하거나 성토하는 일에 모든 조치를 잠깐이라도 늦출 수 없다고 하였다.

2) 1893년 8월 21일 이견창과 권봉희가 올린 두 상소¹⁴⁾

1893년 8월 21일 부호군(副護軍) 이견창(李建昌)과 전(前) 사간(司諫) 권봉희(權鳳熙)가 각각 상소를 올렸다. 두 상소 모두 동학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당시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자신들이 생각한 대응책을 함께 전달하였다.

이견창의 상소에는 크게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양호에서 간사한 무리들이 날뛰고 있는데 이들을 처단할 것, 둘째, 한성과 지방의 직속 부대 군사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것, 셋째, 나라의 경비는 백성에게 나오는 것인데 이를 지나치게 낭비하지 말 것, 넷째, 관리를 통해 백성들이 안정화될 수 있으니 좋은 찰리사(察理使)나 감사를 잘 택할 것 등이다. 특히나 이견창은 백성이 무리를 이루는 경우 국법으로 반드시 처단해야 하며, 이를 반드시 난민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동학교도들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권봉희의 상소는 당시 조선 조정의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관리들은 이를 문제 삼아 벌을 주는 조치가 있길 바라였다. 권봉희는 상소에서

14) 『李中久家五代古文書』 B104-105, B106; 『承政院日記』 고종 30(1893) 8월 21일.

현재 기근이 거듭되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기강이 해이해져 이교가 횡행하고 있는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였다. 이에 그는 시폐(時弊)를 개선하기 위한 7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말미에는 이윤(伊尹)이 태갑(太甲)에게 고한 고사(故事)를 인용하며, 임금이 태갑과 같이 잘못을 깨닫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권봉희의 상소가 조정에 알려지자, 조정의 관리들은 그가 제시한 제안에는 실재가 없으며 나라를 기롱하고 조정을 모욕하는 일이라며 비판하였다.¹⁵⁾

3) 1894년에 올라온 세 건의 상소¹⁶⁾

1894년에 들어서며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거세지고 영역은 확장되어 갔으며, 그 파급은 주변국과의 형세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상응하듯 1894년에 올라온 상소들은 당시 문제의 원인을 보다 직접적으로 동학이라 가리키었고 외국의 군사 파병과 관련된 문제도 거론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나름의 해결책도 제시하였다.

1894년 5월 8일 부사과(副司果) 이설(李僎)은 국가의 위급한 사태를 병이 든 것으로 비유하고 그 치료약을 말하였다. 병의 원인은 동학의 무리로 이들을 난민의 도당이라 하였다. 방백, 수령들이 국가에 보답할 마음은 없고 자신들만 부유하게 할 생각으로 백성을 돌보지 않아 고통을 면하게 해준다는 동학 무리의 유인에 많은 백성이 말려들었다고 하였다. 또한 동학의 확장세를 설명하고 그 문제의 시작이 조필영(趙弼永), 조병갑(趙秉甲)이라 지적하였다. 이설은 이 문제를 해결할 5가지의 조목을 제시하였는데, 여론을 위로하고, 진휼 행정을 하고, 궁중의 출입을 엄정히 하여 간사함을 막으며, 언론을 개방하여 여러 정책을 받아들이고 원병의 도움에 의지하여 무비(武備)를 허술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¹⁷⁾

15) 『承政院日記』 1893년 8월 21일.

16) 『李中久家五代古文書』 B122, B121, B120.

17) 『承政院日記』 1894년 5월 8일. 이최영은 이설이 軍衛의 신분으로 상소를 한 점과

6월 17일 부사과(副司果) 이최승(李戡承)도 당시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였다. 그는 백성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백성을 잘 다스리려면 청렴한 수령을 삼고, 경비를 줄여 진휼하고, 전쟁을 우려하여 무비를 강구 해야 함 등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당시 사회의 법망이 해이해져 수령이 탐욕스러워 민란이 일어나고, 서학을 금하지 않으며, 동학이 일어나고, 환곡이 텅 비어있는 상황을 지적하였다. 문제를 시급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긴급하지 않은 일을 없애고, 언론을 열어 유신들을 인접하여 고금의 치란을 논의해야 한다며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였다.¹⁸⁾

6월 23일 형조참의(刑曹參議) 이남규(李南珪)의 상소는 동학도와 일본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하였다. 이남규는 먼저 동학도들의 문제와 백성을 위한 조치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당시 일본인이 군사를 이끌고 도성(都城)의 문을 열고 들어온 일의 문제와 국가에 외국 원병을 들이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님을 이야기하며, 나라가 군정과 무비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을 이야기하였다.

2. 중앙에서 생산된 문서

관료로서 중앙에 근무하고 있던 이증구는 국왕의 윤음과 교서 그리고 관직 임명, 관제의 개정안 등 중앙에서 생산된 문서들도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증구가 중앙의 상황과 형세의 흐름을 읽어가는데 뒷받침이 되던 중요한 자료들이라 생각된다.

家僮이 상소를 올린 것이 모두 禁令에 관계된다며 소장을 엄하게 推考해야 한다고 하였다.

- 18) 『承政院日記』 1894년 6월 17일. 정항조는 이최승이 軍衛의 신분으로 상소를 한 점과 家僮이 상소를 올린 것이 모두 禁令에 관계되니 소장을 엄하게 推考해야 한다고 하였다.

1) 국왕의 윤음(綸音)과 교서(敎書)¹⁹⁾

『이중구가 오대 고문서』에는 1894년을 전후한 때 고종의 윤음, 교서, 전교를 옮겨 적은 문서 몇 건이 확인된다. 그중 1893년 4월 고종이 양호(兩湖)에 내린 윤음과 1894년 7월 경장(更張)의 뜻을 담은 교서는 주목할만하다.

1893년 4월 1일 고종은 동학의 형세가 가속화되자 양호에 윤음을 내려 백성들을 타이르고자 하였다. 고종은 열성조(列聖朝)가 일찍이 정사를 빚내고 유학을 장려하여 나라의 풍속이 옳을 길로 갔으며, 자신이 이를 잇고자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세상이 타락하고 풍속이 야박해져 추향(趨向)이 달라지므로, 허망한 무리들이 방자한 술책으로 세상을 속이고 현혹하여 백성들이 그릇된 길로 빠지고 있음을 경계하였다. 또한 ‘큰 의리를 제창[倡義]’이라 써놓고는 혹 통문(通文)을 내기도 하고 혹은 방(榜)을 붙여 인심을 선동함을 비판하며, 이들이 큰 의를 제창하는 것이 아니라 난을 앞장선다고 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형세는 자신[고종]이 백성들을 잘 인도하지 못해서이며, 탐오한 아전과 수령들이 백성을 못살게 굴었기 때문이니 그들을 징벌하겠다는 하였다. 마지막으로 행호군(行護軍) 어윤중(魚允中)을 선무사(宣撫使)로 임명할 것을 명하였다.

고종은 선조들이 국가를 잘 닦아왔기에 자신이 이를 잇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세상의 흐름이 이상해져서 동학이 일어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또한 백성들이 이에 현혹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과 고을과 수령들이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하였기 때문이니, 그들을 벌하겠다는 내용을 전한 것이다.

1894년 7월 20일 고종이 국가 초기의 법도가 해이해져 경장(更張)을

19) 『李中久家五代古文書』 K529, K818; 『高宗實錄』 권30, 고종 30(1893) 4월 1일; 『承政院日記』 고종 31(1894) 7월 20일.

하겠다는 교서를 내렸다. 이 교서에서는 근래 온갖 법도가 점차 해이해져서 체계가 전혀 없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가의 형세가 쇠약해져서 옛 법을 참고하고 각국의 좋은 규례를 참고할 것과 직제(職制)를 정비할 것을 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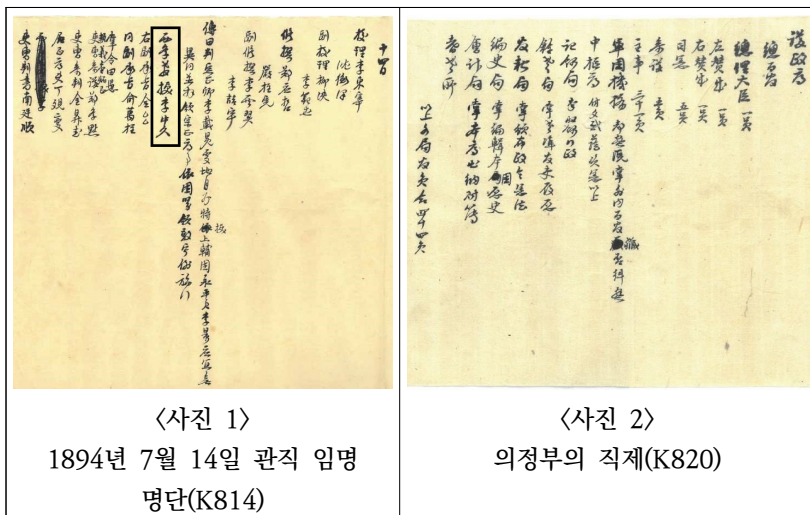
2) 관직 임명 명단과 관제의 개정안²⁰⁾

이중구는 관직 임명 명단 문서와 새롭게 개편된 국가 관제(官制)의 기록을 모았다. 특히 6월 초 고종의 전교(傳敎)를 시작으로 7월 중순까지의 조정의 정사, 관제의 개편, 관직 임명안의 기록들이 집중적으로 보인다. 이는 이중구가 국가의 운영 상황과 변화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신의 관직과 관련하여서라도 이중구는 관원 임명에 관심을 가졌다. 이중구는 1894년에는 부사과(副司果)의 직임이었고 7월 9일 고종의 전교에 따라 부교리에 제수되었다. 며칠 뒤 14일 이중구가 서학교수에 임명될 때의 임명 명단도 확인된다.²¹⁾ 그런데 16일 이중구는 병이 있다고 하며 다시 체직을 청하였는데, 고종은 이를 허락했다. 이중구가 관직을 사양하고 고향을 떠나기 전 관리 임명에 거론되었던 상황인 만큼, 그는 관직 임명과 관제의 개정 등을 주시하며 조정과 관련된 기록들을 남기고 수집했다.

20) 관원 임명과 관련하여서는 『李中久家五代古文書』 K808, K809, K810, K811, K812, K813, K814 / K817, K816. 관제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K819, K820, K822, K823, K824, K825, K826, K827. 한 지면에 연속적으로 쓰여있으나, 자료의 탈초 및 해제의 편의를 위해서 날짜별로 나누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21) 『李中久家五代古文書』 K814.



3. 외국과의 문제

19세기 말 조선이 확장된 국제질서에 참여하게 되면서 다양한 나라와 교류하였다. 또한 외국 공사와 영사들이 조선에 머물렀고 그들은 회의를 통해 여러 외교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듯 『이증구가 오대 고문서』에는 외교 업무 처리 회의 혹은 외국 공사가 올린 문서를 옮긴 기록도 보이며, 이증구가 당시 외국과의 문제에 주목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여기서 소개할 자료는 1894년 조선 주재 각국 공사와 영사의 회동 담론 초고와 일본 공사가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²²⁾가 올린 글이다.

22) 오토리 게이스케(大鳥 圭介, 1833~1911)는 1889년 주청국 특명전권공사를 지냈는데, 1893년 조선의 공사도 겸임하게 되어 6월 조선에 부임하였고, 10월 11일 공사에서 해임되었다.

1) 회의록²³⁾

1894년 6월 14일 조선의 주재로 각국의 공사와 영사들이 회동한 모임의 초고를 통해 당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 회의록은 당시 조선과 외국 공·영사들 간의 회의 장면을 생생히 살필 수 있으며, 회의 주된 논의 사항이 무엇이었는지도 보여준다.

이날의 회의에는 외무독판 조병직(趙秉稷)의 주재하에 일본 공사, 러시아 공사, 프랑스 공사, 독일 영사, 영국 영사가 참여하였다. 모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안건이 있었다. 첫 번째로는 앞서 진행되었던 회의에서 일본 공사의 불참으로 생긴 외국 공사들의 위치(位次) 문제였다. 6월 8일의 회의에서 수석(首席)은 본래 일본 공사의 자리였으나, 일본 공사가 참석하지 못하게 되며 미국 공사가 수석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공문서상 위안스카이[袁世凱]가 수석이라고 되어 있으니, 일본 공사가 문제 삼은 것이다. 이는 문서를 옮겨 적으며 발생한 오류임을 밝히며 정리되었는데, 일본 공사는 공문서상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두 번째는 일본의 군사가 한성 내로 들어온 것에 관한 논의이다. 영국 영사는 어느 나라인지를 막론하고 조선 정부의 허락이 없이 외국 군사가 한양 내로 들어올 수 없다고 하였다. 일본 공사는 임오년의 조약[제물포조약]을 거론하며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다. 러시아 공사와 독일 영사도 일본의 군사를 철수해주기를 청하자 일본 공사는 자신에게 군사를 철수시킬 권한은 없으며, 군사들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단속하겠다고 하였다.²⁴⁾

회의록에서는 청일전쟁 직전, 한성 내 주재하던 외국 공·영사들 간 주고받은 대화들까지 수록되어 있어서 각국의 가지고 있던 입장 또한

23) 『李中久家五代古文書』 B124.

24) 회의록의 전문의 원문과 번역문은 단국대학교 한중관계연구소, 2024, 『편지로 본 조선 선비의 일상』 2, 다운샘, 17~27쪽 참고.

확인해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외교 회의에서의 위치(位次)나 기타 관례 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외교적 현안을 두고 외국 공·영사 간의 오고 간 대화가 담긴 이 자료는 외교의 실제 현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이후 회의에 참석한 공사와 영사가 남긴 문서와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2) 일본 공사(公使) 관련 문서²⁵⁾

6월 21일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은 조선의 왕실, 관리, 유생, 백성 등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조정의 관리와 지방의 유생들은 일본군의 원병 파견을 비판하고 또 경복궁 침입을 문제 삼으며, 일본의 동태에 관한 관심을 기울였다. 『이중구가 오대 고문서』에는 일본 공사가 제시하거나 국왕에게 올린 문서가 확인된다. 바로 6월 8일의 ‘내정개혁안[擬釐政內治庶政各條綱目]’과 6월 26일 고종에게 올린 문서이다.

일본의 공사는 오토리 게이스케는 조선의 국왕과 관리들을 만나 조선의 내정개혁을 제안하였다. 6월 8일 조선의 대신들은 일본 공사 오토리 게이스케를 만나 회담을 열었다. 이때 오토리 게이스케는 조선의 내정개혁을 제안하는 ‘내정개혁안[擬釐政內治庶政各條綱目]’²⁶⁾을 제시하였다. 앞서 일본은 조선에 군사 파견 이후 청과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조선에게 내정개혁의 추진을 지속해서 강요해왔다.

또 다른 문서로는 6월 26일 오토리 게이스케가 고종에게 올린 글이다.

25) 『李中久家五代古文書』 B457, B125.

26) 그 내용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중앙정부의 제도와 지방제도를 개정하고 아울러 인재를 등용한다.

제2조 재정을 정리하고 재원을 개발한다.

제3조 법률을 정돈하고 재판법을 개정한다.

제4조 국내의 민란을 진압하고 안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군비와 경찰을 설치한다.

제5조 교육제도를 확립한다.

“가만히 생각건대 남쪽 백성들이 무지한 벌레 마냥 고집스레 교화를 거절하여 감히 관원에게 항명하고 한동안을 날뛰자 국가가 군사력을 발동하여 신속히 토벌하는 일을 크게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멸망시킨다고 해도 전쟁을 잊고 아침밥을 편안히 먹는 일이 쉽지 않음을 상기하시고 마침내 이웃 나라의 구원을 빌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일본) 정부는 이 소식을 듣고서 일의 형편이 매우 중하다고 생각해 마침내 대항제 폐하의 유지를 받들어, 사신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궁궐을 병 둘러싸고 주둔하여, 공사관과 상인(商人)을 스스로 막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사신에게 명령하기를, 귀국 조정 대신과 회동하여 이 방법을 밝혀서 귀국 정부가 부강에 관한 실재 정책을 힘써 거행하도록 돕는다면 귀국의 유불리와 연계되는 우의를 마칠 수 있음이며, 보거(輔車)가 서로 의지하는 국면을 보전하여 지닐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²⁷⁾

오토리 게이스케는 당시 조선 남부지방에서 일어난 백성들을 바로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당시 일본의 조선 원병 파견과 경복궁 침입에 대한 사정을 말하였다. 또한 조선과 일본 양국이 서로 의지하며 지내야 함을 전했다. 이는 오토리 게이스케가 조선의 내정에 깊게 간여하고 간섭하고자 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중구를 중심으로 수집되고 전해지는 고문서들을 통해, 당시 그가 관심 갖고 있던 국가의 현안과 정세를 엿볼 수 있었다. 앞서 소개한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중구는 당시 정사 운영과 국가 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민한 태도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중구는 한성에서 관직을 맡고 1894년 7월 24일 고향으로 출발하기 전까지 조정, 즉 중앙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소식을 필사하여 남겨두었다. 동학을 비난하는 상소문, 고종의 윤음과 전교, 국가 정사와 관련된 사안, 관리 임명안, 관제의 개정안, 외국 공·영사들의 회동 초고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27) 단국대학교 한중관계연구소, 2024, 『편지로 본 조선 선비의 일상』 2, 다문샘, 28~33쪽.

이 자료들의 일자를 확인해보면 7월 26일 이증구가 한성을 떠나기 전에 집중되어 있다.

게다가 이증구가 수집한 자료들은 당시 급박하게 돌아가던 조선의 상황을 보여준다. 5월 초 청의 군사 파병 이후 일본도 조선에 군사를 파견한 후 조선 내정에 깊숙이 간섭하여 개혁을 부추기고 일본 군사의 철병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고수하였다. 6월 8일 일본 공사가 조선에 내정개혁안을 제시하였고, 6월 14일에 외국 공·영사들의 회의에서는 조선 내 일본 군사 파견 문제를 논의하였다. 조선은 일본의 내정개혁 제안과는 별개로 교정청을 신설하여 개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6월 21일 일본이 경복궁을 침입하자, 25일 군국기무처가 설립되어 이를 중심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며 조정 내에는 관제의 개편이 진행되고 관리들이 새롭게 임명되었다. 이같이 급박하게 움직이던 1894년의 모습을 이증구는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으로 남겼다.

〈표 1〉 『이증구가 오대 고문서』 속 동학농민혁명시기 관련 문서 목록(일자 순)

문서번호	일자(음력)	내용(『이증구가 오대 고문서』 해제 참고)
B110	1893.2.10	어느 동학교도가 감영에 올린 글
B101	1893.2.18 1893.2.21	관학유생 이건중 등이 올린 상소의 사본 대사간 윤길구가 올린 상소의 사본
B123	1893.2.25	B110에 대한 박제삼 등의 상소의 사본
K529	1893.4.1	고종의 윤음(동학농민에 관한)
G018	1893.4.8	族弟 李殷久가 이증구에게 보낸 편지
H573	1893.4.23	韓商源이 이증구에게 보낸 夾紙
H586-1, 586-2	1893.5.5	족손(族孫) 이시원(李始源)이 족조(族祖)인 이증구에게 보낸 편지
H578	1893.5.8	이석정이 족숙 이증구에게 보낸 편지
B104, B105	1893.8.21	이건창이 동학에 대해 성토했던 글의 사본
B106	1893.8.21	전 사간 권봉희의 시폐(時弊)와 7가지 제안의 사본
B122	1894.5.8	이철이 올린 상소의 사본
B456	1894.6.6	고종의 전교의 사본
K586	1894.6.	『속음청사』 내용을 抄錄 ²⁸⁾

문서번호	일자(음력)	내용(『이중구가 오대 고문서』 해제 참고)
B457	1894.6.8	일본공사가 제시한 조건을 등사
B124	1894.6.14	조병직과 외국공사들의 회동 담화 초고
B121	1894.6.17	이최승의 상소의 사본
K806	1894.6.22	고종이 내린 전교
K807	1894.6.23	고종이 내린 전교
B120	1894.6.23	형조참의 이남규가 올린 상소의 사본
K808	1894.6.24	관원 임명 조정의 정사 기록
K809	1894.6.25	관원 임명 조정의 정사 기록
B125	1894.6.26	일본사신 오토리 게이스케가 조선 정부에 올린 외교문서
K819	1894.6.28	의정부 이하 각 아문의 관제를 개정한 기록 중에 궁내부의 직제
K820	1894.6.28	의정부 이하 각 아문의 관제를 개정한 기록 중에 의정부의 직제
K821	1894.6.28	의정부 이하 각 아문의 관제를 개정한 기록 중에 내무아문의 직제
K822	1894.6.28	의정부 이하 각 아문의 관제를 개정한 기록 중에 외무아문의 직제
K823	1894.6.28	의정부 이하 각 아문의 관제를 개정한 기록 중에 탁지아문의 직제
K824	1894.6.28	의정부 이하 각 아문의 관제를 개정한 기록 중에 군무아문의 직제
K825	1894.6.28	의정부 이하 각 아문의 관제를 개정한 기록 중에 공무아문의 직제
K826	1894.6.28	의정부 이하 각 아문의 관제를 개정한 기록 중에 학무아문의 직제
K827	1894.6.28	의정부 이하 각 아문의 관제를 개정한 기록 중에 농상아문의 직제
B455	1894.6.28	군국기무처가 올린 의안의 등본
B102	1894.6.29 1894.7.2	군국기무처가 올린 의안의 사본
K810	1894.7.2	관원 임명 조정의 정사 기록
K811	1894.7.6	관원 임명 조정의 정사 기록
K812	1894.7.9	관원 임명 조정의 정사 기록
K813	1894.7.11	관원 임명 조정의 정사 기록

문서번호	일자(음력)	내용(『이중구가 오대 고문서』 해제 참고)
K814	1894.7.14	관원 임명 조정의 정사 기록
K803	1894.7.15	정사와 관련된 기록
K816	1894.7.16	관원 임명 조정의 정사 기록
K817	1894.7.17	관원 임명 조정의 정사 기록
K818	1894.7.20	경장에 대한 내용
K476	1894.7.24 ~8.1.	이중구가 쓴 8일 간의 일기

Ⅲ. 8일 간의 여정을 일기로 남기다

‘동학농민혁명’과 이에 대응하던 조선 조정의 혼란과 급변, 청과 일본의 군사 파견과 양국 간의 긴장을 목도한 이중구는 자신에게 주어진 관직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였다. 그리고 그 여정(旅程) 중 8일 간의 일정을 일기에 남겼고, 이중구가 겪은 일과 그의 감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²⁹⁾ 일기는 이중구가 한성을 떠나기 직전인 7월 24일에 시작하여 충주, 단양, 죽령을 지나 유점(鑛店)에 이른 8월 1일까지만 남아 있다. 이 일기에서 이중구가 고향에 도착한 기록까지는 확인되지는 않으나, 8일 간 이중구가 보고 겪은 바를 생생히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일기는 앞서 소개한 자료들과는 다르게 이중구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직접 남겼다. 자료상에서 일기의 작성자가 이중구라는 점이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7월 16일 이중구가 병으로 인해 서학교수직에서 체직되기를 원한다는 기사와³⁰⁾ 8일 간의 일기가 7월

28) 김윤식의 『속음청사』 6월의 기록에는 일본이 제시하였던 개혁안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중 주된 부분들을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인다.

29) 일기의 원문과 번역문은 부록 확인.

30) 『承政院日記』 1894년 7월 16일, “尹吉炳, 以吏曹言啓曰, 中學教授金駿漢, 東學教授李範世, 南學教授趙鎮萬, 西學教授李中久, 俱以身病, 呈狀乞遞, 改差, 何如? 傳曰, 允.”

24일에 시작하였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이 일기가 이증구의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증구가 관직에서 체직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이증구가 쓴 8일 간의 일기

일자	내용	출처
1894.7.9	副司果 이증구 副校理에 除授	『承政院日記』
1894.7.14	이증구 西學教授에 除授	『承政院日記』
1894.7.16	이증구가 병이 있다는 이유로 체직을 청한 것을 허락	『承政院日記』
1894.7.24	지인과 작별 인사를 함. 관내 왜병이 물러나기 시작했으나 궤문 밖 파수꾼 몇 명이 남아있음.	『李中久家 五代古文書』 K476
1894.7.25	고종의 탄신일이나 조정에서 참석한 자가 많지 않음을 탄식함. 지인과 작별 인사를 함.	
1894.7.26	지인들과 작별 인사를 한 뒤 여정을 출발함. 江頭에 왜병 무리가 지키며 轎內를 점검함. 末竹店에서 묵음	
1894.7.27	新院店, 용인읍을 지나 別味店에서 묵음. 대구진영의 使畵를 불러 한 진사에게 편지를 보냄.	
1894.7.28	한성을 떠난지 수일째로 몸은 남으로 가나, 마음은 북에 남아있음. 裴甘店에 들렸으며, 교리 김필현과 만남. 碑立店을 둘러 昆池院에 이름.	
1894.7.29	忠州府에 도착하여 둘러봄. 간신히 목을 곳을 찾았으나 불편히 밤을 보냄.	
1894.7.30	여정 중 東匪의 소란을 전해 듣고 두려워 함. 휴식 중 東匪들이 들이닥쳐 살살이 살피고 감. 火峴을 지났으며, 교예가 챙기던 이증구의 짐의 일부를 빼앗김. 柳橋店에서 묵었음.	
1894.8.1	아침 전날의 東匪 후군들이 몰려와서 이증구 일행의 물건을 빼앗아감. 죽령을 지나서 鑛店에 이르렀음. 숙박할 곳을 알아보았는데 매우 누추하였으며, 고향에 언제쯤 이를지를 한탄함.	

일기를 통해 이증구가 고향으로 가는 8일의 여정을 소개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이증구는 7월 9일 부교리, 14일 서학교수에 제수 되었다. 그러나 이증구는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 삼아 새로이 관리를 임명해줄 것을 청했고, 고종은 이를 허락하였다. 이후 이증구는 한성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며 주변 지인들에게 작별을 고하였다. 이증구가 한성을 떠나기 전, 7월 24일 아직 관내에는 왜병들이 일부 남아 있었고, 25일 고종의 탄일에는 적은 수의 관리들이 참석하였다.

이증구는 조정의 적막함을 탄식하며 한성의 모습을 기록하였다. 이후 이증구는 한성을 떠나 용인, 광주(곤지원), 충주, 괴산[火峴], 죽령(竹嶺)을 거쳐 고향인 경주로 향하였다. 이증구는 여정 중 지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고, 주변을 둘러보기도 하였는데 특히 29일 충주를 지난 후로는 동비(東匪, 동학교도)³¹⁾들을 만나서 곤욕을 치렀다. 7월에는 이미 충청도 전역이 사실상 기포단계에 들어갈 정도로 농민군의 움직임이 활발한 시점으로,³²⁾ 이증구가 충주에 들어선 후로는 농민군과의 접촉이 지속되었다.

7월 30일과 8월 1일 이증구는 고향으로 향하는 중 몇 차례 동학군을 마주쳤으며, 이 일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7월 30일 이증구는 여정 중 동비들이 못된 행동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전해 들어 두려워하였다. 또한 이미 몇 관리들은 도망을 가거나 집을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들어 앞으로의 여정을 더욱 염려하였다. 그를 수행하던 교예(轎隸)가 배고프다 하여 숙소에서 머물며 식사를 기다리는 중 비류(匪類) 수십 명이 들이닥쳐 처소를 살살이 살피자 이증구와 행인들은 겁을 먹었다. 또한 주인 노파로부터 그들이 이교리라는 자를 찾고자 온 이야기를 전

31) 유교지식인들은 동학을 邪學·邪說·異端·妖道, 그리고 그 무리를 東匪·敵徒·匪徒·邪徒·叛賊·火賊·盜賊등으로 규정하여 불렀다(김상기, 2014, 『유교지식인의 東學 인식과 대응』, 『역사연구』 27, 86쪽).

32) 충북연구원, 2006, 『충청북도 동학농민혁명연구』, 16쪽.

해들었다. 이중구 일행은 다시 일정을 재촉하여 가는 중 마주친 행인과
의 이야기를 통해 비류가 성을 빼앗아 마을 내 정판서 집에 도소(都所)
를 설치하고 사면에서 포교하며 사대부 집의 침구[褥], 방석(方席), 전립
(戰笠) 등의 물건을 가져갔음을 전해 들었다. 이중구는 이러한 광경을
보고 사대부가 비록 작은 과실이 있을지나 저 무뢰배들이 어찌 감히 이
런 행동을 하는지를 탄식하였다.

일행은 화현(火峴)을 지났고 교예가 배고프다 하여 한 가게에 들러 잠
시 쉬어갔다. 이중구는 교예에게 마저 쉬었다가 천천히 오라 전하고 먼
저 길을 나섰다. 그런데 교예가 얼마 되지 않아 뒤쫓아 와서 방석과 유
금(油粉)을 비류에게서 뺏겼다고 하였다. 마침 이중구 일행에게 여러 명
의 무리가 와서 겁을 주었으나 다행히 물러나 다시 길을 떠나 이동하였
는데, 한 차례 더 비류를 만나는 일을 겪었다. 이중구는 이날 일을 겪고
수명이 짧아지는 듯한 기분이 든다고 하였다.

8월 1일은 이 일기의 마지막 날이나 이중구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이날 동이 틀 무렵 이중구는 문밖에 함성을 들었고, 아침 식사 후 출발
하려는 찰나에 수십 인이 갑자기 들이닥쳐 전립과 입모(笠帽) 등의 물건
들을 달라고 하였다. 그 무리는 전날의 후발대로 보였는데 이중구의 물
건을 살펴보고 전립 등을 챙겼다. 이중구 일행은 여정의 속도를 내었고
죽령(竹嶺)을 지났다. 비가 많이 왔으며 이중구는 목을 방 하나를 빌렸
는데, 방은 마치 죄인을 가두는 곳같이 열악했으며 내어온 식사는 먹을
것이 없었다. 그날 밤, 비가 요란히 내리고 우레가 쳤는데 이중구는 고
향이 아늑한 곳에 있어 어느 날에 이를 수 있을지 생각하였다.

이중구는 고향으로 가는 길에서 일본군을 보았고, 동학농민군들을 마
주쳤으며 물건을 빼앗기는 수난을 겪었다. 이중구는 한성을 출발하여
용인과 광주를 지나 충주, 괴산, 단양 지역을 경유하여 고향으로 향하였
는데, 충주, 괴산, 단양 일대는 농민군들은 1894년 외국 군대가 내륙으
로 들어오는 것을 직접 보고 위기감을 느꼈고, 농민군의 움직임이 활발
한 시기였다. 그만큼 이중구는 해당 지역을 지나며 다양한 일을 겪었고

이를 일기에 기록했다.³³⁾

아쉬운 점은 이증구의 일기는 8월 1일까지만 남겨있어, 그 이후 고향으로 향하는 이증구의 이후 여정은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힘들게 고향으로 돌아온 이증구는 이후 자운산방(紫雲山房)을 지어 학문에 정진하였다.³⁴⁾ 그리고 비록 이증구가 한성을 떠나 고향에 머물렀지만, 연이어 급변하는 국가의 형세 속 그가 처한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갔다.³⁵⁾

이증구가 남긴 8일의 일기는 당시 중앙의 관료가 고향으로 향하는 여정 중 직접 겪은 당시의 모습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이라는 두 중요한 사건을 배경으로 한 당대 현장의 모습을 생생히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일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당시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이동 경로, 여정 중 지나친 지역에서의 상황 등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중요한 점은 여정의 현장을 직접 남긴 자료로써, 당시의 지방사회의 모습과 현장에서의 이증구의 감정을 일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다.

맺음말

조선 말기의 관료이자 유학 지식인인 자운 이증구가 받은 편지, 그가

33) 충북지역 중 충주·괴산·단양지역에서의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은 충청북도, 2006, 『충청북도 동학농민혁명연구』, 179~184쪽 참고.

34) 『李中久家五代古文書』 K109(1898년 9월 상순에 쓴 權相文의 李中久의 紫雲山房記文). “...理直弘文館, 值青馬之亂, 無意於仕進, 退卜于此, 以紫雲顏其室, 案紫陽書若, 晦齋先生集數秩, 耽蹟研究, 爲終老計...”

35) 김우진, 「紫雲 李中久(1851~1925)의 反日행적과 현실 한계 인식-『李中久家 五代古文書』를 중심으로-」, 『東洋學』 95, 2024 참고.

모은 정보, 그리고 직접 남긴 일기를 소개하고, 이증구의 시선으로 그가 마주하였을 ‘동학농민혁명’의 시기를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1893년 동학의 움직임이 시작되던 시점, 관직을 맡아 한성에서 체류 중이던 이증구는 동학교도들의 포고문을 인식하였고 이를 비난하는 취지의 상소에 관심을 보였다. 이즈음 지방에 있는 그의 친족들은 편지를 보내 이증구의 안부와 동학에 대한 소식을 되물으며 관련된 정보를 전해주길 바랐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그 영향은 국내외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나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 조정이 청에 파병을 요청하자, 일본은 군사를 파병하고 경복궁을 점령하며 조선 내부의 개혁을 압박했다. 이 시기 이증구는 동학과 대외 형세와 관련된 상소를 모으고, 조정의 직제 변경과 관원 임명의 기록을 수집하였다. 특히 외국 공·영사간의 회동 초고와 일본 공사 오토리 다이스케의 상주문과 관련한 기록은 당시 이증구가 조선을 둘러싼 외국의 간섭과 정세에 촉각을 세우고 있음을 알게 한다.

그러나 이증구는 자신에게 주어진 관직을 내려두길 결심하고 그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 여정 중 동학농민군을 직접 맞닥뜨리며 겪은 8일의 경험은 일기에 상세히 그려졌다. 이증구는 한성을 나서는 초입에서 왜병을 보았고, 편치 않은 마음으로 남쪽으로 향하였다. 또한 이동 중 만난 동학농민군들에게 물건을 빼앗기는 등 고향으로 향하는 노정은 쉽지 않았다. 일기에서 이증구가 고향에 언제 도착하였고,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증구는 힘든 여정 끝 고향에 잘 도착하여 학문에 정진하였다.³⁶⁾

이증구가 혼란한 정사를 뒤로하고 고향으로 향하였지만, 그가 한성에서 보고 듣고 겪은 경험은 이후 이증구의 활동과 행적에 영향을 끼쳤으리라 본다. 이증구는 당시 동학농민군뿐만 아니라 일본의 내정 간섭과

36) 고향으로 돌아온 이증구는 紫雲山房을 지어 이곳에서 학문에 정진하였다.

경복궁 점령 등을 목격했다. 이후 이어진 일본의 조선에 대한 간섭과 침략 속 이중구는 반일 의식을 형성해갔는데, 1894년 그가 겪은 경험 이 일부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이중구의 행적을 계속해서 추적해보면 그가 점차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변화해가는 양상을 볼 수 있다.³⁷⁾ 이중구는 국채보상운동에 호응하여 경주향교 단연(斷煙)회사에 회장으로 취임하고,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의병과 독립운동을 한 인물들과 교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중구의 행보와 의지는 연령·가문·지역을 초월한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으며 ‘자운계(紫雲契)’라는 모임이 만들어져 기억되었다. 이중구는 그가 처한 위치에 서 자신만의 역할을 이루어 나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중구가 오대 고문서』 속 동학농민혁명시기에 이중구를 중심으로 수집·생산된 자료 일부를 소개하고, 그 기록의 시선을 따라 당시의 모습을 관찰해보았다. 아쉬운 점은 이중구가 받은 편지, 이중구가 쓴 일기, 이중구가 필사하거나 모은 정보들이 주를 이루어 그의 현실 인식과 그 대응법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기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중구가 오대 고문서』 중 이중구와 해당 시기와 관련된 자료들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 글이 고문서 내 여러 자료의 소개에 국한되어 당시 동학농민군들이 활동과 이동, 관련 자료와의 비교 및 검토 등이 부족하여 깊이있는 분석과 역사적 해석에까지 미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를 지속함으로써 『이중구가 오대 고문서』 속의 여러 자료들을 발굴하고, 자운 이중구 개인 연구의 공백을 조금이나마 메꾸며,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새로운 연구를 이어나갈 것을 약속한다.

투고일 : 2025. 4. 7. 심사완료일 : 2025. 4. 27. 게재확정일 : 2025. 4. 28.

37) 김우진, 2024, 「紫雲 李中久(1851~1925)의 反日행적과 현실 한계 인식-『李中久家 五代 古文書』를 중심으로-」, 『東洋學』 95 참고.

참고문헌

〈사료〉

『高宗實錄』

『李中久家五代古文書』

『續陰晴史』

『承政院日記』

〈단행본〉

단국대학교 한중관계연구소, 2024, 『편지로 본 조선 선비의 일상』 1·2, 다운샘.

신순철·이진영, 1998, 『실록 동학농민혁명사』, 서경문화사.

신용하, 2016, 『(신판)東學과 甲午農民戰爭研究』, 일조각.

조재곤, 2024, 『조선인들의 청일전쟁-전쟁과 휴머니즘-』, 푸른역사.

충북연구원, 2006, 『충청북도 동학농민혁명연구』, 충청북도.

〈논문〉

권대웅, 2009, 「경상도 유교지식인의 동학농민군 인식과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제51집, 한국근현대사학회, 72~107쪽.

김상기, 2009, 「충남지역 유교지식인의 동학 인식과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제51집, 한국근현대사학회, 43~71쪽.

_____, 2014, 「유교지식인의 東學 인식과 대응」, 『역사연구』 27호, 역사학연구소, 85~100쪽.

김우진, 2024, 「紫雲 李中久(1851~1925)의 反日행적과 현실 한계 인식-『李中久家 五代古文書』를 중심으로-」, 『東洋學』 95,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69~93쪽.

박맹수, 2009, 「전라도 유교지식인의 동학농민군 인식과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제51집, 한국근현대사학회, 108~138쪽.

배항섭, 2023, 「동학과 동학농민군의 대외인식」, 『韓國史研究』 201, 한국사연구회, 215~251쪽.

송진현, 2023, 「19세기 후반 경상도 상주의 향촌문제와 동학농민전쟁」, 『대구사학』 제150집, 대구사학회, 103~141쪽.

신영우, 2015, 「충청감사와 갑오년의 충청도 상황」, 『동학학보』 34, 동학학회, 189~240쪽.

이광우, 2018, 「동학농민전쟁기 경상도 유림의 향약 시행」, 『민족문화논총』 제68집,

57~94쪽.

이병규, 2015, 「경상도 북부지역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와 그 성격」, 『동학학보』 35호, 동학학회, 171~202쪽.

이재령, 2021, 「慶州 李中久家 五代 古文書 資料의 정리와 성과」, 『東洋學』 8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15~140쪽.

〈부록〉

이중구가 쓴 8일 간의 일기(원문, 번역문, 사진자료) (1894년 7월 24일~8월 1일, K476)

甲午七月二十四日，陰。午後，進別雲峴李輔國，略有所達。關內倭兵始退，只留關門外派守軍數名，或從此就平耶。

갑오년(1894년) 7월 24일, 흐림. 점심을 먹은 후 운현궁에 가서 이보국(李輔國)을 찾아가 작별하면서 간단히 말한 바가 있었다. 궐내에는 왜병이 물러나기 시작하였고 다만 궐문 밖 파수꾼 수명만 남아 있으니, 혹 이로부터 평탄해질 것인가.

二十五日，晴。誕辰公故參班，不過五十員，朝著何若是蕭索耶。不覺痛歎。午後，進別雲峴統衛使，略有所言，猥荷隆遇，極切悚然。歸視主人，爲供行饌，對爐汗滴，人情似然。

25일, 맑음. 임금의 탄신 공고(公故)가 있어 참석한 인원이 50명을 넘지 않으니, 조정이 어찌하여 이처럼 적막한가. 나도 모르게 탄식하였다.

오후에 운현궁에 통위사를 찾아가 작별하고 간단히 대화를 나누었는데, 외람되이 융성한 대우를 받아서 죄송함이 매우 컸다. (집으로) 돌아와 주인을 보니 (나의) 행선(行饌)을 제공하기 위해서 화로를 마주하고 땀을 흘리고 있었으니 사람의 정이 이와 같다.

二十六日，晴。飮後發行。五歲旅悅，雖極爽豁，客地相依之如丁佐郎而直，李監察元五，金士英，權穆如，金景由，許喜諸兄，隨後出街路，送別去留之悵，前路茫然。

因歷別鄭令天弼，巧以生隸之任卜相失。不遑作別。南邨數處，意或迫而可

得踵. 至江頭守倭兵派之, 點檢轎內. 舟子之停船索價, 已非昔日光景, 雖得後咲, 當日情景, 可勝言哉. 僅行二十里, 投宿末竹店.

26일, 맑음. 식사 후 출발하였다. 5년의 객지 생활이 마무리되어 비록 (마음에) 매우 시원하였으나, 객지에서 서로 의지하였던 좌랑 정이직, 감찰 이원오, 김사영, 권목여(권상문), 김경유(金景由), 허희(許喜) 등의 형들이 뒤따라 길로 나오니 헤어지는 아쉬움에 앞길이 아득하다.

연이어 정천필 령(令)을 작별하였으나 공교롭게도 생애가 맡은 짐을 잃어버려 서로 헤어지니 작별할 경황이 없었다. 남쪽 몇몇 곳에서 생각건데 아마도 뒤쫓아 이를 수 있었것이다. 강두(江頭)에 다다르니 지키는 왜병을 파견하여 가마 안을 점검하였다. 뱃사공이 배를 멈춰서 뱃값을 요구하니 이미 예전에 광경이 아니었고, 비록 훗날 웃었으나 당일의 모습을 다 말할 수 있겠는가. 겨우 20리를 가서 말죽점(末竹店)에서 묵었다.

二十七日, 晴. 早發, 過新院店. 路上裁書, 付喜啓兄, 略敘行邁間關之意. 因朝飭於月峴店, 中火於龍仁邑, 投宿於別味店. 是日行一百十里. 夕後招大邱鎮營使令, 付韓進士書.

27일, 맑음. 이른 아침 출발하여 신원점을 지났다. 길 위에서 글을 써서 희계 형에게 보내면서 길을 가는 중간에 난관이 있는 뜻을 대략 서술하였다. (편지를 쓴 다음) 이로 인하여 월현점에서 아침을 먹고 용인읍에서 점심을 먹고 별미점(別味店)에서 묵었다. 이날 110리를 갔다. 저녁 후에 대구진영의 사령을 불러 한 진사에게 편지를 보냈다.

二十八日, 微雨. 移京已數日, 青石關開場梗概, 無由得聞. 身雖南歸, 心切北懸. 歷覽所過, 山卉野種, 露濕雨潤, 無此疆彼界. 風光物色, 依舊是我國, 而彼日下風塵, 何時妥定. 言之及此, 不覺痛歎.

28일, 비가 조금 음. 한성을 떠난 지 여러 날이 지났는데 청석관³⁸⁾이 개장(開場)한 소식을 전해 들을 방법이 없다. 몸은 비록 남쪽으로 가나, 마음은 절실히 북쪽에 남아있다. 지나가는 길에 보니 산에 난 풀이나

들판의 꽃이 이슬에 젖고 비에 젖어 이쪽과 저쪽의 경계가 없다. 풍광과 물색은 여전히 우리나라인데 저 태양 아래의 풍진은 어느 때에 안정될까. 말이 여기에 미치자 나도 모르게 통탄하였다.

早發，至裴甘店朝飭。將發，金校理弼賢，自忠州本家，才到此地相還，豈是所料。因攜手入店，敘懷半餉而別，徒亂遠去者心曲。行到碑立店，中火，以輜隸迭相告頌，不得遽程。僅行八十里，暮抵昆池院。百骸如碎，似不更起。招主人，問閔判書梗概，則云已移去他處，似是變亂後避身之計。一場富貴，已付春夢，回念往昔，不覺悽然。

이른 아침에 출발하여 배감점(裴甘店)에 이르러 아침을 먹었다. 출발하려 할 때 교리 김필현이 충주 본가에서 막 이곳에 도착하여 서로 만나니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 손을 마주 잡고 배감점으로 들어가 잠시 동안 소회를 말하고 헤어지니 (동학의) 난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의 마음이었다. 일행이 비립점(碑立店)에 이르러 점심을 먹으니, 가마꾼들이 번갈아 탈이 났다고 하여 가는 길을 재촉하지 못했다. 겨우 80리를 가자 날이 저물어 곤지원에 이르렀다. 온몸이 부서질 듯하니, 다시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주인을 불러 민 판서의 소식을 묻자 이미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하니, 변란 후에 피신하는 계책인 듯하다. 일장의 부귀가 이미 춘몽이 되고, 과거의 광경을 다시 생각해보니 나도 모르게 슬퍼졌다.

二十九日，晴。輜隸不健，未得晨發，飭後登程。中火於龍院，將向忠州，中路被雨，入棗院。適逢遞結城李紹榮來自醴泉，坐肆待晴。因下輜入肆，略敘間別。方謀聯宿，定館後，未及相會，天雨忽霽，以書告別，吾亦修答，以謝惠五緡之意。促輜登途，僅行九十里。暮抵府中，時經倭亂，舉府奔竄，都無

38) 靑石關: 개성부에 위치한 곳으로 돌로 축성한 성이다.(『輿載撮要』卷3, 「京畿道·開城府」.)

投宿處。自西南門周回，至北門，只有馬房一店，而亦不肯納。因下轎強入，主人見雨勢大作，方許寄宿。房突陋癢，終宵未成眠，令人難堪。

29일. 맑음. 가마꾼이 몸이 좋지 않아서 새벽에 출발하지 못하고 식사 후에 일정을 시작하였다. 용원(龍院)에서 점심을 먹고 충주를 향해 가는 도중에 비를 만나 조원(棗院)에 들어갔다. 마침 교체된 결성현감(結城縣監) 이소영(李紹榮)이 예천에서부터 오다가 사(肆)에 앉아 날이 개기를 기다리는 것을 만났다. 이에 가마에서 내려서 사에 들어가 그동안의 소식을 대략 말하였다. 이어 묵을 생각으로 숙소를 정한 후에 서로 만나지 못했을 때, 비가 갑자기 그쳐서 글을 써서 이별을 고하니 나도 답서를 써서 다섯 께미를 보내준 뜻에 감사하였다. 급하게 가마를 타고 길에 나서서 겨우 90리를 갔다. 저녁에 충주부에 이르니 때마침 왜란을 겪어 충주부 전체가 달아나 머물 곳이 전혀 없었다. 서남문으로부터 돌아서 북문에 이르니 마방(馬房)이 있는 숙소가 하나 있는데 역시 받아 들여주지 않았다. 이에 가마에서 내려서 역지로 들어가니 주인이 빗줄기가 큰 것을 보고서야 머물 것을 허락하였다. 방안이 누추하여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니, 사람으로 하여금 견디기 어렵게 하였다.

三十日，晴。飮後發行，才才前進，東匪作梗，途路傳聞，極爲懷怖。如權洗馬·鄭直閣·李校理者，或逃避，或周牢，或奪家，當者情境，口不可道。前頭經歷，尤極係慮，而路由竹嶺，則回避不得，所以細探。

30일, 맑음. 밥을 먹은 후 길을 떠나 겨우 앞으로 나가다가 동비(東匪)가 소란을 일으켰음을 길에서 전해 들으니 매우 두려웠다. 권 세마(洗馬), 정 직각(直閣), 이 교리(校理)와 같은 사람은 혹자는 도망을 가기도 하고 혹자는 주리를 틀기도 하며 혹자는 집을 빼앗기기도 하였으니 당한 사람의 정경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욱더 염려되나 길이 죽령을 경유하여 회피할 수 없으니 자세히 탐문하였다.

至西倉，輒隸告飢，入店。中火，未及對飭，喊聲大起，匪類數十人，奔騰驟至，指顧蒼黃，爲搜覓捕捉狀。行者喫恟，尤難定情。若視恆恟，慮有他變，強作多氣而探問。則主婆云，李校理曾以武斷事，東匪方謀雪冤毆打，見機先避。堂有大夫人，日前以指所去處，恐喝無狀，老夫人受無限困境，以一婢子，依典當例出給，以姑俟外主來時之意，百般開諭，以受寬限。今適此家奴子，方午飯在家，若捕而招辭，則可知其去處，故匪類以捉此家奴丁事，如是紛拏。顧知行人，本無相關，而當場危怖，可勝言哉。

서창(西倉)에 이르자 가마꾼이 배가 고프다고 하여 가게에 들어갔다. 점심때가 되어 아직 식사를 먹기도 전에 함성이 크게 나며 비류 수십인이 날뛰면서 물려와 신속하게 살살이 되져 붙잡으려는 상황이었다. 행인들은 겁을 먹어 마음을 안정시키기가 더욱 어려웠다. 만약 겁을 내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다른 변고가 생길까 염려하여 억지로 담대하게 행동하며 그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주인 노파가 말하기를, 이교리가 일찍이 무력으로 일을 처리하여 동비(東匪)들이 억울함을 씻고 (그를) 구타하려 하였는데 (이교리가) 그 기미를 보아 먼저 피하였다고 한다. 당에 대부인이 있어 며칠 전에 간 곳을 가리키자 함부로 공갈을 하여 늙은 부인이 끝없는 곤경에 처하니 계집 중 하나를 인질로 내어주고, 우선 바깥주인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자는 뜻으로 (그들을) 백방으로 설득하여 기한을 연장받았다. (그런데) 지금 마침 이 집의 하인이 집에서 점심을 먹고 있으니 그를 잡아다 진술을 받으면 그가 간 곳을 알 수 있으므로 비류들이 이 하인을 잡는 일로 이처럼 혼란스러운 것이었다. 행인들은 본래 서로 관련된 것이 없음을 알았으나 당시 현장의 위험과 공포를 다 말할 수 있으랴.

末乃失捕，亂入店肆，問擔負之從何而來。下隸答以“自京來”，則渠云，“裏有何物”。下隸又答“無他好物，只有敝衣數件而已。”渠咲曰，“雖有寶物，吾非奪取之人，須勿驚動好去。”較諸初頭光景，猶爲差強。因促隸登程，或三四人，或二三人，偶坐沙場，連絡途路。

끝내 (하인을) 붙잡지 못하고 (비류들이) 점사(店肆)로 난입하여 짚어진 물건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물었다. 가마꾼이 “한성에서 왔다”고 대답하자, 그들은 “그 안에 어떤 물건이 있느냐”고 하였다. 하인이 또 대답하기를 “다른 귀중한 물건은 없고 그저 낡은 옷 몇 벌 뿐이다”라고 하였다. 그들은 웃으면서 말하기를 “비록 보물이 있어도 우리는 빼앗는 사람이 아니니 놀라지 말고 떠나라”고 하였다. 처음의 광경과 비교하면 조금 나빠졌다. 그 때문에 가마꾼을 재촉하여 길에 오르니 혹 서너 사람, 혹 두세 사람이 모래사장에 짚지어 앉아 도로에 연이어져 있었다.

行未十里，見人家，產物數十負，連亘路上，後有三轎子，蒼黃出來，一轎子輸二處子一老人，新嫁婦女六七人，以短裳草履，持圓簞，携短筇顛倒。隨轎後來，見吾行，一齊避立。怪問行人，則答云，“匪類奪城內洞鄭判書家，設都所，四面發捕，收近地士夫家步褥·方席·鬘子·戰笠等物。至若平日武斷鄉曲者，一並捉治，故城內洞內行，避逐奔去。而此去內行及產負，皆出於其家也。”噫噫。此何光景，此何氣數。士夫家雖有小失，彼無賴輩，安敢如是乎。

길을 간지 십 리가 되지 않아 인가를 만나니, 물건 수십 짐이 길 위에 길게 늘어져 있고, 뒤에는 세 개의 가마가 있어 황급히 나오는데 각 가마에 두 처자와 한 노인을 실었고, 시집가는 집의 부녀(婦女) 6-7명이 짧은 치마에 짚신을 신고 등근 부채를 가지고 짧은 지팡이를 거꾸로 쥐고 있었다. 가마의 뒤를 따라오다가 우리 일행을 보고는 일제히 길을 비켜섰다. 괴이하여 행인에게 물으니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비류가 성내동의 정판서 집을 빼앗아 도소(都所)를 설치하고 사면으로 포교(捕校)를 보내어 근처에 있는 사대부 집의 침구, 방석, 엽자(鬘子), 전립 등의 물건을 거두어들이고, 평소에 향곡에서 횡포를 부린 사람을 모두 붙잡으므로, 성내동의 부녀자들이 피하여 달아났다. 여기에 가는 부녀자와 물건들은 모두 그 집에서 나왔다.” 슬프도다. 이것이 무슨 광경이고, 이것이 무슨 기수(氣數)인가. 사대부 집이 비록 작은 잘못이 있다고 해도 저 무뢰배들이 어찌 감히 이렇게 하는가.

因下輜彷徨，將用過宋之計，細探前路，則丹陽去路，非由城內洞，故稍釋危疑。間關踰烽火峴，逢李上舍晚茂，略敘間別。因促行，至烏旌幕，輜隸告飢，下輜入肆。少憩將發，輜隸息肩，命隨後來，持茶具，先發行。未數步，輜隸來告，方席油衿，見奪於匪類。大抵行客，於渠有何相關，而逢此厄會乎。

이로 인해 가마에서 내려 배회하다가 송나라를 지나가는 계책을 쓰려고,³⁹⁾ 앞길을 자세히 탐색하니 단양으로 가는 길은 성내동을 경유하지 않으므로 위태롭다는 의심이 조금 풀렸다. 중간에 봉화현을 넘어가다가 상사(上舍) 이만무(李晚茂)를 만나 중간의 소식을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길을 재촉하였다. 조모막에 이르니 가마꾼이 배고프다고 하여 가마에서 내려 가게에 들어갔다. 조금 쉬었다가 출발하려 할 때 가마꾼은 어깨를 쉬었다가 뒤따라오게 하고, 차 도구를 들고 먼저 길을 나섰다. 몇 걸음 가지 않았는데, 가마꾼이 와서 알리기를 방석과 유금(油衿)을 비류에게 빼앗겼다고 하였다. 대체 지나가는 행인이 그들에게 무슨 관련이 있기에 이런 불행 만나는가?

停輜路上，帶二隸，直上所憩店。問其所由，則稱以收兵器於丹陽邑，將用日後軍中，而此其歸路也。雖行人之橐，若繫於所用，安用不所取以代錢之意。齊聲恐喝曰，“以火黨目吾輩耶。卽爲逐出可也”。衆起執手曳出，吾堅立咲言曰，“君輩以義爲名，而既奪吾物，從以傷之，可乎”。因少却，而氣焰稍降。觀其動靜，萬難還覓。不顧後出門，有一人目之曰，“少俟則似有覓去之理”。故爲逗遛，終無變動，因登輜發行，日已曛矣。僅行八十五里，至柳橋店投宿，發自烏旌幕，路上又逢匪類，其睨視輜內之狀，令人促壽。

길에서 가마를 멈추고, 두 하인을 데리고 쉬었던 가게로 바로 올라갔다. 그 연유를 물으니, 장차 군중에서 쓰려고 단양읍에서 병기를 거두어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였다. 비록 행인의 짐이라도 긴요하게 쓸 것이

39) 공자가 송(宋)나라를 지나가려 하자 사마환퇴(司馬桓魋)가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죽이려 하므로, ‘변복을 하고 송나라 땅을 지나갔다.[微服而過宋]’라는 고사이다.

있으면 어찌 취해서 돈으로 바꾸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였다. 여러 사람이 위협하며 말하기를, “우리를 화당(火黨)으로 보는가? 즉시 쫓아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무리가 일어나 손을 잡아 끌어내니, 내가 굳건히 서서 웃으며 말하였다. “너희들이 의(義)를 명분으로 하면서 이미 내 물건을 빼앗고 나를 해치려 하니 옳은 일인가?” 그러자 조금 물러나 (그들의) 기세가 다소 누그러졌다. 그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니 물건을 되찾기는 어려워 보였다.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서니 한 사람이 나를 보면서 말하기를 “조금 기다리면 되찾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잠시 머물렀으나 끝내 변동이 없기에 가마에 올라 길을 나서니 해가 이미 저물었다. 겨우 85리를 가서 유교점(柳橋店)에 이르러 묵었다.

조모막(鳥旆幕)에서 출발하여 길 위에서 또 비류를 만났는데 (그들이) 가마 안의 상황을 훑어보니 사람의 수명이 짧아지게 한다.

八月初一日，晴。昧爽，門外喊聲又起。方督明火於店人，蓋前日後軍自丹陽邑來也。餘後將發，數十人突入，以怒目責出戰笠·笠帽及諸般行具。日日逢厄，何其甚哉。促隸出轎內已件，姑未給奪，戰笠·笠帽及革鞋一件。一過讎負，探索他件，以前日方席油衿見奪之無細及之，則以假托不信。因披示轎內，以回敵心。

8월 초1일, 맑음. 동이 틀 무렵에 문밖에서 함성이 또 일어났다. 막주인에게 불을 밝히라고 독촉하니, 전날의 후군이 단양읍에서 온 것이다. 밥을 먹은 후 출발하려 하니, 수십 인이 갑자기 들이닥쳐 성난 눈으로 전립(戰笠), 입모(笠帽)와 여러 행구(行具)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날마다 곤역을 당하는 것이 어찌 이처럼 심한가. 하인을 재촉하여 가마 안의 물건을 내주게 하였는데, 처음에 빼앗기지 않았던 전립과 입모 그리고 가죽신 한 켤레였다. 한 차례 물건을 뒤희고 다른 물건을 찾았는데 전날에 방석과 유금을 빼앗아가서 하찮은 것도 없다고 하니 거짓이라며 믿지 않았다. 그 때문에 가마 안을 열어 보여서 적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一漢以草匣視油衿，喝取視之非也，因慙然曰，“草可食，半取而去”。一汗奪去佩草匣，傍有一汗，舉義責之曰，“戰笠等物，有用處而收之，彼行人草匣，取之何用。斯速給之。”因投之曰，“持去”。誠切呵呵。彼賊黨無道，有何所擇，或取或不取乎。有人率內行，投宿於越房，見其促裝將發。邀客者，前日圓洞熟面也。敘話畢，登程，向丹陽邑。

한 사내가 초갑을 유금으로 보고 소리치며 가져갔다가 살펴보니 아니었다. 허탈해하며 말하기를 “풀은 먹을 수 있으니 절반만 가져가자”고 하였다. 한 사내가 초갑을 뺏어서 허리에 차니, 옆에 있던 한 사내가 의리를 들어 “전립 등의 물건은 쓸 곳이 있어서 거두지만 저 행인의 초갑을 가져가서 무엇에 쓰겠는가? 속히 돌려주어라.”라고 책망하였다. 그러자 초갑을 던지면서 “가져가라”고 하였다. 참으로 매우 우스웠다. 저 도적 무리는 무도한데 무엇을 가려서 어떤 것은 가져가고 어떤 것은 가져가지 않는가? 어떤 사람이 부인을 데리고 건넌방에 묵었는데 이를 보고 행장을 서둘러 꾸리는 것을 보니 장차 출발할 것 같았다. (그) 손님을 불러보니 전날 원동에서 얼굴이 익숙한 사람이었다. 몇 마디 대화를 마치고 길에 올라 단양읍을 향해 갔다.

至衙門外，陰雲發墨，雨勢不佳，停輜彷徨。吏胥輩，見率隸蓬頭無着，環立怪問。招致來前，問吳參判安否，則前日遭盆憾，方在床褥中。誼當入診，而歸事甚迫，含意未遂。適逢慶州輜軍之住忠邑者，以忠牧生日進封，來丹陽邑忠牧妾家，與率隸曾同閑者。說及中路逢厄之由，以八錢買得所着戰笠。此非同鄉下人，豈能容易。甚奇特也。前路所聞，尤爲關心。

(단양) 아문 밖에 이르자 먹구름이 짙어지고 비 오는 형세가 좋지 않으니 가마를 멈추고 방황하였다. 관아의 아전들이 데려온 하인들의 머리는 흐트러지고 제대로 입지 못한 것을 보고, 둘러서서 이상하게 여기며 물었다. 앞으로 나오게 해서 오 참판의 안부를 물으니, 전날 부인을 잃어 지금은 침상에 누워 있다고 하였다.⁴⁰⁾ 마땅히 들어가 살펴보아야 하나 (경주로) 돌아가는 일이 매우 급박하여 생각대로 하지 못하였다. 마침

경주의 가마꾼으로 충주읍에 머물던 자를 만났는데, 충주 목사의 생일에 선물을 바치는 일로 단양읍에 있는 충주 목사 첩의 집에 왔다가 술레들과 함께 거주한 자이다. 길에서 곤액을 만난 사유를 말하고, 8전으로 (그의) 전립을 샀다. 이는 고향이 같은 사람이 아니면 어찌 쉬울 수 있겠는가. 매우 기특(奇特)한 일이었다. 길에서 들은 소식에 더욱 궁금해졌다.

冒雨促輶，而發見行路兢兢，亦爲戰膽。踰竹嶺，入鑰店。此去丁兄家，不過二十里云，視爲吾家，而恨不奮飛。中火將發，雨勢大作，傳聞極怖。衣沾不足惜，而積日載路，慮或生祟。分付主人借一房，深奧如圜牆，所進夕飭，喫數匙而退。挑燈頽臥，雨脚飄盆，○響如雷，旅燈明滅。枕席昏倒，默念歸事，家鄉如在天涯，未知何日入抵也。是日僅行四十五里。

비를 무릅쓰고 가마를 재촉하여 길을 찾아서 나아가는데 또한 두려움에 떨었다. 죽령(竹嶺)을 넘어 유점(鑰店)에 들어갔다. 이곳에서 정형(丁兄)의 집은 20리에 불과하다고 하니, 우리 집처럼 보였으나 달려가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웠다. 밥을 먹고 장차 출발하려는데 비가 거세게 내리고 들리는 소문도 매우 두려웠다. 옷이 젖는 것은 아깝지 않으나 여러 날 길 위에서 있으니 혹시나 있을 재난을 걱정하였다. 주인에게 부탁하여 방 하나를 빌렸는데 깊숙하기가 감옥과 같았으며, 들어온 저녁 밥을 몇 손가락 뜨고는 물렸다. 등불을 켜고 자리에 누우니 비가 세차게 내려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나고, 여관의 등불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였다. 이부자리에 쓰러져 누워 돌아갈 일을 묵묵히 생각하니 고향은 아득한 곳에 있는 듯 하여 어느 날에 돌아가게 될지 알 수가 없었다. 이날 겨우 45리를 갔다.

40) 三遭盆憾：고분(叩盆)의 슬픔을 세 번이나 만났다. 장자(莊子)의 아내가 죽었을 때 혜자(惠子)가 조문을 가서 보니, 장자가 바야흐로 두 다리를 뺀치고 동이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데서 온 말로, 전하여 상처(喪妻)한 것을 말한다.

辛巳日陰

午後進餐所祝李輔國陛下

國內優待退兵

通關內外師軍數名奉此欽此

二千五百^餘誕辰名姓本班不過吾年矣故著何處是此蕭索也不免

南朝年表進爲金史院南史院等官，累拜隆州刺史，功績益昭。

吾人爲修德事雖年滿人皆何益

平六日晴作 懷卷門 辛卯旅順船夷 默步坊名依一水丁位即與皇李蓋

[illegible]

張亦誠參照原稿補正天張所生辭之任上其失不追仍其存報

好學志年進高第 醒臥江臥優然仰首一點挂據內無子一修記定

伍氏前日表揚陸公優渥老日情最厚勝之貴僅二千金校尉壽升座
拜日吉早是日

龍仁昌

父張鑑大郎 庚辰 庚子 才常 崔王壽

石蘭閣校屠是角中乃陸心切止

叠叠晓山青
 山青晓叠叠
 叠叠晓山青
 山青晓叠叠

我與日下風聲何时需要生工役修不免有^部早春玉裝甘在

休为老孝叔理喻安自忠物在方寸中

母携子 不居 偏 不徒 死 遠 去 心 地 日 第 碑 王 居 中 央 山 嶺

此處亦出於不遺程權小里唐穆昌德院方慙為碑小仙不更記小

人而國判書樞密分云已移去他處何是者郭信題身之外不勝氣

為之付喜安里注者不免慮然

平水為喜 轉聚不什者晨卷作候 程中必龍溪如向中溪溪而入康
 平水為喜 轉聚不什者晨卷作候 程中必龍溪如向中溪溪而入康

漢 建寧 李 張 崇 自 睦 永 德 懷 因 下 播 入 財 財 教 東 方 夏 每 福 寧 依 濟 東 ①

於唐天順初年忽患此症者甚多其狀如左以辨其證
 一、主症：頭暈目眩、耳鳴、心悸、失眠、健忘、腰酸、背痛、手足麻木、口苦、舌紅、苔黃、脈弦。

南門外

市為房突過

學日嗜作偽為口才之徒遠勝於中堅者數倍市上權貴之鄉豈可事敗呈之乎

國年辛酉歲去冬吉光乃不道者乃重喜也

四題者必以細細上落為中多凡上落未及寸半一試

魏玉椿茂芳等撰
 單錦章徐心一徐慶林等校
 吳承大逵義軒
 貴州省人大主任徐錦章
 貴州省人大副主任徐錦章

此多事 方錦雲

... 東還... 毆打...

以愛寬解，處處體察，事事關心，予係甚優。

今歲... 萬年...

家不名有古堂按近彭公程氏乃如王事外皇終孝有節曰人本善亦國與善持

卷之五 陽冬部 夢以失捕 親入屠肆所撈 吳之從 伍中六 韓吳心 自夢才不 錄

之象乃印物之聲也。主位物只衣。而巨象車改曰隆了。物至比廣。

〈Abstract〉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東學農民革命)
through the Eyes of Jaun (紫雲) Lee Jung-gu (李中久)
- Focusing on the Historical Manuscripts in Five
Generations of the Lee Jung-gu Family Historical
Manuscripts (李中久家五代古文書) -

Kim, Hyun-Sun*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a selection of historical manuscripts collected and preserved by Jaun Lee Jung-gu (紫雲 李中久) during the period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s found in the "Five Generations of the Lee Jung-gu Family Historical Manuscripts" (李中久家 五代 古文書), housed in the Toegye Memorial Library of Dankook University.

Jaun Lee Jung-gu was a member of the Gyeongju branch of the Yeoju Lee clan (驪州 李氏 慶州派), and his twelfth-generation ancestor was Hoejae Lee Eon-jeok (晦齋 李彦迪, 1491-1553), one of the "Eighteen Sages of the East." While serving as a government official, Lee Jung-gu witnessed the movements of the Donghak Peasant Army, the military interventions of Qing and Japanese forces in Joseon, and the sweeping changes taking place at the center of power. Eventually, he withdrew from officialdom and returned to his hometown.

The *Five Generations of the Lee Jung-gu Family Historical Manuscripts includes various sources from this letter(ganchal, 簡札), transcriptions (saebon, 寫本) of central government documents, and a travel diary (ilgi,

* Ph.D. Candidate, Dankook University

日記)—which allow us to examine this turbulent time from Lee Jung-gu's perspective.

The correspondences reveal that Lee's relatives and acquaintances exchanged greetings while sharing inquiries and news about the status of the Donghak movement and the central government. The transcribed documents show the issues Lee Jung-gu, then still in government service, was interested in. Finally, his travel diary records the eight-day journey back to his hometown and vividly conveys his reflections and emotions during that time.

One limitation of the existing materials is that most of them consist of letters received by Lee Jung-gu, his own diary, and information he transcribed or collected, which makes it difficult to fully grasp his perception of reality and how he responded to it. Therefore, further examination of related documents within the Five Generations of the Lee Jung-gu Family Historical Manuscripts is needed to supplement this aspect.

Key word : Jaun Lee Jung-gu (紫雲 李中久), "Five Generations of the Lee Jung-gu Family Historical Manuscripts" (李中久家 五代 古文書), Donghak Peasant Revolution (東學農民革命), Sino-Japanese War (清日戰爭)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 고증과 문화유산 지정방안*

이병규**

〈목 차〉

머리말

I.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문화유산 지정현황

II. 교조신원운동 삼례집회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III.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 위치 검토

IV.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 문화유산 지정방안

맺음말

〈국문초록〉

완주지역에서 전개된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건은 교조신원운동 삼례집회,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대둔산 농민군의 항쟁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바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이다. 2차 봉기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후 조선

* 이 논문은 2024년 10월 30일 완주군과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가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가 주관한 「완주 동학농민혁명의 새로운 모색」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의 국왕을 볼모로 하여 내정간섭이 심해짐에 따라 외세를 몰아내기 위해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농민군이 봉기한 것이다. 그런데 그 봉기의 장소가 바로 삼례였다. 이러한 역사적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이에 더하여 보존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쉬운 것은 삼례에서 있던 2차 봉기 장소가 어디였는지 아직까지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차 봉기터 위치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기록은 『주한일본공사관기록』의 ‘삼례역에 도착하여 모병본부를 이곳에다 정하였다’는 것과 「전봉준공초」의 ‘삼례역에 이르러 그곳을 기병하는 대도소로 삼았다’라는 기록으로, 2차 봉기터를 확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2차 봉기터의 정확한 위치는 조선시대 지도, 1895년 지형도, 1915년 지도, 1914년 지적도를 종합해 볼 때 삼례리 1072번, 1073번지, 1074번지 일대라고 보여진다. 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

삼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는 향후에 사적 즉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것이 그 역사적 위상에 맞다.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가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에 대한 종합적 학술용역, 관련 자료 수집 및 학술대회 개최, 해당 유적지의 발굴, 그리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행의 과정이 필요하다.

주제어 :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 국가문화유산, 삼례, 전봉준, 유적지

머리말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현재 완주군은 전주부와 고산현에 속해 있었으며 삼례역은 전주부에 포함되어 있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고산군이 통합되어 전주군이 설치되었고, 1935년 전주읍이 전주부로 승격됨에 따라 전주군이 완주군으로 개칭되어 15개 면을 관할하면서 완주군이라는 행정구역이 출범되었다. 그런데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완주지역에서도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역사적 중요성에 비해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였다. 완주지역에서

전개된 중요한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건은 교조신원운동 삼례집회,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대둔산 농민군의 항쟁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바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이다. 2차 봉기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후 조선의 국왕을 볼모로 하여 내정간섭이 심해짐에 따라 외세를 몰아내기 위해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농민군이 봉기한 것이다. 그런데 그 봉기의 장소가 바로 삼례였다. 이러한 역사적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이에 더하여 보존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쉬운 것은 삼례에서 있던 2차 봉기 장소가 어디였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도 못하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존 관리하고 있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의 위치를 확인하고 향후 문화유산 지정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의 문화유산 지정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I.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문화유산 지정현황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것은 국가 7건, 광역지자체 10건, 기초지자체 6건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향토 유산 지정현황

광역	기초	명칭	지정일	지정 번호	지정사유
전북	정읍시	사발통문 작성터	2016.07.26.	제6호	사발통문을 작성한 집터
		동학혁명 모의탑	2016.07.26.	제7호	사발통문 서명자 후손들이 1969년 건립한 기념탑

광역	기초	명칭	지정일	지정 번호	지정사유
		만석보혁파 선정비	2016.07.26.	제8호	1898년 고부군수 안길수가 만석보를 혁파하자 고부민들이 세운 선정비
		전봉준 단비	2016.12.21.	제12호	1954년 천안전씨 종중에서 전봉준을 기리고 제사 지내기 위해 세운 단과 비
충남	당진시	승전목 전승지	2018.06.28.	제10호	충청도 내포 동학농민군이 일본군과 싸워 승리한 충청도 당진 전투지
충북	옥천군	동학혁명 유적지	2009.12.28.	제2009- 2호	1894년 9월 18일 최시형이 총기포령을 내린 곳 (충청도 청산)

〈표 2〉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시도 유산 지정현황

광역	기초	유산 명칭	지정일	지정 번호	지정사유
강원	홍천군	홍천 풍암리 동학혁명군 전적지	1977.11.28.	제25호	동학농민군의 홍천 풍암리 자작고개 전투지
경기	여주시	해월 최시형 선생묘	2021.05.13.	제228호	동학 2대 교주 해월 최시형 묘지
경남	하동군	하동 고성산성	1994.07.04.	제142호	동학농민군의 하동 고성산에서 관군 및 일본군과의 전투지
전북	정읍시	만석보터	1976.04.02.	제33호	고부군수 조병갑이 과중한 수세를 부과한 만석보터
		말목장터와 감나무	2001.04.27.	제110호	고부관아를 공격하기 위해 집결한 곳으로 고부봉기의 시작
		고부관아터	2005.06.03.	제122호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으로 고부농민들이 관아를 공격
	완주군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 명 전적지	2015.12.28.	제131호	문헌에 기록된 동학농민군 최후 항쟁지이 대둔산 전투지

광역시	기초	유산 명칭	지정일	지정 번호	지정사유
	김제시	원평 집강소터	2017.07.07.	제137호	전봉준과 김덕명이 관민협치를 실행한 금구 원평 집강소터
	고창군	전봉준 생가터	2021.04.09		동학농민혁명 최고지도자 전봉준 생가터
충북	청주시	청주 손병희 생가	1979.09.29.	제30호	동학 3주교주 손병희 생가

〈표 3〉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국가사적 지정현황

광역시	기초	문화유산 명칭	지정일	지정 번호	지정 사유
전북	정읍시	정읍 전봉준 유적	1981.11.28.	제293호	동학농민혁명 최고지도자 전봉준의 1894년 거주지
		정읍 황토현 전적	1981.12.10.	제295호	동학농민군이 전라감영군과 싸워 승리
	부안군	부안 백산성	1998.09.17.	제409호	백제토성 지정(농민군 백산봉기 부기)
	고창군	고창 무장기포지	2022.05.02		전봉준, 손화중이 무장포고문을 발표하고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 시작
전남	장성군	장성 황룡 전적	1998.06.10.	제406호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경군과 싸워 승리
	장흥군	장흥 석대들 전적	2009.05.11.	제498호	동학농민군 최후전투지로 많은 농민군이 목숨을 잃음
충남	공주시	공주 우금치 전적	1994.03.17.	제387호	동학농민군이 관군 및 일본군과 싸워 패배한 동학농민혁명 최대 전투지

〈표 1〉, 〈표 2〉, 〈표 3〉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향토(기초), 광역(시도), 국가 사적의 문화유산 지정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의 향토유산은 기초지자체에서 지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전북 정읍에는

사발통문 작성터, 동학혁명모의탑, 만석보혁파선정비, 전봉준단비 등 4건이 있으며, 충남 당진에는 승전목전승지 1건, 충북 옥천에는 동학혁명 유적지(최시형이 기포령을 내린 곳) 1건이 있어 전국적으로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경우가 많지 않다. 전북 완주는 향토유산으로 지정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는 없다. <표 2>의 시도유산은 광역지자체에서 지정한 것이다. 강원 홍천군의 홍천 풍암리 동학혁명군 전적지, 경기 여주시의 해월 최시형선생묘, 경남 하동군의 하동 고성산성(전투지), 전북 정읍시의 만석보터·말목장터와 감나무·고부관아터, 전북 완주군의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전북 김제시의 원평집강소터, 전북 고창군의 전봉준생가터, 충북 청주시의 청주 손병희 생가 등이 시도유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강원, 경기, 경남, 충북에서 1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인 전북에서 정읍, 완주, 김제, 고창 등에서 6곳이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다행스럽게도 완주군의 경우 대둔산 전적지가 전북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표 3>의 국가사적은 국가(국가유산청)에서 지정한 것이다. 총 7건이 지정되어 있다. 동학농민혁명 최고지도자 전봉준의 1894년 거주지인 정읍 전봉준 유적, 동학농민군이 전라감영군과 싸워 승리한 정읍 황토현 전적, 동학농민군의 백산봉기터인 부안 백산성, 전봉준, 손화중이 무장포고문을 발표하고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를 시작한 고창 무장 기포지,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경군과 싸워 승리한 장성 황룡전적, 동학농민군 최후전투지로 많은 농민군이 목숨을 잃은 장흥 석대들 전적, 동학농민군이 관군 및 일본군과 싸워 패배한 동학농민혁명 최대 전투지인 공주 우금치전적 등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인물유적은 전봉준유적 1건, 집결지는 무장기포지, 백산성, 2건, 전투지는 황토현 전적, 황룡전적, 우금치전적, 석대들 전적, 4건이다. 이렇게 지정된 국가사적은 동학농민혁명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자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가가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동학농민혁명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봉기터는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더 참담한 것은 2차 봉기터는 시도유산이나 향토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완주지역 관계자들의 깊은 반성이 필요한 지점이다. 관심을 가지고, 외치고, 시간과 공력을 들여 무엇인가를 해야만 결과가 나온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역사적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언급하고 알려야만 역사적 의미가 되살아난다. 예를 들자면 고창군은 무장기포지지와 전봉준생가터를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 10년 동안에 걸쳐 수십번의 학술용역과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겨우 지정받을 수 있었다. 고창무장기포지는 국가사적으로 전봉준생가터는 전북기념물로 지정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못한 것은 바로 정확한 위치를 비정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확한 위치를 정하지 못하면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문화유산으로 지정받지 못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 2차봉기터의 정확한 위치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2차 봉기터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이어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II. 교조신원 삼례집회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1. 교조신원 삼례집회

1860년 동학이 창도되고 1864년 최제우가 처형되었지만 이후 동학은 최시형이 이어받아 교세가 급격하게 확장되었다. 1890년에 이르러서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등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동학도가 늘어나게 되자 폐단이 나타났다. 아직 조선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종교로 인정받지

못한 동학을 믿는 것은 불법이었다. 이에 따라 관리들은 동학을 믿는다는 것을 빌미로 백성들의 재산을 강탈하였다. 이렇게 되자 급격하게 교세가 확장된 최시형이 이끄는 동학교단은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교조신원운동, 즉 동학공인운동이었다.

교조신원운동은 1892년 10월 공주집회부터 시작되었다. 동학공인운동은 이후 삼례집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동학공인운동은 광화문복합상소, 패서사건, 보은집회, 금구집회 등으로 이어졌다. 동학공인운동은 최시형이 이끄는 동학교단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동학공인운동 과정에서 새로운 세력이 형성되었다. 그들이 바로 이후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하는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등 이른바 사회개혁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동학공인운동 과정에서 교류하면서 조선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실현시킬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배경에는 19세기 조선 사회의 수탈구조와 경제적 변동이 있었고, 여기에 동학이라는 종교가 만들어져 사상과 조직의 형성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등 전라도를 기반으로 한 사회개혁세력이 주체세력으로 등장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으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들이 삼례집회를 통해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동학공인운동의 첫 번째 집회는 1892년 10월 충청도 공주(公州)에서 열렸다. 동학교단의 지도부로 새롭게 등장한 서장옥, 서병학 등은 제2대 교주 최시형에게 교조 최제우에 대한 신원운동을 전개하자고 요청하였다. 즉 최제우가 억울하게 죽었으므로 이를 조선정부가 인정해준다면 결국 조선정부가 동학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서장옥과 서병학 등의 요구에 대해 최시형은 이를 받아들여 공주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공주집회는 동학교단내의 서장옥과 서병학 등 새롭게 등장한 세력이 주도하였고, 최시형은 이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892년 10월, 동학교도 1,000명은 공주에 있는 충청감영 앞에 모여 충청감사 조병식(趙秉式)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문서를 올렸다. 이 문서에서 동학교도들은 “근래 서양의 요사스러운 학문이 들어와 두메산골의 평민에게까지 미쳐 삼강의 본분과 오류의 질서가 있는 바를 알 수 없게 되니, 선생(최제우)께서 유불선 3교의 장점을 취하여 무극대도(無極大道; 동학)를 펴고 옛 것을 계승하여 미래를 여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도를 전했으나, 사교(邪教)로 몰려 죽임을 당한지 30년이 넘었는데도 신원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일본과 서양오랑캐의 해독에 대해 분노하며, 성심수도를 통해 광제창생(廣濟蒼生)과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원할 뿐이다.”¹⁾라고 하면서 동학교도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임금에게 최제우의 신원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충청감사 조병식은 동학은 정학(正學)이 아니라 사학(邪學)이며 동학을 금한 것은 조정에서 할 일이므로 감영에서 처리할 일이 아니라는 답을 주었다. 말하자면 동학공인을 임금에게 올려달라는 동학교도의 요구를 실행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충청감사 조병식은 충청도 각지에 문서를 하달하여 동학은 나라에서 금하는 것이지만 동학을 금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폐단을 일체 중지하라고 명령하였다. 동학교도 입장에서 신원에 대한 요구는 들어주지 않았지만 동학교도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는 충청감사의 문서가 하달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동학교단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바로 당시 동학교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던 전라도에서 전라감영에 문서를 제출하고 집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삼례집회이다. 이 삼례집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2대 교주 최시형은 이전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나섰다. 동학교단은 1892년 10월 27일 전라감영이 있는 전주와 바로 인접한 삼례역(參禮驛)에서 도회소(都會所)를 설치하

1) 「의송단자(錦營)」, 1892년 10월, 『동학서』, 서울대 규장각 소장, (표영삼, 『해월의 고난 역정-동학 2』, 통나무, 2014) 재인용

고, 각 지역 동학교도 책임자들에게 경통(敬通) 즉 통문을 보내 교도들과 함께 삼례역에 모일 것을 지시하였다. 이때 발송된 경문의 주된 내용을 보면 “…… 우리들은 대선생(최제우)의 제자로서 누가 원통함을 풀고 분함을 설욕하려는 마음이 없겠는가. 그러나 지금까지 39년 동안 지목을 받으면서 마치 죄지는 사람처럼 엎드려 왔던 것은 천운(天運)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충청감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전라감사에게 의송단자(飮狀)를 내는 일도 또한 천명(天命)이다. 각 포(包)의 여러 접장(接長)들은 일제히 와서 모일 일이다. 만일 알고도 와서 모이지 않는다면 어찌 가히 수도하고 오륜을 강(講)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 임진 10월 27일 밤 전라도 삼례도회소”²⁾라고 하여 집회참여를 강력하게 독려하고 있다. 이는 당시 동학교단의 힘이 강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리고 동학교단의 의지도 매우 굳건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1월 1일, 전라도 대부분의 지역과 그 외 전국에서 수천명이 삼례에 집결하여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11월 2일에 전라감사 이경직(李耕植)에게 문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 문서를 제출한 주체가 전봉준이라는 점이다. 관련 기록인 『남원종리원사 부동학사』에 “대선생 신원하기 위해 각도(各道)의 교인이 전주 삼례역에 모였을 때 … (전라)좌도의 유태홍(柳泰弘), (전라)우도의 전봉준씨가 자원 출두하여 관찰사에게 솟장을 제출하였다”³⁾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 기록을 통해 삼례집회를 기점으로 이후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하는 전봉준 등 전라도의 사회개혁세력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전라감사에게 제출한 문서는 충청감사에게 제출한 문서와 마찬가지로 억울하게 죽은 최제우를 신원해 달라는 것과 동학교도들에 대

2) 「경통」, 1892년 10월 27일, 『동학서』, 서울대 규장각 소장, (표영삼, 2014, 『해월의 고난 역정-동학 2』, 통나무) 재인용

3) 「종리원사 부동학사」,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한 침탈을 금지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전라감사는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자, 삼례에 모여 있던 동학교들은 11월 7일에 재차 답을 달라는 독촉 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자 전라감사는 모두 물러가서 새 사람이 되는 답변만 하였다. 전라감사는 한편으로 전라도 각 읍에 문서를 보내 동학금지를 이유로 동학교들의 재물을 탈취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학교단은 11월 12일, 각지의 교도에게 “이번 대선생의 신원은 힘쓴 만큼 성과는 얻지 못했으나 제자로서 취할 처신과 행사는 도리에 합당했다. 천리(天理)에 어김이 없어야 가히 신원을 얻을 것이니 이제부터 더욱 힘쓰자. 이번에 모인 것으로 사방에 좋은 평판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충청·전라감영에서 또한 공문을 하달하였으니 이제부터 동학교도에 대한 지목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기 어려우니 각도 각읍에서 다시 동학교도라 하여 지목한다면, 가벼운 것은 인근 각 접(接)에 알려 솟장을 만들어 해당 관아에 내고 큰 것은 도소(都所)에 알려져 법헌께 보고, 감영에 의송하여 바로 잡도록 하라. …… 임진 11월 12일 완영도회소(完營都會所) 4)”와 같이 경통을 발송하였다. 이 경통에서 삼례집회를 주도한 동학교단의 지도부는 삼례집회가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교조 최제우의 신원운동을 계속할 것을 다짐하면서 삼례에 모인 교도들에게 해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삼례집회는 공식적으로 끝을 맺었다. 삼례에 설치되었던 동학 지도부는 철수하였다. 그렇지만 삼례에 모인 일부 동학교도들은 해산하지 않았다. 이는 11월 21일자 전라감사가 내린 공문에서 ‘동학교도들이 아직 고향으로 돌아가 안접(安接)하지 않고 있다.’5)고 한데서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삼례의 동학교도들은 관의 해산명령이나 동학교단의 해

4) 「경통」, 1892년 11월 12일, 『동학서』, 서울대 규장각 소장, (표영삼, 2014, 『해월의 고난 역정-동학 2』, 통나무) 재인용

5) 「감결」, 1892년 11월 21일, 『동학서』, 서울대 규장각 소장, (표영삼, 2014, 『해월의 고난 역정-동학 2』, 통나무) 재인용

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삼례집회에서 동학교단과 구별되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들은 이 삼례집회 참가를 계기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력화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전봉준을 중심으로 이후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하는 사회개혁들이 이 삼례집회를 계기로 세력화했다고 보여진다. 이점을 주목한다면 동학농민혁명의 뿌리가 삼례집회에서 배태되었다고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삼례에서 교조산원운동 삼례집회가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2.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1894년 6월 일본은 경복궁을 침범하고 이어서 청일전쟁을 도발하여 승리하면서 조선 정부에 대한 내정간섭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선사회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특히 동학농민군은 이러한 문제를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농민군은 그동안 집강소를 통해 폐정 개혁활동에 전개하면서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군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의 침략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동학농민군은 전봉준(全捧準)을 중심으로 2차 봉기를 결정하고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1894년 9월, 다시 봉기의 횃불을 들고 전라도 삼례(參禮)를 집결지로 정하였다.

일본의 조선침략은 오래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었다. 조선에 대한 일본의 침략 야욕은 경복궁 점령사건과 청일전쟁 도발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러한 일본의 침략에 대해 당시 조선 민중은 분노했다. 1894년 8월 27일, 전라감사 김학진은 고부·고창·금구·무장·장성·홍덕·태인·함평·부안·정읍 등 10개 고을에서 군기를 빼앗겼다고 조선정부에 보고했다. 이와 함께 9월 초 서울에서는 ‘양호(兩湖)의 동학도가 무리를 모아 서울로 향하는데 장차 보름쯤에는 서울을 범한다.’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다.

이와 함께 농민군과 조선 백성들의 봉기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다. 일본은 청일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부산에서 서울에 이르는 중요한 거점에 일본병참부를 건설하면서 조선인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하였다. 그러나 대구에서는 이에 반항하여 조선인 1백 여 명이 봉기하였다. 안동(安東)·풍산(豊山)에서는 일본병참부 습격을 목적으로 3천 여 명의 농민군이 집회를 열기도 하였다.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은 일본이 조선을 병탄하려고 하는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다.

동학농민군 지도부 역시 일본군의 야욕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전봉준(全琫準)은 ‘일본(日本)이 개화(開化)라고 일컬어 애초부터 일언반사(一言半辭)도 없이 민간에 전파하고, 또 격서도 없이 군대를 도성에 끌어들여 밤중에 왕궁을 격파하여 왕을 놀라게 하였다 하기에 초야에 묻힌 사민(士民)들이 충군애국의 마음으로 강개하지 않을 수 없어 의병을 규합해서 일인(日人)과 접전하게 됐다.’라고 2차 봉기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전봉준은 재판과정에서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이 2차 봉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초기 단계에서 전봉준(全琫準)은 ‘일본군(日本軍)과 조선정부의 동향을 지켜보며 기병에 신중하게 대처하자.’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봉준은 항상 전면적 봉기를 고려하여 사전작업을 전주화약(全州和約) 이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전라도 각 지방을 돌며 집강소 조직을 강화하였으며, 농민군에게 적대적인 각 군현 수령을 설득하기도 하였다. 특히 지방의 전 현직 관리들과 재야의 유생, 관군에게 외세를 몰아내기 위해 동족간의 골육상쟁을 지양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전봉준(全琫準)은 또 각 지역 동학농민군 조직 간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일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전라우도와 전라좌도 농민군간의 연대를 위해 남원으로 이동하여 김개남과 함께 남원(南原)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전봉준(全琫準)은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모병에 대한 강제성 여부’를

묻는 재판관의 신문에 ‘자신이 거느린 4천명은 자원자이고, 그 외 각 처
에 통문으로 뜻을 전하고 만약 불응하는 자는 불충무도.’라고 진술하여
그가 일본군에 대항할 의병을 모집하는 통문을 돌려 2차 봉기에 대한
자신의 호소에 호응하는 사람들을 모았고, 이들은 전라도 각지에서 삼
례(參禮)에 속속 모여들어 2차 봉기를 위한 동학농민군이 구성되었다.

동학농민군이 삼례(參禮)를 제2차 봉기의 거점으로 선택한 이유는 삼
례가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이었다. 삼례는 전주부(全州府)의 북쪽에 위
치하고 있으며 전라도에서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했던
교통의 요충지였다. 삼례는 또한 당시 거주하는 백성이 많지 않았지만
주막이 많고 평야지대였기 때문에 많은 수의 농민군이 숙식을 해결하기
용이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동학농민군의 삼례 2차 봉기는 몇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각 고을 단
위로 보수 세력들이 농민군에 대항하기 위한 민보군을 조직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반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유력한 농민군
지도자가 파견되어 반농민군 세력을 대응하였다. 그리하여 손화중·최
경선은 광주(光州)·나주(羅州), 김개남(金開南)은 전라좌도를 관할하는
남원(南原), 김인배(金仁培)는 순천(順天)·광양(光陽)에 머물며 반농민군
세력에 대응하였다. 그 결과 2차 봉기에 합류한 동학농민군은 정읍(井
邑)·고창(高敞)·전주(全州)·김제(金堤)·부안(扶安)·익산(益山)·삼례(參
禮) 등 전라우도 일부지방이 중심이 되었고, 그 밖의 전라좌도를 비롯한
상당수 전라도 농민군들은 바로 합류하지 못하였다.

제2차 봉기에서는 충청(忠淸)·경상(慶尙)·강원(江原)·경기(京畿)도
지역에서 농민군들이 자발적으로 대거 가담하였다. 그렇지만 이들 지역
을 단위로 하여 기포하였기 때문에 전봉준(全琫準)이 이끄는 농민군과
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동학농민군의
2차봉기의 가장 중요한 준비과정은 전투에 사용될 무기와 군량미를 확
보하는 것이었다. 이에 전봉준(全琫準)은 군수전(軍需錢)과 군량미를 확
보하라는 통문을 각지에 돌렸다.

9월 9일에는 금구(金溝)에서 동학농민군 3백 여 명이 고산(高山)에 들어가 역시 군기고에서 군기와 물품을 탈취하였으며, 9월 13일에는 삼례에 모여 있던 동학농민군이 여산(礪山) 군기고를 점령하였으며, 9월 16일에는 전주외곽 위봉산성의 군기고의 무기를 탈취하였다. 이와 함께 태인(泰仁)에서는 ‘지금 이런 거사는 몹시 커서 비용이 많이 들므로 공곡(公穀)과 공전(公錢)을 이용해야겠으니 군수미 3백석과 동전 2천량을 밤사이 금구 원평의 도회소로 수송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통문이 발견되기도 했다. 삼례도회소 혹은 남원대도소(南原大都所) 이름으로 된 비슷한 내용의 통문은 김제(金堤)·남원(南原)·능주(綾州)·광주(光州)·군산(群山)·고산(高山) 등 전라도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3. 2차 봉기 이후 고산 농민군 활동

2차 봉기 이후 고산 지역에서 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고산 동학농민군과 관군 및 일본군의 전투가 고산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

11월 22일 [同日]

교도 중대장이 보고합니다. 이달 12일에 금산읍에 도착하였으며, 그 다음날 13일에 일본 대대장 미나미 고시로(南少四郎)는 주력부대를 이끌고 진산(珍山)으로 향하였습니다. 교도소 병사는 일본군 중위 히라기 조다로(白木城太郎)와 함께 행군하여 14일에 용담(龍潭) 위의 조림(照林) 장터에 도착하여 몇 천 명인지 알 수 없는 저들 무리와 접전하여 30여 명을 사살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포한 동도 20명 가운데 서도필(徐道弼)·박만호(朴萬浩)·이만실(李萬實)·조운삼(趙允三)·박치팔(朴治八)·김윤일(金允一) 등 6명은 소란을 많이 일으켜 몹시 망측하였기 때문에 모두 총살하고 그 나머지는 타일러서 풀어주었습니다. 16일에 진안읍(鎭安邑)에 도착하여 또 저 무리 수천 명을 만나 한바탕 접전하여 수십 명을 사살하

고, 17일에 고산(高山) 산천리(山川里)에 도착하여 저 무리 수백 명과 접전하여 30여 명을 살해하였습니다.

18일에 고산읍(高山邑)에 도착하여 또다시 저 몇 만 명일지 모르는 무리를 만나 한바탕 싸워서 수백 명을 사살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포한 동도 30명 가운데 이른바 접사인 고산에 거주하는 이만학(李晩學)·여관서(呂寬西), 진안읍에 거주하는 김치서(金致西) 등 3놈을 우선 잡아 가두고 창성도(倉聖道)·임성원(林聖元)·김중이(金仲伊) 등 3명은 총살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타이르고 풀어주었습니다. 교도소 병사와 일본병사는 한 사람도 다친 이가 없었습니다. 각처에서 접전할 때에 탈취한 여러 군수품은 법대로 그곳 읍에 두어야 하지만 읍이 빈 곳이 많아 후환이 있을까 염려되어 총 200자루·창 300자루를 깨부수고 화약 100여 근은 물에 띄우고, 탄약 10여 말은 주조하고 그 나머지 긴요하지 않은 물건들도 또한 태워버릴 계획을 급히 보고합니다.⁶⁾

이 자료는 양호선봉장(兩湖先鋒將) 이규태(李圭泰)가 2차 동학농민혁명 진압과정에서 1894년 10월 11일부터 1895년 2월 5일까지 각처와 주고받은 공문들을 수록한 『순무선봉진등록』이다. 1894년 11월 22일 교도중대장이 이규태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관군과 일본군은 11월 17일 고산 산천리에서 동학농민군과 크게 전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동학농민군 30여명이 전사하였다. 이는 매우 큰 규모의 전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산에서 전투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거의 언급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그 장소는 바로 고산 산천리로 지금의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산천마을이다.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대아수목원 입구 마을이다. 그리고 관군 및 일본군이 11월 16일 진안에 있다고 고산으로 왔으므로 그 이동 경로에 있는 산천리에서 동학농민군과 전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전투과정에서 30여명이 전사했다면 이 때의 동학농민군의 규모는 매우 컸을 것으로

6) 『순무선봉진등록』,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2권, 2006.

집작된다. 그리고 11월 18일 고산읍에서 역시 큰 전투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농민군이 목숨을 잃었다. 고산에서도 역시 전투가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산천전투지와 고산전투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세밀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 산천전투지(화약제조소)와 고산 전투지

고산농민군의 활동에서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것은 바로 그들이 화약을 제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주한일본공사관기록』에서 확인된다.

栗谷邑附近 戰鬪詳報

(1894년 12월 13일)

中尉 白木誠太郎

1. 12일 전투로 賊徒는 사방으로 흩어져 그 종적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枝隊는 목적인대로 高山縣을 향해 출발·진진하였다.
2. 13일 오후 3시쯤 栗谷邑 동쪽 약 200m 되는 곳에서 고산현으로부터 오는 지방민을 잡아 심문했더니, 그 읍에는 적도들의 화약제조소가 있으며 사방에 초병을 세워 놓고 34명이 화약을 제조하고 있다고 했다.
3. 화약을 제조하는 곳은 함부로 가까이 가서 사격하면, 폭발할 염려가

있으므로, 전위부대였던 한국군을 멈추게 하고, 일본군에게 습격을 맡겼으며 宮本 少尉가 이를 지휘하였다. 한국군은 이 읍 입구에 멈추어 사격준비를 하게 하였다. 습격대가 갑자기 적의 초병에게 공격하였으므로 적도는 뒤쪽 산으로 진지를 옮겼다. 화약제조소에 대한 사격을 금지시키고 산 위의 賊徒를 격퇴하였다. 오후 3시 50분 화약제조소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4. 화약제조소는 커다란 초가집이며 교묘하게 은닉되어 있었다. 재료와 기구도 얼마간 구비되어 있었으며 또한 초석 약간을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근래 창설된 관계로 비축되어 있는 화약은 없었다(기구는 파괴하고 초석은 물 속에 던졌다).
5. 적도는 불의의 습격을 만나 당황해서 도주하였다. 2명의 賊徒가 그 화약제조소 한 구석에 숨어 있다가, 우리 병사가 그 곳에 들어가자 창을 갖고 저항해 오는 자가 있었다.

彼我死傷者

我軍 없음

賊徒 전사자 11명, 부상자 미상

탄약 소비

日本軍 160발⁷⁾

이 자료는 일본후비보병 제19대대 中尉 白木誠太郎이 상부에 보고한 내용이다. 일본군은 12월 13일 오후 3시경에 고산현에 있는 화약제조소를 공격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12월 13일은 양력으로 앞의 자료에서 이규태의 관군이 '(11월) 17일에 고산(高山) 산천리(山川里)에 도착하여 저 무리 수백 명과 접전하여 30여 명을 살해하였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바로 11월 17일(음력)과 같은 날이다. 따라서 이는 관군과 일본군이 함께 공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군은 동학농민군을 공격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하였고, 일본군은

7) 국사편찬위원회, 1991, 『주한일본공사관기록』.

화약제조소를 공격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하였다고 보여진다. 눈여겨볼 대목은 바로 동학농민군이 화약을 제조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사료와 지리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바로 고산 산천리(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산천마을)가 동학농민군의 화약제조소였다는 점이다.

高山縣附近 戰鬪詳報

(1894년 12월 14일)

中尉 白木誠太郎

1. 栗谷邑 전투 후 賊徒의 퇴각방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枝隊가 목적인 대로 高山縣으로 가서 임무를 완수하려고, 12월 14일 오전 8시 고산현을 향해 전진하였다.
2. 14일 오전 10시 고산현에 도달했다. 이 현의 주위를 포위하고 縣內를 수색했더니, 縣官과 주민이 모두 없었다. 그래서 현 청사 근방에서 宿舎하려 하였으나, 오전 11시 적도 500~600명이 북쪽 산 위로부터 습격해 왔다. 그 기세가 아주 맹렬했다. 枝隊는 이에 맞서기 위해 현의 북쪽 끝에 모였다.
3. 적도는 우리가 모인 것을 보자 일제사격을 5~6회 하였다. 그 총알이 우리가 있는 곳까지 도달하므로 일본군을 중앙에, 한국군을 좌우에 산개시켰다. 적도는 중앙을 향해 완강한 저항을 하였다. 이에 중앙에 있던 일본군은 분투·전진해서 적의 진영으로 다가갔다. 적군 2~3명이 쓰러지자 말·깃발·화약 등을 버리고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한국군은 이 기세를 몰아 질주해서 산 위에 올라가 적의 진지를 모두 점령하였다. 이 때가 오후 1시.
4. 한국군에게 멀리까지 추격하게 했더니, 적도는 대부분 礪山 방향으로 퇴각하였다.

◎ 彼我死傷者

我軍 없음

賊徒 전사자 16명, 부상자 미상

◎ 노획품

화약 약 10관

화승총	10정
창	6자루
깃발	10폭
말	4마리

말은 짐바리 말로 쓰고 그 외는 불태우고 화약은 물 속에 던졌다.

◎ 탄약 소비

日本軍	140발	計 1,887발
韓國軍	1,747발 ⁸⁾	

이 자료는 일본후비보병 제19대대 中尉 白木誠太郎이 상부에 보고한 내용이다. 1894년 12월 14일 일본군(관군)은 고산현 관아 근처에서 동학농민군과 전투를 벌였다. 이때 동학농민군은 500~600명이었으며 관아 북쪽에서 일본군을 공격하였다. 이 전투에서 많은 동학농민군이 목숨을 잃었고 퇴각한 농민군은 여산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1894년 11월 18일(양력 12월 14일) 큰 규모의 전투가 고산현 관아 근처에서 있었다.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Ⅲ.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 위치 검토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가 삼례에서 있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기록해 놓은 사료들도 많이 확인된다. 가장 주목 되는 사료는 「전봉준공초」이다.

을미 2월 19일 전봉준 5차 문목 일본영사 문초[乙未 二月 十九日 全琫準

8) 국사편찬위원회, 1991, 『주한일본공사관기록』.

五次 問目 日本領事 問招]

문(問) : 삼례(參禮) 기포(起包)의 무리는 몇이었느냐?

공(供) : 4,000여 명이외다.

문(問) : 그 뒤 접전(接戰)은 어느 날에 있었는고?

공(供) : 삼례(參禮)로부터 출발한 뒤 20여 일에 처음 접전(接戰)함이외다.⁹⁾

위의 내용은 「전봉준공초」 중에서 1895년 2월 19일 일본영사가 심문한 내용이다. 일본영사는 삼례기포의 참여인원은 몇 명이나고 물었고, 전봉준은 4,000명이다 라고 답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영사는 다시 그 뒤에 접전은 언제 있었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전봉준은 삼례로부터 출발한 한 20여 일 뒤에 접전하였다고 답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가 바로 삼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동학농민군 최고지도자 전봉준이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가 삼례에서 시작되었음을 직접 말하고 있다. 따라서 삼례가 2차 봉기가 있었던 것임은 확실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行全羅道觀察使 兼都巡察使 親軍武 南營外使 爲臈移事]

金溝의 院坪에서 東學徒를 불러 모은 괴수 全瑋準 등이 이미 順化되었다가 다시 소요를 일으킨 연유는 이미 아뢰었습니다만, 이달 14일 申時경에 전봉준은 參禮驛에서 匪徒 800여 명을 인솔, 포를 쏘고 북을 울리면서 全州城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날이 저물자 그는 臣의 병영 근처에 있는 軍기고로 들어가서 총 251자루, 창 11자루, 環刀 442자루, 鐵丸 및 각종 물품 등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탈취해 가더니 다시 영내의 창고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둔 물품들은 손 하나 대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7월경 摠制營鎭에서 南營의 兵丁들은 解禁할 때 놔두었던 화포 74문, 탄환 9,773개, 총알 4만 1,234개, 環刀 300자루도 탈취하여 오후 7시경에 삼례 지방을 향해 갔습니다. 이와 같이 그의 해

9) 「전봉준공초」,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12권, 2014.

괴한 거동과 날뛰는 양태는 이 시대에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신은 그를 제압하지도 못하고 방어하지도 못하여 이처럼 병기를 빼앗겼으니, 자신의 직무에 태만했음을 돌이켜 생각해 볼 때 너무도 황공하여 처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연유를 적어 아뢰옵니다. 이 狀啓는 등사하여 보내오니 이 關文을 보내실 때, 그 사실을 조회하신 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게 생각되므로 다시 이 關文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의 關文을 軍務衙門에 보냄.

開國 503년 9월 15일¹⁰⁾

이 내용은 『주한일본공사관기록』에 수록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 자료는 일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전라관찰사가 군무아문에 보낸 내용을 일본공사관에서 보고하기 위해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확인된다. 이 문서는 1894년 9월 15일(음력) 전라관찰사가 작성하여 군무아문에 보낸 것으로 자신의 직무태만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겠다고 국왕에게 올린 글이다. 전라관찰사의 직무태만의 내용은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에 들어와 무기를 탈취해 갔는데, 전라관찰사는 이를 전혀 막지 못한 것이다. 이때 농민군이 탈취한 무기는 화포 74문, 탄환 9,773개, 총알 41,234개, 환도 300자루였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9월 14일 전봉준이 동학농민군 800여명을 이끌고 삼례역에서 출발하여 전주성에 들어왔고, 다시 무기를 탈취하여 다시 삼례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즉 이는 9월 14일 이전에 전봉준이 동학농민군이 삼례에 집결해 있었고, 9월 14일 이후에도 삼례에 집결해 있으면서 무기를 확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삼례가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터임을 증명되는 것이다. 「전봉준공초」의 다음 내용은 이를 좀더 확실하게 증명해준다.

10) 국사편찬위원회, 1991,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을미 3월 7일 전봉준 4차 문목 일본영사 심문[乙未 三月 初七日 全琫準
四次 問目 日本領事 審問]

문(問) : 네가 작년 10월 다시 봉기한 날짜는 어느 날이냐?

공(供) : 10월 12일 사이 같으나 상세히 알지 않습니다.

문(問) : 삼례(參禮)에서 다시 봉기하기 전 너는 어느 곳에 있었느냐?

공(供) : 제 집에 있었습니다.

(중략)

문(問) : 이 서찰(書札)은 삼례(參禮)로부터 나온 것이냐?

공(供) : 그렇습니다.

문(問) : 이 서찰(書札)의 달과 날은 분명히 9월 18일인즉 어찌 10월 삼
례(參禮)의 회합(會合)에서 나올 수 있느냐?

공(供) : 지난 공술(供述)에서 10월이라고 하였는데 9월인 것 같습니다.¹¹⁾

이 내용은 1895년 3월 7일 일본영사가 심문하고 전봉준이 답한 것이다. 일본영사는 1894년 10월 봉기한 날짜는 언제냐고 물었고, 전봉준은 10월 12일이다 라고 답하고 있다. 그런데 심문이 끝나갈 무렵 다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전봉준은 ‘지난 공술에서 10월이라고 하였는데 9월인 것 같습니다’라고 이를 정정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봉기한 날짜는 9월 12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착오가 있었던 것은 일본영사는 당시 양력을 기준으로 질문하였고, 전봉준은 음력을 기준으로 답을 하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착오라고 보여진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일자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 자료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날짜를 9월 12일로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일본영사는 삼례에서 봉기하기 전에 어디 있었는가를 전봉준에게 질문하고 있다. 즉 삼례에서 봉기하였다는 사실은 일본영사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11) 「전봉준공초」,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12권, 2014.

을미 3월 7일 전봉준 4차 문목 일본영사 심문[乙未 三月 初七日 全琫準
四次 問目 日本領事 審問]

문(問) : 일본(日本) 병사(兵士)가 대궐(大闕)을 범했다는 것은 어느 곳에
서, 어느 때에 들었느냐?

공(供) : 7월 사이에 처음 남원(南原) 땅에서 들었습니다.

문(問) : 그렇다면 여러 고을을 두루 다니면서 귀화(歸化)하라고 할 때 이
말을 들었느냐?

공(供) : 이는 도청도설(道聽塗說)이었습니다.

문(問) : 이 말을 들은 뒤 무리들을 일으켜 일본(日本)을 공격(攻擊)하겠
다는 거사(舉事)는 처음 어느 땅에서 의논하였느냐?

공(供) : 삼례역(參禮驛)입니다.

문(問) : 특히 삼례(參禮)에서 이 거사를 의논하였느냐?

공(供) : 전주(全州) 부중(府中)의 외곽(外廓)에서 저막(邸幕)이 조금 많은
곳으로는 삼례(參禮)만한 곳이 없기 때문일 따름입니다.

(중략)

문(問) : 삼례(參禮)에 이르러 누구 집에 모였느냐?

공(供) : 저막(邸幕)일 뿐입니다.

문(問) : 삼례(參禮) 땅에 본디 아주 친한 집이 있었느냐?

공(供) : 처음부터 아주 친한 자가 없을 따름입니다.

문(問) : 삼례(參禮)의 호수(戶數)는 얼마나 되느냐?

공(供) : 100여 호(戶)입니다.

문(問) : 네가 거하던 근처(近處)에는 100여 호(戶)의 시골 마을이 없지
않을 터인데 특히 여기에 모인 것은 무슨 까닭이냐?

공(供) : 이 땅은 도로(道路)가 네 곳으로 통하고 역촌(驛村)이기도 했기
때문일 따름입니다.

(중략)

문(問) : 그 때 삼례(參禮)에 소위(所謂) 의병(義兵)으로 모인 자는 몇 명
이나 되었느냐?

공(供) : 4,000여 명이었습니다.

문(問) : 이 무리를 데리고 처음 어느 곳으로 향하였느냐?

공(供) : 처음 은진(恩津), 논산(論山)으로 향하였습니다.

(중략)

문(問) : 삼례(參禮)에서 규합(糾合)한 일은 모두 너의 손에서 나왔느냐?

공(供) : 그렇습니다.

문(問) : 그렇다면 모든 기포(起包)에 관한 것은 모조리 네가 주도(主導)한 바이냐?

공(供) : 그렇습니다.¹²⁾

위의 내용은 「전봉준공초」1895년 3월 7일, 일본영사가 묻고 전봉준이 답한 내용이다. 이 내용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확인된다. 먼저 전봉준은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범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봉기하였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전봉준의 직접적인 답을 통해 2차 봉기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전봉준은 2차 봉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곳이 삼례역이라고도 하였다. 즉 전봉준 등 동학농민군은 삼례에 모여서 계획을 수립하고 2차 봉기를 진행하였던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일본 영사가 왜 삼례에서 봉기하였는지를 묻자, 전봉준은 삼례는 도로가 네 곳으로 통하고 역촌이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다. 그리고 전주부 외곽에 저막(邸幕)이 많은 곳이 삼례였기 때문이라고도 답하고 있다. 삼례를 봉기터로 정한 이유는 전주부와 인접하고 있고, 교통의 요지로서 복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처음 삼례에 모인 동학농민군의 규모는 4,000명이며 2차 봉기는 전적으로 전봉준이 주도한 것임을 전봉준의 답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상의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삼례가 2차 봉기터임은 분명하게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 장소를 2차봉기의 핵심지 또는 중심지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전봉준공초」

12) 「전봉준공초」, 『동학농민혁명한국역총서』 12권, 2014.

에서 2차 봉기를 어디서 모의했냐고 묻자 전봉준은 삼례역이라고 답하고 있다. 여기서 삼례역이라고 한다면 이는 삼례역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다음은 『주한일본공사관기록』의 1895년 9월 2일, 일본 영사 우치다 사다츠치(内田定槌)가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공사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그런데 그 후 봉준은 일본 군대가 대궐을 침입하였다는 것을 듣고 이것은 일본인이 우리나라를 병탄하려는 뜻 외에 달리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일본군을 격퇴하고 일본 거류민을 국외로 내쫓을 목적으로 재차 擧兵을 도모하였다. 전주 부근에 있는 參禮驛은 토지가 광활하고 전라도 요충지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같은 해 9월 태인을 출발하여 원평을 거쳐 三禮驛에 도착하여 募兵 본부를 이곳에다 정하였다.¹³⁾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전봉준의 동학농민군이 바로 삼례역에 도착하여 모병본부를 이곳 즉 삼례역참에 정하였다는 것이다. 모병본부를 설치한 곳이 바로 삼례역 즉 삼례역참이라고 할 수 있다. 삼례역참이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의 가장 핵심적 공간이자 지휘본부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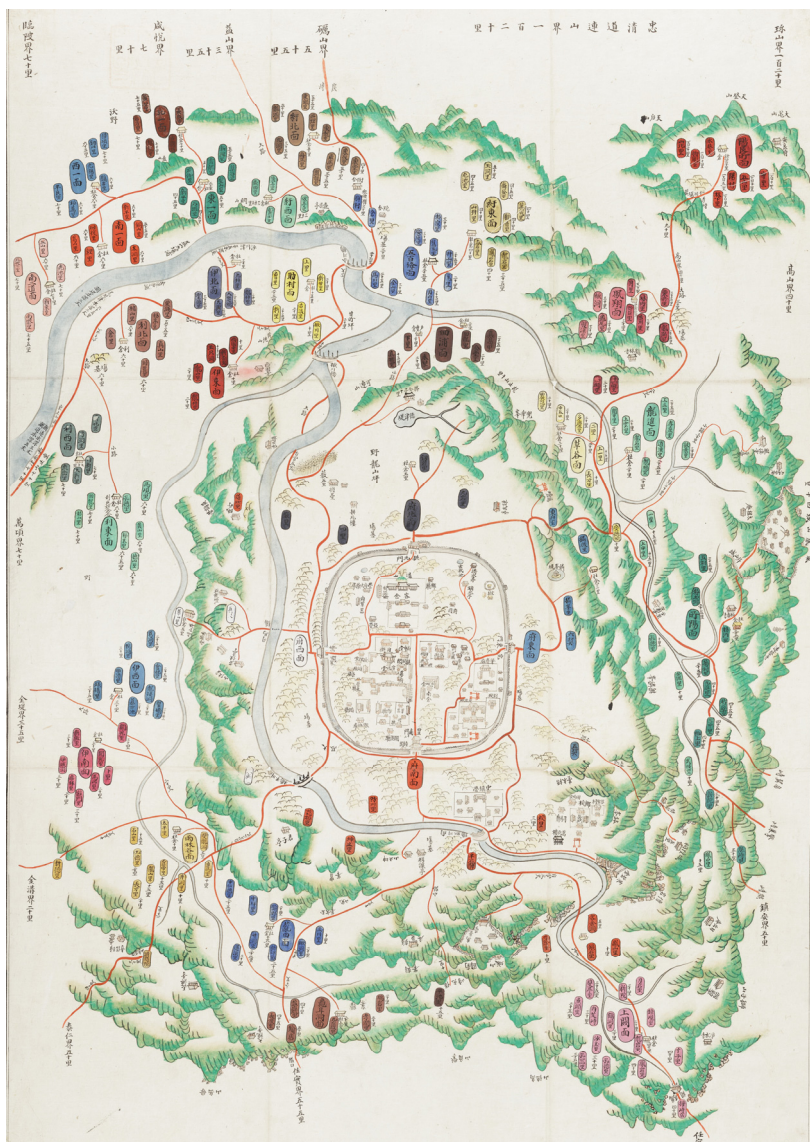
전주 근처의 삼례역(參禮驛)이 땅이 넓고 전라도의 요충지이기에 그 해 9월 쯤에 태인을 출발하여 원평을 지나 삼례역에 이르러 그곳을 기병(起兵)하는 대도소(大都所)로 삼았다. 그리고 진안(鎭安)에 사는 동학 접주 문계팔(文季八)·전영동(全永東)·이종태(李宗泰), 금구에 사는 접주 조준구(趙駿九), 전주에 사는 접주 최대봉(崔大奉)·송일두(宋日斗), 정읍(井邑)에 사는 손여옥(孫汝玉), 부안(扶安)에 사는 김석윤(金錫允)·김여중(金汝中)·최경선(崔卿宣, 위의 慶善)과 동일인·송희옥(宋憲玉) 등과 모의하여 지난해 3월 이후에 피고와 함께 일을 했던 비도의 괴수 손화중 이하 전

13) 국사편찬위원회, 1991,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주·진안·홍덕·무장·고창 등지의 원근(遠近) 각 지방의 인민에게 격문을 돌리거나 사람을 보내 유세를 하였다. 전라우도에서 4,000여명의 군사를 모아 곳곳의 관아에 들어가서 군기(軍器)를 강제로 빼앗고, 각 지방의 부민(富民)으로부터 돈과 곡식을 징발하여 삼례역을 떠나가면서 무리를 모집하였다.¹⁴⁾

이 자료는 「전봉준 판결선고서」의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은 9월 태인을 떠나 원평을 거쳐 삼례역에 이르러, 그곳을 기병(起兵)하는 대도소(大都所)로 삼았다. 즉 삼례 역참을 기병한 대도소 즉 본부로 삼고 있다. 대도소란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농민군 지도부가 모여 논의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등을 하는 곳으로 농민군 활동의 핵심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삼례역참이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의 가장 핵심적 공간으로 이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는 바로 삼례역참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제 남은 문제는 삼례역참터가 구체적인 어디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1894년 당시에 삼례는 전주부에 속해 있었다. 그리고 고산현이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1934년 전주의 중심만이 전주부가 되고, 전주의 외곽이었던 상관, 구이, 소양, 봉동, 삼례 등과 고산현을 합쳐 완주군이라는 새로운 행정구역이 만들어졌다.

14) 「전봉준판결선고서」,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12권,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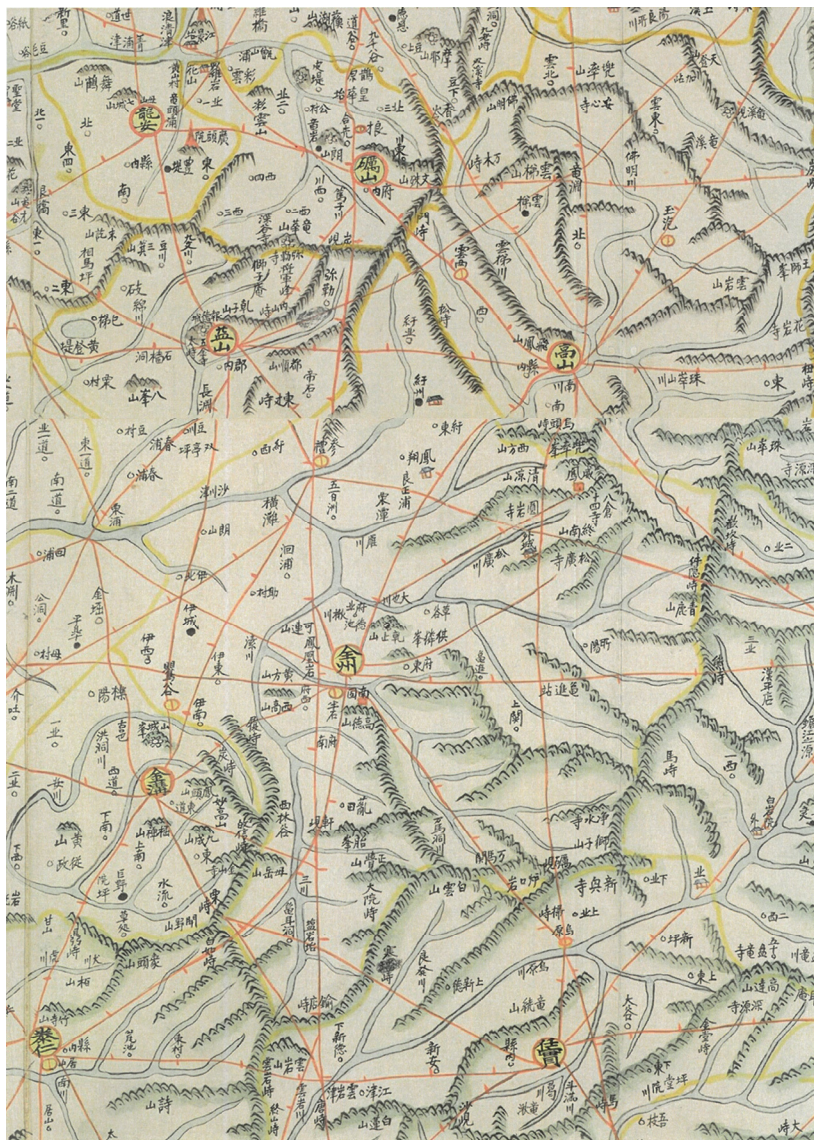


〈그림 2〉 전주지도(규장각, 1872)



〈그림 3〉 전주 지도(1872, 규장각) 삼례지역

당시 전주부에 속해 있었던 삼례지역에는 중앙에서 임명된 관리인 찰방(종6품)이 있었다. 삼례찰방은 전라도지역의 삼례역, 양재역, 재곡역, 소안역, 반석역, 앵곡역 내재역, 부흥역, 영원역, 거산역, 오원역, 갈담역, 천원역 등 12개의 속역을 관할하였다. 〈그림 4〉의 동여도는 金正浩(?-1864)가 만든 大東輿地圖를 뒤에 筆寫한 全國彩色地圖로 제작년대는 19세기 중반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삼례는 전주의 북쪽에 위치에 있으면서 사방으로 통하는 공간으로 교통의 요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동여도의 삼례역(규장각)



〈그림 5〉 광여도(전주목, 규장각) - 삼례지역



〈그림 6〉 전주 지도(규장각) - 삼례지역

〈그림 5〉과 〈그림 6〉는 해동지도, 광여도 등 조선시대 고지도에서 삼례를 표시한 내용이다. 여기에는 삼례관(三禮館)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지도가 18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볼때 이때도 삼례가 전주부에 속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림 7〉은 『여지도서』(전주보유편)의 삼례도역지도(三禮道驛誌圖)이다. 여기에는 총 9채의 건물이 배치되어 있다. 삼례찰방의 집무실인 아사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성청, 왼쪽에 마신당이 있으며, 2층의 문루가 아사 정면 남쪽에 있고, 아사와 문루 사이에 세 채의 건물이 붙어있으며, 아사의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1채의 건물이 배치되어 있다. 앞쪽으로는 만경강이 흐르고 있다. 삼례역참 건물 배치를 알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지도이다. 이를 통해 대략의 삼례찰방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림 7〉 『여지도서』(전주보유편)의 삼례도역지도(三禮道驛誌圖)

〈그림 8〉은 일본에서 1895년 측량한 지형도를 1911년 인쇄한 지도이다. 상세하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시기적으로 1895년이므로 1894년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때와 거의 같은 지형이었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지도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參禮驛’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되

어 있다. 이를 통해 삼례역의 위치와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여지도서』(전주보유편)의 삼례도역지도(三禮道驛誌圖)와 비교해 보더라도 삼례역참의 건물이나 위치를 표시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여지도서』에 표시된 위치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8〉 1895년 지형도(삼례역 부근)

〈그림 9〉은 일본이 1915년 측량하고 1924년 인쇄한 지도이다. 여기에는 삼례역에 대한 표시는 없고 이전에 삼례역이라고 표시된 곳에 삼례리라고 기재되어 있다. 삼례리라고 표시된 곳이 이전에 삼례역참터라고 보여진다. 앞의 1895년 지형도와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림 9〉 일제강점기 삼례부근 지도

〈그림 10〉는 1914년 작성된 지적도이다. 삼례역참이 있던 자리는 삼례리 1072번지, 1073번지, 1074번지이다. 이는 최진성의 논문 「삼례도 찰방역의 경과변화」(『문화역사지리』제23권 제3호, 2011)에서 “삼례도찰방 터는 현재 삼례동부교회가 세워진 일대로 비정된다. 이 터는 1914년의 지적원도(1:1200)와 토지대장에서 확인한 결과 국유지였으며, 현재는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072, 1073, 1074번지에 걸쳐 분포하는 약 7,000평의 면적에 해당한다. 토지대장의 기록에 의하면 1921년(대정10년)에는 삼례학교조합 명의로 구입되어 일본인들을 위한 소학교를 운영하였으며 1072-1번지는 교사들의 관사로 이용되던 곳으로 이전에 찰방역이 운영되던 당시에는 마굿간 터였다고 한다.(김용석(68세)씨의 말에 의함) 광복 이후인 1964년에는 삼례동부교회에서 구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¹⁵⁾라고 하여 삼례리 1072, 1073, 1074번지가 삼례역참터이며 현재는 삼례동부교회가 자리하고 있다.



〈그림 10〉 1914년 지적도¹⁵⁾

〈그림 11〉은 현재의 지적도이다. 이전과 비교하여 번지가 분할되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1072번지, 1073번지, 1074번지가 삼례역참터라고 할 때 현재 이 공간에는 동부교회 외에도 어린이집과 사업체, 그리고 4채의 민가가 위치하고 있다.

지금까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의 핵심지역을 삼례역참터라고 상정하고 삼례역참터의 위치를 찾아보았다. 삼례리 1072번지, 1973번지, 1074번지라는 위치를 비정하기는 했지만 확실한 고증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질적으로 확실한 근거라고 하기는 불충분한 점이 있다. 다만 오랫동안 거주했던 마을 주민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더 깊이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5) 최진성, 2011, 「삼례도찰방역의 경관 변화」, 『문화역사지리』 23(3), 50~65쪽.

16) <https://theme.archives.go.kr/next/acreage/viewMain.do>



〈그림 11〉 현재 지적도¹⁷⁾



〈그림 12〉 삼례동부교회

IV.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 문화유산 지정방안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를 문화유산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17) <https://map.naver.com/>

같은 과제를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 가능하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는 역사적 가치와 의미는 충분히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과제를 실행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1.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에 대한 종합적 학술 용역

삼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에 대한 학술용역이 단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차 봉기터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학술용역이 필요하다. 2차 봉기의 전개과정과 의의, 2차 봉기터의 정확한 위치 고증, 2차 봉기 관련 사료의 정리, 2차 봉기터의 발굴, 2차 봉기터의 문화유산 지정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 학술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

2. 관련 자료 수집 및 학술대회 개최

2차 봉기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도 매우 필요한 일이다. 2차 봉기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고 부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수집하여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좀더 깊이 있는 연구가 진전될 수 있도록 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필요한 작업이다.

3. 문화유산 지정 추진

문화유산은 기초지자체가 결정하는 향토유산, 광역지자체가 결정하는 시도유산, 국가가 결정하는 국가유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동학농민

혁명 2차 봉기터는 향토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먼저 향토유산으로 지정하는 단계부터 출발해야 한다. 향토유산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통하여 2차 봉기터의 위치를 고증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지역사회 여론과 국민적 관심의 증대, 그리고 지자체의 적극적 관심이 더해진다면 문화유산 지정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후에 좀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자료수집과 지속적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여론을 환기하고 다음 단계로 광역지자체가 결정하는 시도유산 지정을 추진하면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국가유산을 추진하면 된다. 2차 봉기터의 국가 사적 지정은 적어도 10년의 계획하에 추진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4. 해당 유적지의 발굴 추진

현재 2차 봉기터를 지도 또는 지적도를 포함하여 문헌자료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궁극적으로 국가사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2차봉기터에 대한 고고학적 자료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굴이 진행되어야 한다.

5. 지자체의 적극적 의지와 실행

이상의 과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자체의 적극적 의지와 실행 가능성이다. 아무리 필요성이 있더라도 지자체가 의지가 없고 실행하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는다. 즉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와 실무담당자의 실행력이 함께 했을 때만이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를 확보하거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공염불이 될 수 밖에 없다. 어찌면 이부분이 이를 실행하는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 사실 2차 봉기터도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는 묘수가 필요하다.

6. 고창의 예

고창군은 무장기포지를 국가사적으로 전봉준생가터를 전북기념물로 지정하였다. 이는 10년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였다. 고창군은 단체장이 직접 고창기념사업회 대표를 맡기도 하고, 고창군 내에 동학팀을 두어 동학농민혁명을 전담하게 하였으며 중요한 과제로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무장기포지의 국가사적지정과 전봉준생가터의 전북기념물 지정을 위하여 10여 차례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여러 차례의 학술용역을 실시하였다 여기에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그리고 고창동학농민혁명유족회도 같이 힘을 합쳤다. 이러한 결과로 무장기포지와 전봉준생가터가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의 경우는 이보다 더 많은 시간과 공력을 들여야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맺음말

이상에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의 고증과 문화유산 지정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이를 위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문화유산 지정현황을 살펴보고, 교조신원운동 삼례집회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에 대해서도 정리해보았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 위치를 검토하였으며 2차 봉기터의 문화유산 지정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삼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는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는 것이 역사적 위상에 맞다.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는 2차 봉기터와 비슷한 역사적 의미와 위상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2차 봉기터 위치와 관련해서 의미있는 기록은 『주한일본공사관기록』의 ‘삼례역에 도착하여 모병본부를 이곳에다 정하였다’는 것과 「전봉준공초」의 ‘삼례역에 이르러 그곳을 기병하는 대도소로 삼았다’라는 기록으로, 2차 봉기터를

확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라고 보여진다. 2차 봉기터의 정확한 위치는 조선시대 지도, 1895년 지형도, 1915년 지도, 1914년 지적도를 종합해 볼 때 삼례리 1072번, 1073번지, 1074번지 일대라고 보여진다. 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차 봉기터의 국가 사적 지정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된다. 완주군민, 완주군, 완주군의회,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완주동학농민혁명유족회, 동학농민혁명 연구자,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등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모든 주체들이 이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투고일 : 2025. 4. 6. 심사완료일 : 2025. 4. 27. 게재확정일 : 2025. 4. 28.

참고문헌

<자료>

- 「1895년 지형도」(삼례).
「1914년 지적도」(삼례).
「감결」, 『동학서』, 서울대 규장각.
「경통」, 『동학서』, 서울대 규장각.
「광여도」(규장각).
「동여도」(규장각).
「의송단자」, 『동학서』, 서울대 규장각.
「전봉준공초」,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12권, 2014.
「전봉준판결선고서」,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12권, 2014.
「전주지도」(규장각, 1872).
「종리원사부동학사」, 『동학농민혁명신국역총서』 1권, 2015.
『순무선봉진등록』,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2권, 2006.
『여지도서』(삼례보유편).
『주한일본공사관기록』, 국사편찬위원회, 1991.

<단행본 및 논문>

- 김은정·문경민·김원용, 1995, 『동학농민혁명 100년』, 나남출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2,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시설 현황조사-전라북도 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6, 『동학농민혁명 일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신순철·이진영, 1998, 『실록 동학농민혁명사』, 서경문화사.
최진성, 2011, 「삼례도찰방역의 경과 변화」, 『문화역사지리』 제23권 3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50~65쪽.

〈Abstract〉

Verification of 2nd Site of Uprising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Its Designation as a Cultural Heritage

Lee, Byeonggyu*

Events related to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the Wanju Region include the Kyojoshinwon Movement Samrye Assembly (교조신원운동 삼례 집회), 2nd Uprising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the Daedunsan Peasant Army Resistance. Of these, the most historical event was the 2nd uprising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e 2nd uprising was an uprising of the Donghak Peasant Army, including Jeon Bongjoon, to drive out the foreign forces as the internal interference from Japan became worse after Japanese forces captured Gyeongbokgung Palace and held the King of Joseon hostage. The location of that uprising was Samrye. However, despite this historical importance, there is little interest and there is little effort being made to preserve and maintain this site. What's especially unfortunate is the fact that the exact location of the 2nd uprising still hasn't been verified.

As to the location of the 2nd uprising, some meaningful records include passages from the 『Records of the Japanese Embassy in Korea』, which states, “They reached Samrye Station and used it as a base for recruiting,” as well as the 『Jeon Bongjoon Reports』, which states, “We reached Samrye Station and used it as a cavalry base”. These records

* Director of research at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are important pieces of evidence that can help verify the location of the 2nd uprising. Taking into account the Josean Dynasty map, 1895 topographical map, 1915 map, and 1914 cadastral map, the exact location of the 2nd uprising appear to be around Samrye-ri 1072, 1073, and 1074. In order to verify this, we need a more detailed and systematic examination and approach.

It is fitting for the site of the 2nd uprising of the Donghak Peasant Rebellion in Samrye to be designated as a historic site, thus a national cultural heritage, in the future in accordance with its historical standing. In order for the site of the 2nd uprising of the Donghak Peasant Rebellion to be designated as a national cultural heritage, there needs to be a comprehensive academic effort, collection of related data, holding of academic conferences, excavation of the site, and active effort on the part of the local government.

Key word : Donghak Peasant Revolution, Site of 2nd uprising, National cultural heritage, Samrye, Jeon Bongjoon, Historical site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정비·활용방안*

홍성덕**

〈목 차〉

머리말

I.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유적 현황

II.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의 의미와 실태

III. 전적지 정비 및 활용방안

맺음말

〈국문초록〉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는 동학농민혁명의 ‘최후항전지’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전적지는 1999년 지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장소를 확인하고, 2015년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했다. 그러나 2001년 ‘대둔산항쟁전적비’와 안내판을 설치한 이후 구체적인 정비와 활용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전적지의 보존 정비는 먼저 전적지의 보존 관리를 위해 출입을 통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동안 탐방객에 의한 물리적 변화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발굴 조사

* 본 논문은 2024년 10월 30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주관한 『완주 동학농민혁명의 새로운 모색』(완주 향토문화예술회관) 학술대회 발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 전주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전까지는 출입을 금하고, 이러한 사실을 안내하도록 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항전에 참여한 사람에 관한 개별 연구와 대둔산 지역의 동학 조직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불교 사찰과의 연관성에도 주목해 보아야 한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적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

국가유산 사적으로 승격할 때까지 선행적으로 대둔산에 있는 전적지 안내판을 정비하거나, 철거하고 신규로 설치한다. 전망대와 같은 적극적인 활용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대둔산은 자연환경 이외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 임진왜란, 동학농민혁명, 한국전쟁과 관련한 중요 전투가 있었던 곳이다. 따라서 이들을 연계하는 교육답사프로그램도 개발 운영할 수 있다.

주제어 : 동학농민혁명, 완주 대둔산, 전적지, 보존 및 활용, 사적(史蹟)

머리말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기념은 기본적으로 현재 그 의미를 계승하려는 ‘귀감’의 의미를 갖지만, 역사적 사실 자체에 대한 교육적 의미를 내포한다. 역사적 사실의 유형에 따라 기억과 기념의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학습 대상으로서 역사적 사실은 한 사회와 국가의 발전 과정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 예컨대 정치·경제·문화·사회 등에서 기억하고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의 결과를 포괄한다. 그 중에서도 기념은 특정한 인물이나 전쟁에 집중되기 마련이다.

기념은 추모, 애도, 전승을 포괄하며 널리 알려려는 선양사업의 일환이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의하면 기념 사업은 ①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동학농민혁명 기념 공원 및 그 밖의 기념시설의 건립 ②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연구 및 교류 ③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정비 ④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이후 기념 사업은 각 자치단체별로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기념관, 기념 공원, 기념비(조형물) 등이 세워졌고, 유적지의 문화유산 지정과 학술 연구 활동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특별법 제정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설립되면서 기념 사업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동학농민혁명에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실(史實)에 대한 규명과 활용, 기념 사업이 부족한 지역이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이하 대둔산 전적지)도 그 하나이다. 특히 완주군의 경우 삼례집회와 2차 봉기의 주요 거점임에도 문화유산의 지정이나 기념, 활용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다.¹⁾

대둔산 전적지는 동학농민혁명군이 대둔산을 거점으로 마지막 전투를 벌이다 사망한 유적지이다. 1999년 ‘최후항전지’의 위치가 알려졌고, 2015년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지정된 뒤, 기념비와 안내판 등을 세우고 매년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그렇지만 유적지는 1999년 조사 이후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대둔산 내 탐방로 개설 등 실질적인 활용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고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대둔산 전적지의 의미와 보존 실태를 알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완주군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역사적 사실은 2차례의 삼례집회, 2차 봉기, 고산 지역 전투, 대둔산 최후항전지 등이다. 이에 대한 학술 연구 성과도 편차가 크며, 특히 역사적 현장에 대한 규명과 문화유산 지정은 최후항전지뿐이다. (신순철, 2024, 「완주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과제」, 『완주 동학농민혁명의 새로운 모색』, 완주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자료집)

I.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유적 현황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아카이브에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로 총 376개소를 소개하고 있다. 유적지는 인물유적(집터, 가옥, 활동, 피체지, 순절지, 묘지, 동상, 기타), 전투·집결 유적(모의지, 훈련지, 전투지, 점령지, 집결지, 주둔지, 이동로, 기타), 기념시설(기념비, 기념탑, 동상, 조형물), 기념공간(전시관, 추모관, 복합건물)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시스템 내 상세검색 분류 검색에 의하면 총 분류별로 362건이 검색되지만, 유적지 전체 수는 376개이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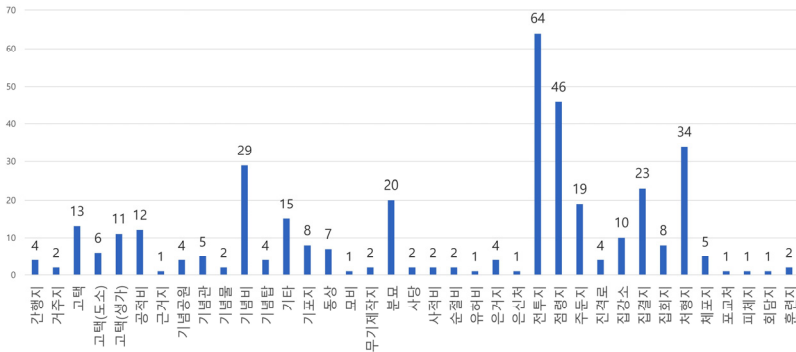
〈표 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아카이브 분류) 현황

분류		수량	분류		수량	분류		수량
인물 유적	집터	20	전투 · 집결	모의지	19	기념 시설	기념비	37
	가옥	6		훈련지	4		기념탑	6
	활동	12		전투지	79		동상	7
	피체지	6		점령지	48		조형물	7
	순절지	8		집결지	8	기념 공간	전시관	1
	묘지	17		주둔지	5		추모관	2
	동상	0		이동로	11		복합건물	0
	기타	16		기타	43	합계		362

시스템 내 유형별 분류에 의한 상세검색 결과는 잘못 분류된 사례가 많다. 예를 들면 전투·집결지 중 훈련지는 4개 유적이 검색되는 데 남원 요천 동학농민군 남원대회지, 청주 솔피마을 동학2차 기포 모의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남원대회지의 경우 집결지로, 솔피마을은 모의지로 분류되어야 옳다. 또한 집강소터의 경우 영암관아 동학농민 집강소터는 점령

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누리집>아카이브>유적지 정보>유적지 검색. (<https://www.cdpr.go.kr/main/?menu=95>, 2025년 3월 1일 검색)

지로, 능주관아 동학농민 집강소터는 기타로 분류되어 일관성이 없다.



〈그림 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유형별 분포현황

376개소의 명칭을 중심으로 편의상 37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현황을 보면 〈그림 1〉과 같다. 37개의 유형 중 20개 이상의 유적지는 전적지(전투지) 64개소, 점령지 46개소, 처형지 34개소, 기념비 29개소, 집결지 23개소, 분묘 20개소 등이다.³⁾

전적지 64개소 중 국가유산(사적)으로 지정된 유적 10개소이며, 시도지정 국가유산(기념물)은 5개소이다.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총 15개소의 유적 중 동학농민혁명의 전투지로서 지정된 곳은 장흥 석대들, 장성 황룡촌, 정읍 황토현, 공주 우금치, 홍천 서석, 완주 대둔산 등 6개소이며 나머지 9개소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성 때문이 아닌 그 자체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지정된 유적이다.

3) 37개 유형은 아카이브에 구축된 유적 명칭을 중심으로 편의상 분류한 것으로 향후 합리적인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표 2〉 국가유산 지정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유적

지역	국가지정 국가유산(사적) 유적명
전남	나주읍성 서성문 전투지(나주읍성)
전남	여수 전라좌수영 동학농민군 전투지(여수 진남관)
전남	장흥 석대들 동학농민혁명 전적지*(장흥 석대들 전적)
전남	함평 동학농민군 석교 전투지(함평 고막천 석교)
전남	장성 동학농민군 황룡촌 전투지*(장성 황룡 전적)
전북	정읍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전투지*(정읍 황토현 전적)
충남	공주 우금치 동학농민혁명 전적지*(공주 우금치 전적)
충남	내포 해미읍성 동학농민군 전투지(서산 해미읍성)
충남	서천 한산 건지산성 동학농민군 전투지(서천 건지산성)
충남	홍주성 동학농민군 전투지(홍성 홍주읍성)
지역	시도지정 국가유산(기념물) 유적명
강원	홍천 서석 동학농민군 전투지*(홍천풍암리동학혁명군전적지)
경남	고성 옥천사 동학농민군 전투지(고성 옥천사 대웅전)
경남	하동 고성산성 동학농민군 전투지(하동 고성산성)
전북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군 전투지*(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전적지)
충남	논산 황화대 동학농민군 전투지(논산 황화대 봉수 유적)

* : 동학농민혁명 관련 지정 전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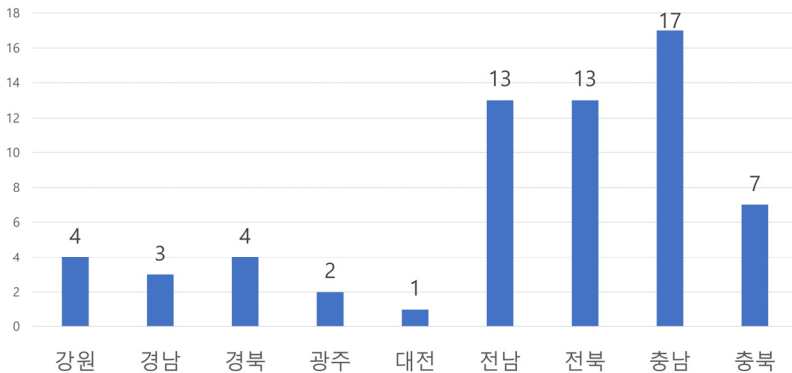
()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지정 명칭

전적지로 분류한 유적지는 유적 명칭에 전투지, 전적지 등이 혼재되어 있다. ‘전적지’는 국가유산 분류체계에 의한 것인데 아카이브 시스템에서는 국가유산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전투지와 전적지의 명칭을 혼재해 사용하고 있어서 명칭 부여에 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국가유산의 유형 분류 중 전적지는 유적건조물 > 정치국방 내에 궁궐·관아, 성, 전적지, 근대정치국방의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4) 2025년 4월 현재 전적지로 지정된 국가유산은 총 15개소이다. 임진·정유왜란 전적지 7개소,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6개소이며, 기타로 삼국시대 병영유적과 거열산성 2개소가 있다. 지정 시기로는 1970년대 5개소, 80년대 2개소, 90년대 2개소,

유적의 경우 국가유산 명칭과 동학농민혁명 아카이브 유적 명칭의 통일이 필요하다.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유적의 정식 명칭은 정읍 황토현 전적, 공주 우금치 전적, 장성 황룡 전적, 장흥 석대들 전적, 풍천 풍암리 동학혁명군 전적지,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이다. 이중 국가지정은 ‘전적(戰蹟)’으로 시도지정은 ‘전적지(戰蹟地)’로 명명하였다.⁵⁾ 또 국가지정의 경우 ‘시군명+지명’만을 부여한 반면 시도지정은 ‘동학농민혁명’ ‘동학혁명군’의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아카이브의 전투지 명칭 중 국가유산 지정 명칭은 해당 지역 또는 공간, 건물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전라좌수영의 경우 국가유산 지정 명칭은 여수 진남관이어서 전투지로서의 지명은 아니다.



〈그림 2〉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유적 지역별 분포

한편,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유적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지역은 충남·대전으로 18개소(대전 1)이며, 전남 14개소(광주 1), 전북

2000년대 6개소 등이다. 국가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

5)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

13개소이며, 이외 충북 7개소, 강원과 경북이 각각 4개소이다. 전투지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동학농민혁명군과 관군, 민보군, 일본군의 전투가 주로 있었던 곳은 전북, 전남, 충남으로 파악되며, 특히 충남은 2차 봉기 이후 집중적으로 전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 아카이브 내 유적지 중 전적지 명칭은 지역(시군명+지명)을 먼저 쓰고 다음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용어로 ‘동학농민군, 동학농민혁명 + 전투지(전적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일부 유적의 경우 지명과 동학농민군(혁명)을 바꾸어 사용(함평 동학농민군 석교 전투지)하거나, 전투지+지명(안동 동학농민군 전투지 청산평원)으로 명칭을 부여한 사례도 있다.

국가유산은 「국가 지정 문화유산(국보·보물/건조물) 지정 명칭 부여 지침」에 따라서 명칭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등록 문화유산의 종류에 따른 명칭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⁶⁾

① 지정명칭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부여한다.

1. 문화유산(문화유산명) :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문화유산에 부여한다.
2. 고유명사(문화유산명, 사찰, 서원, 산 등) + 문화유산 :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유산에 부여한다.
3. 시·도, 시·군·구 + 문화유산 :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어 지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문화유산에 부여한다.
4. 시·도, 시·군·구 + 고유명사 + 문화유산 :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어 지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대상 지역 내에 개별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문화유산에 부여한다.

6)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건조물) 지정 명칭 부여 지침」 제3조(공통적인 부여 원칙) 총 11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조물 문화유산의 특성에 따른 부여 기준은 제4조에 명시되어 있다.

5. 시·도, 시·군·구 + 리·동(마을) + 문화유산 : 마을에 소재하는 가옥, 석탑 등 시·도, 시·군·구와 리·동(마을)을 함께 표기하여야만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화유산에 부여한다.

② 명칭부여는 지역명 + 고유명사 + 방향 + 형태 + 재질 + 문화유산의 순서로 부여하되, 제3조1항의 부여 원칙에 따른다.

국가유산으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가 보존 관리되기 위해서는 국가유산 지정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유적지 명칭에 대한 정리작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아카이브 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 중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 이유가 동학농민혁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적지에 대한 별도의 분류가 필요하다.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376개소 중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곳을 표기할 경우, 국가유산 지정 이유가 동학농민혁명이 아닌 사례들이 많아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II.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의 의미와 실태

1. ‘최후항전지’의 역사적 의미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는 동학농민혁명의 ‘최후항전지’로 알려져 있다. ‘대둔산 최후항전지’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최후’와 ‘항전’이라는 역사적 평가가 덧붙여진 것이다.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가 ‘최후항전지’였다는 첫 주장은 신용하⁷⁾였으나, 1999년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원광대학교 사학과가 대둔산 전적지를 조사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의 최후항전지 조사단」을 조직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최후항전지’의 역사적 의미는 일반화하였다.⁸⁾ 그렇지만

7) 신용하, 1993, 「갑오농민전쟁의 제2차농민전쟁」, 『동학과 갑오농민전쟁』, 일조각, 356~358쪽.

1895년 2월과 4월에 호남 지역과 황해도 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군의 잔여 세력에 의한 산발적 전투가 있었다⁹⁾는 연구로 대둔산 전투가 동학농민혁명의 ‘최후’ 전투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최후항전지’는 여전히 대둔산 전적지의 대표 이미지이다. 동학농민혁명 대둔산 전적지가 ‘최후항전’의 의미를 갖는 이유를 기존 연구¹⁰⁾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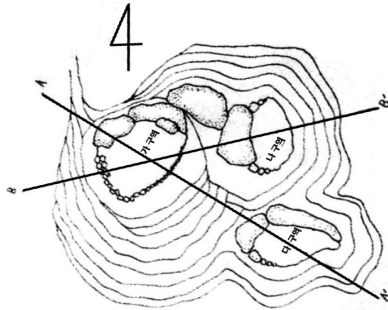
첫째, 항전의 거점을 구축하고 싸웠다는 점이다. 1895년 4월까지 산발적인 전투가 있었음에도 대둔산 전적지는 ‘최후항전지’로 인식하는 것은 진지를 구축하고 70여 일에 걸쳐서 전투를 벌였기 때문이다. 이는 게릴라식으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공격하는 전투와 다르다 할 수 있다.

대둔산 항전군은 1894년 12월 중순부터 이듬해 2월 18일까지 70여 일 동안 항전하면서 대둔산 미륵바위 위에 초막 3동을 짓고 근거지로 만들었다. 지표조사 결과 근거지는 세 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가’ 구역의 경우 150㎡, ‘나’ 구역 70㎡, ‘다’ 구역 120㎡의 규모이다. 50여 명이 장기간 생활하기 위한 난방시설과 주변 350m 이내에 우물이 2개소를 확인할 수 있다. ‘한 사람이 만 명을 막을 수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다는 평가는 근거지가 120~150m 높이의 암반 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조건이 끝까지 항전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했다.

8) 「동학군 최후항전지 대둔산 ‘석두굴’서 발견」, 『한국일보』 1999년 2월 12일 (<https://www.hankookilbo.com>, 2025년 3월 30일 검색) 당시 조사단이 작성한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지표조사보고서』(1999.8)에는 ‘최후항전지’로서의 평가를 강조하고 있지 않다.

9) 姜孝淑, 2002, 「第2次東學農民戰爭と日清戰爭」, 『歴史學研究』 762, 東京, 30쪽.

10) 원광대학교사학과·완주군, 1999.8,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지표조사보고서』 ; 이병규, 2002, 『錦山·珍山地域의 東學農民革命 研究』, 원광대학교 박사학위 ; 신순철, 2024, 「동학농민군의 대둔산 항쟁」, 『동학농민혁명연구』 2.



〈그림 3〉 대둔산 전적지 배치도

둘째, 동학농민혁명 전적지의 유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적지는 전투의 특성상 특정 범위를 확증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적지 발굴은 범위를 정하기 힘들다.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중에 발굴 조사 등을 통해서 전적지의 성격이 밝혀진 곳은 없다. 기록이나 구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을 설정해 문화유산의 범위를 정해 놓았을 뿐이다. 그러나 대둔산 전적지의 경우 지표조사 결과 주둔했던 분명한 유물이 수습되어 향후 발굴을 통해 유구 확인까지도 가능하다.

1999년 지표에서 수습한 유물은 옹기, 자기, 기와, 방울, 돌저귀 등의 생활 도구와 아궁이터, 우물 등이 확인되었고, 이외 탄피 2점, 탄두 2점, 산탄 3점, 납탄 덩어리 8점 등 총 15점의 탄약 파편류가 수습되었다. 수습 유물은 19세기 후반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탄피b는 근대식 화기 개발 이전 사용된 영국제 스타이더 소총이나 미국제 레밍턴 소총에서 사용한 것으로 동학농민혁명 당시 관군이 사용한 무기와 동일하다. 당시 일본군의 주력화기가 무라타총이었기 때문에 이 탄피 유물은 관군이나 동학농민혁명군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¹¹⁾

11) 지표조사 당시 수습 탄약 파편류에 대한 분석은 총기 탄약 전문연구자인 전쟁기념관 박재광 학예연구관의 감정 결과에 의한 것이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으로 기증된 수습 유물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그림 4〉 대둔산 전적지 ‘가’구역

셋째, 대둔산 향전에는 관군(감영군, 장위영군), 민보군, 일본군이 모두 참전해 싸운 치열한 전투였다는 점이다. 관군은 문석봉이 이끈 충청(공주)감영군과 이두황이 지휘한 장위영군, 장세복의 강화영병이 참전하였다. 일본군은 중로분견대 지대군이 농민군 진압에 가담하였다.

1895년 2월 04일 감영군 40여 명 포 공격

금산 의병장 김진용 300명 민보군 합류

2월 13일 문석봉 신영 병정 40명 공격

2월 15일경 공주 군사 17일까지 공격

2월 17일 일본군 대둔산 도착 포 공격

이두황 장위영군 30명 일본군 합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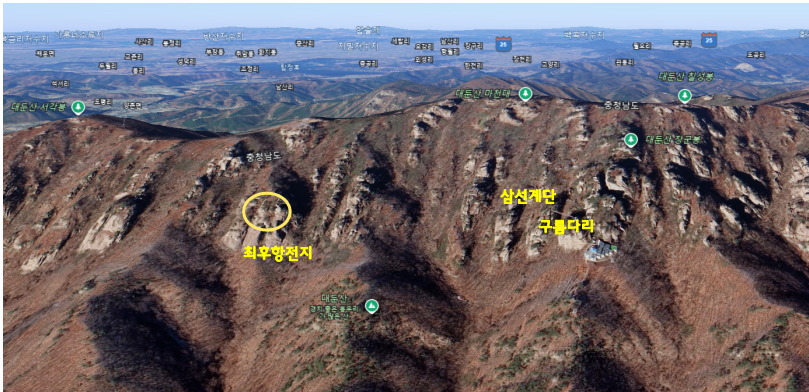
2월 18일 감영군, 민보군, 장위영군, 강화영병, 일본군 연합
공격

2월 19일 대둔산 진지 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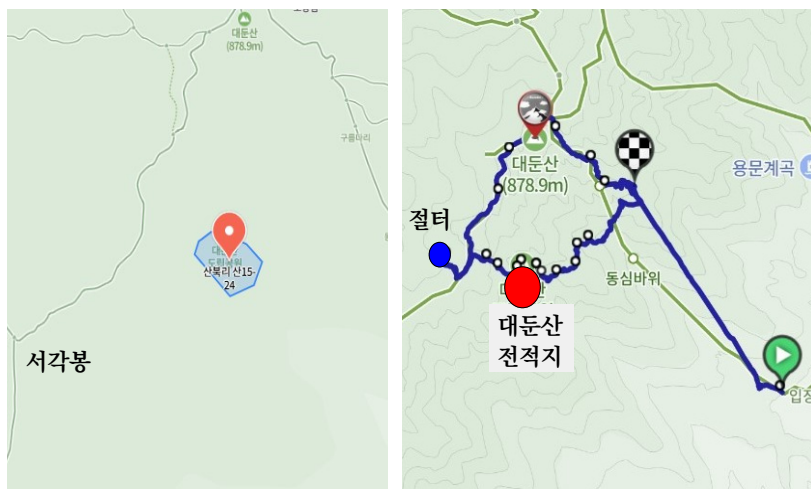
대둔산 동학농민혁명군 주둔지는 난공불락의 요새여서 포격에 함락되지 않아 정면 공격을 시도하는 한편, 일본군 1개 분대가 북쪽 후면을 기습 공격하였다. 관군·민보군·일본군의 연합 공격으로 결국 진지를 지키던 25~6명의 동학농민혁명군은 모두 사망하였으며, 12살 난 어린 소년 1명만 생존하였다. 소년의 증언에 의하면 30여 명가량 있었으며, 그중 10여 명이 도망하였고 주동자 4명은 사망하였다고 한다. 이로써 70여 일간의 항전은 교전 16일 만에 끝나게 되었다.

2. ‘최후항전지’의 보존실태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는 2015년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 고시되었다. 지정 면적은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산15-24번지로 총 13,207㎡이며 완주군에서 관리한다. 대둔산 전적지는 대둔산 정상인 마천대에서 서쪽 능선을 넘어 서각봉 중간 지점에서 4시 방향 아래에 있으며, 마천대 정상에서 약 500m 떨어져 있다. 150m 정도의 암반 위에 있어 접근하기 어렵다.



〈그림 5〉 대둔산 전적지 위치 원경



〈그림 6〉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위치

대둔산 전적지의 접근은 대둔산 입구에서 케이블카로 이동 후 하산 하면서 동심바위, 동심정 휴게소에서 능선을 넘어 석두골을 따라 올라 가거나, 마천대에서 서각봉쪽으로 가다 형제봉으로 내려가는 코스와 처음부터 석두골 계곡을 따라 오르는 세 가지 코스가 있다. 대둔산 주차장에서 동심바위 쪽으로 올라오는 것도 가능하지만, 폐쇄된 동심정 휴게소에서 능선 길을 찾기 어렵다. 이처럼 대둔산 전적지는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되었음에도 접근할 수 있는 탐방로가 개발되지 않아서 전문가의 안내 없이는 답사가 어렵다.¹²⁾ 따라서 일부 숙달된 등산객만 갈 수 있으며, 대둔산을 찾는 일반인은 접근 자체가 어렵다.

접근 자체가 어려워서 1999년 지표조사 이후 유적은 큰 훼손 없이 보존되고 있다. 다만 지표에 있는 기와편 중 지표조사 당시 수습하지 않았던 기와편이 ‘가’구역 나무 밑에 모여져 있기도 하며, 지표조사 당

12) 현재 대둔산 전적지 동쪽으로는 양파능선, 일봉길, 솔봉이길 등 세 루트의 암벽 등산코스가 개발되어 암벽 등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중 솔봉이길은 대둔산 전적지와 연결된다. (<https://okkj777.tistory.com/533>)

시 사진과 비교해 보면 초석으로 보이는 일부 돌덩어리가 이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¹³⁾



〈그림 7〉 2015년(좌, 국가유산청) 2024년(우, 필자) 초석의 위치 변화

대둔산 전적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2023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설치한 10여 미터의 줄 사다리를 이용해야 한다. 입구 초입 등산안내도와 향전비 안내판을 제외하면 전적지의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전적지 역시 아무런 설명 안내문이 없으며 줄 사다리만 놓여 있어 만일 일반인이 오른다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전적지 ‘가’구역은 서남쪽으로는 낮게 돌담이 쌓여 있다. 이 돌은 관군이나 일본군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엄폐물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접근 시 돌을 던져 공격을 막는 용도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낮은 돌담의 경우 남쪽은 허물어진 곳이 많다. ‘가’구역에서 ‘나’ ‘다’구역으로 접근하기는 퇴적된 나뭇잎 등으로 쉽지 않으며, 그 아래가 바위 낭떠러지여서 위험하다.

13)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지표조사보고서』에는 ‘가’ 구역의 초석으로 추정할 수 있는 돌무더기에 대한 도면이 없다. 다만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당시의 사진과 비교해 볼 때 돌무더기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 내 대둔산 전적지 방문 기록 등을 보면 지표면의 돌과 기와편을 물리적으로 옮겨 놓은 사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https://blog.naver.com/okkj777/223335209490>)

Ⅲ. 전적지 정비 및 활용 방안

1. 문화유산 정비 기본원칙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 추진해야만 한다.¹⁴⁾ 문화유산 시책은 5년마다 문화유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되며, 기본계획에는 기본 방향 및 목표, 보수, 정비, 관리, 기록 정보화, 재원 마련, 활용 연구개발 등을 포괄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각 시도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문화유산으로 지정 관리해야 하는 유적지별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종합정비계획 수립의 법률적 근거는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이하 정비 지침)을 참조할 수 있다. 사적을 대상으로 제정된 지침이지만 일반적인 문화유산의 정비계획 수립에 유용하다.

정비 지침은 정비계획 수립의 기본 원칙¹⁵⁾을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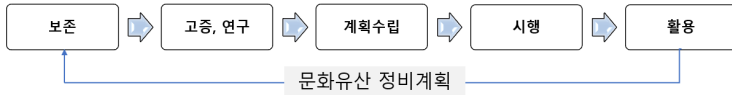
- ① 문화유산의 본질적인 가치의 보존에 중점을 두며,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② 계획 수립 시 문화유산이 가진 특성과 관계 법령, 주변 상황(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및 재정 여건 등 제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문화유산의 복원·보수는 반드시 학술적 근거와 철저한 고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④ 정비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자는 고증,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

1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15)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2조(정비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리적·객관적 사고를 견지하여야 한다.

- ⑤ 문화유산의 원형을 보존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문화유산을 활용함으로써 문화유산이 규제 대상이 아닌 향유 대상으로 인식되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은 첫째 보존 중심, 둘째 실현 가능성, 셋째 종합적 판단, 넷째 철저한 고증, 다섯째 합리적이고 객관적 사고, 여섯째 향유 대상으로 인식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정비계획은 기본적으로 보존을 중심으로 하되 규제로 인식되어서는 안 되며, 철저한 고증과 합리적·객관적 사고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만 한다.

〈표 3〉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 핵심과제

핵심과제	수행과제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존·계승	• 미래를 준비하는 문화재 보존·전승 • 문화재 핵심 가치를 지키고 이어가는 보존·전승 • 민관이 함께 참여하고 가꾸는 문화재 보존·전승
국민행복시대의 문화유산 활용	•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문화 향유권 증진 • 문화유산 자원화를 통한 가치 창출 • 친근한 문화유산 교육을 통한 공감 확산
세계와 함께 누리는 우리 문화유산	•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유산 • 국제사회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문화 외교력 강화 • 역사 정의 실현을 통한 민족 문화재 자긍심 회복
미래를 여는 문화재 스마트 행정	• 시대적 요구 부응 문화유산 관리의 디지털 대전환 • 과학적 조사·연구·개발로 문화유산 미래가치 발굴 • 문화재 관리의 전문성·현장성 강화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 2022~2026』은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의 미래가치 창출’이라는 비전 아래, ‘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한 도약’ ‘지속가능한 보존과 문화유산 활용의 조화·상생’

‘문화재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디지털 대전환’을 목표로 4대 핵심과제와 수행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 대둔산 전적지 정비 방향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는 1999년 지표조사 이후 정비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보존 대책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 사적지 지정, 둘째 사적지 지정 후 유적지와 유적지 주변에 대한 발굴 조사, 셋째 대둔산 인근지역의 종합적인 학술 조사, 넷째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 등이다.¹⁶⁾

지표조사 보고서의 보존 대책은 문화유산 정비계획 중 보존과 고증·연구 단계, 그리고 활용 영역에 해당한다. 다만, 국가 사적지 지정 이후 발굴 조사를 제시하였는데, 사적 지정에서 발굴 조사가 필요조건은 아닌 사례가 있지만 그렇기 위해서는 세 번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네 가지의 보존 대책 중 국가유산 지정은 시도 국가유산인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첫 단계를 밟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발굴 조사와 학술 조사, 역사교육 활용은 25년이 지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여전히 이러한 보존 대책은 유효한 주장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존 정비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전 보존 정비 대책

대둔산 전적지는 기념물로 지정했을 뿐, 보존 대책은 수립되지 않았다. 무엇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고증이 끝날 때까지 선제적인 보존 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부 탐방객의 방문이 있고, 그 과정에서 지표 유물의 분실 위험이나 초석의 이동, 돌담

16) 원광대학교사학과·완주군, 1999.8,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지표조사보고서』 31쪽.

의 붕괴 등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사전 보존 정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림 8〉 전적지 입구

첫째, 발굴 조사 전까지 전적지 출입 통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대둔산 전적지는 관심 있는 등산객이나 일반인의 탐방이 소수지만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 검색에 의하면 매년 2~5차례의 탐방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탐방기 등을 보면 지표 내 유물과 초석에 물리적 힘을 가했을 가능성이 보인다. 주변에 있는 기와편 등을 모으거나, 추념하는 과정에서 바닥의 돌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구역의 바위틈에는 무속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찾을 수도 있다. 무속 행위 인지 탐방객의 추념 행위인지는 확정할 수 없으나 ‘가’구역이 지표조사 당시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둘째, 전적지 입구를 통제하는 대신 안내판을 설치하여 탐방객의 이

해를 돕도록 한다. 전적지를 탐방할 수 없다는 내용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충분히 홍보되어야 한다. 대둔산 공원안내소, 대둔산 공영주차장, 케이블카 탑승장, 향전비 건립 장소 등과 관련 누리집 등에 해당 내용을 공지하고, 특히 전문가의 안내 없이는 탐방이 어렵기 때문에 안내가 가능한 등반 전문가와 역사 전문가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해야 한다.

탐방 불가 사실을 알지 못하고 방문하는 사람을 위해 경위 과정과 전적지 사진이나 도면 등을 담은 안내문을 전적지 진입로 아래에 설치한다. 안내문은 홍보와 양해의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설치를 통해 자연스럽게 진입로를 폐쇄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셋째, 통제 안내에도 불구하고 전적지를 방문하는 사람을 위해 전적지 ‘가’구역 초입에 지표에 있는 기와, 돌 등을 인위적으로 손대지 않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내문을 함께 설치하거나 유물을 수습한다. 발굴 조사 완료 후 유적 정비가 끝나기 전까지 탐방객에 의한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고증·연구

대둔산 전적지에 관한 고증·연구는 발굴과 문헌 및 구술 조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첫째, 지표조사 이후 25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표의 유물과 유구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추적 조사하기 위한 도면화 작업이나 세부 촬영이 필요하다. 발굴 조사에 앞서 전적지에 대한 지표 도면 및 세부 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지표상의 유물은 수습 보관한다. 1999년 지표조사 당시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도면 또는 사진의 비교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표조사 당시 상세한 실측 도면 등을 그려 놓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의 모습은 사진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 지표조사 보고서 내 사진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변화가 있음은 분명하다.

둘째, 무엇보다 발굴 조사가 시급하다. 일반적으로 발굴 조사 이전에 시굴 조사를 통해 유구를 확인하고 발굴 여부를 결정하지만, 전적지는 지표조사 결과 분명한 역사적 공간임이 확인되었고, 험준한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다면 발굴 조사를 바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형적 조건으로 발굴 시 수습된 유물 등을 보존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매일 왕복하면서 발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적절한 예산 지원과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가’구역에는 나뭇잎이 두껍게 퇴적되어 있어서 발굴 조사를 할 경우 당시 유물과 건축 유구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발굴 조사 영역을 정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표조사를 진행했던 연구팀과 발굴을 담당할 연구팀의 협업을 통해 구역을 설정하고, 예상 사업비를 산출한 다음 국가유산청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림 9〉 대둔산 전적지 ‘가’구역

셋째, 지표조사 당시 대둔산 동학농민혁명군의 항전을 기록한 문헌자료를 정리했으며, 이규만·우백용·박진옥 등의 구술 증언을 확보했었다. 대둔산 일대의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로 이병규, 신순철¹⁷⁾의 연구가 있으나 더 많은 사실이 밝혀질 필요가 있다. 먼저 대둔

산 전적지와 관련해서는 항전 중에 사망한 인물들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필요하며, 대둔산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항전했던 동학농민혁명군과 연산, 진산, 고산 등의 동학 조직과의 관계도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항전과 관련한 연구이다. 70여 일 동안 항전하기 위해서는 그들만의 힘으로는 어렵다. 당연히 지원 조직에 관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둔산 인근지역의 동학 조직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으나, 연구 영역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지표에 있는 기와의 의미이다. 이는 동학농민혁명군이 근거지를 마련하기 이전에 이곳이 일정한 시설물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지표에 노출된 기와는 동학농민혁명 시기나 그 이전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기록에는 초가 3채가 있었다고 하므로 기와는 그 이전에 이미 훼손된 건물의 기와로 추정할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 이전에 그곳에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이 있었고, 그래서 항전을 위한 장소로 선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전적지의 위치가 가지는 역사성의 연구에서 주목할 지점은 지표조사 보고서에서도 언급한 훼손된 절터이다. 전적지에서 마천대와 서각봉 사이의 능선길로 올라 비선포곡 방향으로 1백여 미터를 내려가면 훼손된 절터를 만날 수 있다. 전적지에서 절터까지는 15분 정도의 거리이다. 절터는 서북쪽을 향하고 있으며 우물과 입지 조성을 위한 축대가 아직도 남아 있다. 현재 이 절터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으며,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에도 표시되지 않은 절터이다. 절터의 규모로 보면 부속 암자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¹⁸⁾

17) 이병규, 2002, 『錦山·珍山地域의 東學農民革命 研究』, 원광대학교 박사학위; 신순철, 2024, 「동학농민군의 대둔산 항쟁」, 『동학농민혁명 연구』 2.; 신순철, 2024, 「완주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과제」, 『완주 동학농민혁명의 새로운 모색』, 완주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자료집)

18)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지표조사보고서』(원광대학교사학과·완주군, 1999. 8)에서는 절터가 18~19세기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청자편 등이 있는



〈그림 10〉 전적지 인근 폐사지 전경(상), 축대(중), 우물(하)

절터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으로 보면 이 사찰이 훼손된 시기는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이 사찰의 우물이 전적지 인근에서 식수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훼손된 이 절터에서 식수원을 조달할 수 있었을 것이나, 지원 시설이나 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다. 이런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대둔산 안심사이다. 안심사는 638년 자장율사가 창건하였고, 875년 도선국

것으로 보아 창건 연대는 고려시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사가 중창, 1710년에 신열이 증건한 사찰이다. 1759년에 세워진 사적비에 의하면 안심사에는 30여 개의 당우와 석대암 등 13개의 암자¹⁹⁾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3개의 암자 중 2개만 남아 있다고 했으니 훼손된 암자 중의 하나일 가능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²⁰⁾ 안심사는 대둔산 전적지에서 직선거리로 2km이다. 그밖에 전적지 동북쪽에 태고사가 있으나 한국전쟁 때 소실되어 암자 등 확인할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²¹⁾ 안심사와 태고사는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존속해 있었을 것이므로, 동학농민혁명군의 항전에 관계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²²⁾

3) 종합정비계획 수립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비계획은 법률적으로 ‘사적’에만 국한되어 있으나²³⁾ 「문화유산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 내에 일반적인 계획은 포함된다. 현재 기본계획 내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에 관한 구체적인 보존 관리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대둔산 전적지의 역사성을 고려할 때 사적

19) 「안심사사적비」에 있는 안심사 소속 암자는 석대암(石臺庵) 백운암(白雲庵) 지장암(地藏庵) 득모암(得母庵) 득수암(得水庵) 약사암(藥師庵) 화장암(華藏庵) 백련암(白蓮庵) 상원암(上院庵) 원통암(圓通庵) 보현암(普賢庵) 낙수암(落水庵) 견성암(見聖庵) 등이며, 모두 없어지고 낙수암과 견성암만 남아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금강대(金剛臺) 만경대(萬景臺) 천진대(天真臺) 등의 명승 ‘臺’도 기록되어 있다.

20) 안심사는 한국전쟁 때 소실되어서 소장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관련 금석문이나 문집 기록을 조사 연구해야만 한다.

21) 이 외에도 대둔산에 있는 태고사는 전적지에서 직선거리로 1.5km 지점에 있으며 금산군에 속한다. 원효대사가 창건한 태고사는 조선시대 증묵대사가 중창했고, 송시열이 공부를 위해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으나 한국전쟁 때 모두 소실되었으며, 사적비 등의 금석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22) 동학농민혁명과 불교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동학사상과 불교’의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을 뿐 동학농민혁명 전개 과정에서 사찰과 승려의 역할 등에 관한 연구는 볼 수 없다.

23) 국가유산청, 2024,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승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적 지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발굴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발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적지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적 지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3. 대둔산 전적지 활용 방안

문화유산의 활용은 원형활용(현재화)·변형활용(현대화)과 직접(1차적)활용·간접(2차적)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활용 목적별로는 문화유산 향유, 교육적·학술적·지역적·경제적·세계적 활용으로 나눌 수 있다.²⁴⁾ 이 외에도 진정성 강화, 상품화 확대, 산업화 확대, 콘텐츠 구축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²⁵⁾ 이러한 활용 유형과 방안에 관한 기존 연구는 문화유산 자체의 활용보다는 유산을 소재로 한 폭 넓은 의미의 문화콘텐츠화 방안에 활용의 필요성을 더 두고 있다.

대둔산 전적지에 관한 정비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활용 방안을 제안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전적지를 포함한 대둔산 일원의 동학농민혁명 최후항전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항전지의 발굴 조사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전지지 활용의 세부적인 방안은 종합정비계획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탐방로가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적지 자체를 활용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발굴 조사 전까지는 전적지를 개방할 수 없으므로 짧은 기간 내 시행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4) 류호철, 2014, 「문화재 활용의 개념확장과 활용 유형 분류체계 구축」, 『문화재』 47, 11~14쪽.

25) 홍성덕, 2015, 「전주시 역사문화자원의 활용과 도시재생」, 『열상고전연구』 48, 55쪽.

1) 대둔산 일원 전적지 안내 정비

대둔산 내 전적지 관련 기념물과 안내문은 ‘동학농민혁명 대둔산항쟁 전적비’와 안내문, 대둔산 입구 대둔산 도립공원 안내도, 약수정 부근 안내문 등 세 곳에 마련되어 있다. 이중 항쟁전적비 앞에 세워진 문화유산 안내판의 설명과 약수정 부근 안내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894년 1월 고부농민봉기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한국의 근현대사의 일대 사건이자 봉건적 사회질서를 타파하고 외세의 침략을 위해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를 높이 세운 최초.최대의 민중항쟁이었다.

동학농민혁명은 전국적으로 일어난 항쟁이기에 그 흔적이 대둔산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대둔산은 지형학적으로도 중요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어 동학농민혁명의 진행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1894년 2차 봉기 이후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동학농민군 주력이 삼례를 출발하여 여산, 논산을 거쳐 공주 우금티에서 일본군에 맞서 항전하였다. 1994년 12월 중순부터 다음 해 2월 중순까지 70여일 간 항전하던 농민군은 1895년 2월 18일(음 1.24) 관군과 일본군의 기습공격을 받고 함락되었다.

대둔산 항전지는 다른 지역의 동학농민군이 대부분 사라진 이후에도 마지막까지 저항한 역사적 현장으로 동학혁명의 정신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당시 원형이 상당부분 보존되어 있어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곳이라 할 수 있다.

② 19세기말 조선은 조정의 실정으로 인하여 민심이 혼란하고 국력이 쇠진하였다. 그 틈을 타 일본국이 대륙침공의 야심을 갖고 조선을 침략하였다. 이때 조선의 농민들이 봉기하여 부패한 조정과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

1894.10.10. 전봉준(全琫準)을 필두로 전라도 삼례에서 수십만의 동학농민혁명군이 기포하여 서울로 북진하는 도중 동년 12월초에 공주전투에서 무기의 열세로 인하여 퇴각할 때 최공우를 중심으로 한 高山(고산), 銅山(동산), 華山(화산) 군현의 동학농민군 천여 명이 이곳 大菴山(대둔산)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3개월간 항쟁하였다.

1895.2.18. 거점지인 대둔산 석두골(798m)에서 농민군 지도자급 25명이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였다. 이때 동학접주(金石醇: 김석순)는 한 살쯤 되는 여아를 품에 안고 150m 절벽에서 뛰어내려 자결하였다 하니 얼마나 처참한 역사의 현장인가! 이곳에서 희생된 영령을 추모하고 우리나라 근대사에 빛나는 동학농민 혁명정신을 이어받아 21세기 새로운 민족사의 거름으로 삼고자 한다.

①은 항쟁전적비 앞에 있는 기념물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안내문이고, ②는 약수정 부근의 안내문이다. ①에 비해 ②의 내용은 스토리 중심의 안내문이다. 다만 ②의 경우 ‘대둔산항쟁전적비 안내문’이라 하고 설명문에는 ‘동학농민혁명’으로 되어 있어 맞지 않다. 전자는 문화유산 안내판 설치 기준에 따라 세운 것이고, 후자는 이야기 중심으로 세운 것이다. ①의 안내판 옆에는 항쟁지의 위치 도면을 표시한 안내판이 함께 있다. 문제는 항쟁전적비에서 전적지를 볼 수 없다는 점이다. 항쟁전적비의 위치 역시 주 등산 진입로에서 벗어나 있어서 탐방객이 방문 목적으로 찾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가기는 어렵다.



〈그림 11〉 약수정 부근 대둔산 항쟁전적비 안내문

문제는 ②의 안내판이 설치된 위치이다. ②의 위치는 케이블카에서 내려 금강구름다리-삼선계단이 아닌 계곡 등산로에 있어서 서쪽으로

삼선계단이 보이는 위치이다. 이 지점에서는 대둔산 전적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 무의미하다. 따라서 ② 안내판은 제목도 맞지 않고 위치도 관계가 없으므로 철거하는 것이 맞다.

대둔산 전적지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마천대와 서각봉 방면 통신탑이 있는 인근에 안내문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대둔산을 찾는 사람이 마천대에 오르기 때문에 마천대에서 전적지 방향으로 위치 정보를 표시한 사진과 전적지 설명을 함께 설치하는 것이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장소를 고려할 때 간단한 설명문과 QR코드를 넣어 상세 정보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고려해 볼 수 있는 곳은 금강구름다리 위 조망대이다. 현재 조망대에는 산 모양의 철제 윤각만을 설치해 놓았는데, 서남쪽으로 형제봉과 전적지 조망이 가능하다. 이곳에는 위치 표시를 한 파노라마 안내문을 설치할 수 있다. 파노라마 안내문은 전적지뿐만 아니라 대둔산 기암괴석 봉우리의 이름도 함께 표시한다. 대둔산은 기암괴석의 봉우리로 ‘호남의 금강’ ‘작은 설악산’으로 불리는데 그 절경을 설명해 주는 장소는 없다.



〈그림 12〉 파노라마 안내문 사례(한려해상공원)

대둔산의 절경 소개는 대둔산 케이블카 내에도 부착할 필요가 있다. 짧은 시간이지만 탐방객은 케이블카 창 너머로 대둔산의 기암괴석을 감상한다. 이들 기암괴석의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대둔산 기암괴석의 라

인을 유리에 그려 넣고 이름을 붙여 놓는다면 대둔산을 이해하는 데 편리할 수 있다.

안내 문안의 작성 방향도 이야기 중심의 서술을 통해 탐방객의 이해를 높이고, 필요시 대둔산 최후항전에 참여했던 사람의 이름을 새겨 놓은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사람들에게 최후항전의 의미를 어떻게 기억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언제 어디서 무슨 전투가 있었다는 틀에 박힌 안내 문안보다는 전투의 의미를 설명하고 항전에 참여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전해질 때 그 기억을 오래갈 수 있기 때문이다.

2) 전망대 설치

2023년 10월 완주군 전북도의회와 완주군 의원 등이 대둔산 정상 부근에 항전지 전망대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²⁶⁾ 전망대의 설치는 적극적인 활용 방안의 하나이다. 전망대는 대둔산 전적지를 조망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탐방객의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적절한 위치는 마천대에서 서각봉 쪽 통신탑 인근이다.

다만 이 등산길은 폭이 좁아 설치 후 등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팔각정과 같은 일반적인 형태의 전망대는 지양해야 한다. 폭이 좁고 암반이 많아서 정자 형태의 전망대는 대둔산의 자연환경과 부조화할 수 있으므로 세련된 디자인을 고려해야 한다.

3) 전시관 및 휴게실 운영

대둔산 마천대 등산 1코스(주차장-느새골-동심바위-구름다리-마천대)에 폐쇄된 동심정 휴게소를 활용하여, 대둔산의 역사와 자연환경, 동

26) 「완주 대둔산 정상 부근에 동학농민군 항전지 전망대 조성 추진」, 『프레시안』, 2023년 10월 26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10261335386898>, 2025년 3월 20일 검색)

학농민혁명 항전에 대한 전시 공간 겸 휴게 공간을 조성한다. 2층 팔각 건물의 동심정 휴게소는 대둔산 전적지 발굴 조사 후 전적지를 거쳐 마천대나 서각봉, 비선폭포 방향으로 이어지는 등산 탐방로의 출발지로 활용할 수 있다. 전적지를 경유하는 대둔산 등산 코스는 개발되어 있지 않다. 전적지 정비를 끝낸 뒤 전적지를 경유하는 등산로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전시관은 전적지를 활용한 답사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유용한 사전학습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전시관의 구성은 대둔산 전적지만이 아니라 대둔산의 자연환경, 역사(동학농민혁명과 빨치산, 불교문화)가 함께 있어야 한다.

4) 대둔산 역사 탐방프로그램

역사적으로 대둔산은 답사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대둔산은 임진왜란, 동학농민혁명, 빨치산이라는 중요한 역사 현장이기도 하다.

동학농민혁명 최후 항전지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임진왜란 때 이치전투가 있었던 곳이다. 이치는 대둔산 동쪽 완주군과 금산군의 경계에 있는 고개이다. 이치전투는 웅치전투와 함께 전라도 방어의 중요한 전투 중의 하나이다.²⁷⁾ 이치 정상에는 이치전적비, 황진장군이치대첩비, 이치대첩유허비, 임란순국무명사백의병비 등이 세워져 있으며, 금산 방면으로 충남도 기념물인 금산이치대첩지가 있어 역사적인 교육장소로 이용 중이다.

한편, 대둔산 일원은 빨치산을 토벌하는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1950년 10월 초 조선노동당 충남도당 세력(북한군 제6사단 패잔병 포함)이 대둔산으로 들어가 논산군 양촌면에 지휘부를 설치하고

27) 하태규, 2007, 「임진왜란 초기 전라도 관군의 동향과 호남방어」, 『한일관계사연구』 26, 147~180쪽.

1천여 명의 병력으로 활동하였다. 1955년 1월까지 이들 빨치산을 소탕하기 위한 전투가 3백여 차례 있었고, 빨치산 2,287명 사살, 1,025명을 생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일련의 전투에서 의용경찰과 애국단원 1,376명이 전사하였다.²⁸⁾ 논산의 대둔산 입구에 대둔산 승전탑이 세워져 있다.

이러한 대둔산의 역사성은 ‘호국’의 키워드로 연결된다. 따라서 호국을 주제로 한 답사프로그램이 가능하다. 완주군 자체로는 웅치, 이치 등 임진왜란 전투를 중심으로 하는 코스와 삼례봉기, 고산전투, 대둔산 항전을 잇는 동학농민혁명 답사도 가능하다. 완주군 동학농민혁명 답사를 위해서는 답사지에 대한 기념화 작업이 필요하다. 삼례의 경우 삼례집회지와 다른 위치에 봉기탑 등이 건립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고산전투의 경우 위치를 설정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연결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가능하다. 완주, 금산, 논산을 잇는 코스는 임진왜란과 동학농민혁명 그리고 한국전쟁이라는 역사 현장 교육이 가능하다. 대둔산 일원은 한국 역사상 중요한 전투가 있었던 곳이다. 명승 경관에 담겨 있는 역사적 기억은 전투에서 이겼는지, 졌는지의 승패 문제가 아닌 평화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대둔산 일원의 답사 교육은 전쟁에서 평화로 이어질 때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

5) 콘텐츠 활용

대둔산 최후항전은 많은 이야기의 극적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전투이다. 엄동설한에 70일 동안 관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항전’하였다는 사실, 한 살쥔 되는 아이를 안고 뛰어 자결하였다는 동학계주 김석순의

28) 송현강, 2012, 「6·25전쟁기 강경경찰서 및 대둔산지구 전투 연구」, 『군사연구』 134, 육군군사연구소 ; 이윤정, 2020, 「한국전쟁 초기 전북지역 빨치산의 형성과 경찰 작전」, 『한국연구』 4, (재)한국연구원.

이야기나 단 1명만 살아남아 항전했던 사람들²⁹⁾을 기억할 수 있었던 사실과 일본군의 공격에 빈가마니를 뒤집어 쓰고 뛰어내려 살아남은 최공우가 술과 재물을 미끼로 관군을 물리쳤다는 것, 김공진을 통한 이간계로 농민군의 분열을 초래했다는 등 70일의 항전이었지만 인간의 희노애락을 담은 극적 요소들을 담고 있다.

최후 항전을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로는 이성수의 장편소설 『칠십일의 비밀』(2018, 고요아침) 뿐이다. 동학농민혁명군의 대둔산 최후항전 이야기를 주제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 ‘최후 항전’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되, 항전에 참여한 사람의 ‘인간애’와 항전을 지향했던 ‘새로운 세상의 빛’ 그리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겪어야 했던 갈등과 사랑, 농민군의 이야기를 대둔산이 가지고 있는 시공의 시간(임진왜란과 한국전쟁) 속에서 엮어내는 작가적 상상력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맺음말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는 동학농민혁명 최후항전지로 알려져 있다.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는 총 376개소로 조사되었고, 그중 전적지 64개소이다. 국가유산(사적)이 10개소와 시도지정 국가유산(기념물)은 5개소 등 15개소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장흥 석대들, 장성 황룡촌, 정읍 황토현, 공주 우금치, 홍천 서석, 완주 대둔산 등

29) 대둔산 최후 항전에 참여했던 인물은 “都禁察 崔鶴淵, 都執綱 張志弘, 都執綱 崔高錦, 都執行 李光儀, 都執行 李光宇, 大正 李是脫, 接司 趙漢鳳, 接主 金在醇, 接主 陳秀煥, 絞授 姜泰鍾 奉道 奎判童” 등이다. (『대둔산부근 전투상보(大菴山附近 戰鬪詳報)』 特務曹長 武內眞太郎, 1895.2.18.) 이들은 진산, 고산 일대의 동학군으로 추정될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가 필요하다.

6개소만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성으로 지정되었으며 나머지의 지정 이유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 없다. 동학농민혁명 전적지를 포함하여 유적지 명칭이 편의적으로 명명되었고 분류체계 역시 적합하지 않아서 전반적인 정리작업이 필요하다.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는 ‘최후항전지’로서 첫째 근거지를 구축하고 싸웠다는 점, 둘째 전적지의 유구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례라는 점, 셋째 관군(중앙, 지방), 민보군, 일본군 등이 모두 공격에 참전한 전투였다는 등의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전적지는 1999년 지표조사 실시 이후 보존 정비를 하지 않았다. 그동안 탐방객들에 의해 지표 유물과 초석 등이 이동하는 상황이 되었다.

전적지의 보존 정비를 위해서 먼저 발굴 조사 전까지 전적지를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통제에 따른 안내문과 홍보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적지 현장에는 더 이상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존 조치에 대한 안내문을 설치해야만 한다. 아울러 발굴 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최후항전과 전적지 일원에 관한 학술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최후항전을 벌인 동학농민혁명군에 관한 개별 연구와 연산, 진산, 고산 일대의 동학 조직에 관한 연구도 더 필요하다, 특히 항전에 필요한 지원 조직으로 안심사·태고사 등의 사찰과의 관련성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와 발굴 조사 결과를 토대 사적 지정을 추진한다.

발굴 조사 이전까지 전적지에 대한 활용 방안으로는 대둔산에 설치된 안내판을 정비한다. 특히 약수정 부근의 안내판은 전적지 현장과 무관한 곳으로 철거해야 하며, 추가로 전적지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다양한 형태의 안내 정보를 제공한다. 적극적으로는 전적지를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전망대를 설치한다. 전망대는 대둔산의 자연환경과 조화로우면서 모던한 형태를 고려한다. 그리고 폐쇄된 동심정 휴게소는 대둔산이 역사와 자연환경을 설명하는 전시관 겸 휴게소로 구성하여 향후 전적지 탐방로 개설이 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대둔산은 자연환경뿐 아니라 임진왜란, 동학농민혁명, 한국전쟁과 관련된 중요한 전투가 있었던 곳이다. 이러한 역사성을 토대로 다양한 답사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투고일 : 2025. 4. 9. 심사완료일 : 2025. 4. 27. 게재확정일 : 2025. 5. 10.

참고문헌

〈단행본〉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국가유산청.
「안심사사적비」.
원광대학교사학과 · 완주군, 1999.8.,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지표조사보고서』.
신용하, 1993, 『동학과 갑오농민전쟁』, 일조각.
문화재청, 2022,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 2022~2026』.
2024, 『완주 동학농민혁명의 새로운 모색』, 『완주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자료집』.

〈논문〉

- 姜孝淑, 2002, 「第2次東學農民戰爭と日清戰爭」 『歴史學研究』 762, 東京.
류오철, 2014, 「문화재 활용의 개념확장과 활용 유형 분류체계 구축」 『문화재』 47, 국립문화재연구소, 4~17쪽.
송현강, 2012, 「6·25전쟁기 강경경찰서 및 대둔산지구 전투 연구」, 『군사연구』 134, 육군군사연구소, 219~255쪽.
신순철, 2024, 「동학농민군의 대둔산 항쟁」, 『동학농민혁명 연구』 2, 291~319쪽.
이병규, 2002, 『錦山·珍山地域의 東學農民革命 研究』,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윤정, 2020, 「한국전쟁 초기 전북지역 빨치산의 형성과 경찰 작전」, 『한국연구』 4, (재)한국연구원, 171~203쪽.
하태규, 2007, 「임진왜란 초기 전라도 관군의 동향과 호남방어」, 『한일관계사연구』 26, 한일관계사학회, 147~180쪽.
홍성덕, 2015, 「전주시 역사문화자원의 활용과 도시재생」 『열상고전연구』 48, 열상고전연구회, 29~61쪽.

〈기타〉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www.heritage.go.kr)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www.1894.or.kr)
「완주 대둔산 정상 부근에 동학농민군 항전지 전망대 조성 추진」, 『프레시안』, 2023.10.26.

〈Abstract〉

A Strategic Approach to th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Site in Mt. Daedun, Wanju

Hong, Seongduk*

The battle site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Daedunsan, Wanju, holds historical significance as the location of the final resistance of the movement. The specific site was identified through a surface survey conducted in 1999 and was designated as a cultural monument of Jeollabuk-do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2015. However, since the erection of the Daedunsan Battle Monument and installation of an informational sign in 2001, no concrete measures for preservation or utilization have been implemented.

The preservation and maintenance of the site should begin with restricting access to protect the area. Physical changes caused by visitors have been observed, so access should be prohibited until an excavation survey is completed, with proper signage to inform the public. It is necessary to conduct the excavation as soon as possible, along with individual studies on participants of the battle and research on Donghak organizations in the Daedunsan area. Additionally,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possible connections with Buddhist temples in the region. Based on these research outcomes, efforts should be made to pursue its designation as a national historic site.

* Professor, Dept. History&Contents of Jeonju University.

Until the site is elevated to the status of a National Heritage Historic Site, existing signs on Daedunsan should be reviewed, removed, and replaced with new ones. Active utilization strategies, such as establishing an observatory, should also be considered. Beyond its natural environment, Daedunsan is historically significant as the location of major battles during the Imjin War,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the Korean War. Therefore, educational tour programs that connect these events can also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Key word : Donghak Peasant Revolution, Daedunsan in Wanjū, Battle sit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Historic site

서 평

농민전쟁을 넘어 어셈블리로
- 『1894년 남북접 동학군의 공주 점거투쟁』(지수걸, 2024, 역사비평사) -
유바다

농민전쟁을 넘어 어셈블리로
- 『1894년 남북접 동학군의 공주 점거투쟁』
(지수걸, 2024, 역사비평사) -

유바다*

〈목 차〉

- I. 농민전쟁론에 입각한 연구의 정착과 최근 부진에 빠진 연구 현황
- II. 일제하 “혁명적 농민조합운동” 연구자의 1894년 都會, 즉 어셈블리에 대한 추적 과정
- III. 동학군의 전투 행위가 아닌 정치적 담판을 위한 “공주 점거투쟁”의 역사적 의미
- IV. 자료 및 이론 활용의 한계와 연구사적 의의

**I. 농민전쟁론에 입각한 연구의 정착과 최근 부진에
빠진 연구 현황**

1894년 일어난 동학농민군의 봉기를 두고 한국 학계가 “농민전쟁”

*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부교수

으로 정립한지는 꽤 되었다. 프리드리히 엥겔스(Friedrich Engels)가 1848년 혁명의 실패를 뒤로 하고 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1850년 서술한 『독일농민전쟁(Der deutsche Bauernkrieg)』에 입각하여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조선 내부의 계급투쟁적 항쟁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중세 봉건제 시대에서 근대 자본주의 시대로 나아가는 한국사의 역사발전 단계를 증명하는 정점에 “농민전쟁” 연구가 있었다.

북한에서는 일찍이 박태원의 역사소설 『갑오농민전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갑오농민전쟁”으로 명명하였으며, 1994년 『갑오농민전쟁 100돐 기념논문집』이 출간된 바 있다. 한국에서도 鄭昌烈의 『甲午農民戰爭研究』(1991,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을 시작으로 申榮祐의 『甲午農民戰爭과 嶺南 保守勢力의 對應』(1992,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裴亢燮의 『東學農民戰爭 研究』(1996,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李眞榮의 『東學農民戰爭과 全羅道 泰仁縣의 在地土族』(1996, 전북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에 이르기까지 동학 100주년을 맞이하여 작성된 각종 박사학위논문에서 농민전쟁론이 우위를 점하였다. 같은 시기 慎鏞廈는 『東學과 甲午農民戰爭研究』(1993, 一潮閣)를, 金洋植도 『근대한국 사회변동과 농민전쟁』(1996, 신서원)을 저술하였으며, 역사문제연구소에서는 소장 李離和를 중심으로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1996, 史芸研究所) 전 30권을 편찬하였다. 한국역사연구회에서도 『1894년 농민전쟁 연구』(1992~1997, 역사비평사) 전5권의 연구서를 출간하였고 역사학연구소는 『농민전쟁 100년의 인식과 쟁점』(1994, 거름)을 펴냈다. 농민전쟁론이 압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갑자기 연구가 부진에 빠졌다. 더 이상 농민전쟁론에 입각한 학위논문이나 연구서를 찾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현상은 2004년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고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설치되는 한편 2010년 특별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세워지고 동학농민혁명 사료 아카이브 전자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연구 여건이 나아질수록 심화되었

다. 특별법이 제정되는 과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이 법제화되면서 이병규가 『錦山·珍山地域의 東學農民革命 研究』(2003, 원광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을 저술하였을 뿐 한동안 관련 학위논문이나 연구서가 잘 나타나지 않았다.

종합연구서로는 박맹수의 『개벽의 꿈, 동아시아를 깨우다 : 동학농민혁명과 제국 일본』(2011, 모시는사람들), 이영호의 『동학사상과 조선 농민혁명전쟁』(2016, 동인통문), 성주현의 『동학과 동학농민혁명』(2019, 선인)이 거의 마지막이며, 박사학위논문으로는 신진희의 『경상도 북부지역 ‘반동학농민군’ 연구』(2016, 안동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장수덕의 『內浦地域 東學農民戰爭 研究』(2020, 공주대학교 역사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정선원의 『동학농민혁명 시기 공주전투 연구』(2023, 원광대학교 불교학과 박사학위논문) 정도를 들 수 있다.

전반적으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으로 지칭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기존의 농민전쟁론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엥겔스는 『독일농민전쟁』의 첫머리에서부터 “독일민족에게 혁명적 전통이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면서 1525년의 독일농민전쟁을 1848년 혁명과 비교하는 서술 방식을 택하였다. 1848년의 혁명을 설명하기 위하여 1525년의 독일농민전쟁을 소환하였기에 저작이 『독일농민전쟁』이 되었을 뿐 엥겔스는 독일농민전쟁을 혁명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농민혁명론 또한 농민전쟁론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연구 시각의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농민혁명론으로의 심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농민전쟁론-농민혁명론의 심화가 한국 학계를 압도한 탓인지 새로운 시각에 입각한 연구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관련 연구의 부진은 농민전쟁론이 일방적인 우위를 점한 경향에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더 이상 새로운 시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지 않은 탓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II. 일제하 “혁명적 농민조합운동” 연구자의 1894년 都會, 즉 어셈블리에 대한 추적 과정

이러한 가운데 최근 “남접·호남 중심 농민전쟁론 넘어서기” 답론을 제시한 연구서가 발간되어 주목된다. 『1894년 남북접 동학군의 공주 점거투쟁』이라는 제목으로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명예교수로 재직 중인 지수걸이 작성하였다. 저자는 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이사를 맡을 역임하기도 하였는데 특이한 것은 일제시대 사회자 전공자라는 점이다. 1910년 이전 한국근대사 전공자 가운데 동학농민군 관련 신규 박사학위논문 작성자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고, 연구서 또한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환경에서 일제시대 전공자가 이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저자는 자신의 연구 초창기부터 일제시대 농촌진흥운동을 주제로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하여 『일제하 농민조합운동 연구 : 1930년대 혁명적 농민조합운동』(1993, 역사비평사)을 펴낸 한국 근대 사회운동사 연구의 획을 그은 걸출한 연구자이다. 이를 통해 일제하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이 좌편향에 매몰되거나 고립된 부문운동에 그치지 않고 전체 민족해방운동에 이바지하는 운동이었음을 밝히고 해방 이후 전개된 인민위원회 운동과 농민위원회 운동의 주요 역량이 되었음을 강조함으로써 농민을 한국 근현대 사회발전의 주체로서 전면에 내세운 바 있다. 한국 근현대를 관통하는 농민 본위의 역사 서술의 모범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일제시대 사회자 전공자이지만 결국은 왜 1894년 동학농민군의 활동으로 연구 시야를 확대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일제시대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을 이끌었던 농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이미 그보다 이전인 조선시대 말기에 일어났던 1894년의 봉기라는 경험에 토대를 두고 활동했을 것이라는 저자의

판단이 바로 이 연구에 뛰어들게 한 직접적인 동기라는 생각이 든다.

이와 함께 오랫동안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지역사회에서 공주 지역 동학농민군 활동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고 2010년부터는 장기간 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실제로 지역 기념사업의 추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부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기본계획』 집필에 참여하고 2006년에도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기념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기념사업에 대한 관심은 연구로도 이어져 2015년부터는 다음과 같이 공주 지역 본위의 동학농민군 관련 서술 및 시론을 작성하였다.

2015, 「1894년 공주대회전 시기의 ‘공주 확거 고수 전술’과 ‘호서도회’ 개최 계획」, 『역사문제연구』 33

2015, 「국가의 역사독점과 민중기억의 유실-‘우금티 도회(都會)’를 제안한다」, 『역사비평』 110

여기서 주목해야 할 주제는 都會다. 이를 통해 동학농민군 지도부가 京師直向을 하기 위하여 공주를 돌파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공주에서 湖西都會를 열고 일종의 정치협상을 시도하고자 하였음을 주장하였다. 1980년의 “광주 시민군”이 일종의 “무장시위대”적 성격이 강했듯이 동학농민군 또한 전투 혹은 전쟁을 지향한 “혁명군”이라기보다는 유교적 역사관에 기초한 민중적 담론이자 실천일 뿐이라고 함으로써, 기존의 혁명주의적 농민전쟁론을 전면적으로 비판하였다. 엥겔스가 의도한 혁명적 전통으로서의 독일농민전쟁, 그리고 이를 투영하여 “근대”나 “진보”라는 개념으로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설명하고자 하였던 기존의 농민전쟁론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동학농민군이 서울을 점령하기 위하여 공주 우금티를 돌파하려

고 전투를 시도하다가 일본군과 관군에게 격파되어 해산하였다는 기존 농민전쟁론에 입각한 서술을 비판하고 남접·호남 중심의 동학농민군뿐만 아니라 북접 동학교단에 가까운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던 호서 지역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전투를 의도하기보다는 都會을 열어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근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와 마이클 하트(Michael Hardt)가 21세기 새로운 민주주의의 질서 구성을 위하여 내어놓은 어셈블리(Assembly) 이론(이승준, 정유진 옮김, 2020, 『어셈블리』, 알렙)을 활용하여 1894년 공주에서의 사건이 군사적 전투라기보다는 都會, 즉 집회(Assembly) 내지 점거(Occupy) 투쟁이며 이러한 현상은 1892년 말 공주 및 삼례에서의 도회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어셈블리(Assembly)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를 의미하며, 네그리 등의 설명에 따르면 21세기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집회, 이를테면 아랍의 봄, 한국 촛불집회, 홍콩 우산혁명에서 이루어지는 집회들이 중앙 집중화된 리더십을 해체하고 지도부가 아닌 다중에 전략을 수립하여 21세기 새로운 민주주의의 질서를 구성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1894년 공주에서의 점거 투쟁은 엥겔스가 말한 농민전쟁론의 증명을 위한 군사적 전투라기 보다는 1892년 집회로부터 비롯된 새로운 질서 구축을 위한 정치투쟁이었다는 것이 바로 저자의 결론이다. 더욱 부연하자면 저자는 농민전쟁에 따르면 남북접 “동학군”의 공주 점거투쟁은 객관조건이나 주체역량이 미숙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지만, 19세기 후반 조선의 정치 문화를 반영한 도회이자 의거였다는 관점에서 보면 조선왕조 역사의 큰 흐름을 뒤바꾼 대파국의 서막, 즉 길게 보면 결국은 승리한 투쟁이었음을 강조하였다. 분명히 기존의 농민전쟁론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분석을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Ⅲ. 동학군의 전투 행위가 아닌 정치적 담판을 위한 “공주 점거투쟁”의 역사적 의미

다소 지리할 수 있지만 『1894년 남북접 동학군의 공주 점거 투쟁-남
접·호남중심 농민전쟁론 넘어서기』의 목차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서론

1부 공주 점거투쟁의 배경

제1장 갑오변란 이후 시기 일본과 갑오정권의 동학군 탄압 정책

1.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동학군 탄압 정책
2. 갑오정권의 동학군 대책과 양호순무영 설치
3. 충청감영의 수성책(守城策)과 동학군 탄압 활동

제2장 공주 점거투쟁 전후 시기 공주(호서)의 지역 사정과 동학군 활동

1. 감영도시 공주의 지정학적 특성과 동학 교세
2. 공주 지역 동학군의 도회·의거 투쟁
3. 공주(호서) 지역 동학군과 유회군의 항일연대 활동

2부 공주 점거투쟁의 전개 양상

제1장 남북접 연대의 성사와 공주 점거투쟁 합의

1. 동학군의 2차 봉기와 남북접 연대의 성사
2. 남북접 지도부가 합의한 공동투쟁의 목표와 방법

제2장 공주 점거투쟁의 시기별 추이

1. 남북접 동학군의 공주 진출과 일본군 및 관군 동향
2. 공주 1차 투쟁: 이인·대교·효포싸움
3. 공주 2차 투쟁: 우금티·청주성싸움
4. 남북접 동학군의 호남 퇴각과 근거지 사수투쟁

제3장 남북접 동학군의 해산과 집단학살

1. 남북접 동학군의 해산과 귀향
2. 관군 및 민보군의 동학군 색출과 집단학살

제4장 항일연대의 실패와 호서 유생들의 반동학군 활동

1. 공주 점거투쟁 시기 지역주민 동향
2. 동학군의 항일연대론에 대한 지방수령 및 관군의 반응
3. 공주 점거투쟁 시기 호서 유생들의 반동학군 활동

3부 공주 점거투쟁의 성격과 의미

제1장 동학군의 집단정체성 재론

1. ‘농민군’인가, ‘동학군’인가?
2. 시위대인가, 혁명군인가?
3. 일본 측 자료를 통해 본 동학군의 집단정체성

제2장 1894년 어셈블리와 19세기 후반의 도회·의거 문화

1. 19세기 후반 조선의 도회·의거 문화
2. 교조신원운동과 도회·의거 투쟁의 활성화
3. 1894년 어셈블리와 도회·의거 문화의 상관성
4. 공주 점거투쟁 시기의 패거/의거 논쟁

결론

보듯이 농민전쟁론에 따라 통상 공주 우금치 전투로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제목과 목차를 통하여 “공주 점거투쟁”으로 표현하였다. 다음으로 또한 기존 농민전쟁론에 의거한 “동학농민군”이 아닌 “동학군”이라는 표현이 주목된다. 저자에 따르면 이들은 난리굿(판)을 벌인 비적(폭도)도 아니고 내전(전쟁)에 참여한 인민혁명군(군대·병사)도 아니었다. 이는 이들을 비적(폭도)로 규정하기 위한, 즉 군대를 동원한 집단학살 사건을 군인(군대) 간의 전투로 호도하기 위한 일본군 내지 관군

의 정치적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군대와 군인(병사)이 아니라 점주들의 통제와 인솔 가운데 都會에 참여한 집회시위 군중일 뿐이기에 “동학군”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여기에서의 동학군의 軍은 農軍(농사꾼), 樵軍(나뭇꾼) 등처럼 특정 집단이나 결사 혹은 무리(꾼)를 뜻한다고 한다.

저자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1부 제1장에서는 공주 점거투쟁의 배경으로 1894년 6월 일어난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즉 갑오변란을 먼저 내세웠다. 기존의 남접·호남 중심의 농민전쟁론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아무리 늦어도 1894년 3월 무장기포를 첫 시점으로 내세우는데 반하여 이 연구는 1894년 6월 갑오변란을 첫 대목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1부 제2장에서도 호남 지역의 동학농민군의 활동보다는 공주 점거투쟁의 배경으로서 공주 및 호서 지역의 都會 활동을 주로 소개하였다.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공주 점거투쟁이 이루어지는 경과를 다루었다. 2부 제1장에서는 남접 중심의 삼례 재기포보다는 북접 교단을 중심으로 한 최시형의 1894년 9월 18일 기포령을 중심으로 2차 봉기를 서술하였다. 저자에 따르면 이때만 하더라도 최시형은 남접 전봉준과 협력을 도모하기보다는 이들을 토벌의 대상으로 상정하였고 전봉준에게 “폭거중지 혁심개도” 유시를 전한 이후에야 이를 전제로 남북접 연대를 성사시켰다. 그리고 이때부터도 전봉준도 공주를 돌파하여 서울로 올라가기보다는 공주에서 점거투쟁을 전개하여 일본군이 범궐한 연유를 힐문하는 정치적 담판을 목표로 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1894년 10월 이후 공주 지역에서 전개되는 동학군의 활동은 농민전쟁을 벌인다기보다는 정치적 담판을 위한 점거투쟁의 성격이 더욱 강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2부 제2장에서 서술한 공주 1차 투쟁, 즉 이인·대교·효포싸움과 공주 2차 투쟁, 즉 우금티·청주성싸움은 모두 점거투쟁의 일환으로 다루어졌다.

이를테면 공주 1차 투쟁 당시 효포싸움에서도 동학군은 흥개를 씌운

큰 가마를 등장시켜 본격적인 공성전을 의도하였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위세를 과시하는 행진 시위를 기획하였다고 한다. 평화적인 행진을 벌이는 동학군을 향해 일본군과 관군이 집단 발포를 하여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이들이 전투가 아니라 어셈블리, 즉 집회, 都會를 추구하였음을 말해주는 대목으로 설명되었다.

공주 1차 투쟁의 실패 이후에는 전봉준도 “폭거중지 유심개도” 유시에 따라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북접 교단 측의 손병희도 南伐旗를 꺾고 우금티싸움을 함께 수행하기에 이르렀다는 서술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우금티싸움 또한 적극적인 전투 수행이라기보다는 부득이했던 결사전에 불과하였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동학군은 본격적인 공세를 시작하기 전날 밤부터도 전투보다는 공주 분지를 둘러싸고 산상거화 투쟁에 주력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학군 지도부는 우금티싸움 당시에도 희생자를 최소화하면서도 시위 효과를 최대화하는 전술을 구사하였지 실제로 희생자는 1,000여 명을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자는 추론하였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우금티싸움 이후 일본군과 관군에 의하여 이루어진 동학군에 대한 탄압과 학살이 이해될 수 있다. 2부 제3장에 따르면 동학군은 인의와 민본의 실천을 都會, 즉 어셈블리를 통하여 요구하는 의군이었기 때문에 자진해산 이후에도 별다른 전투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일본군과 관군은 이들을 비류나 잔적으로 규정하여 잔인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래서 동학군 중에는 전투 과정에서 총칼을 들고 싸우다 죽은 사람들보다는 귀향하다가 혹은 집에 가서 붙잡혀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던 것이다. 3부에서도 보이듯이 기존 동학농민군 최후의 항전이라고 일컫는 북실전투 혹은 대둔산전투도 전투라기보다는 전투 의지가 없는 자진해산한 동학군에 대한 일본군과 관군의 집단학살 사건으로 규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3부 제1장을 통하여 1894년 어셈블리의 주체를 두고 기존 농민전쟁론에 입각한 농민군이라기보다는 동학도로서의 정

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동학군”이었고 마찬가지로 혁명군이라기보다는 “시위대”적 성격이 더 강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3부 제2장에 의하면 이러한 전통은 1894년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멀리서 1862년 임술민란 당시 결성된 都會, 의거의 전통, 즉 어셈블리 결성의 전통이 1892~1893년 간 동학교도들의 공주도회, 보은도회를 통하여 다시금 분출되었으며 그것이 1894년 공주 점거투쟁에서 극대화되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그리고 이때 뿌리를 내린 전통이 1919년 어셈블리, 즉 3·1운동으로 이어지고 가까이는 1960년 어셈블리, 즉 4·19혁명으로 이어진 점을 강조하여 저자 자신이 연구하였던 일제하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이 한국근현대사 전개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를 은연중에 나타내면서 글을 맺었다.

IV. 자료 및 이론 활용의 한계와 연구사적 의의

1894년 당시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두고 농민전쟁일수 없으며 정치적 담판을 위한 都會, 혹은 집회, 즉 어셈블리 결성을 통한 “점거투쟁”이었기에 동학농민군도 아닌 “동학군”으로 불러야 한다는 저자의 문제의식은 그 당시의 자료 및 이후 천도교 계열 교단의 자료 등이 폭넓게 활용되면서 상당 부분 증명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당시의 사건을 이해하여야 1960년까지 이어져 내려온 조선후기 이래 한국인들이 추구하고자 하였던 어셈블리의 전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 구성을 전망할 수 있다는 저자의 촉구 또한 공감 가는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구체적인 활용과 이론의 구사 과정에서 몇 가지 더욱 생각해 볼 사안이 보이기에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전봉준공초』에 보이는 전봉준의 인식에 대한 문제다. 농민전쟁이 아닌 점거투쟁으로서의 동학군 활동을 드러내고자 한 문제의식의

단초는 저자도 인용한 다음의 자료에서 나타난다.

공주(忠淸監營=都會之處)를 전격적으로 점거한 뒤, 의려(義旅)를 규합(糾合)하여 농성전을 벌이며(確據·固守, 相持하며), 일본군에게 격(檄: 大義布告)을 전하여 정치담판(請問·詰問)을 벌이려 했다.

이 자료의 원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其後에 聞흔직 貴國이 開化라 稱하고 自初로 一言半辭도 民間에 傳布함이 無하고 또 檄書도 업시 率兵하고 우리 都城에 入하야 夜半에 王宮을 破擊하야 主上을 驚動하엿히기로 草野의 士民더리 忠君愛國之心으로 慷慨함을 不勝하야 義旅를 糾合하야 日人과 接戰하야 此事實을 一次 請問코져 ㅎ니이다 …… 其後에 思量흔즉 公州監營 山阻하고 河을 帶하야 地理가 形勝흔 故로 此地을 雄據하야 固守함을 謀흔즉 日兵이 容易히 擊拔치 못홀로 公州에 入하야 日兵의거 檄을 傳하야 相持코자 하야더나니

물론 저자의 설명대로 전봉준은 義旅를 규합하여 공주감영에 웅거한 후 일본군에 격문을 전하여 왕궁 격파를 請問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문이 저자가 표현한대로 정치담판을 의미하는지는 이 자료만 봐서는 잘 알 수가 없다. 다음으로 공주감영 입성 자체가 적어도 관군과의 충돌을 필연적으로 야기하는 전투 행위이며,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군의 왕궁 격파를 청문할뿐만 아니라 공주에서도 분명히 일본군을 상대할 의지를 내비쳤다. 애초부터 전봉준이 자신의 집단을 義旅라고 표현한 것은 군사적 성격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결국 일본인과 接戰하고 왕궁 격파를 1차 청문하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행위가 전투 행위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농민전쟁론을 비판하기 위하여 당시 전봉준의 목표가 전투 행위가 아닌 정치담판에 있었다는 저자의 설명은 아직까지는 쉽게 수증하기가 어렵다.

호남 동학군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저자도 표현하였듯이 이들은

삼례 재기포 당시에든 구병입경이나 기병부경을 호언하며 식량과 무기를 모아들였다. 효포싸움 당시 이루어진 거화투쟁이라던가 흥개를 씌운 큰 가마를 등장시켜 자신들의 위세를 과시하는 행진 시위를 한 사실도 당시 무장력이 빈약하였던 농민군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전형적인 전술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남북접지도 부가 공식적으로 해산을 선언한 뒤에 벌어진 각종 충돌 사건은 어디까지나 전투 행위 중에 벌어진 것으로서, 일본군과 관군의 비무장집단에 대한 일방적인 집단학살이라고만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둘째, 저자는 전봉준도 북접 동학교단 최시형의 “폭거중지 유심개도” 유시에 따라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교단 측의 손병희도 우금티싸움을 함께 수행하였다고 서술하였다. 『시천교종역사』 및 『천도교회사초고』에 나타나는 다음의 기록을 근거로 내세웠다.

전봉준이 慨然히 탄식하며 말하길 “봉준은 師門의 徒弟가 되어 도를 어지럽히고 법을 어지럽혔으니 곧 사문의 죄인이요, 官倉에서 곡식을 꺼내고 官倉을 살해하였으니 국가의 죄인이요, 백성들의 재물과 곡식을 빼앗았으니 국민의 죄인이다. 한번 죽어 속죄하는 것은 본래 달갑게 마음먹었던 바다. 오직 원하건대, 제군들은 선후책을 더욱 강구하여 선사의 원통을 씻어드리고 생민의 상처를 구료할 것을 기하도록 하자.”(『시천교종역사』) …… 손병희가 각포두령에게 謂하야 왈 전봉준이 이미 悔改하였으니 伐南接의 旗號를 改하노라 하고, 更히 척왜양창의기를 建하다.
(『천도교회사초고』)

위의 기록은 전봉준을 비롯한 호남 지역의 남접 세력을 불신하였던 동학교단을 모태로 한 후계 교단의 자료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1894년 당시의 그 어떤 기록에도 나타나지 않는 내용이기엔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전봉준이 그동안 師門, 즉 교단에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였다는 서술은 기존 연구를 통하여 알려진 통상적인 전봉준의 면모와도 일치하지 않거니와, 어디까지나 교단이 우위에 있었음을 강조

하는 교단의 입장만이 반영된 서술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온당할 것이다. 더욱이 “국가의 죄인”, 그리고 “국민의 죄인”이라는 표현은 1894년 당시에는 잘 사용되지 않은 근대적 어휘로 구성된 것이기에, 역시 당시의 기록이라기보다는 후대에 동학교단의 후계 교단에서 기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기록을 토대로 전봉준도 동학교단에 귀의 하여 전쟁보다는 점거투쟁을 기도했다는 저자의 입론 역시 보다 더 폭 넓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21세기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 구성을 위하여 내어놓은 어셈블리 이론을 1894년의 사건에 역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다분히 20세기 후반부터 이루어진 현대적인 현상과 사건, 이에 대한 이론적 분석 틀을 이용하여 중세 말기를 분석할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21세기에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를 구성하고자 하는 『어셈블리』의 문제의식에 비추어 볼 때 동학농민군이 마치 민주주의 질서를 지향하였다고 서술하기도 사실은 매우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어셈블리는 비단 오늘날에만 통용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Assembly 그 자체는 집회를 의미하며 이것은 서구 세계에서 근대 이전에도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789년 프랑스혁명 과정에서 부르주아들이 기존의 삼부회를 대체하여 프랑스 국민의회(Assemblée nationale)를 조직한 사실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인지 저자도 보은도회 주체들이 여러 나라의 사례를 들어 “민회”를 자칭한 점을 기술하였다. 그렇다면 오히려 21세기 민주주의 질서 구성을 위한 어셈블리보다는 중세 말 근대 초로 넘어가는 시기에 있었던 동서양의 어셈블리를 깊이 있게 추적하는 것이 더욱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동학군의 도회가 왕조체제를 부정하는 주권재민 의식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거듭된 어셈블리, 점거 투쟁의 전개 과정에서 민중세계 내부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조선왕조 사회의 통치체제나 지배이데올로기가 해체되면서 역사의 흐름 자체가 크

게 바뀐 “대파국”이 시작되었다는 저자의 결론은 긍정할만 하다. 21세기형 어셈블리 이론을 도입하여 19세기말 당시를 설명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이 보이고, 동학교단에서 생산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존의 이해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서술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기존의 농민전쟁론에 입각한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동학농민군 활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 점에서 이 저서의 연구사적 의의는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부 록

연구소 소식

위원회 명단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발간 규칙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윤리 규칙

연구소 발간 자료

연구소 소식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출범

- 출범일자 : 2023. 4. 1.
- 연구소장 : 신영우(충북대 명예교수)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 등재일자 : 2023. 5. 24.
- 등재대상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185건

□ 연구소 개소 및 현판식 개최

- 일시 : 2023. 6. 29.(목) 11:00
- 장소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입구
- 참석 : 이사장, 연구소장 및 운영위원, 재단 직원 등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일시 : 2023. 6. 29.(목) 11:30
- 장소 : 연구소 회의실
- 참석 : 신영우 위원장(연구소장) 등 위원 12명
- 내용 : 경과보고 및 향후 추진 사업 논의 등

□ 동학농민혁명 신진연구자 워크숍 발표회 개최

- 시간 : 2023. 6. 29.(목) 14:00 ~ 18:00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중회의실
- 주제 : 동학농민혁명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식 개최

- 일시 : 2023. 8. 29.(화) 10:30 ~ 12:00
- 장소 : 동학농민혁명박물관 앞
- 내용 : 등재 인증서 전달,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 축하공연 등
- 참석 : 이경훈(문화재청 차장), 신순철(재단 이사장), 임상규(전북부지사), 이학수(정읍시장) 주영채(유족회장) 등 200여명

□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23. 8. 29.(화) 14:30 ~ 18:00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중회의실
- 주제 :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세계화

□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5 발간

- 발간일자 : 2023. 8. 30.
- 수록자료
 - 갑오조선내란시말(甲午朝鮮內亂始末)
 - 천우협(天佑俠)
 - 남정여록(南征餘祿)
 - 동학당시찰일기(東學黨視察日記)
 - 일청교전록(日淸交戰錄)
 - 일청전쟁실기(日淸戰爭實記)

□ 부안군 연계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23. 10. 26.(목) 11:00 ~ 18:00
- 장소 :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
- 주최 : 부안군
- 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부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주제 : 홍재일기(1866~1911)로 본 격동기 조선사회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재인식

□ 정읍시 연계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23. 11. 3.(금) 14:00~18:00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대강당
- 주최 : 정읍시
- 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 주제 : 만석보 위치고증과 활용방안 모색

□ 고창군 연계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23. 11. 15.(수) 14:00~18:00
- 장소 : 고창 고인돌박물관 입체영상실
- 주최 : 고창군
- 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주제 : 고창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새로운 이해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일시 : 2023. 11. 23.(목) 16:00
- 장소 : 연구소 회의실
- 참석 : 신영우 위원장(연구소장) 등 위원 6명
- 내용 : 24년 주요 사업 계획 보고 및 논의

□ 군산시 연계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23. 11. 25.(토) 14:00 ~ 17:30
- 장소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장미공연장
- 주최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군산근대역사박물관
- 주제 :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재조명

□ 장흥군 연계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23. 11. 29.(수) 14:00 ~ 18:00
- 장소 :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 주최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주관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후원 : 장흥군
- 주제 :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 동학농민혁명 학술지 창간

- 제호 : 동학농민혁명 연구
- 창간호 발간일 : 2023. 11. 30.

□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경과보고서 발간

- 발간일자 : 2023. 12. 15.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일시 : 2024. 1. 30.(화) 14:00
- 장소 : 연구소 회의실
- 참석 : 신영우 위원장(연구소장) 등 위원 10명
- 내용 : 24년 주요 사업 계획 보고 및 현안 논의 등

□ 연구비 기부

- 기부자 : 이만열(전 국사편찬위원장, 전 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위원장)
- 기부액 : 2,000만원(정읍동학농민혁명 대상 수상금)
- 용도지정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연구비
- 일시 : 2024. 5. 11.(토) 17:30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녹두학당

□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 제2호 발간

- 발간일 : 2024. 5. 31.

□ 동학농민혁명 신진연구자 워크숍 발표회 개최

- 시간 : 2024. 6. 27.(목)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중회의실

□ 2024 정읍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24. 7. 11.(목) 13:30~18:00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대강당
- 주최 : 정읍시
- 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 주제 : 유족 증언을 통해 본 동학농민군의 삶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과 서훈 학술대회(국회토론회)

- 일시 : 2024. 8. 13.(화) 14:00 ~ 18:00
- 장소 : 국회 제3세미나실
- 주제 : 항일독립운동 기점 정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 주최 : (국회의원) 윤준병 의원실
- 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경남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
- 후원 :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 2024 인제 동학사상과 동경대전 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24. 8. 19.(월) 13:50~18:00
- 장소 : 인제 기적의 도서관
- 주최 : 인제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주관 : 인제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주제 : 인제, 동학정신에서 동학농민혁명으로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과 서훈 추진 워크숍

- 일시 : 2024. 8. 29.(목) 16:00 ~ 18:00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중회의실(전북 정읍)
- 주제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과 서훈 추진 방안 모색

□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6 발간

- 발간일자 : 2024. 8. 30.
- 수록자료
 - 비서류찬 조선교섭자료(祕書類纂 朝鮮交涉資料)
 - 일청전쟁 기간의 제국 주차부대의 행동(日淸戰役間ニ於ケル帝國駐劄部隊ノ行動)
 - 내란실기 조선 사건(內亂實記朝鮮事件)
 - 조선폭동실기(朝鮮暴動實記)
 - 동아선각지사기전(東亞先覺志士記傳)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24. 9. 11.(수) ~ 9. 12.(목)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대강당
- 주최 : 국가유산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주제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를 바라보다

□ 청일전쟁·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국제학술회의 개최

- 일시 : 2024. 10. 15.(화) ~ 10. 16.(수)
- 장소 : 동북아역사재단 11층 대회의실
- 주최 : 동북아역사재단,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주관 : 동북아역사재단 한중연구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 주제 : 청일전쟁·동학농민혁명 연구의 새로운 접근

□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남원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24. 10. 23.(수) 14:00~18:00
- 장소 :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강당
- 주최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주관 : 남원문화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후원 :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주제 : 대동세상을 꿈꾼 남원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세계기록유산

□ 완주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24. 10. 30.(수) 14:00~18:00
- 장소 : 완주 향토예술문화회관(2층 공연장)
- 주최 : 완주군,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 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 주제 : 완주 동학농민혁명의 새로운 모색

□ 고창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24. 11. 15.(금) 11:00~17:00
- 장소 : 고창 청소년수련관 청소년극장
- 주최 : 고창군
- 주관 :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 주제 : 새롭게 밝혀진 동학농민군의 지역별 활동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 일시 : 2024. 11. 22.(금) 16:00
- 장소 : 연구소 회의실
- 참석 : 신영우 위원장(연구소장) 등 위원 12명
- 내용 : 24년 연구조사 사업 실적 및 25년 주요 사업 논의

□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 제3호 발간

- 발간일 : 2024. 11. 30.

□ 동학농민혁명 저작비평회 개최

- 일시 : 2025. 2. 11.(화) 15:00~18:00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중회의실
- 주최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 저작물 : 지수걸(공주대 명예 교수), 2024, 『1894년 남북접 동학군의 공주 점거투쟁』, 역사비평사.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운영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 일시 : 2025. 2. 11(화) 14:00
- 장소 : 연구소 회의실
- 참석 : 신영우 위원장(연구소장) 등 위원 10명
- 내용 : 25년 주요 사업 계획 보고 및 현안 논의 등

□ 제2대 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 취임

- 취임일자 : 2025. 4. 1.
- 연구소장 : 김양식(전 청주대 교수)

□ 연구비 기부

- 기부자 : 신영우 (전 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 충북대 명예교수)
- 기부액 : 1,000만원(고창 녹두 대상 수상금)
- 용도지정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연구비
- 일시 : 2025. 4. 25(금) 15:00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녹두학당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_왕현종(연세대 교수, 한국근대사)

편집위원 _배향섭(성균관대 교수, 한국근대사)

_강윤정(안동대 교수, 한국근대사)

_남기현(한국방송통신대 교수, 한국근대사)

_김창수(전남대 교수, 한국근세사)

_박정민(전북대 교수, 한국근세사)

_유바다(고려대 교수, 한국근대사)

_민회수(홍익대 교수, 한국근대사)

편집위원 _이병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동학농민혁명)
(당연직)

편집간사 _오진경(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 주임)
(당연직)

윤리위원회

윤리위원장 _왕현중(연세대 교수, 한국근대사)

윤리위원 _배항섭(성균관대 교수, 한국근대사)

_조재곤(서강대 연구교수, 한국근대사)

_유바다(고려대 교수, 한국근대사)

윤리위원 _이병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동학농민혁명)
(당연직)

윤리간사 _오진경(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 주임)
(당연직)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발간 규칙

제정 2023. 9. 26.

개정 2024. 2. 23.

개정 2024. 8. 14.

개정 2025. 3. 2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는 국문으로는 『동학농민혁명 연구』, 영문으로는 『Journal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이라고 표기한다. 〈개정 2024. 2. 23.〉

제2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의 학술지에 수록할 논문·서평·논평·자료 소개 등의 투고심사 및 학술지의 발간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구) 재단은 학술지 발간 및 연구윤리 문제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에 있어서 편집 및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개정 2024. 2. 23.〉

제4조(발행인 및 권한 위임) 학술지를 대표하고 학술지 발간업무를 총괄하는 발행인은 재단 이사장으로 한다. 단, 재단 이사장은 동학농민혁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소장에게 편집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위촉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24. 2. 23.〉

제5조(발간일 및 분량) 학술지의 발간일 및 분량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지는 연 2회 발간하며, 발간일은 5월 31일과 11월 30일로 한다.
2. 학술지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3,30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저작권) 온라인 논문 제출 시 [별지 1]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위임동의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등의 저작권은 재단에서 소유한다. 저작권에는 디지털로의 복제, 배포, 전송권 등이 포함된다. 다만, 게재된 논문 등의 필자가 본인의 논문 등을 사용할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제7조(기타) 본 규칙에 따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운영

제8조(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 8인, 편집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2. 23.>

제9조(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의 위촉 및 권한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23.>

1.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위촉하거나 연구소장이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1.>
2. 편집위원장은 역사학 분야의 전문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이로 한다.
 - 가.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나. 대학의 전임교원 및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춘 자.
 - 다. 학자로서 명망과 인격을 두루 갖춘 자.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4.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편집 및 출판 활동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제10조(편집위원) 편집위원에 대한 위촉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23.〉

1. 편집위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연구조사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편집위원은 인문학 분야의 전문가로 하며, 소속 기관의 지역을 안배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4. 2. 23.〉
3.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이로 한다.
 - 가.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나. 대학의 전임교원 및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춘 자.
 - 다. 학자로서 명망과 인격을 두루 갖춘 자.

제11조(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3.〉

제12조(편집자문위원) 학술지 및 기타 발간물의 편집 및 출판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편집간사) 학술지의 편집 및 출판 활동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둔다.

1. 편집간사는 연구소 소속 연구직 직원으로 한다.
2.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업무와 활동을 보좌하며,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3. 편집간사는 학술지 발간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전문 개정 2024. 2. 23.]

제14조(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23.〉

1. 학술지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2. 논문의 심사 및 편집과 관련된 업무
3. 편집위원회 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활동 〈개정 2024. 2. 23.〉

제15조(편집간사의 임무) 〈삭제〉 〈개정 2024. 2. 23.〉

제16조(편집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개최) 학술지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회 회의를 운영한다.

1.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상의 편집위원이 발의하여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 회의는 서면, 온라인 등의 형식으로도 개최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편집위원 5인 이상의 참여로 성립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결석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지명받은 편집위원이 편집위원장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위임받아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이 학술지에 투고할 경우, 해당 호의 편집위원회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5. 편집위원회 회의는 온라인 회의를 포함하여 반기별로 1회(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24. 2. 23.]

제17조(편집회의의 권한) 〈삭제〉 〈개정 2024. 2. 23.〉

제18조(편집위원회 회의의 의결) 편집위원회 회의의 제반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 2. 23.〉

제3장 원고의 투고

제19조(투고 방법) 원고의 투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재단‘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https://1894.or.kr/paper/>)에 회원가입 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2. 투고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다.
3. 원고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발간 규칙」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온라인 투고 시 [별지 2] 「게재심사신청서」와 KCI 문헌 유사도 검사를 진행한 파일을 첨부해서 함께 제출한다. 유사도가 20% 이상일 경우 접수를 반려할 수 있다. 단, 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5. 투고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윤리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투고 시 [별지 3] 「연구윤리확약서」를 제출한다.
6. 투고 원고에는 필자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7. 학위 논문이나 학위 논문의 일부를 게재하는 경우, 학술대회 등을 통해 이미 발표한 원고를 게재하는 경우, 연구비 지원을 받은 경우 제목에 *표를 달고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예시) 이 논문은 ○○학위논문 ○○○○○을 보완한 것이다.
예시) 이 논문은 ○○학위논문 ○○○○○의 일부를 게재하는 것이다.
예시) 이 논문은 ○○○학술대회에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예시) 이 논문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집필된 것이다.
8.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원고에는 *표를 달고 투고자의 성명, 현재 소속 및 직위를 기재한다. 논문의 제목에 *표를 단 경우에는 **표로 구분한다.
9. 원고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게재를 희망하는 연구자는 발간 60일 이전(4월 1일, 10월 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 기한을 경과하여 투고한 경우 편집위원장이 본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 개정 2024. 2. 23.]

제20조(공동저자의 구분) 공동저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고논문이 단독 연구가 아닌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 공동저자를 역할에 따라 구분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가. 제1저자: 제1저자는 논문 첫 장의 필자 이름에 *표를 하여 구분하고 소속 기관과 직위를 명기한다.
- 나. 제2저자: 제2저자는 논문 첫 장의 필자 이름에 **표를 하여 구분하고 소속 기관과 직위를 명기한다.
- 다. 제3저자: 제3저자는 논문 첫 장의 필자 이름에 ***표를 하여 구분하고 소속 기관과 직위를 명기한다.
2. 이외 3인 이상의 공동 연구인 경우에는 상기의 규칙에 따라 ****표 등으로 순차에 따라 구분한다.

제21조(원고 분량) 원고 분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참고문헌을 제외한 전체 논문 분량은 200자 원고지 220매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2. 23.〉
2. 국문 초록과 영문 초록은 각각 250단어 내외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3. 21.〉

제22조(원고 작성 방식) 원고 작성 방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원고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가. 한자나 외국어 표기가 필요한 경우 괄호 속에 병기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3.〉
 - 나. 인용문은 한국어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문의 제시가 필요한 경우 한문이나 외국어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다. 모든 종류의 인용문은 그 출처를 밝히고 쪽수까지 제시해야 한다. 재인용의 경우 원전과 인용서를 최대한 밝혀야 한다.
 - 라. 중국 인명의 경우, 1911년 신해혁명 이전의 인물은 한자의 한국어 발음으로, 그 이후의 인물은 중국어 발음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원고는 한글 워드프로세서(HWP)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논문의 본문 중에 인용하는 저자 이름 뒤에 붙이는 존칭(예: 선생, 교수, 박사 등)은 일체 생략한다.

4. 형식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개정 2024. 2. 23.>
 - 가. 편집용지: A4용지(세로배열), 위여백(20.0mm / 15.0mm), 아래여백(15.0mm / 15.0mm), 좌우여백(30.0mm / 30.0mm), 제본(0.0mm)
 - 나. 문단모양: 좌우여백(0.0mm), 위아래여백(0.0mm), 양쪽정렬, 줄간격(160%)
 - 다. 글자모양: 제목(바탕체 20Pt, 장평 95%, 자간 0%) / 본문(바탕체 10Pt, 장평 95%, 자간 0%)
5. 나머지 원고 작성 방법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발간 규칙」의 관례에 따른다.

제23조(논문의 체제) 논문의 체제는 다음의 각 호를 따른다.

1. 논문의 구성은 국문 초록-본문-참고문헌-영문 초록으로 한다.
2. 목차
 - 가. 장은 I. II. III., 절은 1. 2. 3., 항은 1) 2) 3)으로 기재한다.
 - 나. ‘서론’, ‘결론’ 등의 명칭은 ‘머리말’, ‘맺음말’로 통일한다.
 - 다. 머리말과 맺음말에는 번호나 로마자 등을 기재하지 않는다.
3. 표와 그림
 - 가. 표는 표의 위에 번호와 제목, 단위를 달고, 표 아래에 전거를 밝힌다.
예시) <표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지역별 분포(단위: 명)
 - 나. 사진은 사진의 아래에 번호와 제목을 달고, 출처를 밝힌다.
예시) <사진 1> 의안(議案),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진 제공
4. 각주
 - 가. 인용문의 전거는 각주에서 밝힌다.
 - 나. 전자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전자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과 자료명칭 등을 기재하고, URL과 접속일자를 표기한다.
예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壬戌」, 『梧下記聞』, 동학농민혁명 사료 아카이브(http://www.e-donghak.or.kr/archive/?menu=132&mode=view&code=prd_0001_001_002), 2023. 5. 11.
 - 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제24조(각주의 표기)’를 참조한다.

5. 주제어·참고문헌·초록 〈개정 2024. 2. 23.〉

- 가. 국문초록의 말미에는 한글 주제어 5개 내외를 기재한다. 영문초록의 말미에는 영문 주제어(Keywords) 5개 내외를 기재한다.
- 나. 참고문헌은 ‘저자명, 출판연도, 논문명, 책명 또는 잡지명, 출판지역, 출판사명’ 순으로 기재한다.
- 다. 참고문헌 목록 다음에 영문 초록을 첨부한다. 한국어 로마자 표기법은 국립국어원 제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규칙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라. 참고문헌과 초록의 분량은 전체 원고 분량에 포함된다.

제24조(각주의 표기) 각주의 표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한다.

1. 출전 표기 순서

- 가. 논문 및 저서의 출전은 ‘저자명, 출판연도, 논문명, 책명 또는 잡지명 (권수, 호수), 출판지역, 출판사명, 인용면수’의 순서로 기재한다.
- 나. 단, 출판지역이 국내인 경우 생략 가능하다.
예시) 홍길동, 2023,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대하여』, 『동학농민혁명 연구』 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50쪽.
- 다. 전자 자료의 경우, ‘저작권자, 「자료명」, 웹사이트명(인터넷주소), 자료의 최종 확인 날짜’ 순서로 기재한다.

2. 저자

- 가. 인용 서적이 편서일 경우 편자의 이름 뒤에 ‘편’, 구미어 편서의 경우 ‘ed.(편자가 복수인 경우 eds.)’를 표기한다.
- 나.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 이름 등 원서의 서지사항을 표기한 뒤 괄호를 한 후 역자명 등 번역서의 서지사항을 표기한다.

3. 출판연도

- 가. 저자명 다음에 표기하고, 초판이 아닌 경우에는 연도 다음에 ‘판’자를 더하거나 책명 뒤에 괄호로 ‘개정판’임을 명시한다.
- 나. 출판연도가 2년 이상인 경우는 연도 사이에 가운데 점(·)을 표기한다.
예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1·2022·2023, 『동학농민혁명 연구』(상)·(중)·(하), 출판사.

4. 논문명, 책명, 잡지명

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논문명은 원어를 사용하여 작은 겹낫표(「」)로 묶고, 책명·잡지명은 큰 겹낫표(『』)로 묶는다.

나. 구미어로 된 논문명은 “ ”로 묶고, 책명·잡지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시) Akira Iriye, 1981, “Review”, *American Historical Review* 86-1, February, pp.191~193. Martina Deuchler, 1992,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pp.1~5.

다. 논문이나 책의 부제는 ‘ - ’ 사이에 표기한다.

예시) 저자명, 1894, 「논문명 - 부제 - 」, 『책명 - 부제 - 』, 출판사, 인용면수. 단, 구미 논저의 부제는 콜론(:)으로 표기한다.

라. 책의 편자나 공저자를 명시할 경우, 책명 뒤에 괄호로 묶는다.

예시) 저자명, 1894, 「논문명」, 『책명』(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편), 출판사명, 인용면수.

마. 인용 한문원전의 권수를 표기할 경우, 권수 뒤에 십표를 찍는다.

예시) 『仁祖實錄』 권18, 인조 6년 1월 3일 을축.

바. 잡지나 저서의 권수, 호수, 집수, 통권수 등은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한다.

예시) 3집, 3호, 통권3 등 → 3

12권의 2호 → 12-2

5. 출판지역 및 출판사

가. 출판지역 및 출판사의 표기는 책명 뒤에 십표를 하고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단, 출판지역이 국내인 경우 생략 가능)

예시) 『한국사입문』, 한국문화사.

『朝鮮史入門』, 東京: 日本書店.

나. 고서(고문서)의 영인 출판사 및 연도, 소장처 및 도서번호 등은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시) 李昆洙, 『壽齋遺稿』 「書啓」(소장처, 도서번호).

『三國遺事』 高麗大 晩松文庫本(영인 출판사, 연도)

6. 인용면수

가. 면수 뒤에 ‘쪽’을 붙인다.

나. 여러 면이 계속 인용된 경우, 시작 면수와 끝 면수 사이에 물결표(~)를 표기한다.

다. 서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면이 인용된 경우, 면수 사이에 쉼표를 하고 끝에 ‘쪽’을 붙인다.

예시) 3쪽, 15~18쪽.

라. 한문 고서의 앞·뒷면은 ‘앞면’과 ‘뒷면’으로 표시한다.

마. 구미 논저의 면수 앞에는 ‘p.’ 또는 ‘pp.’를 붙인다.

7. 반복 인용 〈개정 2024. 2. 23.〉

가. 앞에서 인용했던 문헌은 반복을 피하여 바로 위의 것은 ‘위의 책’, ‘위의 논문’으로, 바로 위가 아닌 더 앞에서 인용한 것은 저자명과 연도를 표시한 뒤에 ‘앞의 책’, ‘앞의 논문’ 등으로 표기한다.

나. 구미 논저가 반복 인용된 경우는 *ibid.* 또는 *op. cit.* 등으로 표기한다.

8. 재수록 〈개정 2024. 2. 00.〉

가. 동일 연구자의 다른 논문이나 책을 열거할 경우, 콜론(:)으로 연결한다.

예시) 저자명, 1894, 「논문명」, 『책명(잡지명)』: 1989, 『책명』, 출판사, 면수.

나. 이후 다른 연구자의 다른 논문이나 책을 열거할 경우, 세미콜론(;))으로 연결한다.

예시) A 저자명, 1894, 「논문명」, 『책명(잡지명)』; B 저자명, 1989, 『책명』, 출판사, 면수.

9. 사료 원문 인용

가. 사료 원문을 직접 인용할 경우, “ ”로 묶는다.

예시) 『續大典』, 刑典, 禁制. “咸鏡道富寧以北 商賈入居者 以制書有違律論 勿論犯禁與否 竝禁斷 而興販之物 沒官”

10. 기타

가. 각주가 문장형(~이다, ~한다, ~하라 등)으로 끝날 경우, 마침표를 찍는다.

나. 괄호 안에 또 괄호를 중복 표기할 경우, 바깥 괄호는 중괄호([])로 표기한다.

예시) ~라고 이해한다.[저자명, 1894, 「논문명」, 『책명』(한국사연구회 편), 면수]

제4장 원고의 심사

제25조(심사 의뢰 결정과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고,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1회 이상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가 투고했을 경우 심사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2. 해당 분야 전문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며, 심사위원은 본 재단의 운영위원 여부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3. 투고자와 동일소속기관 연구자는 심사에서 배제한다. <개정 2024. 2. 23.>
4. 재단의 직원 및 편집위원회의 위원이 투고할 경우 재단의 직원 및 편집위원회의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배제하며, 심사는 모두 외부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진행한다.
5. 심사 종료 후 지급되는 심사비는 [별지4] 논문심사비 지급기준을 따른다.
6. 심사위원은 일반심사논문의 경우 심사의뢰일로부터 2주 이내, 긴급심사논문의 경우 1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별도의 통보 없이 심사 결과 회신이 제출시한을 경과할 경우 다른 심사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

제26조(익명성과 비밀 유지 조건) 심사용 원고는 반드시 익명으로 하며, 심사 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장 책임하에 대외비로 하여야 한다.

제27조(심사단계) 학술지의 심사단계는 예비심사와 본심사, 보완심사로 나눈다.

1. 예비심사는 학술지에 제출된 글들의 분야,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을 따

- 저 본심사 회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2. 본심사는 예비심사를 통과한 글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내용의 학문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평가한다.
 3. 본심사 결과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보완심사를 진행한다.
 4. 재단의 요청으로 집필된 기획 논문 및 비평 논문, 서평, 연구 동향, 자료 소개, 역주 등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심사 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심사 내용 및 방식) [별지5] 논문심사서에는 심의·검토의견과 종합적 평가 내용을 기재하는 난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위원은 자료활용의 타당성, 논문 작성의 성실성, 논지의 정확성, 연구의 독창성, 학계의 기여도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평가한다. 각 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 가. 자료활용의 타당성: 20점
 - 나. 논문 작성의 성실성: 20점
 - 다. 논지의 정확성: 20점
 - 라. 연구의 독창성: 20점
 - 마. 학계의 기여도: 20점
2. 항목별 평가를 감안하여 게재(A: 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B: 80점 이상), 수정 후 재심사(C: 70점 이상), 게재 불가(D: 70점 미만)의 4등급으로 평가한다.
3. 수정 후 재심사(C) 혹은 게재 불가(D)로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4. 평가 의견은 투고자에게 공개한다.

제29조(심사판정)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판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A,A,A)(A,A,B)(A,A,C) - 게재 가능(본호)
 - 나. (A,B,B)(A,B,C)(B,B,B)(B,B,C) - 수정 후 게재(본호)

다. (A,A,D)(A,B,D)(A,C,C)(A,C,D)(B,B,D)(B,C,C)(B,C,D)(C,C,C)(C,C,D)
- 수정 후 재심사(차호 이후)

라. (A,D,D)(B,D,D)(C,D,D)(D,D,D) - 게재 불가

2. (A,A,D), (A,B,D), (B,B,D)의 경우 투고자가 반론서를 제출하면,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호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과정과 결과는 기록으로 남긴다.
3. 수정 후 재심사(차호 이후) 판정을 받은 필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수정 후 차호 재심사 의사를 편집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재심사 의사를 전달하지 않을 경우, 차호 재심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논문의 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심사를 통과한 논문 편수가 편집중인 학술지 수록 분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우선 주제가 해당호의 편집 기획에 부합하는 것을 선정하고, 다음으로 심사성적을 기초로 순위를 정한다. 종합평가가 동점일 경우 투고한 일시의 순서로 정한다.
5. 표절 등과 같은 중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논문 심사 과정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윤리위원회의 처리 결과에 따른다.

제30조(수정된 원고의 송부) 투고자는 논문심사서를 확인한 후 소정 기일 내에 원고를 수정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3.>

제5장 원고의 게재

제31조(게재 여부 결정) 게재 여부 결정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학술지 게재 논문 심사 판정 기준에 의하여 판정한다.
2.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경우 투고자는 수정 원고와 함께 [별지6] '동학농민혁명 연구 원고 수정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에서는 수정사항 반영 여부를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3. '수정 후 재심사'판정 후 5개월 내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게재불가로 간주하며, 편집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4. 재심사의 횟수는 총 1회로 제한하며, 재심사 절차와 그 결과에 따른 논문 게재 여부 판정은 본 규칙 제3장 및 제4장을 준용한다. 재심사 결과가 '수정 후 재심사'일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5. 최종 결과 '게재 불가'판정을 받은 논문은 충분한 수정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1년간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심사결과 반영) 심사결과에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심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투고자는 이를 수정 원고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3.>

제33조(이의 신청) 논문 심사와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1. 투고자는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200자 원고지 3매 내외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3.>
2. 이의 신청을 한 투고자의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신청의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수락한 이의 신청에 대한 조치 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이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락 여부 및 조치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게재 증명) 투고자는 투고 원고의 게재 여부가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별지 7] 「논문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 2. 23.>

부칙 〈2023. 9.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제정 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칙에 의해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4.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위임동의서

논문제목

- 국문:
- 영문:

저자는 본 논문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게재되기를 희망하며 아래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1. 저자는 본 논문이 창의적이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저자는 본 논문이 귀 학술지에 게재된 후 표절로 판명되거나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확인된 경우 귀 학술지의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3. 저자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다합니다.
4.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5. 본 발간물의 발행인은 저자 혹은 본 발간물 발행인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6. 저자는 본 논문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행사(복사·전송권 포함) 등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저 자 (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귀중

[별지 2] <개정 2024. 2. 23.> (제19조 제4호 관련)

게재심사신청서

이름	(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우편물 수취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논문 제목	(한글)		
	(영문)		
	심사 희망 전공 분야		
연구비 지원 논문	연구비 지원기관		
	지원연도/과제명		
본인(기관)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발간하는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논문을 게재하기 위하여 심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일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 논문’ 항목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3] <개정 2024. 2. 23.> (제19조 제5호 관련)

연구윤리 협약서

(대표) 필자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소 속			직위
연락처	전화		이메일
논문 제목	(한글)		
	(영문)		

위 (대표) 필자는 본 논문을 투고함에 있어 표절, 중복게재, 위조, 변조 등
연구윤리에 저촉되거나 위반한 사항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 필자 성명 : (인)

[별지 4] (제25조 제5호 관련)

논문심사비 지급기준

구분	금액	비고
일반논문심사	50,000원	1건의 논문 심사를 기준으로 하여 1인의 심사위원에 지급함
긴급논문심사	70,000원	1건의 논문 심사를 기준으로 하여 1인의 심사위원에 지급함

[별지 5] (제28조 관련)

논문심사서

심사위원	성명	㉠	소속, 직위	
	계좌번호			
논문제목				
게재예정지	『동학농민혁명 연구』 00호	년	월	일 발간
심의사항	심의 · 검토의견			점 수
자료활용의 타당성				
논문 작성의 성실성				
논지의 정확성				
연구의 독창성				
학계의 기여도				
종합의견				종합평가
				(점)

※ 가. 점수: 각 항목당 20점을 배점하며, 총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에 반영합니다.

나. 종합평가: A. 게재(90점 이상), B. 수정 후 게재(80점 이상), C. 수정 후 재심사(70점 이상), D. 게재 불가(70점 미만)입니다.

※※ 종합 의견 외에 추가되는 평가는 별지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별지 6] (제31조 제2호 관련)

『동학농민혁명 연구』 투고 원고 수정사항

이름		소속	
논문 제목			

심사 사항	수정 위치	수정 내용

※ 작성 요령

- ‘심사사항’란에는 보내드린 종합심사의견의 내용을 정리해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수정 본문 란에는 본문 내용을 넣으시는 것이 가장 좋으나, 어느 페이지 몇 번째 줄인지만 밝히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 저자께서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심사사항과 그에 해당하는 위치, 수정하지 않는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의 서식에 따라 작성이 곤란할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의 별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별 지

논문 게재(예정)증명서

1. 저자

저자 구분	이름	소속	직위	비고
제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2. 논문 제목 및 게재 학술지

논문 제목	
게재 학술지	

위와 같이 논문을 게재함(게재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윤리 규칙

제정 2023. 9. 26.

개정 2024. 2. 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에서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이하‘학술지’라 한다)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및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23.>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재단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투고 또는 게재된 논문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학술·연구행위에 적용된다.

제3조(연구윤리의 기본 원칙) 연구윤리의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 전반에서 정직해야 한다.
2.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3.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는다.
4. 연구자는 직접 수행한 연구논문을 투고하여야 한다.
5. 연구자는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

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연구실적을 존중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6. 연구자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 등 논문표절방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8. 연구자는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논문 게재 시 자신의 소속 및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힐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재단에서는 다음의 정보를 연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가. 투고자의 소속 기관 또는 학위 수여 기관
 - 나. 투고자의 소속 기관 내 직위 또는 소속 학교에서의 학적 상태
9. 연구자는 제4조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재단에 알려야 한다.
10. 연구자는 연구윤리 규칙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별지 1] 연구윤리 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존재하지 않는 사료 또는 가공의 데이터를 토대로 연구 성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사료 및 각종 데이터를 연구자가 임의로 변형, 조작,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이용하는 행위.
4. 이미 다른 학술지나 저서에 실린 연구자 본인의 기존 논문을 그대로 혹은 일부 내용을 적절한 인용표시 없이 수정·편집하여 다시 투고하는 행위. 단, 학위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함.
5.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상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역사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8. 기타 윤리위원회의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제2장 윤리위원회

제5조(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조사위원의 구성)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연구 윤리 및 진실성에 대한 제반 사항 및 제4조의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조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윤리위원회를 임의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위원 4인, 간사 1인으로 한다.
2.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발간 규칙」 제2장 제9조에 따른 편집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위원은 연구소 운영위원·편집위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간사는 편집간사를 당연직으로 한다.
3.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심의, 조사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는 해당 분야에 대해 학술적 전문성을 지닌 조사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다.
4. 윤리위원회는 조사위원의 구체적인 신원을 비밀로 할 수 있다.

제6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 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및 조사, 판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제소자 보호 및 피제소자의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7조(윤리위원회 회의) 윤리위원회의 회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조사위원들의 서면 보고서를 토대로 심의하여 결과를 판정한다.

3. 판정 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윤리위원 가운데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6.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며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보조한다. 단 회의에서 의결권을 갖지는 않는다.

제8조(심의기간) 심의는 제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심의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제9조(제소자 및 피제소자의 권리 보호) 제소자 및 피제소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한다.

1. 제소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으며, 윤리위원회와 조사위원은 제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윤리위원회에서 신원노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제소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피제소자가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윤리위원회는 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이의제기 및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이의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윤리위원회는 제소자와 피제소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2. 윤리위원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제소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소내용
2. 조사 대상 연구 및 부정행위 관련 의혹의 내용
3. 심사 절차 및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4.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언
5. 조사 결과에 따른 제소자와 피제소자의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제12조(판정 및 징계) 윤리위원회의 판정 및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판정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소자와 피제소자에게 통보한다.
2. 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윤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판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고하고,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가. 학술지 게재 취소 및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학술지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조치
 - 나. 부정행위로 판정된 이후 5년간 학술지에 논문 투고 금지
 - 다. 부정행위로 판정된 이후 홈페이지 및 최초 발간되는 학술지에 판정 내용 공시
 - 라. 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판정 내용 통보
 - 마.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연구윤리 규칙 위반에 대한 세부 사항 통보

제13조(재심의) 제소자 또는 피제소자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불복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 절차는 1심 절차에 준한다.

제14조(조사 기록의 보존과 정보 공개) 윤리위원회와 관련된 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 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2023. 9.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제정 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칙에 의해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정) 연구윤리 규칙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칙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연구자는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칙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예외사항)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2024.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제3조 10호 관련)

연구윤리 협약서

(대표) 필자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연락처	전화		이메일		
논문 제목	(한글)				
	(영문)				
위 (대표) 필자는 본 논문을 투고함에 있어 표절, 중복게재, 위조, 변조 등 연구윤리에 저촉되거나 위반한 사항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 필자 성명 : (인)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수록 자료 목록

▶ 1권(2006)

취어(聚語), 양호초토등록(兩湖招討謄錄), 양호전기(兩湖電記), 선봉진일기(先鋒陣日記),
순무사정보첩(巡撫使呈報牒)

▶ 2권(2006)

순무선봉진등록(巡撫先鋒陣謄錄)

▶ 3권(2007)

수록(隨錄), 동비토록(東匪討錄), 김기술 문서(金箕述 文書), 박봉양경력서(朴鳳陽經歷書),
갑오척사록(甲午斥邪錄), 동요일기(東擾日記), 토비대략(討匪大略), 소모일기(召募日記)

▶ 4권(2007)

금번집략(錦藩集略), 홍양기사(洪陽紀事), 남유수록(南游隨錄), 피난록(避亂錄), 동비토론(東匪討論),
임영토비소록(臨瀛討匪小錄), 황해도동학당정토약기(黃海道東學黨征討略記), 갑오해영비요전말(甲午海營匪擾顛末)

▶ 5권(2008)

영상일기(嶺上日記), 석남역사(石南歷事), 임하유고(林下遺稿), 갑오사기(甲午事記), 갑오약력(甲午略歷),
겸산유고(謙山遺稿), 동도문변(東徒問辨), 김낙철역사(金洛喆歷史), 김낙봉이력(金洛鳳履歷),
염기(廉記), 강재유고(剛齋遺稿), 난파유고(蘭坡遺稿), 연파집(蓮坡集), 오남집(吾南集),
사복재집(思復齋集), 복재집(復齋集), 송사집(松沙集), 면앙집(勉菴集), 육유재유고(六有齋遺稿),
담원문록(蔭園文錄), 호산집(壺山集), 영회당사집(永懷堂史輯), 영회기(永懷記), 한달문 옥중서신(韓達文 獄中書信),
거의록(學義錄), 취의록(聚義錄), 김상철이력행장(金相轍履歷行狀), 봉남일기(鳳南日記)

▶ 6권(2008)

시문기(時聞記), 약사(若史), 경란록(經亂錄), 갑오동란록(甲午東亂錄), 갑오기사(甲午記事), 의산유고(義山遺稿), 복암사집(復菴私集), 금산의병순의비(錦山義兵殉義碑), 흥성금석문(洪城金石文), 갑오일기(甲午日記), 정운경가 동학고문서(鄭雲慶家東學古文書), 세장년록(歲藏年錄), 나암수록(羅巖隨錄), 시경록(時經錄), 기문록(記聞錄), 농산집(農山集), 유하집(柳下集), 백곡지(柏谷誌)

▶ 7권(2010)

양호우선봉일기(兩湖右先鋒日記), 장계(狀啓), 계초존안(啓草存案), 찰이전존안(札移電存案), 금영래찰(錦營來札), 순천부포착동도성명성책(順天府捕捉東徒姓名成冊), 광양현포착동도성명성책(光陽縣捕捉東徒姓名成冊), 광양섬계역포착동도성명성책(光陽蟾溪驛捕捉東徒姓名成冊), 전라도각읍소획동도수효급소착증물명목성책(全羅道各邑所獲東徒數文及所捉什物并錄成冊), 전라도각읍소획동도수효급장령성명명목성책(全羅道各邑所獲東徒數文及將領姓名並錄成冊)

▶ 8권(2010)

선봉진정보첩(先鋒陣呈報牒), 선봉진서목(先鋒陣書目), 선봉진각읍료발관급감결(先鋒陣各邑了發關及甘結), 선봉진상순무사서(부잡기[先鋒陣上巡撫使書(附雜記)], 이규태왕복서병묘지명(李圭泰往復書並墓誌銘), 순무사각진전령(巡撫使各陣傳令), 선봉진전령각진(先鋒陣傳令各陣)

▶ 9권(2011)

갑오실기(甲午實記), 소모사실(召募事實), 교남수록(嶠南隨錄), 경상도소모영전곡입하실수성책(慶尙道召募營錢穀入下實數成冊), 효유문(曉諭文), 전주부전전라도각읍상납중비류소탈전목미태구별성책(全州府前全羅道各邑上納中匪類所奪錢米太區別成冊), 전라도각읍매사읍작통규도관사조약별록성책(全羅道各邑每四邑作統規模關辭條約別錄成冊), 도인경과내력등 문건(道人經過來歷等 文件), 공산초비기(公山剿匪記), 모충사 전망장졸씨명록(慕忠祠 戰亡將卒氏名錄), 호연초토영각읍절의열행인성명성책(湖沿招討營各邑節義烈行人姓名成冊), 남정일기(南征日記), 사정일기(沙亭日記)

▶ 10권(2012)

면양행견일기(沔陽行遣日記), 김약제일기(金若濟日記), 백석서독(白石書牘), 노정약기(路程略記), 선유방문병동도상서소지등서(宣諭榜文並東徒上書所志謄書)

▶ 11권(2013)

동학도종역사(東學道宗釋史), 시천교종역사(侍天敎宗釋史), 본교역사(本敎歷史)

▶ 12권(2014)

전봉준공초(全琫準供草), 중범공초(重犯供草), 이병휘공초(李秉輝供草), 이준용공초(李峻鎔供草), 동학관련판결선고서(東學關聯判決宣告書), 일본사관함등(日本士官函臈), 곡성군수보장(谷城郡守報狀), 동학당정토인록(東學黨征討人錄), 갑오군공록(甲午軍功錄), 동학당정토약기(東學黨征討略記), 각진장졸성책(各陣將卒成冊), 나주명록(羅州名錄)

▶ 13권(2015)

대선생주문집(大先生主文集), 대선생사적(大先生事蹟), 갑오동학란(甲午東學亂), 천도교서(天道敎書)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수록 자료 목록

▶ 1권(2015)

종리원사 부 동학사(宗理院史附東學史), 순교약력(殉教略曆), 고흥군 교구역사(高興郡敎區歷史), 균암장 임동호씨 약력(均菴丈林東豪氏略曆), 이종훈 약력(李鐘勳略曆)

▶ 2권(2015)

김산소모사실(召募事實), 창계실기(蒼溪實記)

▶ 3권(2015)

학초전(鶴樵傳) 1

▶ 4권(2015)

학초전(鶴樵傳) 2

▶ 5권(2015)

미나미고시로문서(南小四郎文書)

▶ 6권(2016)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 1 ~ 3

▶ 7권(2016)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 4 ~ 6

▶ 8권(2016)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 7 ~ 10

▶ 9권(2017)

동정일기(東征日記), 이홍장전집(李鴻章全集), 청계중일한관계사료(淸溪中日韓關係史料)

▶ 10권(2018)

별계(別啓), 사법품보(司法稟報)

▶ 11권(2019)

동학농민군 편지(동학농민군 유광화 편지, 동학농민군 한달문 편지), 동학농민혁명 관련 고문서(김진휘 등이 보낸 통문, 이병림 등이 작성한 품목, 민영주가 작성한 간찰, 고종이 양호 초토사 홍계훈에게 내린 유서, 수령이 풍헌 등에게 보낸 전령, 완영에서 작성한 전라도 고부민란 시초, 도약장소에서 사사로이 보낸 통문, 민준호가 작성한 간찰, 유학 김영택을 별감으로 임명하는 첩, 유학 김성택을 집강으로 임명하는 첩, 북하면장 홍순철이 작성한 보고, 북하면 도면정 성하동이 작성한 보고, 예산 북하면장 홍순철이 작성한 보고, 순포중군이 집사에게 보낸 전령, 도통장이 작성한 통문, 나주 목사가 발급한 완문, 나주 목사가 홍우전에게 발급한 물침첩, 전라도 관찰사하 한학모에게 발급한 표, 남평 현감이 이정돈에게 발급해 준 물침표, 호남 초토사 민종렬이 작성한 서목, 서산 유희장이 작성한 통문, 해미 염술면 이석노 등이 작성한 단자, 의정부가 나주 목사에게 보낸 관, 어천면 주인에게 보낸 전령, 구본협 등이 작성한 상서, 수곡리에 거주하는 대소 민인이 작성한 등장, 어상천 면장 등이 작성한 완문, 조호승 등이 작성한 등장, 백기효를 장흥 도방수장으로 차정한 문서 등, 방수장 박모가 작성한 서목, 북삼면 상유사 황도 등이 작성한 첩정, 이서면의 풍헌이 도호부사에게 보낸 첩정, 외귀방의 풍헌이 도호부사에게 보낸 첩정, 강계 도호부사가 작성한 서목, 이재희가 작성한 원정, 고산방의 풍헌이 도호부사에게 보낸 첩정, 이도재가 순천 조 석사에게 보낸 간찰, 호남 초토사 민종렬이 작성한 등오면 의거소 죄목,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서, 담양 사인 구상순이 작성한 통문), 춘당록(春塘錄)

▶ 12권(2020)

1894년 동학농민혁명 기록문서(현감 하첩 5점, 소모관 전령, 1895년 초토사 첩정, 1895년 호남 초토사 서목, 순찰사 효유문, 능주 오면재 문서, 오통절목, 방화적 절목, 의관령 방화적 조목, 화북면 첩정, 각 동 입규 조목, 화북면 품목, 입규 조목, 조약 절목, 화북면 집강 명단, 유희성책, 황해도 강령현민 등장, 영천 안핵계초, 도소 사통, 동학소 입전기, 간찰 6점)

▶ 13권(2021)

〈동학농민혁명 기록문집〉

겸산집, 고당집, 고현유고, 급산집, 당천집, 돈현유고, 동와유고, 방려문집, 병암집, 사남유고, 송재집, 심석재집, 우인당유고, 율은집, 지암집, 청사유고, 취묵현유고

▶ 14권(2022)

〈일본 사료〉

동학당의 상황, 폭민 동학당, 메이지 27년 일청교전 종군일지

▶ 15권(2023)

〈일본 사료〉

갑오조선내란시말, 천우협, 남정여록, 동학당시찰일기, 일청교전록, 일청전쟁실기

▶ 16권(2024)

〈일본 사료〉

비서류찬 조선교섭자료, 일청전쟁 기간의 제국 주차부대의 행동, 내란실기 조선 사건, 조선폭동실기, 동아선각지사기전

동학농민혁명 연구 제4호

인 쇄 _2025년 5월 26일

발 행 _2025년 5월 31일

발행인 _신순철

발행처 _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전화_063-530-9432 / 팩스_063-538-2893

편집인쇄 _(주)학술교육원(earticle.net)

인천시 부평구 영성중로 50, 701호

전화_0505-555-0740 / 팩스_0505-555-0741

pISSN 3022-2435 / eISSN 3022-3873

비매품

본 학술지의 판권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
자의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Journal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Vol. 4, May 2025

Articles

World Documentary Heritage and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Namwon
– Focusing on the Martyrdom Records and Namwon Jongriwonsa Temple –
Kim, Yang–Sik

Cheondogyo in Namwon Area Based on Kim Dong-gyu's Donated Relics
Sung, Joohyun

Activities of Donghak Peasant Army in Uiheung, Gyeongsang Do
Shin, Jin–Hui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東學農民革命) through the Eyes of Jaun (紫雲)
Lee Jung-gu (李中久)
– Focusing on the Historical Manuscripts in Five Generations of the Lee Jung-gu
Family Historical Manuscripts (李中久家五代古文書) –
Kim, Hyun–Sun

Verification of 2nd Site of Uprising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Its
Designation as a Cultural Heritage
Lee, Byeonggyu

A Strategic Approach to th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Site in Mt. Daedun, Wanju
Hong, Seongduk